

# 공군

1964年 4月 20日 印刷  
1964年 4月 25日 發行

2

第 83 號



1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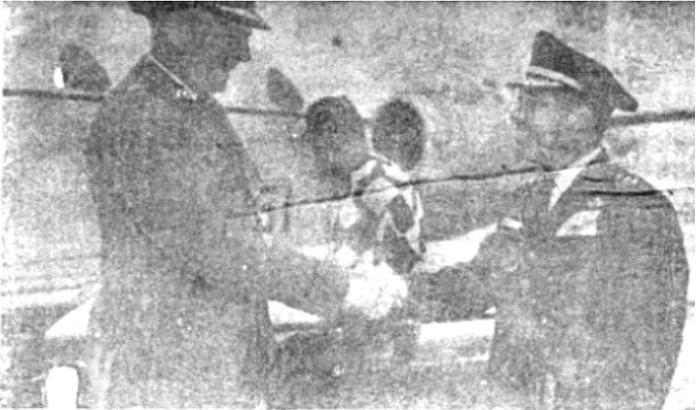


**공사 개교 열다섯 돌맞이**

공군사관학교에서는 3월 15일 개교 1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돌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날 동교에 많은 준재를 보내준 각 고등학교에 감사장 수여도 있었다.

**공군내무반장들 육군부대 견학**

공군의 전 부대 내무반장 일행이 3월 26일, 27일 이틀간 최전방 육군부대를 견학하였다.



**태평양영구기미대장평화기념탑기  
장기**

태평양영구기미대장평화기념탑기장은 3월 20일 김해대영양차 내항하여 장(張) 참모대령장의 평전기에 봉헌된다.

**자유중국공군총사령서(徐)대장내한  
자유중국공군총사령서환성(徐煥昇)대  
장이 3월 30일 장(張)참모대령의 초청  
이로 내한하였다.**



**영(張)기미대장평화기념탑기(수납)  
장(張)참모대령**

영(張)기미대장평화기념탑기(수납)장(張)참모대령이 4월 10일 대영양차 내항하여 장(張)참모대령의 평전기에 봉헌된다.



**공군 제83호 차례**

표지 · 목차컷 . . . . . 민철홍  
 사진화보 . . . . . 표지2, 3면 및 차례 뒷면

**<이 호의 말> 절제하는 마음 . . . . . 조풍연(趙豊衍) 2**

미국의 극동정책은 이렇다 . . . . . 엄기형(嚴基衡) 27  
 나 하나의 의미 . . . . . 김영주(金永洲) 21

**상관론 . . . . . 임동선(林東善) 8**  
**부하론 . . . . . 허경삼(許慶彰) 14**

내가 사랑하는 부하 . . . . . 11, 12  
 내가 존경하는 상관 . . . . . 17, 19

**<특집> 마음의 혁신 · 생활의 혁신**

경제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 . . . . 유덕천(柳德天) 33  
 생활양식의 개선과 가계의 합리화 . . . . . 원선희 37  
 허례허식과 가계의 파탄 . . . . . 이녕희(李寧熙) 43  
 소위 기분(氣分)이라는 소비벽 . . . . . 임방현(林芳鉉) 47

**그 사람** 생활화된 절제관념 <독일편> . . . . . 송기철(宋基徹) 57  
**들의** 동고동락의 미풍 <영국편> . . . . . 김진만(金鎭萬) 59  
**생활 주변** 땅을 사랑하는 부지런 <덴마크편> . . . . . 정성열(鄭聖烈) 62

**<양케이트> 공군장병의 용동해부 . . . . . 편집실 162**

나의 사생활처방 . . . . . 35, 39, 45, 49

**<특집> 이세(二世)를 위한 장**

환경과 어린이 . . . . . 김영옥(金英玉) 93  
 어린이 독서 . . . . . 윤석중(尹石重) 97

어린이 건강 . . . . . 김석진(金碩鎭) 103  
 어린이의 스포츠 . . . . . 김종덕 106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 . . . . . 조남식(趙南植)역 78  
 소련의 핵전략을 해부한다(상) . . . . . 백봉(白峯)역 87

**민주주의 원리<제9회> . . . . . 이극찬(李克燦) 65**  
**공산주의 비판<제9회> . . . . . 김창순(金昌順) 72**

계획수립 및 평가제도 . . . . . 나진수(那鎭洙) 111  
 펄스넬러티 형성이론 . . . . . 손용기(孫龍基) 122  
 합동참모회의 소개 . . . . . 홍종운(洪鐘雲) 130  
 과장이라는 이름의 존재 . . . . . 주동석(朱東石) 51  
 구대장의 변 . . . . . 김성규(金成圭) 138

**실** 고난의 935일 . . . . . 이훈구 역 142  
**중** 흔들리는 김일성의 기반 . . . . . 문혁(文赫) 151  
 북한의 가정생활은 이렇다 . . . . . 나운상(羅雲尙) 156

**수** 화술(話術) . . . . . 전영우(全英雨) 170  
**필** 어느날 無題의 詩 . . . . . 김송희(金松姬) 172  
 취미산담(趣味散談) . . . . . 김영실(金永實) 175  
 승패의 조건 . . . . . 김병노(金秉老) 176  
 산(山) . . . . . 이상우(李相禹) 178

**<연재>**  
 익명(匿名)<제7회> . . . . .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180  
 제3제국의 흥망, 종말의 서곡<완> . . . . . 샤이어 186

후기(後記) . . . . . 191



**본부참모들 식목일에 기념식수**

장(張)참모총장을 비롯한 본부참모들이 식목일을 맞아 본부주변에 기념식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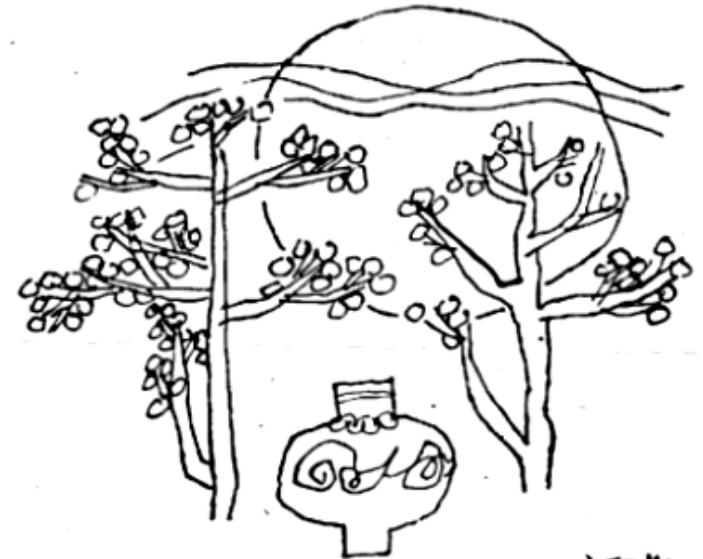
**공사기지교회 신축기공**

공군사관학교 기지교회 신축기공식이 3월 14일 박(朴)참모차장 참석하여 거행되었다.



공 군

제 83 호



1964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검편집인 · 공군대령 김영호  
 인쇄처 · 공군교재창  
 인쇄인 · 공군대령 백춘득

### 절제하는 마음

- 슬기로운 생활의 참뜻 -



조봉연(趙豐衍)  
〈소년한국일보 주간〉

#### 절제란 용이하지 않다.

절제의 반대어를 구태여 찾자면 낭비라 하겠다. 낭비하는 사람더러 절제하라고 타이르는 것은 용이하지만, 검소한 사람더러 절제하라는 것은 난처한 일이다. 세끼의 밥을 두끼로, 한달에 두 번하던 이발은 한번만…… 이런 식의 전제는 오히려 해를 가져올지언정 이(利)로울 점이 도무지 없다. 그리하여 죠즈음은 내핍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

내핍이란 글자의 뜻은 '가난한 것을 참고 견디다'라는 것이다. 영국의 시드니 스미드 목사가 말하듯이 "가난한 것은 수치로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몹시 불편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 불편함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늘 궁리하고 일하며 애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쉽사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그럴까? 내핍이란 말의 뒤에 숨어있는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 하겠다. 그러면 내핍의 참뜻은 무엇인가? 외로운 섬에서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우는 자기 단독의 의사에 따라서 내핍도 할 수 있고 절제도 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의 처세란 천후 기상과 동식물의 움직임에 대하여 어떻게 자세를 갖추느냐에 있었을 따름이다. 하지만 사회를 이룩하고 인간과 인간이 그룹과 그룹이 만날 접촉하는 우리들은 상대하는 인간들에 의하여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말하자면 주위 환경의 지배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다. 실은 우리가 가난한 것은 각자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낭비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난한 탓이오 사회형편이 가난을 면키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탓이며 내핍이 어려운 것도 우리가 어쨌든 나날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내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이즈러진 사회제도나 기풍을 바로잡기 위해 생활을 정돈하는 잠정적인 자세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내핍은 결코 위축이 아니라 비약할 다음 순간을 위한 모색(摸索)이다. 나는 새가 나라를 한 번 접는 것과 같이 전망이 있는 곳에 내핍이 있다. 제2차대전 중의 독일 가운데, 영국의 처칠경이 미국으로 건너가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나서 오찬을 같이 하게 됨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때 식탁에는 계란이 한 사람 앞에 두 개씩 놓였다고 한다. 처칠경이 이를 보고 하는 말이 "각하께서는 계란을 두 개씩 잡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개 이상을 먹어 본 일이 없습니다."하였다는 것이다.

영국이 얼마나 내핍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물론 미국의 낭비를 지적한 말은 아니다.(그런 실례의 말을 한 처칠이 아니다) 오직, 처칠은 영국의 전시재정이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2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표현했을 따름이다. 원조를 청하러 간 처칠로서는 매우 차원이 높은 교제술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우리는 이 부유한 나라의 양 거두의 외교적 수작(酬酢)에 감탄할 겨를이 없다. 이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운 규모로 처신했던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전승에 대한 계산이 이미 서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연합국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이 전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내핍한 것이다. 총화로서 이기는 전쟁의 처리는 재정으로서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이 양거두의 머릿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내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반대의 경우를 보자. 전망이 비관적이었던 일본의 도조(東條)수상은 그가 진주군에 의해 체포된 뒤에 드러난 일이지만 허다한 물자, 특히 식료품이 그의 관저 지하실에 가득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도조가 내다본

전국(戰局)은 몹시 비곤적이었으며 따라서 전쟁을 억지로 끌고 나아갈 동안만이 제 목숨의 한도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국민앞에 호령하던 것과 정반대로 비굴한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이야기를 좀 더 우리 신변으로 가까이 다가놓고 해보자.

여기 한 구두쇠가 있다고 하자. 죽으로 끼니를 이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단 하나 믿는 바가 있다. 그것은 돈의 공신력이요, 그 돈이 언제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구두쇠는 이성상실자가 아니다. 그는 다만 이상적인 내핍을 위해서는 체면도 모르고 자학(自虐)도 불사하는 수전노(守錢奴)일 뿐이다. 만약에 그가 지키는 돈이 날이 갈수록 가치를 깎아먹고, 전망이 보잘 것 없을 때도 그는 돈을 지키겠는가? 그야말로 자루에 넣은 조약돌을 돈으로 알고 만져만 보고 지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자루에 넣은 조약돌을 돈으로 알고 만져만 보고 지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반드시 그 돈을 재빠르게 물건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적어도 현대의 구두쇠는 이만한 판단력과 수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요컨대 내핍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지이다. 그 의지는 주관적이며 공리적이다. 범인(凡人)이라면 광막한 애국심보다 주관과 공리가 앞섭이 보통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내핍의 필요성도 장래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서는 순조롭게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와 정책으로 전망을 낙관하도록 하는 길만이 국민으로 하여금 내핍을 자각하게 할 것이다.

###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원래 대중이란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본성이 있다. 이를테면 우발적인 폭동에 대중이 참가하여 기약치 않은 규모를 확대(擴大)하는 것도 부화뇌동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요 평화 시에 소위유행을 따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은 순간적으로 또는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자극을 받아서 맹목적으로 대중 속에 뛰어드는 수가 있다. 결코 이성적은 아니나 부자연스럽지는 않다.

국난에 부닥뜨린 군왕이 민초의 어려움을 근심한 나머지 궁궐의 신축을 철폐하고 세끼의 식사를 두 끼로 줄인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1만 백성이 모두 감루(感淚)를 떨구었다는 일화는 흔히 쌍에서 보는 바이다.

오늘날

군왕은 없고 모두가 국민이 뽑아낸 대통령이요 선량이요 그리고 공복들인데 이들이 한결같이 스스로 극한의 내핍을 달게 알고 대중 앞에 출선수범한다면 대중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워낙 내핍과 같은 자각에 의존하는 일은 명령이나 지시로 대중화하기는 어렵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몸소 실천함으로써 대중에게 자극을 주어야 가능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중전달이 무척 신속한 시대이다. 처칠과 루즈벨트가 전략상의 비밀을 바꾼 것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계란 문답을 바꾼 것은 전과를 타고 온 세계에 퍼져 남아 있듯이 몇 사람의 모범적인 행위는 대중을 거의 동 시각에 자극할 수 있게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시에 생각나거나 한 것처럼 내핍을 내세워 별로 실효를 건지 못할 것이 아니다. 지도층의 몇 사람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자기부터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나는 거기 몇 사람의 실행이 고래의 풍습을 바꿔놓은 사례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축제란 기일의 첫 새벽, 즉 자정에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제사라는 것 자체가 엄격한 유교 의례의 하나임은 말할 것도 없는데 서울에서는 근 20년째 자정에 지내지 않고 초저녁에 지내는 풍습이 생기었다. 이 때문에 정작 고인을 기뻐할 기일이 아니고 그 전 날 저녁에 제상(祭床)을 차리고 지내기도 하니 혼백이 왕립하기에 바쁠 지경이다. 다시 말하면 자정에 지낼 제사가 일곱시나 여덟시로 다가지면 날수로는 전 날이 되는 것이므로 이는 하루를 당겨 지내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습이 생긴 까닭은 무엇인가.

제2차대전 중에는 공습경보가 빈번히 내려서 일반의 보행도 부자유스럽거나와 조명이 극도로 제한되었다. 게다가 식량난이 심했으니 아무도 조상을 받든 다더라도 많은 제관이 철야숙박하면서 예를 지키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누가 이 누대(累代)의 풍습을 감히 변경할 것인가. 이때에 서울에서도 계동(桂洞)이나 가회동 근방에 사는 이른바 우대양반의 후예들 중에서 아무 소문 없이 초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생기었다. 도저히 제대로 제를 지낼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아니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처사이다. 이 풍습은 아주 빠른 시일에 많은 추종자를 내었다. 지금도(통행금지 시간 관계도 있겠지만) 웬만한 집의 제사는 초저녁에 지낸다.

어떤 조직의 힘도 아니요, 어떤 구호의 힘도 아니다. 오직 어떤 든든한 세력을 가진 가정에서 영단(英斷)을 내렸을 따름이다.

나는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술선수범의 힘, 그리고 대중의 원하는 바에 대한 자극(刺激)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도와 정책으로

대중을 자극하는 한편으로 국민적 내핍을 가로막는 사치로운 사물을 하나하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치라는 것은 매우 규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텔레비전 방송은 우리 형편으로는 아직 빠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라디오도 제대로 보급안되는데 TV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나 TV의 시설의 의의를 파고들면 이것은 매우 국가의 안전보장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니나 다를까 부산에서 내다보이는 대마도에 일본의 TV 탑이 서 있어서 그 전파가 부산에 상륙하고 있으며 시민이 이를 수상(受像)하고 있다. 일본의 방송은 한국인을 위하여 이따금 트집 프로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매력적이고 마력적인 현대문화시설은 한국인에게 일본에 대한 친근감 내지는 동화감을 갖도록 세뇌하는 힘을 지니었다. 다행히 이를 정치자가 간파하고서 내년에 TV중계탑을 다섯이나 세워서 서울의 방송이 부산으로 가도록 하리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휴전선 근방에 북괴의 TV송신탑이 안 서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이리하여 텔레비전은 결코 사치품이 아니라 국가안전의 필수품이라는 이론이 서게 된다. 그런데 여기 패션쇼라는 도시여성의 매혹적인 시스템이 있다. 가장 패션쇼를 옹호하는 사람은 패션이 반드시 사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복장을 선전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가혹한 의도보다는 좀 더 소비적으로 복장을 유행시키는 경향이 농후한 것이 패션쇼인 것 같다. 여성의 스커트가 작년에는 짧았다가 금년에는 길었다 하는 수작이 어디에도 경제적이고 실리적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야말로 맨 먼저 자숙할 꺼리인가 한다. 이러한 나의 견해에 어는 평론가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복장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하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호품 제1호에 속하는 담배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매제로 되어 있고 철도수송이 국영으로 된 것을 잠깐 잊고서 한느 말이다.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 제약이 있는 가운데 활개를 치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미국의 피원조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너무나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다. 대풍이 들어도 5백만석의 주식물이 모자라 잉여농물을 얻어다 먹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조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아가며 살아야 할 운명에 있으며 원조자는 심하면 내정간섭의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소비생활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사치를 버려야 하며 사치를 버리는 것은 내핍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것이다.

그러면 텔레비전과 같이 방대한 국가예산을 쓰는 시설은 사치가 아니고 사소한 개인의 기호에 속하는 복식은 사치가 되기 쉽다는 논리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는 국가적인 의의를 지니었고 하나는 그것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핍이란 고케네디 대통령의 말을 빈다면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안일을 참는다”에 참뜻이 있는 것이다.

### 결론

근대적 군인은 무력에 보태기 지력의 군인이라고 한다. 슬기로움이 화력 위에 있어야 완전한 국방력을 지니었다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현시점에 있어서 군인이 중추의 구실을 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군인들이 절제한다는 것은 수급되는 보급을 아끼고 아껴서 차곡차곡 모아둔다는 소극적인 절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어떻게 굳건한 전망이 보이는 나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구상을 함으로서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는 길일 것이다. 매우 막연한 요청이지만 시야를 넓히어서 세태의 시비를 가리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명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세속적인 경향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검소가 생활의 신조로 된 군인들에게 절제를 바란다면 그것은 절제하는 마음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특집(特輯)

어떠한 상관이라야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관론(上官論)

임동선(林東善)  
 <공군대위·군종감>



예부터 군령은 태산과 같고 추상과도 같다는 군대안에서 상격하애가 결여 되고 심지어는 하극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와 같은 현시점에서는 군민 공히 유감(遺憾)된 일로 생각한다. 군기는 군대의 생명이며 엄정한 국기가 있는 곳에 강한 군대가 있을 수 있고 강한 훈련만이 국토방위의 중책을 완수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5·16혁명이후에는 군기가 확립되고 군의 질서가 다소잡혀 가더니 민정이양과 함께 군기가 다시 이완(弛緩)되어 가고 있다. 그 실례로는 부정이 다시 머리를 들고 도망병은 늘어가고 또 거리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결례하기가 다반사이며 또는 고의적으로 얼굴을 피하는 등 실로 한심사가 많다.

군기가 이와 같이 문란된 원인이 무엇인가? 물론 시대적인 조건을 위시해서 사회적 환경 또는 부하 개인적인 여러 요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그 보다도 성서에 “남의 눈 속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뽑으라”고 한 말씀과 같이 상관된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결함을 성찰함이 현명한 일인 줄로 안다. 자기를 아는 자 만이 참 안는 사람이고 자기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상관론을 몇가지로 기술하여 군이 좀 더 참신하고 질서가 확립되고 화기에애한 군대로서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여 국민이 신임할 수 있는

민주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 상관으로서의 구비조건이 될 것일까?

1. 상관은 자신에 대하여

첫째, 지적권위가 있어야 한다. 상관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부하를 통솔해야 한다. 신념은 아는데서 만나온다. 신념이 없는 상관은 부하에게 안전감, 소속감 등의 자부심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다. 아는 것이 있어야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해석한다. 지식이 부족할 때 열등의식이 생긴다. 열등의식이 생길 때 신념은 없어진다. 바빌론은 ‘지식은 번영의 장식이요, 환난의 도피성이요, 우리의 양식이다.’고 했다. 솔로몬은 ‘오른편 손에 지식을 왼편 손에 부기와 명예를 가져라 지식은 금강석보다 귀하다’고 말했다. 남을 지도하는 사람은 남보다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수돗물은 저수지 이상 올라 갈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식이 호수가 되지 말고 흐르는 강수와 같아야 한다. 상관(上官)된 사람은 일반지식은 물론이거니와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권위 앞에는 누구나 존경과 복종심이 생긴다. 세대의 변천으로 말미암아 현대의 군조직과 무기의 구조는 고도로 발달하여 복잡하고 성능이 우수하다. 이에 따라 부대편제는 확장되고 그 구성요원들의 업무는 분업화하고 전문화하여 가고 있다. 여기서 상관은 부하에게 권한의 위임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불가결한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끌면 둘이 다 길을 잃고 마지막 구렁텅이에 빠진다.

둘째, 인격적 권위가 있어야 한다. 민주군대에 있어서는 과거 전제군주주의 시대나 봉건주의 시대의 병졸과 농노와 같이 사물처럼 혹사해 가며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서 부하를 통솔할 수 없게 되었다. 어디까지나 부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지도하여야 하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를 촉구하여야 한다. 즉 상관은 부하를 자기의계급과 직책과 권력으로 지배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육 기능 및 인격을 총동원하여 선도하여야 하며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고무(鼓舞)하여야 하며 자의대로 부릴 것이 아니라 선도하여야 한다. 옛말에 ‘한 사람이 소를 넷가에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열 사람이 소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백만대군을 움직이는 장군도 필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했다. 복족은 오직 강압에서가 아니라 존경과 자율적 의사에서 나와야 한다. 여기서 상관의 인격적 감화력과 지휘 통솔의 능력이 요구된다. 사람이 동물보다 낫다 함은 이성이 있는 까닭이요,

그 사람의 훌륭한 덕이 높은 까닭이라고 했다. 그러기에 칸트는 동물적, 인간적, 인격적의 3종의 인간을 말했고 에머슨은 덕성만이 우주를 지배한다고 했다.

셋째, 술선수범해야 한다. 백마디 이론보다 하나의 실천이 필요하다. 삶은 말이 좋아야 하고 말보다 글이 더 좋아야 하고 글보다 생활이 더욱 좋아야 한다.

옛날 어느 현인이 어린 시절에 서당에 다닐 때 훈장선생이 술이 과하고 부인을 자주 때리므로 글방에 가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하기로 했다. 하루는 그 소년이 나무를 해서 지게제 지고 책을 펴서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비틀대는 선생을 만났다.

“너 왜 요사이 글방에 아니오느냐?”

“배울 것이 없어서 안갑니다.”

“선생님 술만 마시고 사모님 때리는 것을 배우랍니까?”

“누가 너더러 그런 것을 배우라고 그랬느냐? 내 가르치는 공부나 배우지!”

“선생님! 쌀밥이 비록 좋지만 똥통에다가 담아주면 누가 좋다고 먹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 군대의 계급, 권력이 좋다 할지라도 언행일치하는 좋은 인격적인 그릇에 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상관은 자기가 말한 일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상관은 자신에게 정직하고 가정에 순결하고 국가에 무사(無私)하고 인류애에 불타는 마음이 뚜렷해야 한다. 상관은 먼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부하의 사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훈련을 거듭하고 규정을 찾고 애국과 충성과 복종과 희생을 강조해도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진정한 지도자는 언제나 부하들의 앞에 서서 술선수범하여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라고 담대히 외쳤던 것이다.

## 2. 부하에게 대하여

첫째, 이해하는 마음. 상관은 부하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심이 필요하다. 부하가 처해 있는 현대의 사조와 가정환경과 개성과 경험과 입장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이라는 특수환경과 청년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현대 과학과 황금만능주의 시대요, 향락의 시대이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예로, 스틸과 먹고 마시자 내일을 누가 아느냐? 하는 일일(一日)주의, 쾌락주의, 냉소주의, 찰나주의 속에서 생을 살아

가는 실리주의 시대이다. 또 부하의 가정환경을 이해함은 부하를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서 이론인, 경제인, 심미인, 사회인, 권력인, 정치인, 종교인 등의 어느 가정출신인지? 또는 농촌출신인지, 도회출신인지 또는 양친이 생존했는지 양부모인지, 가정경제상태는 여하한지 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젊은이의 육체적 특징도 알아야 하지만 특히 정신면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야 한다. 장점으로는 새롭게 산다(새 가치추궁), 꿈을 가지고 산다(이상), 한길(일도)로만 산다(단순성), 자유를 위해서 산다(정의감)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이상이 비현실적이고 자유 없는 반항심과 모든 것이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낳은 어린 자식을 길러 가르치기도 어려운데, 다 큰 남의 자식을 잘 지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에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사랑하는 마음. 프랑스의 풍운아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고도에서 유배되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의 시종관 몬트레 백작을

## 내가 사랑하는 부하

〈공군중령〉 장병혁(張炳赫)

훌륭한 상관이 부하를 잘 두느냐, 좋은 부하들이 훌륭한 상관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보다 훌륭한 상관이 능률적인 부하를 만들 수 있으며 같은 상관이라면 보다 지혜로운 부하들이 더 유능한 상관이 되게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군대에서 상관의 의도를 잘 알아 받들라든가 융통성 있게 복종하라는 말을 간혹 듣는데, 이 말이 오용된다면 위험스런 행동을 합리화 하는게 되겠지만 군사회의 야릇한 생리에는 매우 필요한 교훈인 것으로 생각한다.

되도록 눈치껏 한다는 말이 없어져야겠지만, 완전한 여건과 조직 하에서만 군사회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 이 융통성과 요령은 상관과 부하 관계에서 필요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령만을 군인의 상호관계에서 유일한 처방으로 아는 달달 달아 빠진 부하를 훌륭한 부하로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 말하자면 요령위주의 타성에 사로잡힌 처신은 안 가짐만 못하게 되니 부하의 요령이란 상관에 대한 존경과 직책에 대한 충실을 위한 의욕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이상형의 부하는 욕심이겠지만 성실한 의욕과 융통성 있는 요령을 함께 가진 부하이다.

향하여 “알렉산더와 시저와 나는 장군이다. 우리는 말을 타고 칼과 창을 가지고 구라파 전체를 빼앗았으나 지금은 손바닥만한 땅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했으며 그의 백성은 오대양 육대주에 없는 곳이 없고 지금도 예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수많은 청춘남녀가 그를 위해서 시간과 재산과 생명도 아끼지 않는구나. 어떠한 긴 시간, 또 어떠한 파괴력이라도 이 사랑으로 점령한 땅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유언을 했다 한다. 실로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동양 사람으로 일찍이 서구를 휩쓴 징기스칸은 부하와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진정한 사랑으로 그 많은 부하를 지휘 통솔하여 성공했다고 한다. 원폭, 수폭의 힘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는 있을지언정 마음을 감동시키고 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수고와 인내와 물질을 시간과 고귀한 희생이 따라 가는 것이다. 사랑은 부드러운 명사같으나 제일 무서운 힘은 아직도 사랑의 힘뿐이다.

셋째, 관대한 마음. 상관은 도량과 아량과 관대한 소견을 가져야 한다.

### 내가 사랑하는 부하

〈공군중령〉 성기운(成耆潤)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 군대라는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군대 사회에서 그 많은 부하들을 다룬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구나 20대의 청년기에서 자기의 프라이드와 거기 못지않게 강하게 발산하는 반항심이 강한 부하들을 다룰 때만다 머리를 짜내어야 한다는 것은 나만이 느끼는 고충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부하, 내가 좋아하고 또 바라는 부하는 정직한 부하라는 것이다. 자기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즉시 사관하는 한편 앞으로 주의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솔직성이야말로 가장 믿음직한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잘했던 못했던 솔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근본문제인 것이다. 무엇이 이렇다 저렇다고 쓸데없는 변명을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부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부하에게는 모든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의 부하들에게 부탁하는데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사람이 서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내가 사랑하는 부하인 것이다.

남의 허물을 찾는 마음으로 자기 허물을 찾아야 하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하난. 나폴레옹이 야간에 전선 최전방을 시찰 중 총을 놓고 쓰러져 잠을 자는 늙은 보초병을 보고서 노병이 깰 때까지 그 총을 잡고 대신 보초를 섰다. 노병이 깨어 일어난 후 “조심하라, 네 한 사람의 책임은 승패를 좌우 한다”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졌다. 그 후 이에 감동된 그 노병은 자기의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나폴레옹을 위해 충성을 다했으며 마지막 어려운 전쟁에서 큰 공을 이루고 죽음으로 옛 은덕을 보답했다고 한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이 군기를 확립함에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벌을 관대히 처분함으로써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산보다 높은 것은 하늘이요 하늘보다 넓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다. 동양의 성현은 말하기를 백성(봉)은 민초라고 했다 풀(부하)은 바람이 부는대로 기울어지고 쓰러진다. 부하는 상관이 하는 대로 따라 간다. 경서에도 양(부하)은 목자(상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 간다고 했다. 결국 그 민족정신 이상의 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부하가 국가 민족을 위하여 싸우고 공산주의를 타도하기 위하여 싸워 피 흘리기 전에 그 보다는 자기가 모시고 섬기는 상관의 정신과 사상과 생활과 인격에 감화가 되고 존경심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복종하고 우리 상관을 위해서 내 사지백체(四肢百體)에 흐르는 피 한 방울이라도 아낌없이 기꺼이 쏟아 뿌리겠다는 심정이 날 때만이 그 상관은 상관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가까이 데리고 있는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관만이 권위 있는 상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을지문덕의 부하 애(部下 愛)

살수대전(薩水大戰)의 승리에서 고구려를 구출한 을지문덕 장군이 개선하자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의 환영은 대단하였다. 그 때 장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라의 귀중한 백성이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아들이요 남편인 청년을 많이 잃고 얻은 승리를 나 개인의 공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살아서 돌아온 을지문덕이 아니요 어딘지 모르는 산야에 쓰러진 그 이름 없는 젊은 용사들입니다.”

어떠한 부하라야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부하라야 상관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 부하론(部下論)



허경삼(許慶杉)  
 <공군중령·군목>

기어이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목표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필승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힘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즉 강한 전력을 유지 발휘 할 수 있는 기반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하여 우선 장비의 개선을 들 수 있으며 그 다음은 교육훈련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비가 개선되고 전투기술이 숙달되는 것만으로 강한 전투력이 유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장병 각 개인이 국토를 방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려는 고귀한 목표를 향하여 일사불란의 통수(統帥)계통 아래 값 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하는 철저한 정신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기반 위에 현대정예무기로 장비하고 그 위에 고도의 전투기술을 연마함으로써 필승의 군대는 이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예로부터 군기는 군대의 명맥이 되어 있으며 군기확립의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확인되어 있다.

### 1. 군대의 힘과 군기(軍紀)

군대라는 말을 영어로는 "Force"라는 말로 표시하는데 이는 곧 힘이라는 뜻이다. 군대란 곧 힘을 가진 자를 말함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아니라고 본다. 군대가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힘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군대가 이 힘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군대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것이다. 한 나라가 강한 힘을 소유한 군대를 가질 때 국가를 침략자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도 공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금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여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군비를 확장하는 세계 열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힘없는 평화란 역사적 현실에서 볼 때 거의 실현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 실로 힘은 군대가 갖추어야 할 절대 불가결의 여건이며 힘의 강약은 군대의 존재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며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함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굴욕적이며 비극적인 한일합방은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당시 만일 우리도 막강한 힘을 가진 군대를 가졌더라면 그토록 원통하고 부끄러운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3·1 운동을 뒷받침하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더라면 우리의 독립은 벌써 오랜 옛날에 이룩되었을 것이다. 실로 힘없는 정의란 아무리 목이 터지도록 울부짖어 보았자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힘이 수반하지 않고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가 지탱되는 예는 없었다고 보아 잘못일까?

국가의 힘이란 곧 군사력을 말하여도 잘못이 아닐진데 상대방에 비하여 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상대방에게 굴복을 당하고 만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적 천리이며 법칙으로서 힘을 배경으로 하고야만 국가의 존립과 민족의 중흥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양과 질에 있어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서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에 있어서의 힘의 요소와 기초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군기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군기가 잠시의 이완도 없이 엄연하게 확립되고 유지되는 군대는 국가적인 기대에 부응하는 강 군대인 것이다. 이 군기는 실로 군대의 명맥이므로 군기가 엄정 하지 않은 군대는 명 줄이 끊어진 군대라는 할 수 있으니 이른바 오합지졸이다. 군기가 엄정한 군대는 여하한 국난에 처해서도 조국의 방위와 민족수호의 중책을 영웅적으로 수행할 수 있건만은 군기가 문란한 군대는 국가를 패망의 비운에 몰아넣고 말 것이므로 어느 군대를 막론하고 군기확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 2. 군기확립과 상경하에

그런데 이같이 중차대한 군기확립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 지는 것일까?

다름 아닌 상경하에에 융화단결로 이루어진다. 상관된 자는 부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하고 부하된 자는 통수계통을 존중하여 상관을 존경하게 될 때 거기에는 상경하에 상호관계와 상부호양의 전우애가 움터서 위로는 지휘관에서부터 아래로는 한 사병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진 공고한 단결이 형성 될 것이다.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격에서가 아니라 심적으로 믿고 믿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단합은 어떠한 장애에 부딪쳐도 굽히지 않고 어떠한 곤경에 처해도 허물어지지 않는 백절불굴의 단결이 성취될 것이니 이런 단결력이 곧 엄정하게 확립된 군기에 상징인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생각할 때 군풍기확립의 요체는 부하에게 존경을 받는 상관 이 되고 상관에게 신임을 받는 부하가 되는데 있다고 하겠다.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상관은 상관의 위치에서 술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언행에 있어서 군의 정신에 배리(背理)됨이 없는 복무를 여행(勵行)하여 인격적으로 존경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며 하부는 강제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맡은 바 임무를 이행하고 명령을 완수함으로 신임 받는

부하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상호간의 진실과 성의만이 얽힌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각자의 신임과 신뢰로 가히 배반하고 범법하려는 자가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과학무기는 급속도로 발달된다. 그러나 전쟁의 근본이 사람인데 조금도 변함이 없다. 아무리 우수한 방비를 소유한다 할지라도 군인 한 사람 한사람이 사명의 숭고성을 망각하는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그 군대는 강한 군대는 될 수 없으며 급기야는 패전의 고배를 마시고 말 것이다. 싸움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겨야만 하고 이기기 위하여는 막강한 힘을 길러야 하며 이 힘을 기르기 위하여서는 무기도 제조하고 훈련도 하여야 하나 이 힘의 근원인 군기의 엄정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니 이 군기의 확정은 상하간의 인간관계로부터 온다 함을 명심 하여야 한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군기확립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상경하에의 기풍과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하로서의 걸어야 할 길과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줄견(拙見)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는 복종심 문제이다.

되풀이 할 필요도 없이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가장 통일되고 단결된 특수한 조직체이다. 따라서 특수한 임무와 사명을 띤 군대는 사람됨이 목하건 부족하건 지휘관과 상급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통솔되고 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조직과 단결의 총화인 전투력

은 일조(一朝)유사시에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발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부대의 운영과 통솔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이 권한은 국토를 방위하고 민족을 수호하는 국가적인 지상명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동시에 지휘관은 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즉 부하장병을 지휘 감독하고 부대를 통솔하는데 있어서는 국가나 지휘관으로부터 하달된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외에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하장병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기타 필요한 지시와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이러한 모든 명령, 지시, 규정 등이 부하장병에 의하여 유감없이 실천되도록 할 책임과 임무를 지니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휘관이나 상급자가 부하장병에게 내리는 지시나 명령은 오직 국가적인 지상명령 수행하여 부대의 행동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전시키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엄연한 특수계통 하에 엄격한 군기를 명맥으로 하는 군대에 있어서 상관과 하급자의 관계는 마치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형제와도 같은 것이다. 더욱이 국가와 민족이 부여한 성스러운 특수계통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이상의

### 내가 존경하는 상관

〈공군병장〉 박찬필(朴燦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격과 외모가 각기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고방식과 행동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수백, 수천명의 상급자와 상관을 모시고 있는 나로서 이렇게 많은 상관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보다 먼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상관의 인간상을 그려보고 싶다. 우선 무엇보다도 내가 바라는 상관은 부하를 대할 때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는 분이다. 덮어놓고 명령이나 강압적인 언동으로 부하를 다룬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얼마 전에 시내에 볼 일이 있어 나갔다가 일을 끝내고 귀대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 동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군 짙 한 대가 앞에서 멈추더니 〇〇부대에 가면 여기에 타라는 K중령님의 다정한 음성이 들렸다. 나는 송구스런 마음을 누르며 그 차를 타고 편하게 부대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그 뒤부터 K중령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마음속의 큰 형님같이 믿고 존경하게 되었다. 이처럼 조그마한 관심과 친절, 그리고 인간미에 부하들은 자연스럽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지휘관은 국가와 민족이 부여한 성스러운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부하에 대하여서는 지도 및 후견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교육시켜 가부(家父)와 같이 부하를 愛撫하고 선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부하된 자는 말단병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조국을 수호하는 국가의 간성이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며 전 국민에게 충실히 봉사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같이 군대에 있어서의 상하관계는 지존지엄한 것이며 군대의 생명과 온갖 지시는 그것이 지휘관이나 상급자 개인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조국과 국민이 요청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점에서 군의 명령계통은 가장 엄숙하고 또한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수화(水火)의 고난인들 어찌 불사하며 생명의 희생인들 어찌 돌보라는 고매한 정신 밑에서 자기의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심종(心從)과 성복(誠服)의 미를 발휘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는 성실성 문제이다.

너무도 딱딱한 듯 해서 조그만 이야기를 소개한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 아직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은행에 어떤 처녀가 찾아 왔다.

“글쎄요 모처럼 찾아 오셨다가 미안합니다만 마침 자리가 없으니 다음 날 한번 찾아 주시오.”

처녀는 젊은 은행장에게 보기 좋게 취직거절을 당하고 빨개진 얼굴을 안보이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다가 마루바닥에 핀 한 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핀을 주어서 그의 옷자락으로 닦아서 탁자 위에 얹어 놓고 나오려 할 때

“여보, 거 조금 기다리시오.” 은행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불렀다.

“그리로 앉으시오.”

“.....”

의아스러운 얼굴을 지으면서 처녀는 앉았다.

“방금 당신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생각한 바가 있어서 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기로 하고 월급에 대해서 희망이 있거든 말씀하시지요.”

젊은 은행장은 조금 전과는 전연 다르게 만족한 얼굴이었다.

“방금 안 쓰신다고 말씀하시더니.....?”

빨개졌던 얼굴을 선 듯 들면서 상긋 웃었다.

“허어 이제 그 핀을 아껴 주시듯이 우리 은행일을 해주신다면 내 월급을 나누어 드리더라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처녀의 얼굴이 또 한번 빨개졌다. 그 후 몇 해의 세월이 흘렀고 그 처녀가 은행장의 부인이 되고 조그마하던 은행이 크게 발전한 것은 여기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듯이 군대사회에서도 이 성실성이 문제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의무를 지니고 세상에 와서 그 의무를 수행하다가 또한 의무적인 것같이 모두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에게든 의무는 있는 법이며 위임받은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을 가리켜 생의 성공자라고 말한다. 자여에 대한 의무, 사회나 국가에 대한 의무 등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많은 의무 속에 파묻혀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이라는 특수사회에서 군이 수행하여야 할 가지가지의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이 임무 또는 사명을 말하려 할 때 이에 관계된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일 곧 임무를 맡겨준 자 이른바 명령자 또는 임명자요

## 내가 존경하는 상관

〈공군상병〉 홍효태(洪孝泰)

손자병서에 ‘사랑하여 명령을 하지 못하고, 후하게 하여서 사용하지 못하여 난잡스럽게 하여서 다스리지 못한다면 버릇없이 자라난 어린애와 같으니 가히 사용할 수 없으리라’하였다. 이는 부하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도가 있고 방법이 있음을 말한 것이리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군대에 도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된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으로써 가장 큰 의무로 삼는다. 그러나 명령복종이 강요와 압력에 의한 형식적인 것으로 되풀이 될 때에는 명령복종이라는 가면 아래 불평과 불만이 자라나기 쉽다. 누구나 상사에게 웃으며 복종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래야만 비로서 자율적인 규율이 서게 되고 굳은 단결의 발판이 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가끔 위엄만 내세울 줄 알지 부하를 진실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 상관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다. 좀 더 엄(嚴)과 관(寬)의 묘를 발휘하여 부하를 사랑하는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매사에 공과 사를 가리어 술선수범하는 상관이라면 부하들은 감격하 나머지 그의 명령에 생명까지라도 스스로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그 명령을 받은 피명자 곧 일 맡은 자이며, 셋째는 명령자 곧 임명자로부터 피명자 곧 맡는 자에게 맡겨진 일 곧 임무 그 자체이다. 우리 군인은 애국 또는 민족이라는 명령자가 군인이라는 우리들에게 국가민족수호라는 일을 맡겨 준 것이다. 국가민족과 우리 군대와의 관계는 명령자와 피명자의 관계이니 곧 주복(主僕)의 관계이다. 주인은 복(僕)인 우리에게 역량에 따라 임무를 맡겨 주었다. 그런데 군에 있어서 지휘관 또는 상급자는 주인을 대신한다. 이 주인은 복(僕)된 우리들을 일단 믿고 일을 맡긴 것이다. 물론 지휘관이나 상관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학식이나 문벌이 다 높은 것은 아니나 일단 계급을 가지고 조직된 이상은 사회의 학력이나 이력, 출신은 백지환원이 된다. 따라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급자된 자가 추가되고 하급자가 복이 된다. 복된 자의 자세는 성실뿐이다.

신약성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 가운데 언급된 바와 같이 각자가 받은 달란트의 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달란트의 활용도 즉 얼마나 충실히 활용하였느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같이 우리가 받은 직책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도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 수행의 태도와 결과가 중요시 되는 것이다. 글쎄로 하위에 있는 자가 그의 임명자의 명령을 성실하게 받들어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수행했을 때 착하고 진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고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으며 반면에 많은 것을 받아 가지고 높은 지위에서 이른바 큰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의 불충실로 말미암아 종말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며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성실하다는 말을 영로는 'Fidful'이라는 말로 표시한다.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신용 할 만하다는 뜻이니 믿고 맡긴 일에 성실 곧 충실된 부하라야 상관은 그 사람을 믿음직스럽고 신용할 만한 자로 여길 것이며 무슨 일이든지 더 큰 일을 믿고 맡길 것이다. 믿음직스러운 부하를 괴롭힐 상관이 어디 있으며 신용할만한 사람을 배척할 상급자가 어디 있으랴!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까? 일을 맡긴 상관에게 배신하여서는 안 되며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관을 실망시키는 일은 단결을 와해시키는 원인이 된다. 책임은 중하다. 죽음으로서 이를 완수하라하는 말이 있거니와 책임을 지냈다는 것은 인간이 결머진 무거운 짐인 동시에 또한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 있는 말을 하며 책임 있게 행동하며 말하고 행한데 대하여는 원망을 하거나 도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킴이 없이 즐거움으로 책임으로 이행한다는 일은 인간만이 지닌 아름다운 향기라고 볼 수 있다. 책임을 지는 인간의 모습은 장하고 용감하며 또한 믿음직스럽다. 이렇나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에게 더 귀한 자리가 허락되며 또 이러한 성실한 사람을 부하로 가졌을 때 비로소 상하 인간관계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상경하에, 상명하복, 상부호조의 리듬이 파동칠 것이다.



## 나 하나의 의미

군기의 올바른 이해

김영주(金永洲)

### 1장이간의죄 개념론(概念論)

신약성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전사(戰史)의 한 토막이 있다. 기드온이 이끈 이스라엘 3백명 군사가 나팔과 향아리와 횃불로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한 사실은 유명하거나 다음 아이성을 정복하려 정탐군을 보내니 이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약 3천명의 군사면 족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3천명의 군사가 나가 싸웠으나 3백명으로 큰 성 여리고를 빼앗은 이스라엘 군사가 이번엔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대패하여 많은 군사를 잃고 쫓기어 돌아왔다.

신을 믿는 이들은 그 명을 따라 궤전에 책임질 죄인을 색출하니 곧 유다 족속의 세라의 아들 아간이란 자가 체포되었다. 아간은 상사의 명을 어기고 정벌한 땅에서 탐나는 외투 한 벌과 은 2백세겔, 금덩이 50세겔 등을 자기의 장막 땅 속에 감춰두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곧 아간과 그 도적한 재물들과 그 가족과 짐승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린 후 아이성을 공격하니 쉽게 정복되었다. <여호수아 7장>.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 쓰여지는 이 교훈적인 역사의 한 토막

을 나는 군기위반과 전력 감소를 의미하는 군사적 목적에서 해석하고 싶다. 성서에 적혀진 사실만으로서 이와 같이 전리품을 사취 한 자가 아간 한 사람 뿐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계율과 명령에 살던 수십만 이스라엘인 중에서 아간과 같은 위반자가 나게끔 군기가 흐려졌다는 사실과 그래서 쉬운 전쟁에 패배하였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다. 아간의 죄는 종교적 타락이었던 만큼 균형법 위반이었다. 따라서 아골의 골짜기로 이 죄는 다스려 졌지만 오늘날까지 도처에서 아간의 죄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실전에 참여 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소수의 정병이 다수의 오합지졸(烏合之卒)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정병을 규정하는 요소를 예거 할 때 군 기강을 무기나 기술보다 적게 평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현대전이 과학전이고 무력전이요 정책적인 머리의 경쟁임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군의 기강과 규율은 아직도 군의 제일생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대전의 개념이 정치, 경제, 과학 군사의 각 방면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현대에 있어서의 군기의 개념도 생명과 복종의 질서확립이나 외형적 규칙생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군수물자의 절약, 보안과 안전 및 방첩 등 실로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복장이나 경례 등에서 보여지는 군기의 협의적 개념에서 군 업무상의 모든 면에서 지켜야 할 군기강이라는 광의적인 것으로 확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전략과 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반면 그 비밀을 탐색하고 간사한 계교로 이적행위를 하게 하는 기술이 또한 비약적으로 과학화 해 가는 것이다. 아니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강한 군대를 물리치는 예를 오래지 않은 현대전에서도 찾아보기 쉬운 것이다. 오늘 날의 아간의 죄는 전리품을 감추거나 총기와 신발을 손질하지 않은 죄 많은 아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닌 휴식 소각처리의 미스, 무심코 내뱉은 상관 비난, 잊어버리고 끄지 않은 전기 불이나 수도꼭지가 모두 전력을 와해시키는 아간의 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사소한 것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군기가 바로 그 군대의 전략으로서의 실질적 군기를 사실로 측정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용의의 단정이나 까다로운 복장규율의 이행이 바로 그 군대의 작전명령의 실천도를 나타내며 장비물자의 정비관리 와도 관계있다는 것임을 말이다. 군 풍기의 확립이 바로 복장이 단정해서 기분이 좋고 줄을 잘 지어 보기에 좋으며 경례를 잘 해 서로 어색하지 않다는데 그친다면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이고 신경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옷을 걸고 포켓의 일정한 곳에 일정한 소지품을 넣는 정신이 항공기의 엔진 부속품

에 박을 나사를 제자리에 꼭 맞게 끼워주며 개인 신변의 사소한 일이라도 빠지지 않고 보고 하는 철저한 정신이 업무상의 변화를 즉시, 적시에 상관으로 알게끔 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표면적인 내무군기가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실질적인 군기로 되는 것이다. 평소에 외형적 군기는 그 자체로서의 중요성도 같지만 전시나 비상시에 그 군대의 생사를 결정하는 제일 요소로 되는 것이니 그 실례(實例)를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우리 균형법에도 평시에 무단 이탈 같은 것이 3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전시에는 사형에까지 해당하리 만큼 군기는 전시의 승패를 좌우할 제일생명인 것이다. 이는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군대는 한 사람의 장수가 천의 무리를 막던 옛날이 아니요, 스위치 한 개로 가만 앉아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아직은 공상적인 미래가 아닌 바로 전원이 하나의 지휘통솔 아래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만이 승전할 수 있는 총력전의 군대이다. 따라서 장비의 무장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때로는 물자나 환경의 여건을 극복할 수도 있는 정신의 무장이 높이 평가 돼야 할 것이니, 군기란 제한된 입적(入的)인 요소를 최대한 효율화 시키는 능력이라고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군기 확립의 초점을 보다 근본적인 안목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군 풍기단속 강조기간 같은 때 보면 말단사병의 결례나 복장위반 등이 마치 군기문란의 전부인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정신적 자세의 확립이 아닐까?

군인이라는 부질없는 우월감에서 오는 사고 발생, 무사주의에서 오는 안전의 침해, 군수물자에 대한 소홀한 관리 및 상부에 대해 눈가림만 하려는 적당주의가 끼쳐주는 병폐가 바로 군기저해의 제일 요소임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 군대에서 진정코 이러한 아간의 죄의 씨가 소멸되지 않는 한 비싼 값을 치른 우리의 전력은 문자 그대로 무기력이 될지도 모른다.

## 2장다리 밑과 감방 근거론(根據論)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군율과 기강에 대해 회의를 품을 때가 없지 않다. 왜 필요 이상의 고통을 가하며 까다로운 절차로 번거롭게 하는 것인가? 보다 자유스런 분위기 가운데서 더 능률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등의 회의적 불만은 전투 경험이 없고 군사회의 생리에 익숙지 못한 신병과 신입장교

들에게서 많이 듣는다. 더욱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군에 들어와서 제 맘대로 하지 못하고 구속 가운데서 모든 행동이 제한될 때 그가 저촉되는 군율과 명령에 반항심을 품고 상관에 맹랑하게 대어드는 경우 하극상을 일으키는 수도 있으며 군기의 올바른 의도를 곡해하여 무단이탈이나 도주에 버리는 일도 없지 않다.

민주군대에서 군율과 명령이 군 복무자에게 복무의욕을 감퇴시키고 도피적 자세에 서게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군 생활이 자기 발전과는 무관한 공백기간이기 때문에 우수하지도 않고 낙오자도 아닌 적당한 위치에서 무사히 지내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술이라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혹 계산에 눈이 밝은 이들의 요령 좋은 자세일지는 모르나 우리가 군의 요구를 적당히 인식한다면 규칙과 명령에 도피주의나 무사주의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며 무조건 싫어하면 생리에 맞지 않는다는 오해도 있을 수 없겠다.

나를 제어하는 그 기율과 때로는 나를 억압하는 그 명령은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나에게 내무반 청소를 시키는 상관은 중대장에게서, 보급물자를 관리하는 중대장은 대 회장에게서, 비행대대장은 전투비행단장에게서, 단장은 참모총장에게서 각기 임무에 대한 명령을 받았으며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에게서 하늘을 지키도록 명받고 국방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토방위의 임무를 맡았으며 대통령은 국군의 통수권을 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으니, 나에게 지극히 작은 행위를 명한 명령의 뿌리의 한 가닥은 결국 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하겠다.

이러한 군과 명령과의 관계는 사회와 법과의 관계와도 흡사하다.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제어하는 법은 제한이라는 소극적인 의미 외에 모든 사람의 자유를 그 방해자로부터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명령과 엄한 기율 속에 군 개인을 구속함은 실로 군 전체, 아니 전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작용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명령자나 복종자가 공히 인식한다면 계급과 직위를 남용해 사감(私感)으로 부하를 다루는 상급자도 없을 것이요 명령의 복종을 인격적 모독으로 불쾌히 생각하며 심지어 반항하려는 우둔한 하급자는 없어질 것이다.

군대에서의 군기는 사회에서의법과 유추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만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강한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 특수한 사회인 군대를 짝함은 모순이 아니니 군기가 군대에 선재하는 이것이 바로 군기(軍紀)의 심각한 점이라 할 것이다.

자유성과 규율성, 이는 인간이 모인 어떤 사회에서든지 함께 갖지 않으면 안 될 이율배반적 원리이니, 한 개인이 추구하는 무한한 자유를 다 허여(許興)할 수 없고, 전체가 요구하는 무한한 규율과 제한을 다 추종할 수 없는 안티노미가 인간의 영원한 숙제요 과제임은 숙지된 사실이다.

우리는 군에 들어오기 전 20여 년 동안 많은 자유를 추구해 왔고 적지 않은 제한과 난관 속에서도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실현시킬 가를 부단히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군에 들어온 이후 우리는 자유의 추구보다 제한에 대한 적응에, 아니 명령에 대한 순응에 더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간혹 우리는 전자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후자를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하는데 이는 자유와 규율의 동시적 중요성을 모르는 때문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논했듯이 규율만 있고 자유가 없는 감옥의 죄수가 불행한 것처럼 자유만 있고 규율이 없는 다리 밑의 거지가 부러운 것이 없다. 군 사회에서의 명령과 규율을 참된 자유의 정당한 보장을 위한 최선의 처방으로 우리 모두가 간주할 수 있을 때 군기확립을 위한 정신적 자세가 갖추어 졌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러한 원리를 다 알고 있는 지성인들이라 법이나 헌병이 규칙을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명령에 따르게 할 능력이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자율적 행동인 것이다. 외부적 힘이나 제재(制裁)에 의하여 기율이 강요되는 군대는 자율적인 군대 앞에 늘 쓰러지고 마는데 이것이 바로 자율적 군기와 자의적인 준칙이 민주군대에서 중요시되는 원리라 할 것이다.

마치 타율적 군대가 인삼녹즙으로 한계효용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신체라면 자율적 군대는 항상 운동과 단련을 통해 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목과 같다고 할지?

### 3장 나혼자만이라도 실천론

문제는 간단하다. 모두 자율적으로 자신을 제한하고 기율에 복종시키면 군이 군풍기 단속 강조주간 같은 걸 군대에서 쑥스럽게 내걸 필요가 없겠다. 아니 이미 군기가 확립되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군대에서 또 무슨 군기확립이다 여기 저기 불이고 떠드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가 아닌가?

우리는 참다운 자율적 군기를 확리기 위하여 군기에 대한 지나친 공포증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계급과 명령에 대한 몇 가지 그릇된 인상을 고쳐야 하겠다. 우선 특정사회인 군대에서의 계급의식과 계급을 완전히 벗기고 난 뒤에 남는 인간의식과를 엄밀히 구별해 가져야한다. 이 말은 아무리 군대에서라도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인간관계가 사적으로나마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며 또한 군대 안에 있는 이상 긴간의식은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단지 계급과 사회 이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고귀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서로 인정하며, 그 본연의 성품을 소중히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의식을 가진 위에 군사회가 요구하는 상사의 계급의식을 철저히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양자는 차원의 층이 다른 것이므로 두 가지 의식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들 양자의 의식이 결여됨으로써 생기는 규율의 문란과 이해의 부족을 그대로 견디면서 올바른 군기확립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본다.

하급자가 상하의 계급 관계에서 지극히 정당한 명령을 상급자로부터 받거나 주의를 들으면서 인간적인 모욕을 느끼거나 복종자로서의 창피한 느낌을 갖는다면 이것이 명령계통을 흐리게 할 씨앗이요, 하극상(下剋上)의 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급자가 명령하고 지휘하면서 하급자에 대해 인간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것 또한 부하에게 자율적인 복종을 일으키지 못하고 단결과 인화를 해치게 되니 불군기(不軍紀)의 암적 요소가 된다. 군인정신이 해이해졌다, 군기가 문란하다, 누구의 책임이냐? 심지어 어느 참모의 책임인가를 묻는 경우도 있다.

정훈교육이 미흡하였던가? 감찰의 감독이 불철저했었던가? 군중의 교화가 약했었던가? 아니면 인사관리의 잘못인가? 그러나 군기확립이란 고도의 지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감독의 강화에서도 아닌, 오히려 자율적 참여에서만 가능한 것 만큼 각자의 책임이며 동시에 전체의 의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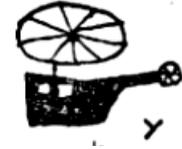
아무리 훌륭한 교육이나 철저한 감독도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것만 같지는 못할 테니 교육, 교화, 감독 등은 모두 자기가 자기를 깨우칠 보조수단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별수 없다. 나 하나가 잘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나 하나가 실천하고, 나 하나가 주위의 위반자를 교정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길밖에는…… 모두 다 혼탁한대 나 혼자 잘 한들 무엇하리! 탄식하는 자가 있는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라도 해야겠다는 철저한 신념의 확립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길은 더욱 막연하다.

재삼 강조하지만 확고한 자기의식과 모든 분야에서 제 규정과 명령에 따르는 규율적 참여의식이 군기확립의 요체이며 이러한 방침으로 군기확립의 처방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미국의 극동정책(極東政策)은 이렇다.

존슨대통령의 평화정책



엄기형(嚴基衡)

<경향(京鄕)신문 편집부국장(編輯副局長)>

### 머리말

작년 겨울에 케네디 대통령이 흉탄의 저격을 받아 사망한 뒤에 미국의 극동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듯하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치체제하에서 그 대통령이 바뀐다면 의당 국가의 외교정책도 변화하지나 않을까 하는데서 그러한 관측이 떠돌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양당외교정책(兩黨外交政策)을 취하고 있어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바뀐다 해도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케네디의 후계자인 존슨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전임자인 케네디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으며, 극동 외교정책도 거의 변함이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존슨 대통령은 그 대외정책을 전임자인 케네디의 노선에 따를 것을 선언하고 있어 극동정책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은 일본, 한국, 자유중국과 더불어 동맹관계(同盟關係)를 지속하고, 중공에 대해서는 불승인(不承認) 금수정책(禁輸政策)을 그대로 지속하는 한편, 일본을 주축으로 소련과 중공의 진출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몇 가지의 전제하에서 미국의 극동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1. 대일정책의 윤곽

제2차대전의 승자로서 미국이 일본에 진주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추구해 온 대일정책은 일본을 군국주의로부터 민주화(民主化)하고, 아시아를 휩쓸려는 공산세력을 막아내는 전략기지(戰略基地)로 삼자는데 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의 민도와 기술과 공업생산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으로 하여금 중공의 팽창정책과 소련의 남하정책을 막아내려는 커다란 세계전략의 한 고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A. 아시아의 주도자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하면서부터 그곳을 민주화하기에 노력한 목적은 미국과 같은 정치체제를 갖고 민주주의 생활양식을 갖게 하여 미국의 우방으로 삼으려는 데 있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정책은 미군 점령 하에서는 물론이요, 일본이 주권을 회복한 뒤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일본의 민주화에 성공하고, 미·일 군사동맹까지 맺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의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정치적으로 이미 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미국이 일본을 이토록 키워 놓은 의도는 날로 자라가는 중공세력과 맞서는 대등한 '힘'을 길러 주자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 점은 제2차 대전 12월 3일 일본의 오히라 외상 등 각료 6명이 미·일 경제회담을 갖고자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중공이 아시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그 책임을 나누어 지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로서 증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될 수 있는 대로 일본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갖게 하고자 노력하고 우리 한국과도 하루 속히 화해하여 국교를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 B. 소·중공 진출을 막게

미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일본이 크게 발전할 것을 기대하는 직접 목적은 소련과 중공의 진출을 힘으로 대항하는 세력을 기르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 군대를 육성하는데 이미 10여억 달러를 제공해 왔다. 이 점은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그 자위대(일본헌법상 군비를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방군이란 명칭을 쓸 수 없음)를 양성하는데 모두 8억 달러를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극동에서 전면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소련이 일본 본토를 공격하거나 또는 중공이 장차 침략정책을 감행 할 때 일본으로 하여금 앞장 서 대항케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공업기술이 발전한 나라로서 장차 전면전쟁

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을 병기 생산 공장으로 삼고 침몰하지 않는 병기고(兵器庫)로 이용하려는 데 그 다음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약 26억달러의 경제 원조를 받아 아시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발전했다. 이점을 잘 아는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대신해서 아시아 후진국들을 원조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아시아의 많은 후진 국가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말미암아 공산세력이 침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리고 달려가 달리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월에 미국 국방차관 길 패트릭 씨가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서북부에서 그 방위 부담을 더 많이 부담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한 사실로써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은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장차 아시아에서 공산세력을 막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하자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일본을 지나칠 정도로 중요시 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 2. 중국에 대한 정책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첫째는 중공의 팽창을 막고 둘째는 자유중국의 국력을 키우는데 있다 할 것이다. 이 정책의 기저는 아마도 두 개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정책은 그 동맹국인 자유중국이나 잠재적 적국인 중공이 다 같이 꺼려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미국은 음으로 양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하다.

### A. '두 개의 중국'론

미국은 중공이 중국대륙을 차지한지 10여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으로 건너가는 자유중국을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고 있다. 이것은 중공이 한국동란, 인도차이나에 대한 침투, 티베트공격, 인도, 중공 국경분규 등등 일련의 침략정책을 쓰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다. 만약 이러한 침략정책을 일삼는 중공을 인정한다면 중공은 타일란드, 월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버마, 인도 등 인접 국가들을 모조리 침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공이 사실상 대륙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침략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인정하지 않을 작정이며, 그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중공이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대한무력행사를 못하도록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폴란드에 있는 미국과 중공 대사 회담을 통해서 이미 과거 근 10년 동안 끌어오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케네디 행정부는 중국문제에 있어 중공이 대만무력 공격을 중지하고 대만정부의 존재를 시인한다면 중공을 사실상의 정권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이른바 두 개의 중국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즉 자유중국을 유엔 의석을 그대로 확보하게 하고 중공을 유엔에 새로 가입시켜 중공과 자유중국을 다 같이 회원국으로 인정하자는 이론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공만을 인정하려면 동맹관계에 있는 자유중국을 버려야 하게 되며 그 결과는 동남아 일대에 있는 반공국가들과 그 인민들의 사기를 꺾고 미국에 대한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면 매년 유엔에서 중공의 가입을 지지하는 세력이 늘어가고 있어 이를 처리할 방안이 막연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자유중국과 중공을 다 같이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도록 그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중국 정책에 대해서 자유중국은 그들대로 합법성과 정통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고, 또 중공은 그들대로 대만은 옛날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였으니 중공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미국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다.

## B, 중공불승인, 금수조치

미국은 중공정권에 대해 우선 불승인(不承認), 금수(禁輸)정책을 취하고 있다. 중공을 하나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이요,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전략물자의 수송을 금지하게 된 정책에 따라 중공과 정식으로 통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불승인, 금수정책은 미국 민주당, 공화당 다시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지난 12월 14일 미국 국무차관보 힐즈먼 씨는 '미국이 중공에 대해서 불승인 금수정책을 취해오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호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다, 즉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협상할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자유세계의 이익, 그리고 중공의 이익을 위해서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 말의 진의는 아마도 중공이 무력정책을 버리고 평화적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할 용의를 보인다면 언제든지 그 협상에 응할 것이며, 또 대만정부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중공 정권을 인정할 용의도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프랑스와 국교를 단절하지 말라고 권고하여 프랑스로 하여금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의 관례를 남겨두게 할 것을 원하고 있는 듯하다.

## C, 자유중국 및 대륙침공 견제

한편 중공의 대륙침공을 반대하며 제7함대를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중국의 중국본토 공격을 여러모로 견제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중국이 미국의 지원이 없이 단독으로 본토를 수복할 수 없다는 군사적 이유도 있지만 침략적인 중공을 자극하여 새로운 전쟁을 유발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원조 보다도 군사원조에 중점을 두어 자유중국군이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침략적인 중공이 대만해방을 끝까지 주장하며 무력침공을 감행할 경우에는 미국은 그 동맹관계를 존중하여 중공과 일전도 불사한다는 경의를 굳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을 결국 인접국가로 뺏으려는 중공의 세력을 막으려는데 그 주안이 있음은 물론이다.

## 맺는 말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미국의 극동정책은 한국문제를 따로 하더라도 모두 소련과 중공의 팽창정책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막아낼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있다. 우리 한국은 공산군과 싸우는 제1선에 서 있는 것이지만 제2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중공과 소련의 진출을 막아낼 만한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기르고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중공의 침공을 막게끔 무력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한편 중공과는 협상의 문호를 열어주고 무력으로서가 아니고 평화적 방법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할 것을 중용하고 있다. 이것은 존슨 행정부가 동서냉전을 끝내고, 원자전쟁을 터뜨리지 말자는 케네디의 평화정책을 힘차게 밀고 나가려는 노력의 한 고비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평화의 노력은 동서쌍방이 다 같이 바라고 도 협력할 때에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은 전쟁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을 노골적으로 배격하고 있어 미국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평화를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 한국은 북한 괴뢰집단이 호전적인 중공노선을 따르고 있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미국이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서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침략행동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군장병들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정세 추이에 항상 주의해야 할 줄로 믿는다.

빈터갈고 가축길러  
급식항상 이룩하자

## 마음의 혁신 · 생활의 혁신

나의 사생활 처방

내핍을 이야기 할 때마다 무엇을 가지고 내핍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주어진 상황이 아껴 쓸 건더기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자.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나 없는 생활에나 내핍은 그 마음 속, 그 생활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이기에……



- ◇경제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 ◇생활양식의 개선과 가계의 합리화
- ◇허례허식과 각계의 파탄(破綻)
- ◇소위 기분이라는 소비벽

## 경제생활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덕천(柳德天)

<재건국민운동본부 향토개발부장>

내핍생활이라는 말만 들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곧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내핍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한계를 넘고 있는데도 새삼스럽게 국민에게 내핍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일반의 공론이다. 이렇게 만한다면 항변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생활은 절박감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 내핍이라는 방법외에는 이 난국을 헤치고 나갈 방도가 없어서 하필이면 이 구차한 내핍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일까. 물론 우리는 내핍 없는 자유스럽고 풍족한 생활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생활이라고 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행복이란 그저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가 그 저주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행복은 운 좋게 굴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저 주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행복은 운 좋게 굴러 들어오는 일도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국민의 생활이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둘러 볼 때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이 피와 땀의 바탕없이 인고의 시련 없이 얻은 사람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넉넉해야 할 것을 넉넉한 가지지 못하는 것, 써야 할 것을 못 쓰게 되는 것은 부자유와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이 결핍과 부족을 견디지 못하여 자기의 분에 넘치는 무리를 해가면서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그 다음 시간의 생활은 현실과 미래가 위하는 생활이 아니고 과거를 메우기 위한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부채만이 아니고 시간과 생명의 부채인 것이다.

내핍은 행복한 장래를 위한 수련이다. 행복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불행과의 상대적인 표현이다. 남의 불행한 처지와 내가 불행했던 때와 대조했을 때에 정신적으로 또는 실생활에 있어서의 감정과의 차이로서 표현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 감정의 차이란 모든 사람이 일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한 정도가 반드시 나의 행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내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못 쓰게 되는 내핍도 있겠지 만은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것도 내핍 일 것이다. 말하자면 불가피한 내핍과 의적인 내핍이다. 어떤 것이나 내핍 하는 것은 행복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그리고 내핍하는 정도가 심각하면 할수록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 감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희망과 용기가 솟는다.

불가피한 내핍이란 빈곤의 압축에 대한 항거인 것이다. 그러나 의지적인 내핍은 빈곤을 추방하는 능동적인 작전 태세다. 가난이 우리 생활을 압축 한다는 것은 사람이 물질의 규제를 받는 것이고 인격의 격하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서 의지가 소침 되어 빈곤의 포로가 되어 허덕이고 있다.

오늘 우리국민의 생활은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외국의 원조에 크게 기대고 왔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가난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다. 그 까닭은 외국의 원조 그 자체가 적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를 갖추지 못 했던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움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수입인 것처럼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의 빈곤에서 오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큰 것은 우리 국민전체의 생활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도시인의 생활태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농촌 사람도 그 대로의 잘못이 있는 것이다.

모두가 편안한 생활을 좋아하는 것이 병폐다. 과거 일제시대에 금비(金肥)를 1년에 310만톤이나 쓰고 농사지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농경지가 넓어진 것도 아니고 단위 면적에서 생산이 불어난 것도 아니다. 무거운 짐 지기가 싫고 산은 밭가슴이를 만들어 놓고 퇴비 만들 생각은 않고 가벼운 추안가마니를 들어다 마른 가루로 술술 뿌리니 간편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금비의 분량은 자꾸 늘어만 가고 토질은 산화되고 병충해는 더욱 더해지니 결과는 농업국이니 농본국이니 하면서도 식량마저 외국에서 구걸해다 먹게 되는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속에 실력은 없으면서 옷차림이나 반듯하게 하고 말 재주나 다듬어서 힘들 이지 않고 브로커나 해 먹는 것이 자본없이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그것 잘하는 사람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는 것도 그 속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실력을 재는 것이 아니라 몸차림부터 훑어보는 것이 사람을 보는 방법이다. 그러니 산업계도 생산자의 이익보다 장사꾼의 이익이 월등하게 넓을 수밖에 없다. 원자재를 싸게 사서 생산비를 적게 먹어 싸고 좋은 물건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원자재 붙어 한복 남기고 그다음에 제 품에서 남기고 중간에 브로커가 한 몫 보고 다음에 장사꾼이 이익을 붙이고 하여 소비자의 손에는 비싼 물건이 들어가게 되어 두 개나 세 개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개밖에 못 사니 구매력은 감퇴되고 생산력은 저하되고 고용은 감소되어 국가의 산업이 발전 될 수가 없을 것은 상식 이하의 상식이다.

이런 판국에 사회는 정부가 우리에게 내핍을 요구하는 길밖에 보다 나은 정책이 없느냐고 힐난을 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는

줄어들고 일본과의 회담이라도 조속히 타결을 지어야 거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이 좁아진 현실을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서두르고 있을 것이다. 이 형편에서 내핍이상의 더 적절한 정책을 찾는다는 만시의 탄(歎)도 있거니와 우리의 이와 같은 생활태도에는 좋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핍이란 우리가 일어서는데 필요한 기본 자세로서 이 자세가 바로 선 다음에 비로서 보다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정책이란 그대로가 무슨 기적이 아니고 그 시책이 국민에게 흡수되어 현실 생활화 되지 않고는 쓸데없는 공상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으면서 보다 훌륭한 정책만을 탐하는 것은 사리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핍하는 것은 행복한 장래를 위한 기본수련인 동시에 미래의 건설을 위한 여유의 축적이고 힘의 양성이며 자립의 밑바탕이다. 국민전체에 이러한 정신적인 소지가 마련되고서야 그 위에 모든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빈곤이라 남는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부족이다. 지금 우리가 빈곤하기는 하지마는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전후의 패전국들의 참상을 들을 때 우리의 정상보다 훨씬 처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 우리를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원조하겠다.

### 나의 사생활 처방

소위 이영철(李永喆)

내핍한 생활을 참아간다는 내핍의 개념은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인간의 생활조건과 절약의 요구가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그 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흔히 우리의 현생활이 사람이 산다는 기본조건보다 나은 것이 없으므로 내핍은 강요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최소한의 기본조건이란 사회실정과 국민경제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극히 유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저러한 내핍조목을 들기 전에 우리나라 현 실정에 비춰서 우리계급의 사람이 가져야 할 평균생활조건이 어느 점에 있나를 통찰하는 계산과 이것을 나의 경우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는 정신적 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차대전후 영국의 경우 버킹검궁의 여왕이 국민의 평균생활조건에 따라 육류와 버터 없이 산 것을 보면 나도 우리 형편과 내 월급을 고려하기 전에 풀뿌리를 먹는다는 내 동포의 일부와 오바 없이 겨울에 지내는 이웃들의 생활도 포함한 국민평균생활 조건을 계산해 보고 이에 따른 내핍세칙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노력하면 될일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기본군사훈련시 배운 대로 신발을 매일 제 손으로 수입하고 집에서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며, 이부자리에 바지를 깔고 자고 몇 분 일찍 떠나 걸어 가기를 실시하면, 얼마 안 되는 용돈이나마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경우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계획 없이 기분에 따라 쓰곤 하는 각종 유흥비를 없애 잡비를 계획에 따라 줄인다면 적지 않은 돈이 절약되리라 본다.

## 생활양식 개선과 가계의 합리화



원선희  
〈재건국민운동본부 부녀실장〉

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절망해야 할 것인가. 독일은 1차대전에서 여지없는 패배를 당하고도 불과 20년에 재기하여 세계를 제패할 야욕을 품고 2차대전을 일으켜 참패를 하고 국토가 양단(兩端)되어도 이제 또 다시 국토의 반으로도 전후 불과 20년 미만에 저령도록 활발하지 않은가. 물론 그들의 과학의 발달이 뛰어나게 앞선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검소한 생활태도와 백절불굴(百折不屈)의 투지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남의 일로서는 익숙히 아는 바이다. 그런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우리 국민의 자질이 남만 못한 것도 아니고 넓지는 못해도 이 강토가 비옥하고 아름답다. 단지 부족한 것이 역경에서 악전고투해 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투혼이 부족하다. 이 정신이 곧 내핍이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미래를 건설하는 근본태도다. 전후 신흥국가인 이스라엘을 보시라. 그들 유대인들은 2천년 만에 찾아온 황폐한 조국의 땅인 사막을 옥토로 화하여 꽃피고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만들어 최근에는 국민의 연간소득이 천불이라고 한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들의 기적이 있다면 개인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힘과 마음과 지혜를 합할 수 있는 기적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삼위일체인 것이다. 마음은 하나님이고 힘은 자기의 육체이고 지혜는 성신일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합하는 때는 이루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과 소성(所聖)에서 싸워 왔기 때문에 조국도 찾고 행복도 누리는 것이다. 그들은 옛날 모세에게 이끌려 애굽에 탈주하여 조국을 향하여 올 때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고초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어 기근에서 구해 냈다는 고사를 이제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학살과 추방을 당하면서도 조국애에 불타는 그 결의가 또 다시 이루어져 그들이 다 찾지도 못한 불모의 국토, 허허벌판인 사막에서 그들의 조상이 먹던 만나를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515마일 전선을 지키는데도 우리의 힘만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600마일의 긴 거리 국방선을 지키고 있는 아랍인들을 그들 1,100만 인구 중의 청년남녀가 농사를 해 가면서 의무적으로 방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근본생활태도는 내핍인 것이다. 이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고 어찌 우리의 장래가 복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끝으로 내핍은 겸양(謙讓)한 생활태도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사회에서 부자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가 탓 하리오 마는,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고 살고 있다. 제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면 무슨 사회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이란 혼자 살 수 없고 동물처럼 군거생활만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내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나의 불행은 전체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나의 행복도 동일할 것이다. 사회의 안정 없이 개인 안정을 찾을 수 없다. 만일 내가 너넨 할 때 나의 내핍하는 생활은 태도로서 불우한 사람에게 겸양의 표시가 될 뿐 아니라 나의 내핍에서 이루어지는 여유는 결국사회를 위한 건설이 되어 전체 사회의 안정을 구성하는데 이바지될 것이다.

〈P 46으로 계속〉

가정생활이란 가족 구성 직업에 따라 생활 내용과 방법이 달라진다.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서부터 시작하여 가족의 식사, 의류의 세탁과 손질, 집 소제(掃除), 육아, 교육, 교제(交際) 기타 모든 종류의 일이 서로 얽혀서 밤에 문단속을 하고 이부자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쉴 사이 없이 계속되는 생활이다. 더구나 하루뿐이 아니고 계절에 바뀌고 가족의 성장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일이 이것에 더 부과되므로 하루하루를 무계획하게 그때그때의 사정에 맞추어서 생활 하다가는 생활에 질서를 가져 오지 못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활 요소가 희생되기 쉽다. 특히 요즘 같이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높고 이에 비하여 수입은 따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가정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는 소비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면밀한 생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지 않고서는 생활의 합리화란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이란 가족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애정의 보급자이며 생활의 휴식처인 동시에 내일의 생활능력과 의욕을 마련하여 주는 곳인 까닭에 조의, 조식으로 적은 경상수입 내에서 지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생활요소에 필요한 최저의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의 근로로서 수입을 얻어 생활내용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생활의 향상은 가족들에게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일상의 가정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건강생활의 관리와 육아, 교육 교제 등의 방향을 정하고 요양, 오락을 포함한 여가생활의 활용방법을 연구하여 어려운 가계의 합리화를 위하여 생활의 방식에 바뀌어야만 하겠다.

가계의 합리화를 위하여서는

### 1. 수입 내에서의 소비계획을 세운다.

연중의 중요한 생활요소와 자기의 경제능력과를 겨누어 보아 헛된 계획이 되지 않도록 무리가 없는 계획을 만든다. 그러나 계획은 일종의 이상인 까닭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되어서는 생활의 발전이 없다. 즉 수입면을 고려하여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만을 우선적으로 추려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여 계획을 세운다.

① 연중행사를 결정한다.

가정행사 - 결혼, 출산, 명절, 입학, 등록, 생일 등

의 생활 - 의복(새옷, 내의) 보수

식 생활 - 가정행사, 김장, 저장식품 등

주 생활 - 장판, 문바르기, 가옥수리 등 경비가 필요한 것부터

② 매일생활비 중 소비지출될 예산의 계획을 작성한다.

제1생활비 - 식물비, 의복비, 주거광열비

제2생활비 - 보건위생비, 교육비, 교제비, 공과비, 교통비

제3생활비 - 문화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

제4생활비 - 연중 큰 행사를 위한 저축 예비비

**2. 생각하는 주부가 되어 생활의 방법을 연구한다.**

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연구한다.

일상생활은 물자소비의 연속이기 때문에 무관심한 소홀한 소비는 생활비를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을 귀히 아껴서 용도에 맞도록 잘 사용하는 연구가 중요하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만든 사람의 노고를 생각하고 그 것을 사기위한 현금수입의 수고를 생각하면 헛되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직접 금전으로 사지 않는 전기, 물의 사용법은 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각별히 주의하여 시간과 노력의 절약을 참작하여 아껴쓰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다.

② 사치와 낭비를 하지 않는다.

낭비란 물품의 효용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것이며 또 쓸데없는 것에 금전을 쓰는 일이다. 자기 것뿐이 아니라 공공물까지도 귀히 다루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사치란 자기신분에 부적당한 것, 과분한 지출이 되는 것을 뜻하며 자기의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흔히 관혼상제에 있어서 체면 때문에 자기경제에 초과되는 예의를 갖추려고 하다가 경제적 타격을 받는 수가 많은데 의식이나 예의는 차례나 물질치중보다 진심으로서 성의있는 태도에 더욱 의의가 크다고 본다.

③ 물품의 보존과 손질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사용방법에 따라서 물품의 사용수명이 달라지고 수리는 빨리 함이 중요하다. 물품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손질을 함을 습관화 해야 한다.

④ 폐물(廢物)을 갱생(更生)하여 이용한다.

폐물을 잘 연구하여 갱생하면 생각 이외의 달리 요긴하게 활용될 수도 있으니 잘 연구하여 마지막까지 무엇인가 이용하는 습관을 갖는다.

⑤ 쓰레기의 처리를 빨리한다.

쓰레기는 모아두지 말 것이며 또 분류하여 너마쟁이에게 주면 현금수입도 될 수 있다.(종이, 신문지, 껍딱지,

못쓰는 모직 조각, 형겔 부스러기, 금속물, 헌신, 갱생할 수 없는 고의(古衣) 등)  
⑥ 광열, 물의 사용을 옹게 한다.

문화생활을 함에 따라 가정생활에 사용하는 광(光), 열(熱), 수(水)의 사용량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의 기초지식을 잘 알아서 사용방법을 옹게 유효하게 쓴다는 것은 경제면뿐이 아니라 문화생활의 향상에도 크게 뜻이 있다고 본다. 특히 전기는 요즘 가정생활에 많이 사용되어 가사노동의 경감에 도움이 크다.

**전기**

전기를 옹게 사용하려면 각전기기구의 소용전력량을 알아서 가정 내의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사용할 것이며 여열(餘熱)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하고 위에 얹어 놓는 것은 밑이 넓적하여 불에 필적하는 것이 열량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조명등에 있어서는 전기구 갖에 따라서 조명의 능률이 달라지고 눈의 보호에도 좋으니 꼭 갖을 써우도록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점 등은 하지 않도록 가족각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형광등(螢光燈)은 점멸할 때마다 관의 수명이 줄며 사용전력도 커지므로 15분쯤은 그냥 켜는 것이 경제면에서 낫다. 또 전기기구는 동시에 쓸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과를 구별하여 일의 계획을 세워야 하며 소용전력량에 마즌 코드를 쓰도록 해야 한다. 즉 전등, 다리미, 전열기에는 대타(代打)코드 도는 환타(丸打) 코드, 라디오, TV, 전기스탠드, 믹서에는 평형 비니루코드, 냉장고, 세탁기 등에는 환형 비닐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물절수를 위하여 부엌에서 쓴 물, 세수물, 빨래

**나의 사생활 처방**

상사 안창선(安昌善)

요즈음 물가고가 저소득자의 생활을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불안하게 만들자 너나없이 내핍생활을 해야겠다는 소리가 대단하다. 물론 내핍이전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소리 같지만 우리가 내핍생활을 위해서는 우선 소비의 합리화라는 문제부터 실천해야 할 줄 안다. 불합리한 소비지출이 우리생활을 더욱 팍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고질화된 낡은 생활 관념에서 과감히 헤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부터 실천해 보기로 했다.

소비의 합리화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나의 경우로 봐서는 소비의 분산지출(分散的支出)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친구와 만나 다방이나 극장을 가든지 또 애인과 데이트를 하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일방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서로 나누어 부담하자는 것 말이다.

또 극장도 일류를 피하고 이류를 택하고 데이트 장소도 다방이나 기타 돈이 드는 장소는 피하고 공원같은 곳을 택하는 것이 곧 소비의 합리화가 아닐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내핍과 직결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흔든물, 소제(掃除)물, 마당, 화초에 뿌리는 물 등을 잘 생각하여 쓸 것 같은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부주의에서 물을 따라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수도전(水道栓)이 패킹이 헐거우면 곧 바퀴 끼우도록 한다.

### 연료(燃料)

가정에서는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연탄의 성질을 잘 알아서 사용하면 삼분지 일은 절약할 수 있다. 바람구멍은 꼭 맞는 뚜껑으로 화력을 조정하고 적기에 탄을 갈아 넣으면 열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또 귀찮다고 해서 탄이 다 타기 전에 화력이 가장 좋을 때에 갈아 넣게 되면 화력을 이용 못하는 까닭에 실내의 난방도 안 되고 탄은 탄대로 소실되므로 탄을 적기에 갈아 넣는다는 것은 탄 절약과 열의 관리에 중요하다.

#### ⑦ 물품구입을 옹계 한다.

물품을 잘 사려면 올바른 상품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선전이나 광고에만 치우치지 말고 공인의 품질보증표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식을 얻도록 한다.

상점에는 소매점, 도매시장, 백화점, 노점, 행상 등이 있는데 요는 헛된 시간만 노력의 소모 없이 질이 좋은 물품을 싸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필요한 식료품 등은 평소에 선택하여 놓은 신용있는 상점을 정하고 채소류는 새벽 또는 저녁에 시장에 나가서 사면 싼값에 살 수도 있으나 물건의 질과 양에 속지 않도록 감별을 잘해야 한다. 가구나 의류 등은 살 기회가 적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도와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여 마음에 들고 필요한 것으로 신용할 수 있는 성실한 상점에서 사도록 한다. 하여간 주부는 늘 물가시세변동에 대하여 빠르며 옹계 알고 있어야 한다.

물건을 살때는 ① 물품에 따라서 대량을 사면 싸게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싼 맛에 불필요한 양을 많이 사서 썩힌다든가 필요이상으로 헐프게 많이 쓴다든지 하면 도리어 낭비가 되어 비싼 것이 되므로 양에 주의하여 사도록 한다. 그러므로 적당한 필요량을 싸게 사려면 이웃 친구와 상의하여 나누어 쓰도록 하면 피차 좋다. ② 계절의 과일, 야채, 생선을 사도록 한다. 제때가 값도 싸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으니 제철 것을 사서 먹도록 하난. ③ 떨이나 싸게 파는 것이 품질이 좋고 값이 싼 적도 있지만 또는 품질이 나쁘고 흠이 있는 것이 있으니 질의 감별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값이 싸기는 하지만 양이 부족 되는 경우가 있으니 물건을 살 때는 양을 재확인하여 사는 관습을 갖는다. ④ 월부제(月賦制)로 사는 것은 일시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현금보다 비싸니 필요이상의 것을 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외상 거래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⑧ 가계부를 적는 습관을 갖는다.

생활에 있어 헐벗고 먹지 않으면서 절약을 하여 저축하는

것이 훌륭한 가정경제 운영이 아니다. 가족의 건강이나 노력,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최저의 금전을 근로에 의하여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요즘같이 물가가 시시로 변할 때는 가계의 합리화란 꼭 힘든 일이다. 가계부란 넉넉한 금전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적자가 되기 쉽고 또는 적자가 되어 이것을 메꾸어 나가야 할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다.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고 생활 연구의 자료가 되며 반성의 기회도 마련해 준다. 만약 적자가 계속 된다 치더라도 어디에 얼마나 쓰여 졌는가를 잘 알 수 있어 다음 달 지출에 참고도 되고 물가변동을 알 수 있으며 지불한 증명 근거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선(爲先)생활의 예산계획이 미쳐 서 있지 않더라도 그날그날의 지출을 충분히 기첩(記帖)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겸하여 부적 비를 메꿀 수 있는 두 수의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 기첩(記帖)방법

가계부는 사도 좋고 공책으로 집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다. 간편하게 알기 쉽게 기첩 할 수 있도록 비용을 너무 많지 않도록 나누고 기초 건수가 많은 부식비는 적은 수첩에 따로 적으면 알기도 쉽고 지수도 절약이 된다. 예를 들면 가계부에는 비목을 15종으로 나누어 적고 부식수첩에는 부식 내용을 세밀히 적어서 하루하루에 식생활의 균형을 잡는다. 표예시와 같이 기첩하여 월 말결산에 있어 비목별로 합계를 내어 예산액과 대조하여 차월에 참고로 한다.

유효 적절히 시간을 활용한다.

가정생활 중에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면서 매일 잔일에 허덕이게 되어 하루 일을 총결산 해 보면 노력과 시간에 소비에 의하여 성과는 아주 작는데 이것을 합리화시켜

### 가계부 표예시

월 일	내 용	비 목	금 액	비 고
1. 3	원천소득세	1	1,300	
	우편저금	14	200	
	쌀(1팔(叭))	2	3,000	
	부식	3	120	
	교통비(K.Y.)	10	40	
	약(Y)	8	20	
	간장	4	120	
	일 계		4,800	

비목은 1. 세금, 2. 주식, 3. 부식, 4. 조미료, 5. 간식, 6. 주거광열비, 7. 피복, 8. 보건위생, 9. 교육, 10. 교통비, 11. 교육·오락, 12. 교제, 13. 직업비, 14. 예비비, 15. 잡비

### 부식비수첩표예시

1월 부식물비 예산액 1일~100원

본월분, 3,000원

일	식품명	수량	가격	일 계	차인액 (差引額)
1.3	콩나물	200g	10-		
	우육(牛肉)	300g	50-		
	무	500g	10-		
1.4	파	1속	50-	120-	-20
	두부	2모	12-		
	계란	10개	60-	72-	+28

가정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수익노동 시간을 만들어 가계의 합리화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선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생활방법의 개선은 물론 그것에 맞추어 가사기술을 연구하고 좋은 방법을 배워서 시간과 노력의 능률화를 기하여 수익노동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일과의 생활시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무엇에 몇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본다.

- 노동시간
- 수익노동시간 - 노동, 준비, 내직(內職), 가정 외에 일하러 나간 시간
  - 가사노동시간 - 취사(炊事), 설거지, 재봉(裁縫), 손질, 매물(買物) 빨래, 소제(掃除), 교육, 기타 집안일
  - 휴양시간 - 휴식, 수면
  - 생리적시간 - 세면, 몸단장, 용변, 목욕 등
  - 사회적시간 - 교제, 부인회, 강습회, 사친회, 기타 집회 출석, 은행, 공무서 출입 등
  - 교양, 오락시간 - 운동, 독서, 오락, 교제 등
  - 자유시간 - 기타

이상과 같이 일과를 시간으로 나누어 분석해 본 후 일의 경중에 비중을 고려하여 새로운 생활계획을 작성한다.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분초를 아끼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예정대로 일이 끝나도록 한다. 이르기 위하여서는 늘 일의 순서와 방법, 또는 생활양식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점은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하여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의 생활로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겠다.

**우리위한 자활사업  
내가먼저 앞장서자!**

### 허례허식(虛禮虛飾)과 가계(家計)의 파탄(破綻)



이영희(李寧熙)  
〈한국일보 문화부기자〉

감자로 끼니를 메우고, 헌 커튼으로 옷해 입으며 막일하여 지낸 제2차대전 직후 서독여성들의 내핍생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성냥 한 개비, 버터 포장지 한 장 아껴서 20년. 요즘의 서독은 세계 유수의 부강국이 되었으나 검약과 저축 정신은 지금도 국민 각자의 생활에 뿌리 깊 이 박혀 있어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소비하기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후, 공출을 면하게 된 쌀로 진탕 술을 빚어 마시고 옛이랑 떡이랑 해 먹으며 희희낙락 아쉬운 것 모르고 지낸 우리나라 백성이 이제 궁핍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과 비겨볼 때, 그것은 단시 시니결한 결말이라고만 웃어넘길 수 없는 아픔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

이러한 현대의 이습우화, 개미와 베짖이 시말기(始末記)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름날에 누린 베짖이의 안일에 대한 반성도 반성이러니와 앞날을 위한축적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애쓰는 개미를 조소한 베짖이의 물지각한 허영심에 있다.

당장 쌀독에서 바닥소리가 들리는데도 찾아든 손님에게 술상을 차려내는 허례. 집 한간 없는 주체에 유행을 좇아 철철히 옷 해 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허식. 건성 좋아하는 그 허영의 수레에 휘감겨 축적이 없는 가계는 나날이 침식되어 가기 마련이다.

최근 서독에서 돌아온 외교관이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정식으로 모 고관택 저녁식사에 초대받고 가보니 일품요리와 수프, 과실의 아주 간단한 식단이 차려져 나온 데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간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하자면 - 사람을 일부러 몰려 놓고 오죽잖게 - 하여 욕이 나날 판인데 거기서는 그게 정찬이랍니다.”

미처 손댈 수도 없이 많은 음식이 즐비하게 식탁에 쌓이고 정신이 혼미해지도록 술을 얻어 마셔야만 비로소

대접을 잘 받았다고 흐뭇해 하는 족속과의 사고의 표면상 차이는 크다. 그러나 그 실질상 차질이란 따지고 보면 의외로 작은 것이다. 무척 사소하나 반면 근본적인 영향을 끼치는 차이 - 그것은 자신과 실행력의 차와 같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 국가의 장래에 대한 자신, 생을 영위해 나가는 데 대한 자신, 얼핏 보아 고집과도 같이 여겨지는 이들 확고한 자신 없이 허례허식을 물리칠 수는 없다.

빛을 저서라도 대접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서니까.

무리해서라도 옷을 맞춰 입지 않으면 남이 알보니까.

남들의 입이나 눈이나 생각을 위주로 한 이러한 허영 속에 자신은 것들 리 없고, 자신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불안이 늘고 그 불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온갖 가식이 성행하기 마련이다. 만약 내일을 구축하기 위한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다면 분에 넘친 허례허식에 얽매일 까닭이 없다.

자신이 없는데 연유하는 허례허식, 허례허식에 연유하는 물질적 파탄, 물질적 파탄에 연유하는 좌절감, 좌절감에 연유하는 자신력 상실, 자신 상실에 연유하는 - 이 다함없는 악순환 가운데 가계와 국제(國計)는 기동뿔리를 잃어간다. 거기에다 보태어 실행력의 부족.

일체주의(一采主義)에서 시작되는 식생활 개선이, 혼례상제의 간소화에서 시작되는 생활합리화가, 보다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우유부단이란까 추진력의 결핍, 그것이 허례허식을 연연히 지속시키는 원소가 되어 있는 것이다.

관습의 노예가 됨으로써 발전성이 없는 오늘에 묶여 살아나가는 군상, 그 인습을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존대하는 보수층들, 이 답답한 그림자들이 가져지지 않는 한 허례허식 또한 우리를 주변에 존재 한다. 그러나 고질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 족속은 오랜 전쟁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왔다. 남을 친일 없이 항시 남에게 침공당한 역사의 언저리에서만 생을 이어온 백성이 그날그날을 무사하게 지내는 하루살이 생활에 피해를 피부(皮膚)를 적서 왔다 해도, 오히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 보는 이들도 많다. 내일을 짐작할 수 없는 피난길에서 한 그릇 콩보리밥에 공복감을 메우고 들판의 석양을 바라보며 느끼던 그 비애를 닮은 노여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죽하니라.

지금으로부터 19세기 전, 한 성인이 남긴 그 비통한 생의 지혜를 우리는 그리고 우리 조상은 몸소 체험함으로써 가슴 사무치게 심어온 것이다.

당시 유태인들도 피압박민족이었다. 보람 찬 내일을 계획할 수 없는 그늘진 골목에는 불안이 짙은 안개처럼 서리고 있었다. 내일의 목숨, 내일의 살림, 내일의 생활을 걱정하고서는 모두 들떠서만 지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백성을 위로하며 오늘을 보다 충실히 살아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을 마치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환난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말은 자칫하면 선동적인 향락주의

슬로건처럼 곡해되기 쉽다. 그들은 대부분 앞날에의 절망감 때문에 오늘의 향락에 몰두해 버리고 싶은 마음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내일을 위한 절약, 내일을 위한 저축이란 이곳에서는 찾을 길 없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동할 수 있는 섬세한 감정과 생활에의 애정을 잃은 채 실상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회색지대에 묻어 왔는지 알 수 없다. 스스로의 나라를 지니고, 스스로의 정부를 지니고, 스스로의 사회를 지닌 요즘에도 그 피해의식은 여전할 것 같다. 늘 이웃과 남을 의심해 살아야 하던 슬픈 급성이 이제는 체질화되고 만 것일까

의심과 시기와 비협조적인 비판을 일삼는데 데서는 여하한 진보도 바라기 어렵다. 의생활 개선을 위해 짧은 치마 입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누가 제창한다. 그러면 곧 조소가 번진다. 기껏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야고.

식생활 개선을 위해 분식화 운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곧 의심이 메아리친다. 제분업자하고 무슨 꿍꿍이속이 아닌가 하고. 도시락 휴대령이 내린다. 그러면 '되지 않게 자기네들은 점심에 비프스테이크를 먹으면서'하며 반발한다. 절약, 내핍하자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그만한 생활의 여유조차도 없다고 노여워한다. 설령 그러한 비판의 태반이 사실이었다 치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는 국민으로서의 우선 협조하는 맘가짐이 긴요하다.

시기와 갈등과 허영과 인습 그 모든 낡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서로가 인생에게 보다 솔직해지며 충실해질 때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허례허식의 지양은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우리말처럼 소위 빈말이 많은 언어도 드물 것 같다.

### 나의 사생활 처방

소령 강인석(姜麟錫)

내핍생활이란 용어가 비단 요즘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다. 적은 월급에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하여 가는 봉급생활자에게 당연히 이 내핍생활이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나의 내핍생활 방법은 극히 간단하다. 우선 무조건 매달 봉급에서 1천여원을 떼어 은행에 적금을 한다. 월급에서 1천여원을 떼어 낸다는 것이 처음엔 무척 힘이 들었으나 이제는 습관이 되어 그리 고통스럽지 않다. 1천여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하루 한 갑씩의 담배를 이틀에 한 갑으로 줄이고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친구들과 마시던 술도 한 달에 두 번으로 변경시키고 따라서 합승이나 택시는 완전히 미련을 끊고 전차를 이용하도록 했다.

나는 친구들에게 가끔 이런 식의 내핍생활방법을 권하여 왔는데 확실히 일거양득의 생활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매달 적금한 돈을 나중에 목돈으로 잘 이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내핍생활의 고통을 시원스럽게 씻어 주기 때문이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택에서들은 모두 무고하십니까.  
덕택으로.

기체후일향만강하옵시며, 등등  
타인에게의 지나친 관심의 표현이라고도 할 빈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같은 빈말에 상징되는 우리나라식 길치레. 내용 없이 형식만 선행되는 비극의 종말을 우리는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도 겪어 내려왔다. 속담에 ‘말은 천양 빛을 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빈말이 갠아준 빛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허언에 집약되는 허례와 허식. 이 허울좋은 존재들은 가뜩이나 피어린 우리들의 적자살림을 보다 쪼들리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남이야 어딜 가든 조금도 관심이 없으면서 만나면 깡듯이 ‘어딜 가십니까’하여 인사해야만 예절답다는 틀테박힌 생각에서 기인될 그 갖가지 맹집(盲執)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고대 희랍의 시인 아리스토파네스는 ‘빈곤은 생활양식의 스승’이라고 했다. 숨이 턱에 닿는 몰가고와 생활고는 조상으로부터 알뜰히도 물려 받은 우리의 허례허식을 깡그리 내던질 것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유가 없는 생활 속에는 허영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다. 이 가난 속에서 다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선 우리들의 생활 주변을 훑어보아야겠다. 내 자신이 지켜온 허례허식의 실체를 파악하고 나서 그것을 없애는데 끈덕지고 다부진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질과 화폐에 대하여 합리적인 생각을 길러야겠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돈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돈을 지배하여 규모있는 살림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이 의연(毅然)한 생활태도나 명백한 생활양식 주변에서 허레나 허식은 결코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

<P36에서 계속>

겸양은 도의요 미덕이다. 이 미덕이 없이 사회의 협조협동이 있을 수 없다. 내핍이란 한 사람의 넉넉한 생활태도를 마련하는 인색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를 그 성원의 힘으로 건설하기 위한 힘의 축적이요 사회의 균등을 덕으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내핍은 사회에 대한 봉사요 자신의 적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의(道義)요 협조다.

위에서 말한 몇 가지 점으로 보아서 이 난국을 극복하는데 근본자세가 곧 내핍이다. 내핍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생활이 다시 더할 수 없는 데까지 어려운데 이 이상 내핍을 요구하는 것은 그 무리한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난을 하지마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인간의 생활에는 어딘가 내핍 할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내핍으로 인하여 남을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가짐에 더 큰 뜻이 있는 줄 안다. 전국민이 이런 정신적인 자세를 가지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잘살아 볼 수 있는 때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내핍하는 생활태도가 곧 혁신의 근본이다. 아직도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지 못하고 행복이 담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행복은 사치스러운 그릇에는 빛나지 않는 것이다.

## 소위 ‘기분’이라는 소비벽(消費癖)

그 생태(生態)와 처방(處方)



임방현(林芳鉉)  
<한국일보 논설위원>

### ‘기분’의 생태

‘기분’이란 낱말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면 ‘마음이 저절로 향하는 상태’라고 풀이했다. 그 밑에 이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면 ‘감각에 따라 생기는 단순한 감정. 막연한 쾌, 불쾌의 마음’이라고 달아 놓았다.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인 경향성으로서 어느 쪽으로 흐르는 성질과 이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를 운전하는 작용의 성질물로 편의상 나누어 보자면 ‘기분’은 확실히 앞 것에 속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저절로 움직이는 기분을 어둑어둑하고 방향이 뚜렷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면, 이러한 흐름을 때에 따라서는 막기도 하고 꺾어 놓기도 하며 그 방향을 돌려놓기도 하는 운전의 상태에는 보다 치밀한 계산과 앞뒤 관계를 잘 줄 아는 상황판단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을 생각해 내게 하는 목적 등이 필요하다.

가장 비근한 예로, 술이 취했을 때와 맹송맹송한 맑은 정신일 때와를 비교해 보면 될 것이다. 여러 가지의 기분, 그 중에서도 기분이라는 소비벽이 두드러지게 발동하는 때는 취중이다. 어느 술병이 제삼의 술병을 이렇게 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 친구는 절대로 먼저 술을 먹자고 스타트를 끊는 걸 보지 못했다. 그 대신 한 번 술이 거나해지기만 하면, 그 때부터는 그 친구판이 되거든. 2차에서 3차로 호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한 용감히 발전한단 말이야.”

확실히 이런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볼 수 있다. 알코올이 몸 안을 누비고 한 바퀴 돌면, 자율신경이 비틀거리고 자제력이 줄기 시작한다.

옛날 지주층을 중심으로 지식인들이 소수계급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는 그러한 자율신경의 마비가 세속을 초월한 하나의 맛으로 찬양되기도 했다. 당시 그들의 생활은 부지런히 일해서 벌지 않더라도 그만한 기분발산을 받쳐주기에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대부분의 지식인층이 실질적으로는 보잘 것 없는 '월급쟁이'로 전락한 오늘날에 있어서 그와 같은 기분 제일주의가 그대로 통하지 않을 것은 정한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분이 활개치고 낭비벽을 조장하기 쉬운 계기는 꼭 술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다분히 서구적 의미에서)의 정신적 특징인 초조와 욕구불만과 방향 감각의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황무지가 또한 기분의 유력한 유도체인 것이다.

본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일하는 속에서 사람으로서의 보람을 실감하지 못하게 될 때, 욕구불만에 휘감긴 정력은 울적하게 가라앉아 쌓일 뿐이다. 그리하여 이 울적한 침전물은 걱정적인 돌파구를 극히 감성적인 측면—모험, 투기, 스틸, 섹스 등에서 찾게 되고 자극의 양적인 집적과 반복 속에서 더욱 더 초조와 욕구불만을 첨예화한다. 여기서 마사지라는 건 육체, 정신적인 건강일 뿐이다. 독한 술에 인이 박혀 더 독한 술을 찾는 거나 다름없다.

### 기분의 봉쇄(封鎖)

그러면 것처럼 무책임하고 가계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기분을 봉쇄해 버릴 수는 없을까, 나는 그것이 타율적으로 걸로만 봉쇄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 않은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봉쇄가 완성될 때 얼마나 무미건조한 비극적 국면이 빚어지는가를 요 얼마동안에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봉쇄의 요체는 다름 아닌 실질소득의 저하다.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서면서 현저히 눈에 띄는 현상이다.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내외의 경제적 단점을 반영하여 조야 간에 '내핍'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분봉쇄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근래에 부쩍 뛰어오른 물가와 제자리걸음하면서 상대적으로는 훨씬 줄어든 수입과의 극심한 불균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사무실에서 계장급 한 사람이 이렇게 익살을 부리는 걸 들었다.

“요즘은 아침에 집을 나올 때 단돈 백원 달라기도 여간 미안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난 아예 월급날이면 몇몇 친구를 몰고 가서 막걸리 파티를 개최하거든. 평소에 얻어먹은 것 아주 안 값울 수는 없고, 액수야 적든 말든 그래도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날 결단을 내릴 밖에 딱 도리가 없지 않아.”

### 나의 사생활 처방

중위 홍순석(洪淳奭)

현재의 우리나라 봉급으로 그 달의 밸런스를 맞춰나가자면 내핍생활(內乏生活)이란 것이 당연한 생활규모로 되어 버린다.

소비를 최소한도로 줄이고 보다 건전한 자세로 생활하는 방법에는 각자의 성격과 취미, 사고방식에 따라 여러 길이 있겠지만 나는 독자로서 내핍생활을 이행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는 더구나 친구를 만나서 대포라도 한 잔 나누고 싶고 아가씨와 데이트도 하고 싶지만 일단 독서에 취미를 붙인 뒤로는 퇴근 후의 외출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아무리 각쟁이 짓을 해도 친구를 만난다 여인을 만난다 하게 되면 2백원 내지 5백원이 별로 별로 표시도 없이 사용되어 버리니 허무할 따름이다.

그래서 나는 극히 중대한 일이 아니면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그 대신 집에서 독서에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다. 책은 주로 도서관에서 빌려오고 때론 친구로부터 빌려 보기도 한다.

이건 그래도 호방한 편이다. 슬하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두서넛 되는 중년들의 처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무겁게 두 어깨를 내려 누르는 물가는 자연히 다방출입을 막고 대포집 행차도 뜸하게 만든다.

석양 퇴근시간이 되어도 쉽게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닌 보기에도 매우 딱한 엉겨주춤한 상태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무료한 저녁을 어떻게 처리할 바를 몰라—모르는 게 아니라 처리할 호주머니 여유가 없어 서성되는 사무실 분위기를 흡사 흐르지 못해 있는 구정물과도 같다.

무기력과 무표정의 침체상태에서는 차라리 기분이라는 소비벽이라도 꿈틀거리 주었으면 싶은 때가 많다. 만약 내핍이니 소비절약이라는 것이 이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비위생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우선 의심과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 기분의 지양(止揚)

결국 기분이란 봉쇄될 것이 아니라 지양되고 관리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기분을 관리하고 지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기로서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목적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내핍이나 소비절약이 제 뜻을 찾지 못할뿐더러 보기에 따라서는 공상과 근친 이상의 것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낭비가 미덕'이라는 상업주의 신도덕이 생길 법도 하다. 유효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자꾸 낭비가 뒤쫓아 와야 하겠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현시적 소비(衡示的 消費)가 경제학의 연구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없다. 그런 나라에서는 이미 오랜 옛날에 노동층의 수탈에 의한 자본축적을 완성했으므로 그 후에들이 경기의 파도를 타고 소비만세를 부르는 것도 그럴 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사회주의를 나라살림 방식으로 삼는 여러 나라에서는 비절약의 희생을 전국민에게 고루 요구하면서 국가적 계획하에 그들대로의 자본축적을 신속화 하여 왔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소비문화를 실컷 향락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뚜렷한 목표 아래 사회성원 전체가 희생을 균분하고 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따금 한국 사람들은 저축심이 박약하다는 말을 곧잘 듣는다.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그때대로는 생활기반이 안정되었던 월급쟁이에 비해 확실히 저축은 거의 보잘 것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저생활을 꾸려 나가기에도 적자를 면할 수 없는 봉급수준에서 저축이란 한낱 표어에서나 쓰는 낱말로 화해 버린 것이다. 또 푼푼이나마 모아 본다고 했자 우리들 살림을 앞질러 달리는 ‘인플레이’ 때문에 저금통장에 기재된 출입무상한 소액표시짜이아 빛을 잃기 마련이다. 이런 실정을 어느덧 저축이란 도대체 생색도 안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실감을 사람들에게 심어 넣어주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그러한 사회 풍조를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거것 없이 바라보는 데에서 비로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발견되고 그래야만 그에 알맞은 처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려운 살림살이나마 그런대로 아끼고 모으는 마음씨는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지금 우리나라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끼고 참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영상과 실감 없이는 결코 국민의 자발적인 절약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끼니를 굶어 제 자식을 독살하게 까지 되는 판에 한 편에서는 ‘인플레이’를 기회로 탐욕스런 이윤 추구에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입으로만 내뱉을 외치면서 자기생활은 탄판인 고급관리가 존재하는 한 내뱉고 절약은 차라리 양성적인 기분 발산만도 더 못한 음성적인 울적과 궁상을 우리사회 안에 만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국민의 마음에는, 이젠 별 수 없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한 것이라면 스스로 고생을 참아 넘겨야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각오와 자각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고 끌고 나갈만한 지혜와 실천력을 정치권력이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가 보다 더 큰 당면문제라고 생각된다.

소비벽을 나무라고 내뱉 절약의 기풍을 불러일으키는 진짜 방법은 한낱 수신교과서적인 구호강의가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 어떻게 커다란 물줄기를 그 쪽으로 잡아 둘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

교양

## 과장이라는 이름의 존재

- 그 유형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



주동석(朱東石)

<공군중령>

### 1. 서언

조직체 운용의 사대요소로서 4M의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즉 4M은 Mission(임무), Man(인적자원), Means(물적자원) 및 Modernization(현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부여된 조건하에서 인적 및 물적자원을 현대화된 관리방법에 의거하여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주어진 임무를 경제적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대한 경원(經援) 및 군원(軍援)의 점차적 소멸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재정의 막대한 지출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제상황은 결코 낙관을 불허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의당면 현대화사업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 경영방법의 모색, 채택이 긴급한 당면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상기한 바 합리적 경영방법을 강구 실천함에 필요한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궁극적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소는 결국 인적요소에 귀착되는 것이며 인적요소 활용의 성패는 합리적 경영방법의 성패문제에 직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기업경영체 조직화에 수반하여 이를 통제 조정하는 기능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며, 이 통제 조정기능을 충분히 구사 발휘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관리자 일인의 명령만으로써 조직체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며 백 명의 부하 만으로서도 기업체의 목적하는 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대기업이 지니고 있는 특색이라 하겠다.

최고관리자와 최하말단의작업자 사이에는 각급 통제 조정부처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러한 중간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이라는 존재는 현대 기업체조직의 중추신경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군조직체는 물론, 민간기업체에 있어서도 주요한 참모통제기능을 발휘하여 최근 클로즈업되고있는 과장이라는 존재에 대해 이의 임무나 직능보다도 과장의 형(型)과 과장의 통솔법에 관하여 지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 검토하고자 하느 바이다.

## II. 경영의 변화와 과장의 타입

기업경영이 변화 발전함에 따라 과장의 형(型)을 나누어 보면 여러 가지로 분류하여 볼 수 있겠으나 다음 세가지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로 업무에 정통한 베테랑형이 있고, 둘째로 과의 업무능률을 집단적으로 고양시키는 집단능률고양형이 있으며, 셋째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업무에 적용시키는 경영개발형이 있다. 이상 상술한 3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 (1) 업무베테랑형

이 형의 과장은 그의 과나 과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그의 오랜 경험으로 마스터한 업무에 정통한 숙련자이며 개개의 업무에 표본을 제시함으로써 과원을 통솔한다. 이러한 형은 업무의 베테랑으로서의 일개 과원으로서는 대단히 우수하다고 하겠으나 과 전체를 통솔 운영하는 관리수단은 미약하며 부족하다. 이러한 형의 과장으로서의 행동범위는 부하직원과 동일입장에서 경쟁하는 범위에 국한된다.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혁신 유통혁명의 폭풍은 공장사무실은 물론 판매 분야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경험과 업무지식 만으로서는 도저히 기업경쟁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새로운 기술자가 대두함에 따라 이러한 업무 베테랑형은 점차 소멸할 운명에 놓여 있다.

### (2) 집단능률고양형

이는 업무베테랑형에서 일보 진전한 형이며 관리자로서의 관리원칙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과의 작업이나 업무를 개별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과의 집단적 사기가 고양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 따라서 업무에 계획성 있고 지시방법도 훌륭하며 조직의 운영에도 능하다 그러나 과의 업무범위는 상부로부터 부여받는 범위 내에 한정되며 이미 확정된 업무를 동일방법으로 처리하는 이외에는 업무범위나 작업방법을 전환하거나 개선하지 못한다. 즉 한정된 테두리 내 또는 타성으로 움직이는 범위에서만 집단능률 향상에 전념하게 된다. 오늘날의 경영에 있어서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만의 업무능률로서는 그 업무자체가 기업의 성장발전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가 될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경영에 기여할 기능으로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영관리 원칙의 충실한 준봉(遵奉)자만으로는 부족하며 경영관리에 필요한 센스가 요청되는 것이다.

### (3) 경영개발형

경영센스가 풍부한 관리자를 말한다. 경영형태의 격심한 변화과정에 있어서 기업의 성장발전을 기도함에는 경영센스가 과장급에도 필요하다. 이 경영센스란 경영관리계획의 전제가 될 조건변화에 대한 경영관리판단을 함을 말하며 창조력과 기획력을 동원하여 업무의 향상개발과 새로운 처리방안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직능은 본래 경영관리자의 기본적 기능이며 이를 보좌하는 General staff 기관의 직능이나 과장은 현실적으로 경영방침이나 경영계획을 현장작업이나 업무에 구체화하는 Promoter로서의 지위에

있는 이상 경영센스가 없이는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

이상 열거한 3개 형에서 어떠한 형의 과장이 가장 요망되는가를 살펴보면 (1)의 베테랑형은 보수적이어서 시대성에 비추어 이미 낙후된 존재이고, (2)의 집단능률고양형도 경영센스의 부족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3)의 경영개발형도 장래에의 경영자로서의 요구되는 자질은 구비하고 있으나 과장으로서 과의 업무능률을 집단적으로 고양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영 Staff로서는 적격이나 과장으로서의 부족하다. 과장의 이상형은 집단능률고양형과 경영개발형을 혼합 조화하여 기획의 상황에 따라 양기능을 교묘히 발휘할 수 있는 형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관리자의 훈련을 보면 우선 업무 베테랑형으로부터 집단능률고양형으로의 탈피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부가해서 경영개발형으로서의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체계를 보더라도 오늘날의 과장은 집단능률의 고양과 아울러 경영개발능력의 구비가 요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과장의 리더쉽

현대기업이 대규모화하여 짐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문제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어 이미 선진제국에 있어서는 이 분야에 많은 연구발전을 이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날 어떤 기업이든 그 기업의 성공여부는 기업관리의 성패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경영관리자층, 특히 중간관리자인 과장급의 리더쉽에 관해서 약간 고찰해 보기로 한다. 기업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일 때는 경영자는 일명 또는 수명으로서도 충분하다. 그러나 기업이 발전하여 대규모화 하게 되면 기업경영면에 있어서 중간관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경영관리층이 팽창하게 된다.

특히 기업의 관리자층 중에서 중간관리자(Middle Manager)의 위치는 첫째로, 최고관리자와 말단작업자 간을 연결하여 주는 접착점에 있으며, 둘째로 직장에 있어서의 제반 업무사항에 관한 보고를 소관업무 담당자나 부하직원으로부터 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 중간관리자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장급이 이에 해당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은 기업의 직접 Promoter로서의 역할 및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그의 역할을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과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하직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도력량,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결하기 위한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지식,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지식,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주는 교육자적인 재능, 복잡다기한 여러 업무상호간 또는 다른 과와의 업무에 있어서의 조정적인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환언하면 최소한 상술한 제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는 과장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면 새삼스레 말한 필요는 없지만 전후 일본의

경제발전상은 대단한 것으로서 시기적인 변동이나 산업별 변동, 기업별 성쇠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으며 이에 수반하여 방대한 중간관리자층이 대두하게 되었다.

오늘 날의 일본 경제의 발전은 그들의 우수한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층인 과장급에 통솔력은 여하한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본의 모(某)학자가 일본 내 중요 기업체 숙제를 선정하여 과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본 결과 과장에 대한 신임이나 만족을 표시하는 것보다도 거리가 다 불평불만을 표시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규모라든지 발전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의 공통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에 있어서의 중간관리자는 고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심이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막심하게 받은 세대이며 이 연령층과 부하직원 사이에는 이미 연령적으로 세대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인 부하직원은 기성세대의 권위를 별로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직장의 연공자를 존경하는 질서(秩序)감도 거의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혁신 경영혁신의 도입에 따라 과장급은 자칫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사고방식 면에서 뒤떨어지기 쉬우며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 부하직원을 충분히 통솔하기가 어렵게 되기 쉽고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기술 staff의 발언권이 필연적으로 강화하게 된다. 직장 인사 즉 인사관리에 대한 전문 부문- 인사부나 노무부의 관리는 강화되며 여기에 노동조합이 겹쳐 든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은 약화되기 쉽고 부하직원으로부터는 불평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 하기 위하여 근래에 와서 감독자 교육이 성행하게 되었고 과장이 부하직원을 통솔 하는데 민주적 방식을 채택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들이 부하직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권한을 가 능한 이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장급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부하직원들이 잘 따라 오지 않고 과의 단합이 잘 안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음을 본다. 이 원인을 고찰하여 보면 문제는 대부분의 중간 관리자가 너무 민주적인 것에 과민 하든가 기실 방임 또는 전제에 흘러버린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더십이란 각종 상황에 따라서 관리에 Level이나 기업별 또는 부하직원의 질 등으로 인하여 변화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리더십의 근본은 사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유연한 태도로 자기의 놓여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을 가령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경영혁신 시대의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보겠다 이 유연성(柔軟性)을 망각할 때 현재의 중간 관리자는 그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민주적 방식을 따른다 하더라도 기업의 고위층과 부하직원으로부터 통솔력에 대한 불신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일 독자 여러분이 과장이라는 곤란하고도 중요한 지위에 앉았다고 한다면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는지?

다음에 열거하는 리더십 양케이트는 본시 미국의 이것을 일본의 리서치 센터에 있는 사카모토후지리(坂本藤良)씨가 1960년 이래 약 8,600 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략적 태도를 강조하는 나머지 중간관리자가 부하직원을 다루는 기술에 관해서는 기술하지 않고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양케이트의 개개질문에 대하여 독자는 여러분이 찬부(贊否)를 판별하여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의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 리더십 양케이트

기일(其一)

A과장은 자기 부하 30명 중 4명이 세면장에 너무 자주 드나들며 또한 작업 중 태만을 인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직원을 동시에 집합시켜 세면장 사용 문제 및 1개월분의 작업 수행에 관한 주의를 하려고 결심했다. 이 과장에 결심에 대하여 찬성 합니까? 불찬성 합니까? 그 이유는?

기이(其二)

B과장은 부하 계장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작업의 완성을 일단 지시하면 그 후에는 그 작업에 관하여 일언반구(一言半句) 질문하지 않고 일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이유로서는 그 계장이 감독직(계장)에 보임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 작업을 완성시켜 기대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B과장의 이러한 방법을 찬성 합니까? 불찬성 합니까? 그 이유는?

기삼(其三)

부하들의 불평 취급 방법에 관한 간부회의 중 C과장은 "대부분의 불평 처리에 성공하는 매우 훌륭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부하들의 불평을 친절히 직접 잘 들어주고 그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후 그 부하가 재차 그 불평과 요구를 제시치 않으면 그 불평은 다만 상상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과장이 제시한 불평 처리방법에 찬성 합니까? 불찬성 합니까? 그 이유는?

기사(其四)

사회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D과장이 채택한 방법은 부하 중 중요한 인물을 초빙하여 그들 앞에서 해결책을 설명한 다음 그들의 비판을 듣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E는 이러한 때에 D과장이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책을 그들 중요 인물로 하여금 제안토록함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E의 생각에 찬성 합니까? 불찬성 합니까? 그 이유는?

기오(其五)

F는 과장으로 승진하여 타처에 전근 하였다. 그곳 부하 중 트럼프 놀이의 그룹이 있었다. 어떤날 F과장은 그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자기 집에서 개최되는 트럼프 회합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 F과장은 부하와 상호교유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F과장의 처사에 찬성 합니까? 불찬성 합니까? 그 이유는?

# 그 사람들의 생활주변

-근면과 절제를 중심으로-



- ◇ 생활화된 절제관념 <독일편>
- ◇ 동고동락의 미풍 <영국편>
- ◇ 땅을 사랑하는 부지런 <덴마크편>

# 생활화된 절제관념

## 독 일 편



송기철(宋基徹)  
<고대 교수>

### 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개발이라는 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다. 이와 발맞추어 내핍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국시(國是)와 같이 강조되고 이와 아울러 다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으며 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관심사로 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에게는 근면과 절제의 대표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서독 국민의 생활상을 써 달라는 편집자로부터의 원고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 2

필자가 서독에 유학을 간 것은 1957년서부터 1960년까지의 만 3개년이었다. 이때는 이미 서독경제가 굉장히 부흥해서 패전직후에 직면했었던 그들의 쓰라린 생활주변을 체험 할 수는 없었으나 그들과의 3개년의 걸친 생활 주변에 이모저모를 써 보려고 한다.

첫째 독일 국민은 일하는 것을 빼놓고는 무엇이든 굉장히 아낀다는 것이다. 그 나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다고 볼 수 있는 전기(필자가 있던 만 3년 내 정전이란 우리 하숙에선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니까)는 물론이요, 물 한방울, 실 한오라기, 야채의 잎사귀 하나도 그들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핏 볼 것 같으면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자라는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낮에도 불필요한 전력이 사용되고 있음을 상견 할 때 우선 생활혁명에 이러한 우리 생활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국 학생들이 선불리 전기를 쓰는 것을 잊은 경우에는 그 곳의 하숙 아주머니한테 굉장한 기쁨을 받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들의 생활에는 어딘가 이러한 절제 한다는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닌가 한다. 요새 우리 국민들을 보면 내핍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높은 계층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이 말에도 많은 진리는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건데 내핍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내핍 생활이란

옷을 새로 맞추어 입을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물, 실오라기 등등 일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질이나 양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건을 아낄 것 안다는 것, 그것도 나와 개인 것이 아니라 공중에 것을 아낄 줄 안다는 것이 생활습속화 하고 있는 것이 우선 그들의 생활 주변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로는 부지런하다는 것이다. 구라과에서 독일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소리를 듣고 있지는 못하다. 프랑스인은 독일인을 평하기를 생활을 모르는 멧대 가리 없는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에는 그들 주변 국민의 독일인에 대한 질투심, 이기심도 포함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볼 때는 또 이러한 소리를 들을 일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된다. 독일 국민의 근면성은 개미나 벌의 근면성과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 일례를 든다면 나의 하숙 할머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할머니는 부자여서 6층 이나되는 아파트를 두 동이나 가지고 있었다. 일동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반동을 남에게 빌려주고 있었지만 2층과 6층의 방 10개는 모두 하숙방으로 방만 빌려 주고 있었다. 아들은 의학박사로 아직 독신이었는데 70세에 가까운 할머니는 우리나라와 같으면 며느리 또는 식모를 두고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을 것이나 며느리와 식모도 없이 자기가 집안일을 일체 볼뿐 만 아니라 방 10개에 대한 소제(掃除) 등 일체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이 그들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의 딸인 여자 대학생이 어느 방학 때 독일의 유명한 공장인 바이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왜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니 자기 아버지가 일의 존엄성과 순결성을 알기 위해서 방학 중 일을 하지 않으면 밥도 주지 않고 집에서 쫓아내기 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은 바도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탄광 소유주의 아들이 아버지가 학비를 용자해 줄 것이라는 데 대해서 그런 거 싫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동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대학을 나오는 것을 본 일도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근면성은 이와 같겠으나 또 이와 아울러 위의 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주 독립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는 그들의 저축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본국에 돌아올 때 독일인 친구가 나에게 책 한 권을 주면서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할 일은 이것뿐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그 책은 다름이 아닌 저축의 격언집이었다. 근면하고 절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두 낭비 한다면 하등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할아버지에게는 이가 서말 과부에게는 은이 서말이라는 속담과 같이 그들은 자기의 어떤 어려운 환경 안에서든 반드시 저축을 한다는 것이 몸에 배

<61P에 계속>

## 동고동락의 미풍

영 국 편

김진만(金鎭萬)  
<고대 교수>



요즘 우리들도 내핍을 말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아야 하기 보다는 없는 돈을 되도록 덜 쓰는 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같은 각박하고 어찌면 허무하기까지 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후진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잠시 잊는다면 -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사실을 흔히 잊고 있다. 온 세계가 기록된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정도의 번영과 소비생활 수준의 상승으로 흥청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각박하게 느껴진다. 겔브레이스의 소위 '유복(裕福)이 넘쳐흐르는 사회' 이야기를 듣다가 우리만 내핍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억울한 것이다. 또 한 편 국민의 대다수는 내핍 할래야 더 이상 어떻게 줄이고 뭐고 할 여지가 없는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돈을 잘 벌고 또 엄청난 사치를 하고 있으며 대개는 국민에게 내핍의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벼락 귀족들이라는 것이 일종의 허무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2차대전을 치르고 승자로서 종전을 맞은 영국의 국민들이 종전 후 5, 6년 동안 역사적인 내핍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물론 내핍이 요구된 사정은 오늘 날에 우리의 그것과 비슷했다. 전쟁을 치르느라고 금과 보유 달러는 거의 말라붙고 국고(國庫)에는 부채 많이 산적(山積)하고 전쟁 전과같이 원료를 싸게 수입해서 가공한 상품을 비싸게 넓은 해외시장에 내다파는 유리한 통상 조건은 이제 무너져 갔고, 대영제국은 사실상 붕괴됐고, 전승국의 영국은 싸움에 진 독일에 못지않게 극빈국이 되었다. 1946년부터 51년까지에는 별수 없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엉망이 된 지 불균형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의 국민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다음에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른 체험을 했고 50년대에 이르러서 그들이 공전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바로 종전 후 5, 6년 동안에 내핍기를 견디어 낸 이 체험의 덕분이었다. 그 하나는 당시 누구나 입버릇처럼 외우던 '수출



## 땅을 사랑하는 부지런

덴 마 크 편



정성열(鄭聖悅)  
〈한정(韓丁)협회〉

인간이 낙원을 그리워하며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참으로 낙원이란 있을까 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인간이 갖는 의문점 일 것이다. 그러나 이상으로만 그리는 내세(來世)의 낙원보다 현세에서의 낙원을 우리는 뚜렷하게 목격할 수 있음을 자부하는 바이다. 덴마크를 지상의 낙원이라고 필자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보아 의심할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새삼스럽게 덴마크에 대하여 제언 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아는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의 현실을 살펴볼 때 한층 더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워지는 덴마크를 생각하게 되며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의 황폐한 나라를 덴마크와 같이 지상의 낙원으로 이루어 보자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하며 하는 따위의 위대한 말이나 글을 쓴다기 보다는 직접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다.

덴마크는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그마한 나라이며 인구가 불과 450만에 지나지 않으나 국토의 크기로나 인구의 수로 보아서는 그다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면적이나 인구가 적은데 비하여 그 나라의 이름은 지상의 낙원 이라고까지 불려지게 되었으니 과연 그 영광이야 말로 덴마크 국민 즉 Danedmi 머리위에 면류관처럼 장식되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물질문명이 발달한 구미 여러 나라와 어깨를 겨루어 고층 건물들과 공장에 높은 굴뚝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으며 문명의 소산인 많은 물질이 질서 정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문명과 물질을 지배 한다기보다 오히려 인간이 문명과 물질의, 즉 기계의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의 자유와 그들에게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최대한도로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어떤 때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일부러 마다하며 우리가 볼 때 그들의 경제 능력 이라면 과히 걱정 안 해도 쉽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되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와는 각도가 다르다 부지런히 일하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 있는 우리로서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덴마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느껴오던 것은 그들의 근면성이다. 물론 덴마크 민족이 북쪽에 살고 있고 체적이 큰 관계인지는 모르나 매우 부지런하며 일에는 능률적으로 행동을 취한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그 일기(日氣)가 일정 하지 못하며 계절적으로 이상한 때가 있어서 여름에는 해가 매우 일찍 뜨고 늦게 지는 반면에 겨울에는 그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때를 맞추어 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관습으로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질 때 끝난다는 것이 보통이나 덴마크 인들은 해와는 아무 관계없이 시계에 맞춰서 일하고 있다. 여름이나 겨울을 막론하고 아침 8시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업무가 시작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가 상류계급인듯 곡해를 하고 있으나 그들의 사회에서는 상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일하는 것이 그들의 본무임을 잘 알고 힘써 일하고 있는 것이다. 도회지의 아침이란 참으로 보기에 장관(壯觀)이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자전거의 수가 인구의 수 보다 많다는 것이 듣기에 이상할 듯 하나 이것은 사실이다.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로 출근 하는지 크게 의문 시 될 것이 나 도시의 도로나 그 바퀴 국도에는 차도와 인도 그리고 자전거만이 갈 수 있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게 자동차를 탈 수 있으며 또 높은 산이나 고개가 없어 자전거 타기에 그야말로 참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

그들의 근면성은 자전거 타는 것이나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노동을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나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나 처지를 알아 일에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며 취미의 맞난 것을 찾아 성심성의껏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덴마크 노동자들의 보수(報酬)가 우리 중류 사회의 보수에 비할 바는 아니나 그들은 수입의 다소에 구애됨이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그 직책을 완수하며 정성을 다음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건전한 정신은 어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세기 전에 그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전하여 국토를 많이 독일에 잃었고 인구가 상당히 줄어 오늘의 우리 형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와 더불어 서로 힘써 노력함으로써 오늘의 낙원을 이룬 것이다.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심한 굳은 신념이 오늘에까지 내려와 날로 발전을 계속 하게 되니 참으로 마음의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 수 있겠다. 덴마크 여성들에게서는 사치와 허영이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자연 그대로의 검소하면서 소박한 태도에서 그들만이 갖는 특유의미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아름다움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가공적인 미를 추구하기보다 그들의 최고에서 풍기는 자연적

**민주주의 원리 ⑨**

이극찬(李克燦)  
〈연대 교수〉



**교도(敎導)민주주의의 본질  
교도민주주의의 체제**

이미 전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카르노 대통령은 혁명지도의 일원화와 혁명 이데올로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1959년 7월 5일 드디어 쿠데타를 감행하여 성공을 보게 되었다. 즉, 권력분립주의에 토대를 둔 내각책임제를 폐지하고 혁명지도의 일원화에 편리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스카르노 대통령은 1945년 헌법복귀개헌안을 제헌의회에 제출했으나 3차에 걸친 표결에서 부결되자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제로 제헌의회를 해산시킨 다음 법을 무시하고 동개헌안의 통과를 국민에게 선포했던 것이다. 또한편 국론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일로(一路) 교도민주주의의 공고한 체제화의 길을 달려가게 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의 잠정(暫定)헌법을 폐지하고 정식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컨셈블리(Consembly)라고 약칭되는 제헌의회가 1956년 11월에 성립되었다. 약 3,000이 넘는 군도로부터 선출된 총 520명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초안을 토의하게 된 것은 일대 장관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의 미숙함과 더불어 종교적, 인종적, 지역적 대립, 정견과 직업상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 특히 국가 기본원칙의 수립에 관하여 '판차실과(5대원칙)'를 주장하는 국민당과 회교교의를 고집하는 회교계정당과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 회의는 공연히 시일만 지연시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1년 반 이상의 회기 중에 결의를 본 사항 중 중요한 것은 (i) 인도네시아의 정치형태는 이를 고요하게 할 것, (ii) 인도네시아의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로 할 것, (iii) 인도네시아의 영토는 네덜란드에 의해서 점유되고 있는 서부 이리앙을 포함하는 구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전영토로부터 된다는 것 뿐이요,

이며 균형적인 미의 조화를 잘 형성하여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값비싼 것을 걸치지 않고도 참으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것이 덴마크 여성들이 재치 있는 태도라고 할까? 여성들도 남성들 못지않게 일하고 있다. 여성의 천직은 가정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덴마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밖에 나가 일하고 있다. 공장이나 상점 등 어떠한 직장에서든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지지 않게 일하고 있다.  
여자들의 이 같은 직장생활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런 악조건을 극복하여 원만히 융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또한 가정에 하녀나 식모를 두는 것은 극히 드물다. 물론 전기나 가스가 잘 설비되어 있고 가옥의 구조나 모든 기구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 가정주부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으나 여하튼 여성들의 검소와 근면과 절제 있는 생활을 실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의 음식이 대체로 간단한 편이며 하루에 한 끼만 더운 음식이고 두 끼는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주부들의 부엌일을 상당히 덜어 주는 것도 사실이다.  
덴마크 사람들의 부지런함은 도회지 보다 농촌에서 더 잘 알 수가 있다. 농촌이라면 어느 곳이나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덴마크 농민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일의 능률은 굉장하다. 아침 4시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니 잘 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봄과 가을에만 바빠 덤비고 여름에는 그늘에서 장기 두고 겨울에는 사랑에 모여 노름하는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닐 수 없다. 1년 사시(四時)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축을 보살피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오늘의 농업 왕국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자연의 혜택이라기보다는 덴마크 농민들의 노력의 대가라 하겠다.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특산물 수출은 세계의 제1위를 달리고 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최고에 가까운 덴마크의 오늘은 결코 우연에서 온 것이 아니다. 사무원이나 학자들이라 해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때는 극히 드물다.  
물론 야회복(夜會服)도 준비되어있어 때를 가려 성장(盛裝)하는 때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할 일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한국의 신사들과는 실로 대조적인 것이다. 그러면 어떤 힘이 오늘 날 덴마크를 지상의 낙원으로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싶어 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그들이 해적생활을 그만두고 문명인이 된 것은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데 기인하는바 크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점차적으로 신앙을 지키게 되었고 종교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과 땅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해 오늘 날의 영광을 얻은 것으로 안다.  
서로 믿고 사랑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히 완수하여 그 나라의 국민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합심하여 난관을 타개 한 것이 오늘의 열매를 맺은 것이다. 자연의 혜택 보다는 사람의 힘으로써 황무지를 개척하여 지상에 낙원을 이룬 덴마크의 역사를 오늘 우리 한국에 한국의 역사로서 재연시켜야 하겠다.

국가의 기본원칙에는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지부진(遲滯不進)하여 공연히 시일만 천연(遷延)시키고 있는 제헌회의의 활동을 보다 못한 스카르노 대통령은 1959년 2월 19일 각의를 소집하여 1945년 헌법예의 복귀에 관한 결의를 얻어 동년 2월 21일에는 그의 교도민주주의에 관한 구제안을 명시하게 되었다. 또한 동년 4월 22일에는 '민중'으로 돌아가라, 재차 민중으로 돌아가라라는 연설을 제헌회의에서 함으로써 1945년 헌법예로 돌아갈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는 1945년 헌법예의 복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열가지 기본점을 들어서 설명했다.

(1) 1945년 헌법은 혁명의 발단을 부여했으며 이는 현단계의 혁명완수의 기초로 되고 있다. 그런데 정의와 번영의 사회를 이룩하려는 우리의 혁명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일원제의 단일국가형태는 이원제형태를 요구하는 연방주의로부터 일어나는 위협에 봉착하고 있으며 국내외에는 아직도 정치, 군사, 경제, 재정의 분야에 있어서 공격을 전개하는 그룹이 잔존하고 있다.

(2) 1945년 헌법은 전적으로 민주주의적이며 민족성에 조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에 기인되지 않은 민주주의 즉 지도제(指導制)를 가진 민주주의 이다.

(3) 1945년 헌법은 교도민주주의 원칙을 실시하는데 가장 좋은 보장이 된다.

(4) 1945년 헌법은 오개년의 안정정부를 보장하고 있다.

(5) 각종 기능집단은 인민대표회의, 최고자문회의 및 인민자문회의에도 그 대표를 보낼 수가 있다.

(6) 1945년 헌법에서 표방된 지도제 경제의 원칙은 교도민주주의와 병행된다. 지도제경제란 (가) 경제는 공동원칙에 기인되는 공동의 노력으로써 조직되어야 한다. (나) 국가의 중요생산분야와 일반 대중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생산은 국가의 수중에 이양되어야 한다. (다) 토지 수리 및 천연자원은 국가의 수중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7) 1945년 헌법은 아무런 수정도 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8) 또한 그 헌법의 수정은 1945년 헌법예의 복귀가 결정된 후에 토의되어야 한다.

(9) 1945년 6월 22일 부의 자카르타 헌장은 승인되어야 한다.(이것은 스카르노, 핫타, 야민, 시림에 의해서 서명된 것인데,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를 기초로 하여 공화국

을 수립하는데 있다는 것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10) 제헌회의 1945년 헌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같은 스카르노의 요청에 따라서 제헌회의는 1945년 헌법예의 복귀에 대한 무수정 수락(受諾)의 가부를 토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나후다를 우라마의 3대 정당만이 스카르노의 요청을 수락했을 뿐, 마슈미 당을 위시한 기타의 대부분의 정당들은 1945년 헌법예의 복귀는 지옥에의 길이다'라고 반대여사를 표명하게 됨으로써 법정가결선인 삼분지이의 찬성을 얻을 수가 없었다.

1959년 6월 29일 스카르노는 67일간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자 1945년 헌법예의 복귀의 결심을 굳게 하고 마침내 동년 7월 5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제헌회의의 해산과 1945년 헌법을 전인도네시아 민중에게 적용시킬 것을 선포했다. 한편 행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새로이 대통령중심내각제를 채택함으로써 두 명의 군인을 포함하는 10명의 각료와 24명의 차관으로 보조되는 새로운 대통령내각을 조직했다.

그러면 1945년 헌법에 있어서의 권력구조는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1945년 헌법은 태평양전쟁 중 일본군점령말기에 스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민족지도자들에 의해서 기초된 본문 27개조로 되는 지극히 간결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성립으로부터 1949년의 임시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 것이었다. 이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강하며, 입법권은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으며 집행권은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어 의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내각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지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즉 1945년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직과 결부되어 있는 국가정권과 국가입법권의 보유자는 인민자문회의의 부통령, 각부장관, 인문대표회의 및 최고자문회의로 되어 있다.

(가) 인문자문회의

1945년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그것은 인민자문회의에 의해서 완전히 행사된다'라고 또한 제2조 제1항에는 '인민자문회의의 의원은 인문대표회의의 의원, 주의 대표자 및 소수민족 집단의 대표자로서 구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헌법의 제정(제3호), 국가정책의 일반방침 결정

(제3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출(제6조), 헌법의 수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동 회의는 적어도 5년에 한번은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제2조 제1항).

(나) 대통령

대통령은 인민자문회의에 의해서 5개년의 임기로 선출되며(제7조), 행정권이 부여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대통령은 인민대표회의와 합의해서만 비로서 입법 할 수가 있다(제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즉 대통령은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외국과 전쟁을 선언 할 수가 있으며 강화 및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제11조). 또한 대통령은 긴급사태에 임해서는 대통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인민대표회의 차기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2조). 또한 대통령은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대통령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제5조 제2항), 육·해·공군의 최고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다) 부통령

부통령도 역시 인민자문회의에서 선출되며(제6조 제2항), 그 임기는 오년이고(제7조),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도록 되어있다(제4조). 또한 대통령의 사망 또는 사임 시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부통령에 의해서 계승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8조).

(라) 각부장관

각부장관은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며, 그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7조).

(마) 인민대표회의

인민대표회의의 구성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적어도 연1회 개최되어야 한다(제19조). 그리고 모든 입법은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법안이 만일 부별된 경우에는 그 회기 중에는 그 법안의 제출은 불가능하며(제20조), 법안의 제출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민대표회의의 의원들에게도 그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1조). 긴급사태에 임하여 대통령이 제출한 대통령은 만일 인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무효로 된다(제22조). 인민대표회의의 의원은 인민자문회의의 의원이기도 하다(제2조 제1항).

(바) 최고자문회의

최고자문회의는 법률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권력구조를 가진 1945년 헌법에는 복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에는 스카르노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중심내각제가 수립되게 되었는데, 이로써 서구적인 자유주의에 기인된 의원내각제는 그 10년의 역사에다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권력의 지위에서 보면, 국가정책의 수행의 기능을 가지는 대통령은 인민자문회의의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자문회의는 적어도 5년에 한번은 개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목적인 기관에 불과했으며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1945년 헌법에는 복귀로서 스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체제는 점차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특히 교도민주주의체제는 1959년 8월 17일 제14회 독립선언기념일에서의 인도네시아 혁명의 재발견이라는 스카르노 연설에서 하나의 뚜렷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즉 스카르노의 연설내용은 1959년 9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서 개최된 최고자문회의 제2차 회의에서 1959년 8월 17일의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치선언으로 채택되었다. 그 선언의 내용은 (i) 머리말, (ii) 인도네시아 혁명의 기본문제, (iii) 인도네시아 혁명의 기본적 노력(일반계획)의 3부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의호에서는 이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삼을 것을 결의했다.

이 선언은 인도네시아의 기본노선을 명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도민주주의체제에다 기본적인 내용을 부여 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자못 큰 바가 있었다.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즉 혁명의 기본 문제로서는 (i) 인도네시아 혁명의 주요목적과 과제, (ii) 혁명의 사회력, (iii) 혁명의 성격, (iv) 혁명의 장래, (v) 혁명의 적……이라는 다섯 가지 과제가 명시되어 있다. 즉 인도네시아 혁명의 원칙, 목적 및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 사상적 기반으로서는 판차실라 구조적 기반으로서는 안정된 정부가 수립될 것, (나) 주요한 과제로서는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 물심양면에 걸쳐 사회정의가 지배할 수 있는 번영된 사회의 건설, 통일국가의 건설, 아시아·아프리카 제국과의 우호관계의 수립 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 혁명적 세력을 육성할 것, (나)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의 기세를 높일 것, (다) 국민적 세력을 집중시킬 것……을 들고 있다. 또한 혁명의 성격이 민족주의적인 동시에 민주주의적이며,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계급과 집단의 공통적인 혁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혁명의 장래는 인도네시아의 실정에 알맞은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다고 했으며 혁명의 적은 우리의 혁명을 해치려는 제국주의 특히 네덜란드 제국주의라고 단언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혁명의 기본적 노력(일반적 계획)으로서 (i) 정치분야, (ii) 경제분야, (iii) 사회분야, (iv) 정신적·문화적 분야, (v) 치안분야, (vi) 신제도의 형성, (vii) 일반계획의 집행자에 걸쳐서 서명하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혁명의 실패의 원인은 타협과 혁명정신의 결여에 있으며 모든 종류의 인습적, 보수적, 반동적 및 반혁명적인 경향이 뿌리박을 수 있는 풍토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스카르노가 지적한 다음과 같은 이중성, 즉 (가) 정부와 혁명지도와의 이중성 (나)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자본주의적 사회의 이중성, (다)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의 이중성이 존재하는데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 걸친 재정리가 단행되어야 하며,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가) 출산과 배급과 같은 모든 중요한 수단은 정부에 의해서 관리 또는 감독되어야 할 것, (나) 모든 자금과 에너지는 인도네시아의 건설과 발전에 투입되어야 할 것, (다) 외래의 자본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주로 공업개발에 투입시킬 것 등을 명시했다. 또한 사회적 분야에 있어서는 양심의 계발을 그리고 정신적·문화적 분야에 있어서는 혁명정신의 함양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정치선언 중 신제도의 형성이라는 조합에 따라서 1960년 6월 25일에는 단원제국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신국회는 총 283명의 구정당과 제직능단체의 대표자들로서 구성되며, 전원이 스카르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었다. 그 밖에도 1945년 헌법에 의거하여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으로서 인민회의,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최고자문회의, 국가종합개발계획을 기획입안하는 내각의 보좌기관으로서 국가계획심의회가 각각 그 설립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관의 구성원은 아래로부터 위로 인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가 위로부터 아래로 스카르노 대통령 1인에 의해서 임명되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하고 있다. (주)

(주) 인민회의 : 1960년 6월 25일 임시인민회의로서 잠정적으로 발족. 국가권력의 최고기관. 5년에 1회 개회되며 대통령의 선거, 헌법의 제정, 국책의 결정 등을 그 임무로 한다. 국회의원 283명과 대통령의 임명에

의한 지역대표 94명, 직능 그룹대표 233명, 총 610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자문회의 : 1959년 8월에 발족됨. 대통령의 자문기관, 대통령의 지명으로 되는 정계대표 12명과 지방대표 8명, 그리고 군인을 포함하는 직능그룹 대표 24명으로 구성됨, 의장 1명(스카르노), 부의장 1명

국가계획심의회 : 1959년 8월에 발족됨. 야민을 위원장으로 하는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국가의 종합개발계획을 기획입안하는 내각의 보좌기관이다. 신국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1960년 6월 25일 발족).

(i) 구정당대표 : 130명

(ii) 각종직능대표 : 151명

(iii) 서부 이리양대표 : 1명

계 283명

이상에서 스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체제화의 문제를 간략하게 고찰해 보았다. 스카르노의 의도는 인도네시아의 민족적 과제(민족적통일, 경제건설, 정치적 안정)와 그리고 공산주의적 세력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로부터의 강력한 지도로써 종래의 민족주의·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결함을 이른바 인도네시아적으로 시정하려는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본질이 의사의 자율성과 행위의 자기결정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하는 국민의 자치에 있는 것이라면 주로 스카르노 1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교도되는 이른바 가부장제적인 교도민주주의는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기야 기성정치의 부정과 부패와 무능을 일소하고 민주적인 기반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권의 확립 위에 민중을 교도해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의 국가통치의 기구와 사람이 특수화되며 고정화되는데 있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있어서 독립운동 이래의 정부조직 또는 정당이 여전히 정권의 기초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지도자 역시 계속 현재의 정치지도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 본래의 데모크라시가 가지는 정치의 유동성이 상실되어 독재화의 경향을 보이기 쉽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전통이 약하여, 장기집권의 계속 이 자칫 잘 못하면 권력의 난폭화로 떨어지기 쉬운 후진국가에서는 이 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공산주의 비판 ⑨

김창순(金昌順) <평론가>

### ‘통일전선’전술(戰術)

좌우합작이면 ‘통일전선’이기 마련인가. 좌우절충(左右折衝)이면 중립주의이기 마련인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 코민포름의 평화전선, 전후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족민주 통일전선은 무엇을 의도합니까.

※코민테른= 1919년 3월2일 모스크바에서 레닌의 주의하에 창당된 제3국 국제공산당 1943년 6월 해체

※코민포름= 1947년 9월 바르샤바에서 구라파 공산당 정보회의(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소련)의 결의에 의하여 동년 10월 5일 결성

### ‘인민전쟁’

#### 1.

인민전선은 1935년 7-8월 모스크바에 소집되었던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책정한 전술이다.

인민전선이라 함은 모든 인민이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전선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인데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의 정의는 항상 기회주의적이다.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인민전선 전술을 책정할 때의 인민이라 함은 그가 자본가, 지주이건 또는 노동자, 농민이건 혹은 기타의 어떠한 계통의 인간이건 간에 당시의 파시즘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인민이라는 것이었다.

이 때에 파시즘도 반대하고 공산주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치적 주견에 있어서는 양자를 모두 배격하나,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고 파시즘 배격에 가담하는 사람이면 그 역시 인민의 사회적 범주에 넣어 주었다. 그러나 파시즘이 타도된 후에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의 정의와 인민의 사회적 범주는 달라진다.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인민일 수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반인민적 요소로서의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인민의 사회적 범주에 넣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실례도 있다. 관료전제국가(官僚專制國家)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그 주공격목표를 관료 타도에 두는 경우에 전제(專制)관료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자는 그 누구도 인민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비록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일지라도 우선 공산주의자들의 전제관료 타도에 합세하는 자라면 인민의 사회적 범주에 넣어 준다는 것을 말함이다.

그렇지만 관료전제가 타도된 후에 그가 공산주의 배격을 그대로 지속하게 되면 그는 인민일 수가 없으며, 반동분자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초기 통치권 시대에 있어서 그들의 인민의 정의(定義)와 인민의 사회적 범주는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텔리’, 학생, 진보적 자본가, 지주까지도 인민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의 통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출신 및 사회성분이 지주, 자본가, 관리였던 사람은 초기 공산정권 시대에 아무리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필경은 반인민적 요소로 낙인되어 투옥 숙청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노동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동기로 공산주의에 불만을 품게 되면 이도 역시 반동분자의 낙인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의 정의는 언제 기회주의적인 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에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이라는 사회적 범주의 정치적 분장이야 어찌 되어 있든지 간에 인민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박헌영(朴憲永) 같은 사람을 지적하여 말할 수 있는 바, 박(朴)은 철저한 공산주의자이지만 김일성(金日成) 일당이 박(朴)을 반당, 반역분자로 낙인하여 사형에 처함으로써 인민의 대열에서 제거해 버린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코민테른의 인민전선 전술은 이상과 같은 인민에 대한 정의(定義)의 기회주의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요컨대 공산주의의 전진과 옹호 및 팽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제(階梯)로부터 다음 계제로 넘어가기 위한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간재료가 바로 ‘인민(人民)’이라는 것이다.

#### 2.

히틀러의 나치 정권 출현은 크레믈린 지배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으로 된 것만은 사실이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히틀러의 박해는 코민테른을 통하여 세계를 조종하려던 크레믈린 지배자들에게 무서운 적(敵)으로 되어졌다. 반면에 서방측에 대한 히틀러의 적개심(敵愾心)은 크레믈린 지배자들에게 환영될 만한 사실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스탈린은 히틀러 정권의 출현에 대하여 처음 일년 동안은 대단히 신중한 태도로 정관(靜觀)하면서

내심 히틀러와 우호관계를 맺기를 원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1934년에 히틀러가 폴란드와 불가침조약을 맺게 되자 스탈린의 희망은 충격으로 변하였고, 이제부터는 히틀러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서방측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히틀러를 고립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사양치 말아야 한다는 소련의 외교정책의 노선이 확정되자 코민테른 제7차 대회는 지체 없이 소집되었던 것이며, 거기서 반 히틀러 투쟁의 전술을 책정한 것이 바로 이 ‘인민전선’이라는 것이다.

인민전선 전술에 있어서는, 공산당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물론이러니와 공산당에서 항상 반동시하고 있었던 우익 정당 단체들의 지도자들까지도 이 전선에 몰아넣자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문장, 멋진 연기(演技), 철칙(鐵則)의 신념을 뿌려 놓은 ‘인민전선’의 선전은 일견 수백만 사람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 같았다. 히틀러,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에 위협을 받게 된 여러 지역의 ‘인텔리’, 자유주의자, 이상주의자, 순박한 학생, 정직한 농민,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리하여 선전의 효과 면에서 본다면, 인민전선 전술은 코민테른이 책정한 평화시기의 전술 가운데서는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전선 전술은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만다. 패인(敗因)에 대하여는 1938년의 뮌헨 비극을 비롯하여 인민전선 전술의 직접적 책임 밖에서 발생한 정치적 요인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공산주의자들 자신의 책임에 의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 또는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에 대하여 진정한 합작을 취하지 않고 가면적 합작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산주의자들 자신이 그것을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전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자 또는 그 밖의 모든 반파쇼인사들에 대하여 진정한 합작을 취하고 있는 듯이 행동하면서도 기실 이면에 있어서는 그들을 비난공격하고 그들로부터 균중을 떼어내려는 공작을 삼가지 않았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진정한 합작인 듯이 가장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적대적 선동을 일삼는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를 보고서도 인민전선에 휩쓸려 들어갔던 비공산계 지도

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불신행위를 목격하고 인민전선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주로 구라파 사회에서 발로된 사실이다.

### 3.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적 정당 단체 및 기타의 우익 정당 단체들과 통일전선 또는 연합전선을 피하면서 그 실 배후에 있어서는 이들 지도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위선훼손 공작을 백방으로 들여댔다는 사실은 1935년부터의 인민전선 전술에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니다.

1921년 6월 제3차 ‘코민테른’대회에서 그 해 3월의 독일 만스펠드 광산 총파업의 실패를 평가하는 가운데 좌경(左傾)극단주의(極端主義)의 오류(誤謬)를 지적하고 앞으로는 공산당계 노동조합들이 비공산계 노동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취할 것을 채택한 데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공산당계 노동조합들이 비공산계 노동단체들과 통일전선을 취하라는 제3차 코민테른 대회의 통일전선 전술은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과 ‘위로부터의 통일전선’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사회당 계열의 근로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하여 노동단체들의 무조건 통일을 역설하면서 타당 지도자들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정면공격을 강행하는 것을 말함이다. 후자는 노동단체들의 통일전선과 협력관계를 역설하는 동시에 타당 지도자들과의 합작과 협력도 주장하는 것이다. 이 후자의 전술에 있어서는 타당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을뿐더러 합작과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특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선 공산당과 타당과의 통일전선을 성취하여 놓고 그 통일전선 안에서 공산당이 우세를 차지하게 되면 그 때에 이르러 타당 지도자들을 노동조합과 근로 대중 속에서 훼손, 공격하여 그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지지하던 조합원들과 근로대중을 공산당이 고스란히 독차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통일전선 전술’이 1935년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인민전선 전술로 확대보완(擴大補充)된 것이다.

### 4.

1921년 6월 제3차 코민테른 대회의 통일전선 전술이 ‘밑으로부터의 통일전선’ 전술과 ‘위로부터의 통일전선’ 전술로 전개되었다가 후자의 ‘위로부터의 통일전선’ 전술은 1935년 7-8월 제7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다시 ‘인민전선 전술’로 확대 보완되어 수백만 사람들을 공산주의의 투망(投網)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공산당을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볼 때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 정당 단체이건, 또는 그 밖의 민족, 민주적 정당 단체이건 공산당과 합작 협력하는 통일전선 전술에 걸려서 이득을 얻는 자는 오직 공산당뿐이요 그 밖의 사람들은 공산당을 이롭게 하고 자신을 망치게 한 바보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경험한 무리이기 때문이다.

인민전선 전술을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이득을 하고 남을 바보로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 가운데는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연합전술이 또한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35년 제7차 코민테른 대회의 인민전선 전술이 공포되기 전 이야기는 그만 두고라도 1935년 12월 모택동(毛澤東)이 공산당 열성분자들 앞에서 ‘민족혁명 연합전선’조직을 역설한 것으로부터 1937년 국공합작의 정치협상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볼 때, 중공당(中共黨)은 국민당으로부터 대중을 떼어내고 국민당 지도자를 고립시키는데 월등한 정치기술을 발휘했던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1931년 만주를 강탈하고, 뒤이어 중국 본토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게 되자 장개석 장군이 공산군 토벌작전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중국인의 민족적 감정이 점차로 국내전쟁보다도 외세침략부터 먼저 물리쳐야 한다는 조류로 휩쓸려 들어갔고, 따라서 국내전쟁이 아니라 국공합작으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자는 모택동의 구국투쟁(救國鬪爭) 호소에 각 도시의 학생층과 인텔리, 기타의 애국주의 사상가들이 공감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선 항일(抗日)이요, 다음에 토공(討共)이라는 사회사상의 정치적 거류(巨流)는 완강한 장개석 장군까지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본다.

1935년 12월 북경학생들이 국내전쟁반대, 항일 전쟁의 수행, 인민의 자유권을 요구하는 시위운동을 조직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유사(類似)한 대학생 시위가 중국의 여러 학교 도시에서 벌어졌다. 이 사실은 모택동으로 하여금 너무나 많은 참변을 겪고 난 평민의 심정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학생운동의 이면에 공산주의 분자들의 압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모택동은 지체 없이 공산주의 운동의 형식을 소위 구국운동으로 돌렸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라를 구출하는 애국주의라는 것이다. 정견(政見)의 여하를 불문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아무런 정견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동원하여 구국운동에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1936년 5월에는 ‘전중국구국동맹 연합체’를 결성하는 상해대회를 열게 되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장개석 장군은 만민이 원하는 국가 통일은 오직 붉은 도적을 소탕하지 않고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신념을 고집하고 있었다.

1936년 12월 장개석 장군이 서안으로 장학량(張學良)의 본부를 방문하였다가 장학량과 양호성(楊虎城)에 의하여 구금되었다. 일본에게 만주를 빼앗기고 지금은 변경에 와있는 장(張)으로서의 공산군 토벌보다도 어떻게 하면 일본을 쳐부수고 만주를 되찾아가는 절대적인 관심사였다.

장(張)은 공산당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에 위배하여 공산당과 가까워지고 만 것이다. 기묘한 공산주의자들이 청년원사(青年元帥) 장(張)의 외로운 심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지 않을 리 만무하다. 장(張)에 의하여 구금된 장개석 장군을 중공의 주은래(周恩來)가 방문하고 주(周)는 장개석 장군에게 항일을 권고하고, 장개석 장군이 항일 유일주의로 나간다면 중공은 장개석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겠다고 되도록 공손하였다. 남경(南京)으로 돌아온 장개석 장군은 국공합작을 승인하였다.

1937년 9월 중공군 본부에서 발표된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는 성명문 가운데는 ‘홍군(紅軍)을 ‘민족혁명군’으로 개칭하여 장개석 장군의 지휘하에 둘 것과 국민당 강령 및 손문(孫文)의 삼민주의를 정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사실이 말하여 주듯이 중공군이 진출된 지역에서는 국민당의 강령도 손문의 삼민주의도 아닌 오직 공산주의의 확고한 부석이었다.

‘항일구국투쟁’을 호소하여 국공연합전선을 성립시킨 중공으로서의 서북행정(西北行程)—(장개석 장군의 공비토벌 작전에 쫓겨서 연안으로 도망친)후의 밀폐생활로부터 다시금 중원(中原)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기네 행정구역 넓히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모택동(毛澤東)을 더 많이 선전하고 공산주의를 유포시켰을지언정 장개석 장군을 유일한 지도자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도리어 공산당의 대소집회에서는 장개석 장군을 수급(首級)의 반동분자, 반역자로 몰아대는 것이었다. 외관상의 성명문에 장개석 장군을 최고 사령관으로 모셨다는 것이 참으로 대조적인 노름이었다.

일본의 패망 후에 마셜 장군의 개입으로 수차의 국공합작이 시도되었지만 그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중공의 사기적(詐欺的) 술수에 더 많이 이용되어 마침내 국민당 정부의 대만 철수로 비극은 절정에 달하고 말았다.

중공의 인민전선 전술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민전선의 투망(投網)에 걸려든 비공산계의(민주당과-민주주의적 정당 및 단체)들은 여러 차례의 숙청에 걸려서 그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죽고 말았고 몇몇 사람들이 비열한 식객으로 장탄식(長歎息)의 소일을 하고 있다. 중공의 소위 정풍운동(整風運動)은 인민전선의 중간 결산이기도 한 것이다.

군시

### 클라우제비츠(Clawsewitz)의 전쟁론 ①



조남식(趙南植) 역술  
〈육군 중위〉

서설

지구상에 인류가 서식한 이래, 인류역사는 전쟁과 가장(假裝)된 평화와의 연속으로 엮여져 왔다. 인류가 원하던 안하던 간에 전쟁은 이치럼 인류역사를 이루어 왔고 인류는 인간자신이 만들어 낸 전쟁이라는 사회현상 속에 지배되어 왔다.

석부(石斧)와 죽창에 의존하던 원시부족 간의 전쟁으로부터 가공할 파괴력을 지녀 자칫하면 인류역사를 종식시킬지도 모르는 핵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인류역사와 더불어 성장하여 왔고 또 발전하여 왔다.

전쟁이란 군인들의 독점극이며 군인만이 전쟁문제에 관해 연구하여야 한다는 오류(誤謬)는 이치럼 절작란 인류사회생활의 중대현상인 전쟁을 극복하고 인류지상의 영원인 평화와 국가민족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므로 군사무제의 연구는 국민교육의 근본적 중요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민주 공산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틈바귀에서 일찍이 당해 보지 못한 역경과 시련 속에 평화와 자유를 희구하는 민주보루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한국 군인으로서, 현대전략과 미래의 전쟁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장 올바른 국가정책을 수립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동양병학(東洋兵學)에서 손자30편이 차지했던 위치와 같이 서구군사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클라우제비츠(Clawsewitz)의 전쟁론을 고찰하여 봄이 또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전쟁과 인류역사의 불가분의 관계를 이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군사서적상 최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어지는 클라우제비츠의 명저 「전쟁론」을 쉽게 연상할 수 있은 것이며 ‘전쟁이란 우리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이다’라고 강조한 그의 사상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교육기관에서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교과서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각 군사교육기관이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고전적 전쟁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현대의 군사사상을 더욱 중요시하며 여기에 입각하여 미래의 전쟁양상을 판단하며 대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과학의 분야에서 과학도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논하고 플랑크(Planck)의 양자론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갈릴레오 뉴턴의 고전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현대학문의 기저가 되는 이들 근원적 학문이 현재와 미래의 비약을 이루는 도약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쟁사상을 논함에 있어 클라우제비츠 이전의 많은 군사연구가를 알고 있으나 전쟁을 전장에 국한되는 전투기술로만 평가하던 제래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전쟁을 사회, 정치, 경제문제 즉 인류역사의 문제로 직결시킨 클라우제비츠야말로 전쟁사상에 획기적 발전을 이루게 한 위대한 군사이론가이므로 이를 고찰하여 봄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의 너무나도 광범위한 제 분야의 도입과 그 자신이 교정을 보지 못한 초안 그대로의 출판은 이론의 전후모순점을 적지 아니 내포하고 있으나 마치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 현대경제학의 분야에서 많은 모순을 가지고도 확고한 지위를 점하고 있듯이 클라우제비츠는 현대의 군사 및 외교 사상에 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그의 일생

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1870년 프러시아(Prussia)의 Magdeburg 근교 Burg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폴라드인이었고 그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프러시아로 이주하여 프레드릭대왕 밑에서 초급장교로 7년전쟁에 참가한 일이 있었으나 곧 제대하여 세리(稅吏)가 되었다. 클라우제비츠는 12세에 프러시아 육군에 입대하여 이듬해인 1793-1794년에 Rhine 전역(戰役)에 종군하였고 그후 7년간 Mainz 수비연대에서 복무하였다. 1801년 Berlin 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당시 교장이던 Schamhorst 장군으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다. 1803년 그는 수석으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Schamhorst 장군의 추천으로 프러시아 황태자 August의 전속부관이 되었다. 1806년 Jena 전역(戰役)에서는 August대대의 실제대대장으로 참전하여 여기서 그는 프레드릭 대왕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던 프러시아군의 참담한 붕괴를 목도(目睹)하였고 후위부대로서 감투(敢鬪)하던 그도 황태자와 함께 포로가 되어 1807년까지 프랑스에 있었다. 이 기간에 그는 훈련이 미숙하고 무기력하고도 우유부단한 연로한 장군들에 의해 지휘되고 고루(固陋)한 전쟁원칙에만 집착되어 있던 프러시아군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장군 나폴레옹에 의해 완성된 새로운 전투방식에 훈련된 프랑스군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한 원인을 열고(熱考)할 수 있었다.

그가 프러시아로 다시 돌아오자 Schamhorst 장군과 Gneisenau 장군을 보좌하여 군대재편에 진력하였으며 소수의 상비군밖에 가질 수 없었던 당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적격자의 단기훈련으로 대예비군을 확보하는 의무병제도를 창안하였다. 80년 육군사관학교의 교관이 된 그는 후에 통일된 독일제국의 황제가 된 William 1세와 접촉할 기회를 가졌고 그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 1812년에는 러시아군에 복무하면서 대불전쟁에 참가하였고 1815년 워털루(Waterloo) 전역(戰役)에서는 프러시아군에 복귀하여 Thielman의 참모장으로 서igny와 Wavre 전에서 Napolend의 일익인 Grouchy군을 훌륭히 견제(牽制)하여 나폴레옹을 패퇴케 하였다. Vienna 회담후의 정치적 반동기에 있어서 그는 Stein이나 Gneisenau 장군과 함께 혁명적이며 선동적 인물로서 비난을 받았으며, 그가 1818년 소장으로 진급하여 Berlin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되기까지 그는 그의 군사사상을 수필형식으로 서술하였다. 그의 본격적인 연구와 저술은 1830년 그가 포병감으로 Breslau에 전입할 때까지 계속되었으며, 그의 명저 「전쟁론」도 이 시기의 소산이었다. 1831년 폴란드에 반란이 일어나자 그는 Gneisenau 장군의 참모장으로 폴란드에 가서 그의 이론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했으나 반란은 곧 진압되고 그도 Breslau로 귀환했으나, 2-3일 후에 호열자(虎列刺, 콜레라)로 6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일생을 돌이켜 보건대, 그와 함께 군사학상의 쌍벽을 이루었던 Jomini도 그랬듯이 그는 야전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주로 참모부에서 근무하여 왔다. 클라우제비츠의 대표작인 「전쟁론」은 전 8편 3권으로 되어 있으며 봉합되어 산재해 있던 그의 초고를 모은 헌신적이었던 그의 부인 마리 폰 클라우제비츠(Marie von Clausewitz)에 의하여 그의 사후 10년 만에 출판되었다.

### 그의 사상(思想)

전쟁은 사회현상의 제 분야에 영향을 주며 이 모든 분야영 사회현상은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쟁은 정치적, 군사적, 타산에 의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감정과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은 모든 과학과 기술에 영향을 주며 그로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끌어낸다. 클라우제비츠는 이와 같이 전쟁의 광범하고 포괄적인 본질을 인식하고 그의 작품을 저술하였으나 이 제 분야의 상호관계성을 완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일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짐작(斟酌)할 만하다. 그리하여 그는 전쟁을 공식화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따라서 「전쟁론」은 훈련교범처럼 전쟁의 기술이나 전략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사회현상 그 자체와 상호관련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대와 환경에 따라 전쟁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쟁형태는 변화할지라도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하는 날까지 전쟁발생의 여건이 소멸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전쟁은 인류의 분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존재하여 왔기 때문에 전인류가 전쟁을

증오하며 두려워하고 평화를 갈구하여 범세계적 국제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구제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조약, 동맹, 중재 또는 포기(拋棄)로써 전쟁을 피하거나 방지할 수 있기도 하나 이것이 전쟁해결의 절대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 전쟁은 여전히 최후수단으로서 남아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은 경제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전쟁여건의 일(-)요인으로서 경제적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현대의 비중을 강조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분야의 연구방법이 현대화하였을 뿐임을 말한다. 인류역사상의 수많은 전쟁을 돌이켜 보건대 그 요인이란 다분히 경제적이었으며 때로는 종교적, 정치적 더욱 극단적으로는 미모의 왕비 Helen을 납치한데서 발단된 Troy 전쟁과 같은 인간의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전쟁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원시할거시대에는 수렵장이, 목축시대에서는 목초지가, 농경시대에 이르러서는 경작지가 전쟁발단의 경제적 요인이 되었으며 중국역사상에서도 북방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은 모두 비옥한 중원토지를 향하여 움직이는 거대한 민족 이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의 요인이 된 표면적 여건의 배후에는 항상 더욱 광범위하고 잡다한 요인들이 얽히고 있어 종교적인 Saracen 정복이나 춘추시대의 정치적 헤게모니 쟁탈전 혹은 혁명 프랑스와 대프랑스 동맹국간의 새로운 정치체제와 체제간의 정치사상의 대립에 발단된 전쟁이나 종교적 요인보다는 오히려 다분히 정치적 요인이 컸던 종교전쟁의 결산인 30년전쟁이나 간에 그 여건은 사회의 존재여건 그 자체와 같은 것이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와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인식했으며 그리하여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획기적인 이론체계를 확립하였다.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은 몰트케와 슈리펜에 의하여 계승되었으며 몰트케가 클라우제비츠의 이론을 적용하여 보오(普墮)전쟁(프로이센-오스트리아전쟁), 보불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클라우제비츠는 독일군의 우상으로서 또 그의 「전쟁론」은 군사학의 바이블로 각광을 받았다.

또한 그의 사상은 Von Schlieffen의 섬멸전 및 루덴돌프(Ludendorff)의 총력전사상의 모태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일본군국주의 및 스탈린의 군사과학의 원론적 연원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전쟁론」중에서 오늘날까지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고 군사적 및 외교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클라우제비츠 스스로가 온전하다고 그의 비망록에 수록한 제1편 「전쟁 본질론」에 대하여 그의 군사사상을 고찰함에 있어 그 방대(龐大)한 내용 중에서 중요점만을 취급하려 하며 또 가급적 클라우제비츠의 작품을 그대로 보이기 위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 저서 서문에 대하여

클라우제비츠는 그의 「전쟁론」 서문에서 ‘과학적이란 개념은 반드시 체계화하고 완성된 지점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니다. 과학성이란 전쟁현상의 본질을 탐구하고 제사물의 성질과 현상의 상호관계성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논리적 결론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경험에 의한 유사한 제현상을 예로 들어 결론을 끌어내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는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그 줄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되듯이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학술은 많은 이론보다 경험에 비추어 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마치 밀가루의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밀 이삭의 모양을 상상할 수 없으며 실제로 밀밭에 나가 보아야 쉽게 그 모양을 알 수 있듯이 관찰과 탐구 사색과 경험은 서로 보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몇 개의 전역(戰役)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조사하고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토대로 하여 전쟁이론을 전개시켜 나갔다.

##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 제1장 전쟁이란 무엇인가?

#### 1. 정의

전쟁이란 대규모적 싸움에 불과하다. 마치 레슬링 시합장의 두 선수가 각기 그들의 기량과 완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더 사울 수 없도록 굴복시키는 것처럼 전쟁도 일방의 의사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생사하는 폭력행위이다.

폭력(과학과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군사력)은 국제법과 국제관습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는 하나, 실제 폭력이 사용될 때에는 거의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적을 굴복시키는 것은 전쟁의 목적이며 폭력은 그 수단이다. 이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의 군사력은 파괴되어야 하며 따라서 적의 군사력 파괴라는 군사작전의 일차적 목적이 전쟁의 표면에 등장하고 본래의 목적은 전쟁의 표면에서 일단 물러나는 것이다.

#### 2. 이론상, 폭력의 무한계적 행사

혹 박애주의자는 유혈을 강요하지 않고 적의 무장세력을 해제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묘안을 발견하여야 한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이것은 훌륭한 생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이는 헛된 생각이며 이런 생각은 철저히 버려야 한다. 전쟁처럼 위험이 많은 일에 있어서 동정심으로부터 나온 헛된 생각은 우군을 최악의 상태로 함입(陷)시키기 쉽다. 따라서 적이 비록 소극적 행동을 취하더라도 최대한의 폭력은 무자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세를 획득(獲得)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적으로 하여금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타격을 가하여야 하며, 폭력사용의 한계는 적의 저항을 종식시킬 수 있을 때까지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 발생하는 증오감 때문에 폭력행사의 목적을 망각한다면 이는 노력의 낭비이며 낭비 이상의 비극이다.

야만인이 문명인보다 전쟁에 있어서 더욱 잔인하다 함은 문명인과 야만인간의 본질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제도 등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야만인들의 적대의식은 감정에 의하여 지배되고 문명인들은 이성에 의하여 감정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명인들도 야만인 못지않게 잔인하고 파괴적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쟁에 있어서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 행동한다고만 할 수는 없다.

만약 문명인간의 전쟁이 반드시 이성적 판단에만 의존한다고 가정하면 적대감정은 소멸되고 승부를 판가름할 접전이란 불필요하게 되며 전쟁은 오직 전투력 상호간의 수학적 관계, 즉 부등호로써 결정되어야 할 모순을 지닌다. 이는 극복될 수 없는 모순이며

따라서 전쟁이란 폭력행위가 분명할진대 감정이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감정의 도는 문명정도와는 무관한 것이고 오히려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의 중요성과 지속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문명인들이 그들의 포로를 학살하거나 도시를 약탈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적대의식에서 오는 감정을 억제하는데 이성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전쟁에서 오는 본능적인 조야한 표현(횡포와 파괴)에 비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문명의 소산인 폭약과 화기의 개량은 적의 파멸을 감소시키거나 구제하지 못하며 따라서 문명의 발전은 전쟁의 이론적 개념 그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변천시키는데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재차 강조하거나와 전쟁이란 폭력행위이며 폭력행사에는 그 한계가 없다. 상대방은 서로 적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무한한 폭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것은 당연하는 제1의 상호작용이며 제1의 무한계성이다.

#### 3. 목표는 적의 저항력 분쇄(粉碎)

적의 저항력을 분쇄하는 것이 군사행동의 목표라는 것은 이미 지적하였거나와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분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적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 온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의 폭력을 가하여 적으로 하여금 우리가 요구하는 희생이상의 최악의 궁지에 빠지게끔 하여야 하며 이러한 폭력행사는 적이 도다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도록 지속적이며 철저하여야 한다. 교전국중의 일국이 가장 궁지에 빠지는 것은 그 자체의 무장 세력이 분쇄당하여 해제됨으로써 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사에 굴복시키려면 적의 저항력은 분쇄되거나 적이 우리의 군사력에 의하여 자기들의 군사력이 파괴될 가능성에 대하여 두려워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적의 저항력 분쇄가 군사행동의 목표이긴 하나, 이는 항상 두 세력 간의 충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의 전혀 저항하지 않을 경우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이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저항력 분쇄를 목표로 하므로 일방이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한 목적달성은 불가능하며 여기서 제2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이는 제2의 무한계성이다.

#### 4. 폭력의 무한한 사용

적을 굴복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우선 적의 저항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과정 이상으로 자기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적의 저항력은 불가분의 두 요소, 즉 기존의 제수단의 대소와 의지력의 강약으로 표현된다. 기존의 제수단의 대소는 표면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록 그 전부는 아닐지라도 측정이 가능하나 의지력의 강약을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다만 동기의 강약에 의하여 대략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법으로 적의 저항력을 추정하며 이에 상응하여 우리의 힘을 할당함으로써 적을 굴복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도 같은 사고로 우리를 굴복시키려하기 때문에 피아간에는 새로운 경쟁이 발생하며 이론상 무한계적 노력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제3의 상호작용이며 제3의 무한계성이다.

## 5. 현실적인 수정

순수한 개념의 추상적 영역에 있어서 경험의 한계내에서의 인간의 지성은 극한에 이를 때까지 그 사고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다만 순수한 이론상의 전쟁개념으로부터 절대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유도(誘導)한다면 전술한 부단한 상호작용은 무한히 뻗어 나갈 것이며 이는 번쇄(煩瑣)한 일련의 논리전개로부터 유도하나 환상적인 관념의 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절대적인 것, 즉 완전함에 집착한다면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제 곤란 점을 모두 검토해 보아야만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최대의 저항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최대의 노력이 할당되어야만 할 것을 상상할 수 있으나 이는 순 관념적인 추상의 세계에서만 가능할 뿐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이러한 논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러한 논리적 환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만약 인간이 이러한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반드시 서로 합치되고 상호보강 된다고 믿는 정치적 원칙과 전쟁원칙은 서로 구속하고 제약하며 따라서 이는 힘의 무익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은 번잡한 이론적 제반으로부터 그 힘을 도출해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표의 중요성에 따라 그 의지력을 배분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추상적인 영역으로부터 현실적 세계로 들어올 때 사태는 그 자세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영역에서는 일체의 사태는 낙관적이며 피아 양측을 모두 완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가? 만일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3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전쟁은 전혀 고립된 행동이며 전전(戰前)의 모든 사건들과는 전혀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 전쟁은 단일회의 결전,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수개의 결전으로 결산되어야 한다.
- 전쟁은 결전 그 자체로서 완성되고 전후에 따르는 정치적 타산이 없어야 하난.

이제 우리는 이상의 3조건이 실제와 부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보자.

## 6. 전쟁은 고립된 행위가 아니다.

전쟁의 고립과 돌발에 관해 고찰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대적하는 두 상대자를 생각하자. 이들 쌍방이 모두 전혀 추상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고 또한 저항력을 구성하는 두 요소 중에는 외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의지력이 있음을 기억하자. 여기서 의지력이란 전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오늘의 의지로서 내일의 의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쌍방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오랜 시일에 걸친 관찰과 판단으로 현실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이론상으로 판단한

환상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쟁이란 돌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순간적으로 확대될 수는 없다.

인간은 그들의 불완전한 구조양식 때문에 항상 최선의 수준 이하에 위치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같은 결함은 양자의 행동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된다.

## 7. 전쟁은 지속성 없는 단일회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전쟁이 단일회의 결전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수개의 결전에 의하여 종결된다면 기회란 한 번 뿐이므로 이를 위한 일체의 전쟁준비는 당연히 최대한으로 수행되어야 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이 전전(戰前)에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준비의 척도는 우리가 아는 범위내의 적의 준비 정도이며 그 이상의 것은 다시 추상적 영역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란 결전이 수개의 지속된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선행하는 행위와 이에 부합하는 제 현상이 계기(繼起)하는 연쇄반응적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다음 행위를 예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현실이 추상을 대신하고 극한상태로 향하려는 경향을 완화시켜 준다. 만일 투쟁에 가용한 제 수단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쟁은 단일회의 결전 혹은 동시에 일어나는 수개의 결전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침예한 일방은 불리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첫 결전에서 그들의 제 수단이 소진되어버린다면 제2의 결전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제1차 결전 후에 제기하는 모든 군사행동은 본래 제1차 결전의 여파이며 실제로 그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준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추상적 관념과 가정된 극한이 실제기준으로 대치되기 때문에 전쟁당사국은 그들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극한의 노력을 피하고 그들의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자원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이들 자원 및 이를 행사하는 제 수단은 그 성질상 동시에 전체가 투입될 수는 없다. 이 자원 즉 힘이란 협의의 군사력, 국토의 면적 및 인구 그리고 그들의 동맹국을 합하여 의미하며 국토의 일부 혹은 전체가 전구(戰鬪)가 되거나 전구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토의 면적과 인구는 군사력의 원천으로서 전쟁의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범위하고도 다각적인 전쟁자원의 성질로 보아 국토나 인구가 매우 적어서 그 전체가 동시에 최초의 군사행동에 휩쓸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모든 자원이 동시에 사용될 수 없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요새, 하천, 산악, 권 등의 요소가 그러하거니와 더욱이 동맹국에 이르러서는 정치적 관계의 제 성질과 수반하는 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해 자국의 의사대로 구사되지 않으며 때로는 뒤늦게, 때로는 전복(顛覆)된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경우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은 예상 외로 크며 최초의 결전결과 큰 피해를 받아 세력균형이 현저하게 기울어졌다 할지라도 균형의 회복은 가능한 것이다. 이 점으로 보아 가용 전력량을 동시에 투입하는 것만이 전쟁의 본질과 합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차 결전에

투입될 우리의 노력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동시에 투입되지 못하는 모든 자원도 전쟁수행에 필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패배는 항상 사태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며 최초 결전의 결과가 계기(繼起)하는 차후 결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누적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도 고의로 패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전이 계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이 최초의 결전에 그들의 노력을 과대하게 집중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 때문에 현저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최초의 결전은 단일회의 결전으로 종결되는 결전처럼 쌍방향의 역량이 총집중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향이 최초의 결전에 쌍방이 극단의 힘을 집중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완화시키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이 상호작용은 극한으로 이르는 경향을 억제하며 따라서 한정된 노력만이 최초의 결전에 집중되게 된다.

### 8. 전쟁의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조건을 살펴보면 전쟁이란 승패 자체로써 완전히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패전국이라 할지라도 패배는 일시적 재앙에 불과하고 차후의 정치적 형세를 이용하여 만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전쟁에 있어서 인간의 긴장과 노력의 정도를 대단히 완화시키는 명백한 이유가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고찰은 이 모든 조건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기에 너무나 많은 순 관념적 추상의 영역에 속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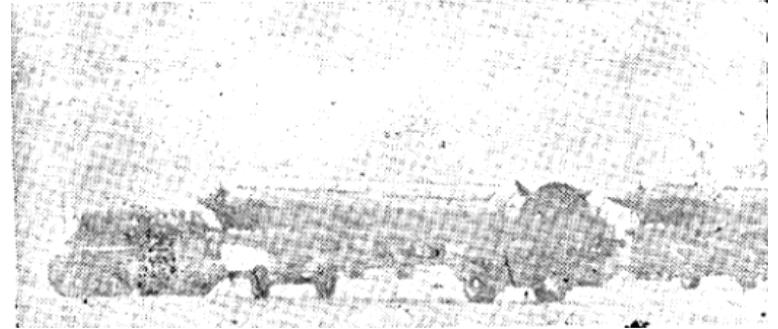
그리하여 이제까지 인류역사와 더불어 성장하여 왔고, 지구 종식의 그날까지 인간생활을 지배할 현실적 의미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이 폭력의 무한계성을 완화시켜 주리라고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차호계속>

#### ◇ 세종대왕의 사랑

세종대왕이 집현전을 만들어 이넷을 양성할 때의 인정(人情)일화다. 후에 쟁쟁한 인물이 된 정인지, 성산문, 신숙주, 최항, 박팽년, 이계, 이노선 등이 집현전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공부하는 젊은 선비들이 추울까하여 시종을 거느리고 집현전을 나가 보았는데 이날 밤의 숙직 신숙주가 야반삼경인데도 책을 읽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돌아온 세종대왕은 시종을 시켜 다시 집현전으로 가보게 했는데 신숙주는 아직도 책을 읽고 있었다. 얼마 후에 대왕은 또 다시 보고 오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닭우는 소리가 나자 촛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갔다는 시종의 보고를 듣자 대왕은 당신이 입고 있던 수달피 두루마기를 시종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 이것을 잠든 신숙주에게 가만히 덮어주고 오너라”

### 군사



<소련의 핵장비를 갖춘 유도탄이 모스크바 시가를 통과하고 있다>

## 소련의 핵전략을 해부한다(상)

- 미 군사전문가의 토론회 -

도정진(桃井眞) 저, 백봉(白峯) 역

### 스탈린 전략의 부정

1942년 간신히 대독전선의 안정화에 성공한 스탈린은 이때까지의 패퇴를 정당화 시키고 또 적군이 궁극적으로 나치군을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축출(逐出)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필요성이 강요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 모순되지 않는 전략론도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자유로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것이 적군의 승리를 확보하기 위한 다섯 항의 ‘항구적 요인’이었다. 즉 (1) 후방의 안전성, (2) 군의 사기, (3) 사단의 양과 질, (4)군의 장비

(5) 지휘관의 조직력이 그석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이 사망한지 6개월만인 1953년 9월에 타렌스키 소장이 적군의 기관지 '군사사상'에 발표한 일론문에서 핵무기와 전략공군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소련 국민의 유니크한 정신력을 강조한 스탈린의 전쟁관을 처음으로 비판했다. 타렌스키 소장은 다시 스탈린이 자본주의 제국(諸國)의 전쟁법칙은 소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해서 핵무기와 전략공군의 출현으로 전쟁의 법칙을 잘 이해한 지휘관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스푸트닉 1호의 발사에 성공한지 5개월 후인 1958년 3월에 ICBM이야말로 장차의 어떠한 전면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형이상학적 요인을 중시해 온 소련의 전쟁관에 폭탄성명을 던졌다. 한 무기체계가 전쟁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한 것은 소련 군사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이 타렌스키 소장에 의해서 스탈린적인 - 소련의 전쟁원칙은 자본주의 국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 생각이 고쳐졌다.

그리고 1962년에 소코로프스키 전참모총장이 후르시초프의 특명으로 카스티로위츠 대장을 비롯한 14명의 저작자 그룹을 지휘해서 편집한 「근대에 있어서 전개된 최초의 가장 중요한 소련 전략평론」(헨스볼드윙)을 발표했다. 이 속에서 소코로프스키는 동저의 제명(題名)인 군사전략의 정의를 내려 '군사전략이란 일정한 계급적 관심을 위한 무력적인 전쟁의 일반법칙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체계이며 전쟁의 경험, 군사적, 정치적 정세, 국가와 경제의 정신력, 가상적국의 새로운 투쟁수단 및 견해를 연구하여 이것에 기초해서 장래전의 조건과 성격, 전쟁의 준비 및 수행의 양식, 각군종과 그 전략적 운용의 기초 및 물질적 그리고 기술적 후방지원, 전쟁 및 지도의 기초를 연구한다. 동시에 군사전략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있어서 국가의 전쟁준비 및 무력전 수행의 전술에 관한 최고 군사 정치수뇌부 최고 통수부 및 최고 참모부의 실천적 활동의 분야이다'라고 했다.

즉 소코로프스키 원수들에 의해서 소련 전략은 스탈린적 속박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과학적인 체계로 되고 가상적인 자본주의 제국의 새로운 군비와 전략을 연구하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R. 가아소프가 1958년에 내놓은 명저 「핵시대의 소련전략」(역자주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방총서 제 7집으로 역간되어 있다)에서 논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련은 근대적 고성능 무기의 전략에 미치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혹은 반미로 미국의 생각과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은 어느 쪽도 불완전하다. 실제이 있어서는 현대무기의 의의를 생각하고 수정, 재해석을 가하여 언젠가는 소련의 군사원리에 새로운 변혁이 예상된다고 가아소프가 예언한 것을 소코로프스키가 입증해 보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아소프는 현 조지워싱턴 대학 중소문제연구소 상임강사와 뉴욕타임즈지의 헨스볼드윙, 프린스턴 대학의 모오겐스탈 등 17명의 학자, 평론가, 군인 그룹이 1962년에

설립된 조지타운 대학의 전략문제연구소에서 1963년 봄에 73쪽된 '소련전략 연구토론회'는 소코로프스키전략을 철저히 분석하고 미국측에서 본 소련의 전략관을 집약하여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그 속기록 '소련 핵전략의 비판적 가치'는 동 연구소가 1963년 초두에 발행했다. 107페이지의 대서(大書) 국가 안전보장 - 금후 10년간의 정치, 군사, 경제전략 내의 소련 전략비판과 함께 미소의 전략연구자에게는 놓칠 수 없는 문헌이다.

### 소련의 현대전쟁

소코로프스키는 스탈린적 도그마를 소련의 전쟁개념으로부터 제거시켰지만, 인류사회의 일정한 발달단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사적 현상으로서 전쟁을 포착하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전쟁은 정치의 타 수단(즉 폭력)에 의한 계속이며 정치는 전시에든 계속한다'는 레닌의 교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를 전체라고 한다면 전쟁은 그 일부이며 전시에든 계급투쟁은 계속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소코로프스키는 전쟁이란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질적인 사회계급 제 국가, 국가군, 제 민족 간의 무력적 폭력이며 조직된 무력전이며 전쟁은 정치적 계급적 투쟁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입각 한다.

거기서 장차의 세계전쟁의 정치목적은 군사력의 분쇄뿐만이 아니고 적의 경제의 완전붕괴 및 적국 주민의 사기의 압도(壓倒)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폭력수단의 현대적 강대화에 수반하여 파괴는 점점중대한다. 그리고 생산력,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의 결과 '무력전의 도움을 빌려 가장 결정적인 정치목적 달성을 만능성이 크게 증가했다'고 경고한다. 요컨대 소코로프스키에 의하면 전쟁의 개념은 평화적 비군사적 투쟁수단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란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폭력이며 그 폭력수단 혹은 전쟁수행수단은 국가의 군사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대에 있어서도 폭력수단에 의한 계급적 정치의 계속이라 보는 전쟁의 레닌적 이해나 일정한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무력전이라고 보는 전쟁의 레닌적 이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에 입각하여 현대의 무력수단을 관찰할 경우 당연히 테크놀러지의 전달에서 생긴 질적으로 새로운 무기가 군의 전력을 격증(激增)하여 군의 조직형식 및 일체 굵의 군사행동의 실시방식을 근본적으로 급변시켜 군사전략과 병술 전체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 혁명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물론 핵무기이다. 이 사실을 소코로프스키는 '대체로 모든 규모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순 군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핵무기의 사용은 재래의 공격수단 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성과를 가져 온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전쟁에 있어서 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전투과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이 핵무기를 소련군이 채용했다는 것은 전쟁을

억제하고……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소련의 군사전략의 손에 넘겨 준 것이 된다.

### 로켓 핵전쟁

이 현대전에 있어서의 핵무기의 의의에 관한 견해는 근본이념에 있어서 서방측의 그것에 접근한 것이다. 전언하면 항구적 주요인을 고집한 스탈린의 전쟁관과는 전연 그 차원과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적어도 '장차전을 무력수단의 관점으로 본다면 특히 로켓 핵전쟁이며 전군중 특히 전략임무의 로켓군에 의한 핵 로켓의 대량사용은 이 전쟁수행의 근본 이다라는 견해는 흐르시초프의 일련의 연설에서 볼 수 있는 견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이 견해를 전쟁의 과정에 맞추어 본다면 적의 군사력의 격감(미국적 표현으로는 대전력전략)이나 후방의 붕괴(대도시전략)이나의 문제는 소코로프스키에 있어서는 침략자가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적, 정치적 및 경제적 제능력을 동시에 상실시킬 필요성과 최단기간에 두 개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 로켓의 만능성과의 두 점에서 군사력과 후방의 파괴는 동시에 그리고도 결정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된다. 거기에서 국민대중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장차전의 결말에 필연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회, 경제, 국가적 체제의 우월 전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여 결코 무기 즉 폭력수단 이전의 요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소코로프스키의 견해로서는 제3차대전은 무엇보다도 로켓, 핵전쟁이며…… 전략임무의 로켓군이 지도적 군종이며…… 다른 군종의 역할과 임무는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제2차 공산당대회에서 마리노프스키 국방상이 말 한 바와 같이 전쟁전체의 종결을 위해 전쟁의 초기 및 적에 대한 호기(好機)에 피멸적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그 침략계획을 좌절시킴과 동시에 침략자의 기습핵공격을 확실히 격퇴하는 양식이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소코로프스키는 서방측 특히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소코로프스키의 인식은 극히 현실적이다.

우선 소련의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및 군사적 능력의 명백한 과소평가가 미국의 대량보복정책을 붕괴시켰다. 다음으로 소련이 획득한 미국에 대한 커다란 우위의 결과 미국 본토에의 현실적인 위협이 생겨 미국의 정치, 군사 지도자가 그의 전략적 상태와 능력을 재평가할 필요를 강요당했다고 본다. 그리고 쌍방 공히 방대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비축을 가지게 되 오늘날 전면핵전쟁은 상호적 격멸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내포한다. 따라서 대량파괴무기의 축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된다. 요컨대 로켓 핵전력의 성장과 이것을 사용할 공산은 반비례한다.(미국식으로 말한다면 신빙(信憑)도의 저하)라고 본다. 거기에서 케네디 정권하에 유연(柔軟)대응전략이 생겼다. - 라는 인식의과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핵무력과 그 사용공산의 반비례설을 서방에만 적용시키고

소련 자체의 현상에는 언급이 없는 것은 무슨 뜻일까.

### 선제선언정책

그리고 제한전쟁에 관해서도 서방측의 제한전쟁 비판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소코로프스키에 의하면 제국주의자들은…… 국지적 출몰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전쟁을 도발하려고 시도하는 일이 있다고 하여 현대의 제 조건하에서는 어떠한 국지적 무력충돌도 그것의 싹이 텄을 무력에 즉각 저지하지 않으면 핵무기의무제한사용을 수반하는 세계전쟁으로 확대해 간다고 한다. 즉 제한전쟁은 제국주의자가 스스로 전면핵전쟁을 시작하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지전과 국지적 출몰을 이용해서 새로운 세계전쟁을 야기 시키려는 침략계획의 일종리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소코로프스키가 지적하는 것은 서방측의 그리고 세계전쟁에의 발판으로서의 제한전쟁뿐이다. 즉 제한전쟁은 반드시 제한핵전쟁에서 전면핵전쟁으로(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확대화 경향을 갖는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런데 다른데서는 자국이 행하는 국지전에 관해서 '가령……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수행되어 교전국의 상공에는 끊임없이 핵공격의 위협이 존재해도 종전과 같이 주요한 사건은 전선부근의 전장내에서 전개될 것이다'라고했고 또 국지전에 있어서는 전략적 행동의 일부는 대체로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한정된 규모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후자는 전쟁의 한정화, 전투수단의 한정화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들린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의 전략연구가들의 주목을 끌었다. 왜 서방측의 국지전쟁은 확대화하고 소련의 그것은 한정화가 가능한가라는 대목의 설명이 불충분했다. 그러한 불충분 혹은 모순된 설명(전면전쟁에 있어서는 최초의 일격이 결정적이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은 소련 군부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62년 9월22일부 「붉은별」에서 크로치킨 소장은 소코로프스키의 「군사전략」이 전략 미사일 부대 이전의 다른 타입의 삼군 특히 지상군의 역할이나 작전양식에 관해서는 충분히 깊이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1963년 1월의 「위이에니 웨스토닉」에 발표된 V·제브스코프, Y·야키모프스키 두 대령의 저명한 논문도 「군사전략」이 전략 미사일 부대에 너무나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핵전쟁 발발후의 연합야전(해상)부대의 대규모적인 전략적 기동과 재번개의 만능성과 계속적인 필요성을 격하시키고 있는 것은 시기상조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 소코로프스키 일동이 「군사전략」에서 주장한 억제효과 즉 보복공격의 위력에 대한 공포만이 제국주의자들을 억제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마리노프스키 국방상 자신이 1962년 2월 28일 즉 쿠바 봉쇄사건 후에 기자단에게 배포한 '경계심을 가지고 평화를 옹호하라'라는 팜플렛 속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소코로프스키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차호에 계속>

## 2세를 위한 장(章)



- ◇ 환경(環境)과 어린이 교육(教育)
- ◇ 어린이의 독서(讀書)
- ◇ 어린이의 건강(健康)
- ◇ 어린이의 스포츠

가족페이지

## 환경(環境)과 어린이 교육(教育)

김 영 옥(金英玉)  
 <문교부 장학관>



‘세 살 버릇 여든까지’ 또는 ‘어려 버릇 자라 버릇’등등 옛날부터 전해내려 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렸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어렸을 때에 그 사람이 놓여졌던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점에서 역시 어릴 때의 생활환경이 그 사람에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서 금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자랄 시절만 하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사회가 현재에 비하여 좁고 단순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우리가 보다시피 자식을 키우는데 내 뜻만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애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장래를 위하여 여러모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부모는 따뜻한 사랑과 공정한 태도로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여 모든 일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비뚤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건 막내둥이건 꼭 같이 사랑하여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결핍하거나 공정치 못하면 그 결과로 어른들이 상상(想像)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가족의 일입니다만 양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또 사회적 지위가 보통 이상입니다만 그분들의 자식이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의 물건을 훔쳐 팔기 시작하고 친구들의 돈을 훔치고 드디어 집안 물건을 들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원인을 살펴보니 첫째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동시에 공정치 못한 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못 돌보아 준 것은 좋은데 어떤 이유로 두 달 정도는 보통 집을 비우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가 끝의 아들만을 귀여워한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큰 아이들은 부모의 편애에 대하여 드디어 반항심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가족페이지

나의 부모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침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더 귀엽게 구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습니다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태도로 아이들에게 대하여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게 되었는가. 이 부모는 아침 등교할 때는 전차표 두 장씩을 주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돈을 일절 안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이상의 돈을 쓰게 하는 것은 교육상 좋지 못하지만 필요한 것조차 여의치 못하게 하면 아이들은 드디어는 좋지 못한 일을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항상 아이들의 소망과 무엇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공평한 태도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대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생활을 규모 있게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이 생활을 바르고 규모 있게 하여야 합니다. 아버지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기가 일쑤고 어머니마저 오늘은 이 친구 집, 내일은 저 친구 집으로 바쁘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도 바로 집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가면 돌아 올 때도 부모님에게 돌아왔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고사하고 어머니마저 안 계시면 아이들은 드디어 밖에 나가기 시작하고 친구 집에 들르게 됩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집에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들을 맞으므로 해서 아이들이 바로 집에 돌아오고 집에서 예습 복습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서 노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것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면 좋으나 어느 날이고 남의 집에 놀러 다니는 버릇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 버릇은 어머니가 집에 있어서 언제든지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이 또는 집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직접 돌보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고쳐 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린이들의 생활에서 특히 부모가 주의할 것은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한꺼번에 싹 일어나서 집안을 치우고 같이들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책가방을 메고 들고 나가는데 아버지는 아직 이불 속에 계시고 어머니는 머리도 빗지 않고 어수선한 몸차림으로 아이들을 똑똑히 돌보아 주지 않고 식모나 일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 아이들이 어른의 생활이라는 것은 저런 것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아이가 크면 그들의 생활은 그 부모의 생활 이상으로 좋게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수 물을 떠서 방안으로 가져오게 하고 자리를 한구석에 밀어 놓고 밥상을 올려 오고 출근시간이 박두하여 일어나서 허둥지둥 집을 나가는 등의 일은 무언중 어린이들의 생활을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부모나 기타 어른들과 한 상에서 식사를 할 때 어린이들이 먼저 수저를 들지 않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반드시 아이들은 어른이 수저를 든 다음에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웃어른을 존경(尊敬)하고 모시는 한 마음의 표시인 것이니 그것이 예의범절의 표시인 것입니다. 저의 집에는 아이들의 3형제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른 보다 절대 먼저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른들은 아이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딱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식사가 끝나면 반드시 “잘 먹었습니다.”하고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의범절의 지도입니다. 여러 집을 방문하여 보면 어떤 집은 아이들이 손님들에게 곧잘 “오셨습니까?” 또는 “안녕하십니까?” 등등 인사를 하는데 어떤 맥의 어린이들은 본척만척 하는 것은 좋은데 뻔뻔한 태도로 앓을 지나다니는데 그럴 때는 기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맥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지도를 할까하고 어른들의 인격을 의심하게끔 됩니다. 저의 친구 집 아이들은 대단히 영리하고 귀여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손님이 오면 그 방에 와서 둘러앉아 어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무릎에 올라 앉고 핸드백을 열고 그 속 것을 끄집어내는 등 그렇다고 싫은 낯을 할 수도 없고 난처한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잘 못 시킨 것입니다.

아이들은 영리하여 잘 타이트하고 못하게 하면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귀여운 것이지 남이 귀여운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재롱으로 보이고 귀엽지만 남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어른에게 대하는 태도에 주의하는 동시에 아이들 앞에서 친한 친구들끼리라도 말씨에 조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협조정신과 자활정신(自活精神)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신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일을 각자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잠자리는 자기가 깔고 개키도록 하는 동시에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고 학교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밥상을 자기들이 올려오고 내려잡니다. 일요일에는 집 안 청소를 아이들이 분담하여 함으로써 식모의 노고를 하루라도 덜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저는 세 아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별로 교통비, 학용품비, 잡비를 계산하여 매월 1일에 주고 그 것으로 한 달을 각자 나뉘므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첫째로 한 달 동안 살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살며 둘째로 유용하게 쓰는 방법과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길러지고 동시에 절약한 것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등 그때때 돈을 주는 것보다 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들의 교우관계입니다. 크나 작으나 어린이들은 친구와 사귀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와 사귀면 그 어린이의 생활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만을 좋게 말하고 남의 자식은 좋지 않게 말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남의 자식을 나무라기 전에 내 자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식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사다 주고 집 안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 그 아이가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린이들의 생활을 즐겁고 명랑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식들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집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 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이 늘어 가는 것은 좋은데 영화관에 붙어 있는 간판에는 어린이들을 자극할 장면과 색채 등이 가는 곳마다 붙어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그들에게 영화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심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벌어야 자식을 교육시키겠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지만 내 자식을 생각할 때 영화관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은 우리가 귀에 익을 정도로 듣고 있는 말인데 왜 맹모가 그 아들을 위하여 세 번이나 이사를 하였습니까?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환경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사회가 복잡하고 가정생활이 단순치 않으니 만치부모는 어린이 교육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어떤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또는 밖에 나갔다가 숙히 집에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부모들은 생활태도를 어린이들에게 솔선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장래에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도리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자식들이 이 다음에 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그들에게 사과할 것입니까.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자

## 어린이의 독서

— 좋은 책의 벗이 되게 하자 —



윤 석 중(尹石重)  
〈새싹회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1963년 한해 동안에 나라 안에서 박아낸 책의 가짓수는 5,027종인데 그 중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이 어린이 만화책으로 2,142종이고, 그 다음이 학습참고서로 632종이다. 말하자면 1,2위를 다 청소년 상대의 책들이 차지한 셈인데 얼마 불명예스러운 '우수한 성적'인가.

참고로 1963년치 출판물의 종별 통계를 내보면 다음과 같다.

▲총기(總記) 75 ▲역사 48 ▲법정 251 ▲사경(社經) ▲종교 203 ▲공학 79 ▲산업 128 ▲예술 77 ▲어학 100 ▲문예 494 ▲의학 50 ▲교육 109 ▲참고서 632 ▲아동 259 ▲만화 2,142 ▲그 밖에 131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 새로 나온 어린이 책은 33종으로 동화집이 11권, 동시집이 4권, 소년소설집이 6권, 전기가 11권, 그 밖의 것이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재판 삼판도 더러 있지만 별것 아니고, 우리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어째서 만화책이 것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냐는 것이다.

첫째 이유는 전쟁, 가난, 시험공부 따위로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어린 그들의 호기심과 염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로는 탐정만화, 모험만화 따위 자극성 많은 만화가 제일인 때문이요. 둘째 이유는 굳것질이나 동네 애들하고 싸우는 것 보다는 만화 가게에서 숨을 죽이고 책을 보고 있는 것이 영문 모르는 부모내 마음에 대견해 보이기 때문이요, 셋째 이유는 어른들 자신이 책 읽기와 너무나 담을 쌓고 지내기 때문이니 어린이들의 빛나간 책읽기란 그 책임이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있다 하겠다.

다방에 잠깐 마주 앉았다 나오더라도 사, 오십원이 휘 달아나고 택시 한 번 잡아타도 사, 오십원이 휘 달아나고 점심 한 끼, 극장 한 번에도 돈 백 원이 달아나건만 자기 자신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책을 사서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는 가정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요즘 여성잡지가 잘 팔려서 50,000부 이상씩 다달이 찍어내는 잡지도 있는데 어린이 책이란 부모 손을 거쳐 들어가는 수가 많으므로 이처럼 가정주부가 교양높이기와 자녀 기르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살림 틈틈이 책에 재미를

붙임에 따라 어린이 책도 차차 많이 나가서 출판사들이 좋은 책 먼저 내기에 성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니 출판계의 길조가 아닐 수 없다.

어린이 손에 좋은 책이 들어가려면 어른부터 책에 재미를 붙여야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책을 볼 수 있을만한 가정 분위기를 마련하는 일이다. 저마다 집안에 서재를 갖출 수도 없거나 갑자기 조용한 방을 따로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집구조를 뜯어 고치거나 이사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 말하는 가정 분위기 마련이란 조용, 조용히 살자는 것이다. 시끄러움, 떠들썩, 왁자지껄, 말다툼, 욕지거리, 코골기, 잠꼬대,……이런 것들을 물리치자는 것이다. 장작빠개기, 다듬이질, 빨래방망이질, 장사아치와의 시비……이런 아우성 가운데에서 그날, 그날을 넘겨 버리는 가정이 태반이다. 미개한 나라 사람일수록 말소리가 높다. 하거나와 정다운 아기조차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남에게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 수조차 있는 것이다. 조용조용, 나직나직 이거야 말로 우리네가 사색하고 반성하고 계획하고 독서하는 바탕이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책 읽는 동안만이라도 집안 식구끼리 만이라도 조용조용, 나직나직을 지켜나가자.

그 다음으로 저마다 지녀야 할 일은 책을 아끼는 마음씨이다. 어른들이 책을 목침삼아 베고 잔다거나 책을 돌돌 말아 가지고 다닌다거나, 내 던진다거나, 다 보고 냐다 해서 부욱북 찢어 코를 풀고, 뒤지를 하기가 일수라면 어깨너머로 보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그것을 본받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어린이의 책 읽기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위에 적은 세 가지를 잊 사람부터 실천하고 나서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고 까닭을 붙이려면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다. 만일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를 만나서 어째서 당신은 그처럼 싫어하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든지 그에게는 그럴듯한 구실이 있을 것이다. 만일 추운 겨울에 이런 말을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뜨뜻한 방에 앉아 책을 보노라면 윈 줄음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 야지……그래서 그만 책을 보다 그냥 쓰러져 자군 하지…” 이런 이가 봄이 되면 이렇게 둘러댈 것이다. “꽃이 피고 새가 울면 마음이 들떠서 어디 집에 처박혀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저 들로 산으로 훨훨 쏘다니고 싶은 생각밖에 안나……”그랬다가 여름이 되면 덥고 모기가 덤벼서 책을 못 읽겠고, 가을이 되면 마음이 처량해서 책이 손에 안 잡히고 할 것이다. 이런 이들 때문에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런 구실은 어른에게 뿐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얼마든지 내달을 것이다. 결국 책 읽기도 버릇들이기에 달렸으니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전차나 기차 속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을 드물고 책이 아니면 신문이라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책에 인이 박혀서 안 보고서는 못 배기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책 재미는 다 크기 전에 어려서부터 붙여 주도록 해야 길이 들고 버릇이 붙는다.

그러면 어떠 어떠한 책을 어린이들에게 권할 것인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일지라도 너무 먹으면 체하기 쉽고 식성에 맞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이면 먹노라고 애만 썼지 살로 안가는 법인데 책 역시 많이 읽힌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읽기 싫은 책을 아무리 억지로 읽힌대자 머리에 들어갈 리 없고, 설사 머리에 남아 있더라도 곧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에 까다로운 어린이가 편식이 되는 모양으로 너무 한 방면 책에 치우쳐서 읽어 놓으면 생각이 한군데로 쏠려버려서 탈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되도록 널리 여러 가지 책을 골라 읽힐 것이요. 때로는 수학에 재미를 붙인 어린이에게는 부드러운 동시나 동화를, 국어에 취미를 붙인 어린이에게는 재미있는 과학책을 읽도록 권할 것이다. 뛰어난 정치가에 미술가도 있고 용맹한 군인에 시인도 있으며 글 잘 쓰는 교육가도 있음은 그분네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것에 재미를 붙여 공부를 한 때문이니 큰 사람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고루고루 책을 읽혀 그들의 정신세계를 넓혀 주어야 한다.

물감칠 한 과자나 눈깔사탕이나 더러운 물을 얼려 만든 아이스케이크 따위가 몸에 나쁜 줄은 누구나 다 아는데 울긋불긋해서는 어른이고 어린이고 그다지 걱정들을 아니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얼마 전에 문교부에서 만화책 가게에서 만화책 백 가지를 구해다가 따져보니 다음과 같더라고 한다.

책 됴됨이

	좋은점	나쁜점	꼴	10%	90%
그림	20%	80%	맞춤법	5%	95%
활자크기	17%	83%	글솜씨	10%	90%
인쇄	17%	83%	종이	17%	83%
빛깔	13%	87%	제본	10%	90%

책 내용

	좋은점	나쁜점	민족에	17%	83%
도의에	27%	73%	잔인함	10%	90%
풍속에	29%	71%	강화에	20%	80%
취미에	20%	80%	상스러움	5%	95%
읽기에	20%	80%			

이렇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작년 1년 동안에 나온 만화책 2,142 가지는 어떠한 속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거나 우리나라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 든 줄은 알아도 염통에 쉬 쓰는 줄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평균 득실거리는 얼음과자가 손톱 밑에 박힌 가시라면 이런 나쁜 책들이야말로



염통에 짝 깔린 ‘쉬’가 아니겠는가. ‘쉬’란 무언가. 파리새끼를 까주는 파리의 알인 것이다.

다시 이야기는 되돌아가 그러면 어떤 책을 읽어야만 되느냐 가 되고 마는데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전깃불이 갑자기 나가니까 초를 켜려고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불을 켜고 찾으면 쉽지 않겠는가” 하더라. 하지만 불을 켜려면 역시 성냥을 먼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좋은 책이요 어떤 것이 나쁜 책이냐 하는 것은 역시 책을 읽고 난 다음이 아니면 모를 일이다. “재밌는 줄 알았더니 아이 싱거! 괜히 시간만 보냈네……” “처음엔 싱겁더니 점점 갈수록 재미가 나겠지!” “어찌 재미가 나던지 난 두 번이나 읽었어!” 어린이들이 흔히 주고받는 말들이다. 하지만 어린이 자신이 골라 잡았다가 요행 좋은 책이라면 모르되 나쁜 책이 걸려 들었다가는 큰 일이니까 역시 책은 어머니나 아버지, 언니, 누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골라 잡아 주는 것이 그 중 안심이 된다. 어린이들이 제각기 구해 읽도록 하지 말고서 학교마다 도서관이 버젓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안심하고 빼내 읽도록 되는 것이 이상적이겠고, 자기

도 한 권 가지고 싶으면 책방에 가서 구하면 될 것이다.

문교부에서는 제작년부터 ‘우량아동도서 선정위원회’를 두고 이따금 우량 아동도서의

책 이름을 공표하고 있으니 거기 뽑힌 어린이 책들은 우선 마음 놓고 읽힐 수가 있겠으며 새싹회에서도 금년부터 좋은 어린이 책들을 모아들이고 있으니 이 단체에서 추천하는 책들도 안심하고 읽힐 수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힐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적어본다. 첫째, 닦치는 대로 읽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음식을 닦치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듯 책 역시 손에 잡히는 대로 읽으면 머리를 상해서 무에 무언지 알 수 없게 되는 수가 많다.

둘째, 너무 많이 읽지 않도록 할 것이다.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가 늘어나서 ‘위확장’이라는 병에 걸리듯 책을 너무 많이 읽으면 머리에 든 것이 많아져서 대갈장군이 되기 쉽다.

셋째, 너무 어려운 것을 읽히지 말 것이다. 신문에 나는 어른들 소설이나 어른들 읽는 애기책에 재미를 붙이는 어린이를 더러 보는데 이견 매우 나쁘다. 마치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막걸리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넷째, 심심해 할 때 책을 읽힐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보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규칙 있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책 읽는 시간을 딱 정해 주는 것이 좋다.

다섯째, 어린이들이 책을 읽을 때 그 몸가짐을 주의할 것이다. 드러누워서 본다거나, 기대 앉아 본다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에게 바라는 ‘책의 소원’ 다섯 가지를 책이 한 번 되어서 부탁하고자 한다.

### 책의 소원

나는 책입니다.

- ① 손을 씻고 읽으세요.
- ② 책장을 접지 마세요.
- ③ 엮어놓고 마세요.
- ④ 침 칠하지 마세요.
- ⑤ 내던지지 마세요.

책들이 수고했다. 편히 쉬거라.

### 황제(皇帝)와 거지

오스트리아의 요셉 황제는 매우 인자하였다. 황제가 어느 비오는 날, 거리를 지내고 있는데 어느 길목에서 한 늙은 거지가 구두 바닥이 해진 것을 질질 끌면서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 것을 보자 급히 마차를 멈추어 자기 구두를 벗었다.

황제의 뜻을 알아차린 시종이

“그토록 하시지 않아도” 하고 말하자 황제는

“나는 황제니까 마차로써 궁정까지 구두 없이도 갈 수 있으나 저 거지에게는 구두 한 켤레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다.”

하고 즉석에서 훌륭한 그 구두를 거지에게 주었다.

## 어린이의 건강(健康)



유 석 진(兪碩鎭)

<대한정신건강협회 사무(事務)총장>

종두(種痘)의 성공적인 발견 이래 어린이들은 마마에 걸리는 일이 없게 되었다. ‘디프테리아’라는 목이 막히는 무서운 병도 흔히 어린이에게 잘 생기는 병인데 이것도 예방주사만 잘 맞혀두면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과상풍도 그렇다. 소아마비나 홍역이니 하는 어린이에게 흔히 잘 오는 병들이 아직도 많으나 그런 것들도 오래지 않아 퇴치될 날이 올 직전단계에 있다. 그런 같으면 소아과 병원 하면 겨울이나 봄철엔 늘 폐렴환자가 많았다. 그러나 해방 이후 ‘폐니실린’ 또는 ‘마이신’등의 항생물질(抗生物質)의 발달로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어느 소아과 병원이고 격감되고 말았다. 어느덧 병원 풍경이 달라지다시피 된 감을 주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물질문명이 우리 인류에게 던져준 혜택이라 하겠다. 19세기 이래 활짝 발달한 현대의학 세 포병리학, 세균학, 화학요법 등의 발달로 지금 어린이의 질병은 하나하나 퇴치되어 가고 있으며 소아사망률은 날이 갈수록 격감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운명이란 이상한 것만 같다. 언제나 고만이 없으란 법은 없는가 보다. 요즈음 인구의 폭발이니 무어니 하는 말로 이 지구상에는 인구가 초만원이 되겠다는 경고에 따르는 큰 법석이 떠돌고 있다.

의학이 발달하여 노인은 노인대로 병 없이 오래 살게 되었고,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병 없이 잘 자라서 사망하는 율(率)이 저하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라는 하겠으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만 가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너무 많이 인구가 늘면 나중에 먹을 것이 모자란다는 것이 요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낳은 어린이의 병을 고치지 말자는 이야기는 물론 아닐 것이고 어린이를 뱉 수 있는 조금씩만 알맞게 낳자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임신공포증에 사로잡히는 수가 생기는가 하면 임신한 어린이를 없애는 유산을 시도한다든가 낳은 어린이를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미워하는 일마저 생기는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일은 현대에 있어서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큰 경종이 되지 않은 수 없는 문제로 된 것만 같다.

어린이란 건강한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야 건강한 것이다. 그런데 태어날 때

가족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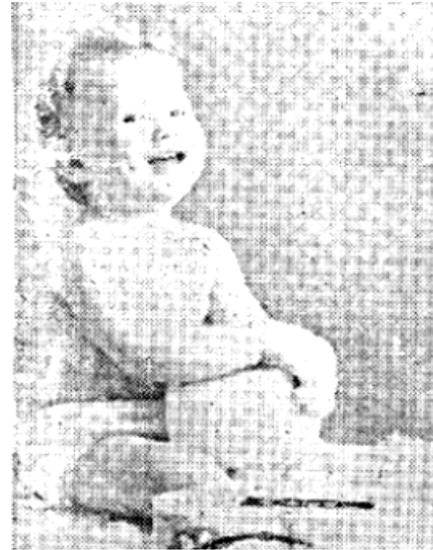
가족페이지

부터 어머니가 꺼려하는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도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 그 어린이의 건강이 어찌 기대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실제로 산 실례가 하나 있다. 어떤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어린애를 많이 낳는 것은 싫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낳은 어린이를 골고루 기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결혼 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좋은 나이차로 낳았다. 그 다음부터는 더 안 낳으려고 하였다. 피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써 보았다. 낳은 어린이를 기르는데 노력하고 재미 보고 하는 것 보다는 더 이상 어린이를 배지 않고 낳지 않겠다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어린이를 배게 되면 인공유산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하던 것이 몇 번씩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차 그것이 겁이 나서 임신된 어린이를 하나 더 낳고 말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차 그것이 겁이 나서 임신된 어린이를 하나 더 낳고 말았다. 어린이가 셋이 되었다. 이제는 정말 하고 다시 어린애를 더 안 낳기로 결심하였다. 이러다 보니 이 어머니는 거의 결혼생활 전부를 애 안 낳기로 노력하는데 써 버리다시피 되고 말았으며 낳은 어린이들을 잘 길러 보자는 데는 오히려 등한시되고 말게 되었다. 큰 애와 막내 애는 결국 그런 사이에 문제아 동이 되고 말았다. 하나는 나중에 정신분열증으로 되어 입원하게 되고 하나는 온갖 파괴적 행동을 거듭하다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 버렸다. 어머니는 땅을 치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왜 하나님께선 자기에게만 그다지 무정하시냐고 하소연 하였으나 그것은 모두가 사실은 자화자찬이었던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에 있다. 이세를 위하여 잘 해 보자는 것이 가족계획이니 운운하는 인구폭발 대책의 표면적 이유이겠는데 자칫하면 그것이 비뚤어 나가지기 쉬운 것이며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세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건강을 잃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건강을 잃어 그것이 또 악순환되면 불건강의 비극은 벌어지는 것이다. 현대과학이 발달로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잘 되었으면서도 잘못 된 일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어린이 영양에 관한 문제다. 영양학의 발달로 여러 가지 질병이 퇴치된 것은 물론이요, 인공영양이 발달되어 어린이를 기르기가 꽤 쉬워졌다. 생후 일 수에 따라 우유를 먹이는 방법, 칼로리에 메뉴의 작성 등이 아주 쉽게 되었기 때문이다. 병이 들었거나 몸이 약한 어머니, 젖이 적은 어머니들에게 그런 지식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어린이도 기르기가 쉽게 되었다. 현대 여성들은 남녀동등권을 얻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인공영양학을 이용하면 어린이를 갖고도 직장에 다니는데 꽤 편익하게 되었다. 아니 인공영양학은 그런 여성들을 위하여 아첨하는 학문으로 발전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점차 현대의 여성들은 그것에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한다. 직장 아닌 놀이터에 가는 여성들에게도 인공영양액은 더욱 많이 이용당하게 되었고 어린이에게 젖을 일일이 먹이면 귀찮은 뿐더러 몸맵시를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도 큰 지장이 있다하여 주로 젖을 좋아하는 현대판 어머니들에게 인공영양은 유행하게 되었다. 어린이를 낳기도 힘들고 싶지만 낳아도 일일이 젖을 빨리며 기르기는 귀찮다고 싫다는 어머니들의 유행병이 여기에 시작된 것이다. 이런 어머니들한테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완전히 영양부족에 걸리게 된다. 물질적 영양만 하더라도 물론 천연적인 어머니 젖만 못한 것이 우유이겠으나 그래도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목적이 달성되겠지만 정신적 영양은 우유로서는 지극히 부족하게 된다. 어린이니까 정신이 미발달 되었으니 정신은 나중에 차차 기르면 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과는 정 반대다. 신체 조식이야말로 어머니한테서 출생하자마자 어느 정도까지 기초가 서 있는 것이지만 정신 기능은 출생 후부터 발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정신발달은 출생 직후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일부 몰지각한 어머니들이 물질적 영양분만 어린이에게 공급하면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한 것처럼 느끼려고 한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은 바로 물질문명의 폐단으로 일어나게 되는 전형적인 불행사의 하나이다.

2차 대전 때 이야기다. 미국 군대에는 유달리 위장(胃腸)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고통거리였다. 전쟁은 오래가고 병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모자라고 하는 판에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전상 환자보다 난데없는 속병 배앓이로 전투를 못하게 되는 병사가 더 많이 속출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일차대전 때와는 판이한 현상이었다. 일차 대전 때 보다 여러 가지로 군대의 위생사상과 기술이 보급되었던 일차대전 때 그런 질병이 막연한 것은 얼른 의관적 피상적으로 관찰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였다. 미국 군대에서는 위장병센터를 설치하는 데까지 사태는 중대화했었다. 전형적으로 위궤양을 앓는 것처럼 보이는 병사들을 모아서 이 센터에 집결시켜 놓고 우선 면밀한 연구조사를 착수하였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그런 환자의 약 85퍼센트 이상이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위궤양 환자이면서 병리검사 또는 X선 검사 등으로는 아무런 형태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래서 큰 논의가 벌어졌는데 결국 알게 된 것은 일차대전과 이차대전에 나온 병사들의 세대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했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일차대전에 나온 군인들의 어머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처럼 아직 인공영양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몰랐고 부지런히 어린이와 더불어 살며 충분히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나 어린이를 젖가슴에 겨안고 어머니 자기 자신의 젖을 먹일 줄 밖에 몰랐던 것이다. 일터에 갈 때나 무거운 짐을 가졌을 때에도 어린이를 업고 다니다 필요한 때면 젖을 먹이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루는 풍경이 찍이나 아름답다고 본 것은 미국의 아동정신 의학자가 한 사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발설한 이야기인데 바로 일차대전에 나간 미국 군인들의 어머니들은 그런 형의 어머니들이었다. 그런데 이차대전에 나갔던 군인들의 어머니는 그와는 반대로 먼저 말

한 현대판 여성들이었다. 즉 이차대전의 병사들은 흔히 어려서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 젖가슴이 그리워서 울게 될 때 난데없이 어머니 젖이 아닌 우유 빨병의 꼭지가 입에 들어 왔었으며 때론 뜨거운 것 때론 차가운 것 등 못마땅한 것이 목에 넘어가 뱃속이 불쾌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성장하여 군인이 되자 전장터에서 고생할 때 늘 어머니와 따뜻한 고향이 그리워 질 때가 많았을 것이다. 그럴 때면 어렸을 때 경험이 조건 반사적으로 부활하여 배 아픈 증이 생길 수 있었다. 위장의 장애는 다름 아닌 '어머니 그림자'는 언어의 표현으로 발생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은 2차대전 후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어린이를 키우는 방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될 계기가 마련되었다.

건강은 실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와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모두 건전하여 인간이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조화되고 통정된 인경의 소유자로 발전된 상태를 의미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 건강이 어머니의 사랑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상에서 기술한 몇 가지 논의가 아니더라도 자명한 일이긴 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태양의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처럼 간단한 진리를 망각하는 수가 많다. 건강한 이세(二世)가

우리의 장래요 희망이라면 어린이의 건강은 가정적 사회적으로 또한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 완전을 가하도록 철저한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린이 그 자체를 벌써부터 망각하고 있고 도무지 무엇에 휩쓸려서인지 모든 것이 정신없이 변천해 가는 가운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어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다.



## 어린이의 스포츠

김 종 덕 <공군소위>

### 1. 어린이와 국가의 장래

한 나라의 어린이는 그 국가의 장래의 주인이다.

싱싱하고 빠르게 돌는 새싹은 장차 자라서 훌륭한 잎이 되어 그 나무를 보다 튼튼하게 그리고 보다 값있게 할 것이요. 병약한 싹은 시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나무에 병충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것이다.

실로 한 국가의 성쇠는 그 국가의 제2세의 성장 여하에 좌우됨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자유롭고 평화스럽고 부강한 국가가 되려면 그 국가의 현세대는 물론 2세인 어린이들이 바르고 참되고 굳세게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사과나무에 달린 소담스런 열매는 저 혼자 저절로 결실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 온기, 그리고 충분한 영양 등 자연의 힘과 인위적인 노력이 밀받침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고대 희랍에 있어서 아테네인들이 그들의 2세를 교육함에 있어서 체육(체육학교)과, 음악(음악학교)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조화적으로 발육발달 시키고자 음악과 체육을 국가적인 시정책으로 강력하게 실시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마땅히 찬양받아야 될 일이라 하겠다.

### 2. 우리나라의 어린이

미증유의 민족변란(民族變亂)인 6·25 동란과 최근의 수차에 걸친 사회변혁(社會變革)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환경 하에 놓이게 된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어린이는 그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의 어린이보다도 가장 불충분하고 불완전한 환경하에 놓이게 된 가련한 2세들이라 하겠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시험지옥'이란

놈이 항상 자리잡고 있어서 친진난만해야 할 이들에게 생존경쟁의 쓰라린 경험을 강요하며, 그들 주위 도처에 산재한 '사회악'과 '빈곤'은 동심을 좀먹으며 큰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어린이만큼 평화스럽게 해 주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사회악'과 '빈곤'과 '시험지옥'같은 것에서만이라도 우리들의 귀중한 2세를 헤어나게 해 주어야 하겠다.

그러나 갑자기 시험지옥을 없애고 당장에 사회악과 빈곤을 떨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굳센 힘과 바른 마음을 길러 주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길)이라 하겠다.

### 3. 어린이의 스포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또는 끝없이 닦쳐오는 고난을 겪어 나가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굳건한 신체력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2세를 위해서 참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2세로 하여금 바른 마음과 굳건한 신체를 가진 인간으로 자라도록 해 주는 일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것은 인간성의 도야(陶冶)와 체력연마를 내용으로 하는 체력활동(스포츠)이라 하겠다.

어린이들의 스포츠에는 그 내용이나 형태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소득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겠다.

우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로 하여금 신체의 조화적인 발육 발달을 촉진하여 튼튼한 몸을 갖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 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단체적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서는 협동심, 양보심, 준법정신 등의 민주적인 사회적 성격을 육성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용기, 인내, 침착성, 결단력 등의 덕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가 육성될 뿐 아니라, 사회적 성격 또는 개인적 덕성 등의 품성도야(형성)도 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 하겠다.

이밖에도 스포츠 활동은 어린이로 하여금 사회악에 접할 기회를 적게 하여 줌으로써 어린이의 정서(情緒)를 순화하고 이로써 소년범죄(Juvenile delinquency)를 예방하는데도 적지 않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기(발육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새로운 화음을 부여(賦與)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같이 길러 줄 수 있는 스포츠활동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한층 필요한 것임을 느끼는 바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이곳에서 말하는 어린이의 스포츠라 함은 성인 또는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그것과

같이 어떤 확고한 목적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또는 엄격한 규칙하에  
서 행해지는 스포츠가 아니라, 초등학교의 아동들이 그때그때의 요구에 따라  
서 그들 나름으로 자유로이 행하는 모든 체육적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서 '놀  
이(Play)'라고 해석함이 좋을 것이다.

#### 4. 어린이 스포츠의 내용

그러면 상술한 바와 같이 어린이의 몸과 마음을 바르고 튼튼하게 해 줄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여기서는 어린이를 초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해서 생각코자 함.)

어린이들이 행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영, 팀게임(편놀이), 얼음지치기(스케이팅), 공놀이(축구, 야구, 피구, 탁구)  
등, 재주넘기, 달리기, 산오르기, 말타기, 연날리기, 줄넘기, 유희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수영과 스케이팅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대표적인 스포츠로서 그 효  
과도 매우 좋고 성인이 된 후에도 행할 수 있으므로 어려서부터 배워 두는 것  
이 좋으며 공놀이는 위에 든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절마다 적당한  
것을 선택 실시하면 별 준비 없이도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발육기에  
있는 어린이에게는 매우 적당한 것이라 하겠다.

그 밖에 편놀이(줄다리기, 닭싸움, 보물찾기, 깃대 꽃기 등등), 달리기, 산 오  
르기 등도 계절에 따라 적당한 것을 선택 실시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예는 남자 또는 여자 아동에게 각각 적합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이 있  
으니 남녀별로 알맞은 것을 골라 실시케 할 것이며, 유희는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널리 보급이 요청되는 것이라 보겠다.

위에 든 각 종목의 효과와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면,  
수영—상하체와 호흡기 발달, 균형있는 신체 형성, 지구력 함양—신체의 조  
화적인 발육 발달 촉진.

편 놀이—협동, 단결심, 용기, 민첩성, 준법정신 함양—사회적 성격 육성.

스케이팅—하체와 호흡기 발달, 지구력 함양, 평형감각 발달—신체의 조화  
적인 발달과 지구력.

공놀이—편놀이와 같음—신체 각부의 기능 강화, 사회적 성격 육성.

달리기—전신운동, 하체와 호흡기 발달

재주넘기—평형감각, 공간지각 발달, 교차성, 유연성, 용기, 결단력 함양—신  
체 각부의 발달과 지구력.

유희—편놀이와 같음—사회적 성격과 태도 육성.

이것을 실시하는 계절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여름>

수영, 편놀이, 공놀이(피구 탁구), 유희.

<가을>  
편놀이, 공놀이(축구, 야구, 피구, 탁  
구) 유희, 달리기, 산오르기.

<겨울>  
얼음치기, 편놀이, 공놀이(축구), 달  
리기, 줄넘기, 유희(실내).

<봄>  
편놀이, 공놀이(가을), 유희, 달리기,  
산오르기.

이것을 다시 남녀별로 보면

<남자>

수영  
편놀이(줄다리기, 닭싸움, 깃대꽃기,  
깃 빼앗기 등)

공놀이(축구, 야구, 피구, 탁구 등)

유희

달리기

산 오르기

줄넘기

말타기

얼음 지치기

<여자>

수영

편놀이(줄다리기, 보물찾기)

공놀이(피구, 탁구 등)

유희

달리기

줄넘기

얼음 지치기

#### 5. 부모의 책임

이상에서 어린이의 스포츠의 내용을 그 종류와 효과면에서 대충 살펴보았는  
데 그러면 이와 같은 어린이의 스포츠를 어린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그들 마음대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  
능한 한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즉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구를 준비한다든가 또는 놀이터나 운동장  
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우리는 이따금 지상을 통하여 거리에서 놀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것을 보아왔다. 사회구조가 극도로 복잡화한 오늘에 있어서는 비  
단 교통사고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위험이 어린이들을 노리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좋은 옷을 사 입히거나 한 봉지의 과자를  
사 먹이는 것 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어 주는 것이 더 긴요한 일일 것이다.

이것을 어린이를 가진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 될 일이라 하겠다.

둘째로는 부모들이(또는 국가가) 어린이들에게 기구를 준비해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그들 속에 들어가 같이  
활동해 줌으로써 비효과적인 점이나 또는 옳지 못한 점을 시정 개선하여 보  
다 가치 있는

스포츠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다.

이에 부연할 것은 어린이들은 '자기들 세계'에 다른 사람의 투입을 싫어하게 마련이니 극히 자연스럽게 기술적으로 어린이에게 접근 동화하여 개선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요즘 도심에 생긴 Play Ground에 가 보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은 아무 관계 없다는 듯이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그릇된 일이 아닌가 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이외의 사람(걸인, 실업자 등등)이 섞여 있는 것이 눈에 띄이는데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좋지 않은 현상이라 하겠다.

욕심 같아서는 각 P.G에는 아동심리라든가 아동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함이 필요하겠으나, P.G도 넉넉히 마련치 못하는 현실에서 볼 때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겠고 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될 줄로 안다.

### 6. 결론

다시 말하거나 어린이는 나라의 주인이 될 보배이다. 이들을 훌륭하게 길러 복된 터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그들을 보다 바르고 참되고 굳세게 기르기 위하여 부모와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겠다.

**페스탈로치의 사랑**  
독일 라이프치히의 빈민굴인 어느 네거리에는 한 패의 아이들이 맨발로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옆에 서서 즐거운 듯이 바라다보고 있는 옷차림이 그다지 좋지 않은 한 노인이 있었는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 그 포켓은 볼록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아까부터 무엇인가 주워서 포켓에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수상하게 여긴 순경은 이놈이 필경 날치기나 그따위 놈에게 틀림없다고 단정하고  
“이 놈 그 주머니에 지금 무엇을 훔쳐 넣었지, 내보여!”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 좋으니까 꺼내봐”  
하는 수 없이 보여준 노인의 포켓 속에는 텅마장수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리조각이 잔뜩 들어있을 뿐이었다.  
“아니 이런 것을 도대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가엾은 아이들을 보십시오, 신을 신고 있는 아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만일 밭이라도 상하면 불쌍하니까요.”  
이 노인이야말로 교육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페스탈로치였던 것이다.



## 계획수립 및 평가제도

- PERT 이론 -

나진수(那鎭洙)  
〈공군 중령〉

- 차례
1. 서언
  2. PERT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본론 - PERT절차
    - (1) 공정표 작성
    - (2) 작업의 시간추정
    - (3) 이완도(弛緩度)와 확률(確率)
    - (4) 실제계획의 수립
    - (5) 확률이용문제
    - (6) 활동의 등급분류
  4. 결론

### 1. 서언

이 이론은 연구자체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아직도 이론적 설명이 미숙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이 PERT 제도를 어떻게 실제면에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다만 여기서는 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PERT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개념만이라도 알리고자 한다. 현재까지 PERT에 대한 소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용이나마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PERT의 발전과정과 현황

PERT는 Program Evaluation Review Technique의 약자로서 계획수립 및 통제방법의 하나이다. PERT제도는 관리운영을 위한 가장 새로운 방법인 동시에 논란이 가장 많았던 방법이며, 관리운영을 하는데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지식의 하나이다.

근래에 와서 우주과학시대로 변모됨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 계획 및 통제방법의 획기적 발전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하는 PERT이다.

PERT제도는 비단 국방산업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건설, 건축, 화학, 기타산업, 조사업무, 비반복계획 등에 파급되었다. 1957년, James Kelly와 Morgan Walker양식이 PERT와 비슷한 CPM(Critical path Method)라는 방법을 창안하였고 회사는 조사업무로부터 새안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연구를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했다.

1958년, 미국해군 특별사업국과 협력하여 Booze, Allen,

Hamilton씨의 관리상담회사는 관리통제제도로써 PERT를 창안하였다. 대규모적인 군사발전계획의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해군특별사업국은 동년에 PERT제도를 해군의 Polaris무기계획에 적용했다. 이것이 최초의 적용이고 근래에 와서 우주계획에 관련된 정부 및 군사기관은 거의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련 있는 대기업체의 계약자들도 모두 이용하고 있다. 또 국방계획에 참여하는 소규모의 기업체들도 이 분야에서 경쟁을 하려면 PERT의 능력을 발전시킬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던 것이다.

PERT는 정하여진 시간에 계획목적을 완수하게끔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계 및 통합을 하는 관리통제수단이다. 그리고 계획 활동을 완성시키는데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알기 위한 하나의 진단 및 예측이 되는 통계적 수단이기도 하며 교정이 요구되는 잠재적 문제에 관리자로 하여금 주의를 집중시키는 방안이기도 하다. 또 관리자에게 평가할 활동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한편 관리자가 가장 효과적으로 노력을 전용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준다. 계획을 이러한 방법으로 세련화 함으로써 낙관적으로 계획은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낙관적 계획과 계획 망이 일단 정하여지면 PERT는 계획의 최근상황을 조정한다. 사업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나 완성 일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함으로써 선택된 방법을 평가 할 수 있으며, 계속적인 감독을 요하고 예외적 관리를 하게 될 활동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이 제도는 사전에 문제점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상당한 연구의 결과로 PERT와 CPM의 작업과정분석(시간)은 인력, 비용 및 자본소요면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즉 궁극적인 목적은 시간비용과 생산 또는 장비사용목적 들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새로운 관리통제의 변동을 표시하는 수 십 내지는 수 백 중의 상위한 부호와 명칭들은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었으며 이러한 PERT제도의 적용은 당초의 공학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타 부문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후진국 경제계획을 수립한다거나 또는 복잡한 사업을 실천하는 등 이질적인 상황에서 일하는데 유효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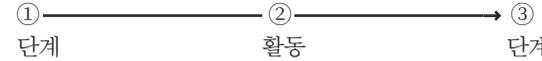
### 3. 본론 - PERT의 절차

#### (1) 공정표 작성

공정표 작성은 PERT절차의 근본요소가 된다. 공정표는 설정된 목적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순서를 가리키는 계획이다. 즉 활동과 단계를 수행하여야 할 순서로 서술하는 도표의 제시이며 또 수행하여야 할 일의 시점과 중점을 제시 증명하는 것이다. 공정표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또 필요한 정도로 상세하여야 한다. 공정표가 단계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단계(Event)는 특정된 순간으로서 계획에 있어서는 세분된 하나의 완료인 것이다. 단계는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지 않으며, 공정표상에 한 원으로서 표시된다. 활동(Activity)은 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소비되는 시간 및 자원적 요소이다. 활동에 의하여 단계는 분리되며 또 연결되고 화살표로서 공정표에 표시된다.



단계는 정적 상태의 표시인 반면, 활동은 동적 상태의 표시이다.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첫째 일은 그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단계를 전개시키며 상호관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목록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은 비교적 어렵지 않다. 즉 여러 가지 단계, 활동의 배열 및 선후연결 등은 전문가나 실제로 그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상의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예시로서 비행기조립을 위한 계약체결을 가정한 경우를 들었다. 당연히 많은 공정표를 통해서 수 천개의 단계가 산재할 것이나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주요한 단계를 선정하기로 한다.

- ① 계획 착수
- ② 초도설계 완성
- ③ 계약 체결
- ④ 기체원형 완성
- ⑤ 엔진원형 완성
- ⑥ 시험모델 완성
- ⑦ 요구량 설정
- ⑧ 시험 개시
- ⑨ 공군사업 인가
- ⑩ 최우수 시험모델 승인
- ⑪ 생산계약 신청
- ⑫ 생산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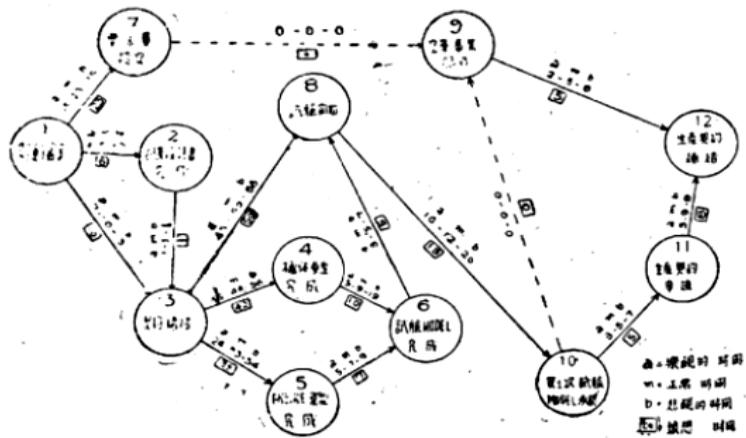
흔히 공정표를 작성하는데 있어 채택되는 방법은 공정표의 마지막 단계(목표 단계)를 설정하고 여기서 거꾸로 일해 나가는 방법이다.

활동은 공정표의 흐름, 즉 인간노력, 물자, 시설의 사용, 투자, 비용, 목표로 향해서 전개의 흐름이다. 그것은 모두 관리자에게 의하여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활동은 작업과 시간을 나타내고 단계는 작업의 결과가 되는 특정한 완성을 나타낸다.

제 1표에서, 단계 2는 단계 1에 의하여 제약되고, 단계 3과 7은 단계에 후속(後續)되며, 단계 4, 5 및 8은 단계 3의 뒤에 오는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므로 각 활동 및 그 상호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계획을 통해서 진전되며 결국 마지막 단계 9 사이에 지적될 만한 아무런 활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화살표는 제약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므로 두 단계 사이에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이 화살표는 제약의 개념이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선을 명목상의 활동선이라고 한다.

#### (2) 작업의 시간추정

작업을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추정은 아마 전 PERT절차 중



<제 1 표>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 제도는 계획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의하여 단 한 번의 시간추정을 하는 것을 싫어한다. 계획내에 포함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수량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다른 시간추정을 하게 된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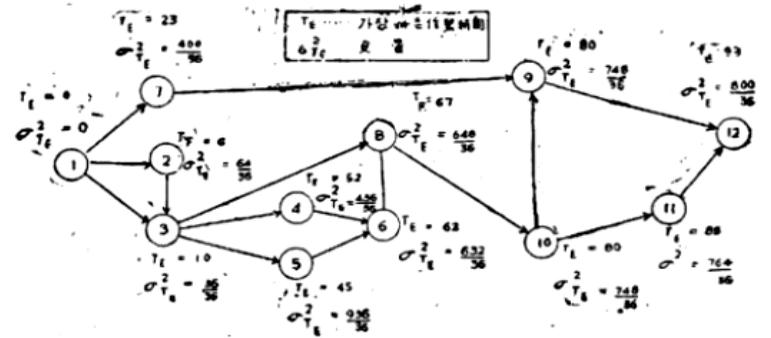
- ① 낙관적 시간 ..... 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되어 나갔을 때 소요될 가장 양호하고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
- ② 정상시간 ..... 단 한번 시간추정이 요구된다면 주어질 소요시간을 말한다.
- ③ 비극적 시간 ..... 불운이 일어났거나 만사가 잘못 되었다면 그 때 요구되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파업, 전재지변(즉 홍수, 화재) 및 선천적인 위험이 되는 요인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러한 세 가지의 시간추정은 같은 수준의 자원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또 이 시간추정은 PERT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직접 세 가지의 시간추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세 가지의 시간추정을 하면 그것을 활동선(화살표) 위에 기입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시간 추정은 이 제도에서 정하여진 수학적 계산방식(가중평균)에 의하여 하나의 예상시간으로 전환되며 이 예상시간은 화살표 밑의 사각형 속에 기입한다(제1표 참조). 계산된 예상시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알기 위하여 역시 수학적 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변량(Variance)이라는 통계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변량(變量)을 사용함으로써 지정된 계획일자에 합치할 확률의 산출을 가능하게 한다. 변량 역시 공정표에 기입하는 것이 목록표를 작성하는데 편리하다.

다음은 단계목록표를 작성하는데, 끝 단계(최종목록단계)에서 시작해서 모든 단계가 기록되고 시초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각 단계는 순서적으로 목록표에 배열된다.

단계목록표가 작성되면 사업완료시기를 정하기 위하여 첫 단계부터 여러 공정을 통하여 예상시간과 그의 변량의 누계를 산출하여 생산계획표를 작성한다. 몇 단계로 유도되는 몇 개의 활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누계예상시간과 무게변량의 선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계로 유도된 모든 활동이 완전히 끝남으로써 다음 단계가 발생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으므로 단계시간과 변량의 산출은 가장 큰(긴) 예상시간과 이에 해당하는 변량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단계 2로 유도되는 활동은 단 하나밖에 없으므로 단계 1→단계 2의 활동시간 6을 택하여 예상시간누계는 역시 6이다. 단계 3에 대한 누계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즉 1에서 2를 통해서 온 활동과 1에서 바로 3으로 온 두 가지 공정인 것이다. 그를 통하여 온 공정의 누계시간은 6+1이며 1에서 바로 온 활동시간은 10이다. 이 두 가지 중 가장 긴 시간인 10을 단계 3에 대한 누계예상시간으로 택하고 변량 역시 이 공정의 것을 택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끝 단계(12)까지 누계시간과 변량을 산출한다. 이 누계시간을 가장 빠른 작업시간이라고 부른다.

가장 빠른 작업시간과 반대로 목표단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예상시간과 변량의 누계를 산출하여 생산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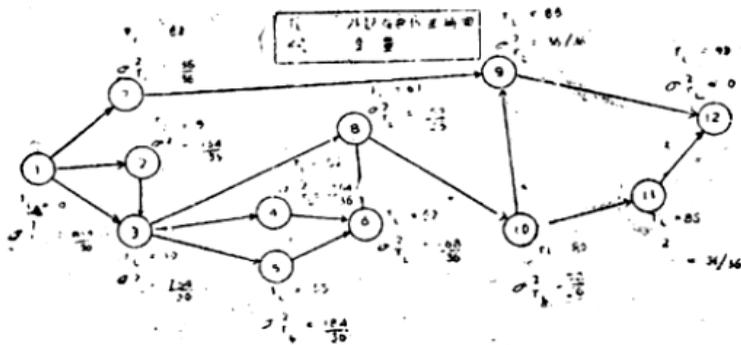


<제 2 표>

段 階	(1) (2) (3)	
	가장 빠른 作業時間	
	$(\tau_E)$ 豫想時間	$(\sigma_{\tau_E}^2)$ 變 量
12	93	800/36
11	85	764/36
9	80	748/36
10	80	748/36
8	67	648/36
7	23	400/36
6	62	632/36
5	45	936/36
4	52	436/36
3	10	36/36
2	6	64/36
1	0	0

<제 3 표>

다음일이다. 이 누계시간을 가장 늦은 작업시간이라 부른다. 이 시간은 제일 끝 단계부터 시작해서 순서적으로 계산하는데 한 단계로부터 여러 단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여러 공정 중에서 가장 작은(짧은) 시간과 이에 해당하는 변량을 선택하여 누계한다. 예를 들어 단계 11은 단계 12 이외에 연결이 없으므로 단계 12의 93에서 11→12의 활동시간 8을 뺀 85를 택한다.



<제 4 표>

段 階	가장 늦은 作業時間	
	$(\tau_L)$ 豫想時間	$(\sigma_{\tau_L}^2)$ 度 量
12	98	0
11	85	36/36
9	88	36/36
10	80	52/36
8	67	152/36
7	88	36/36
6	62	168/36
5	55	184/36
4	52	364/36
3	10	764/36
2	9	764/36
1	0	80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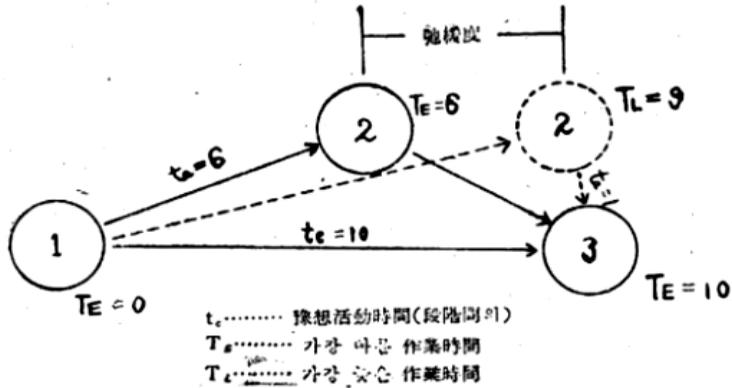
<제 5 표>

그러나 단계 10은 9와 연결되는 동시에 11과도 연결되어 있어 두 공정을 이루고 있다. 즉 단계 11을 통하는 공정은 85(단계 11의 가장 늦은 작업시간에서 단계 10과 11사이의 활동시간을 뺀 것)로서 80을 얻고, 단계 9를 통하는 공정은 88(단계 9의 가장 늦은 시간에서 단계 10과 9 사이의 활동시간을 뺀 것)로서 88을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공정 중에서 가장 작은(짧은)시간인 80을 택하여 단계 10의 가장 늦은 작업시간으로 정한다. 이 이론은 목표설정을 달성하는데 만족할 만한 장래의 어떤 시일을 정해 놓고 선행단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중간단계의 가장 늦은 작업시간은 다음 단계(후행단계)들이 예상대로 수행된다면 그 목표가 원하는 일자에 확실히 완수될 것이라는 시점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3) 이완도(Slack)와 확률(確率)**

가장 빠른 작업시간과 이의 변량, 가장 늦은 작업시간과 이의 변량을 산출하면 다음은 각 단계의 이완도(弛緩度)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완도는 최종단계의 완료 시일을 변경하지 않고 각 단계가 허용할 수 있는 시간적 차질을 뜻하는 것이다. 이완도는 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이 제3단계와 관계가 있을 때 일어나는 복합연결공정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다음의 단순화된 공정표로 도시(圖示)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작업시간과 가장 늦은 작업 시간은 이 제도에서 산출할 수 있고 여기에 예시된 도표의 점선원은 가장 늦은 작업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는 단계 2가 이완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시한다. 따라서 이완도를 가지는 각 단계는 이완도의 한도 내의 어떠한 시점에서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최종목표의 완료시기에 하등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완도는 그 후생단계에 대하여 그만큼 여유있는 기간을 갖는 것이다. 이완도는 가장 늦은 작업시간에서 가장 빠른



<제 6 표>

작업시간을 뺀 수치로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경우 가장 늦은 작업시간은 가장 빠른 작업시간과 같든가 더 큰 수치로 나타난다.

이완도의 계산이 끝나면 어떤 단계에는 이완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완도가 영(零)인 단계(가장 빠른 작업시간과 가장 늦은 작업시간이 같은 단계)만을 모두 골라 연결하면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공정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을 주검토대상공정(Critical path)이라고 부르며 이 공정상의 어떠한 단계라도 완료예상시간을 초과하여 차질이 생긴다면 최종목표인 마지막 단계도 그만큼 같은 수치의 차질을 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검토대상공정상의 활동(이완도가 없는 활동)은 목표달성에 차질을 주는데서 중요시되는 반면 기타활동(이완도가 있는 활동)은 그러한 차질을 없애고 줄이는데 자원이 된다는 데서 중요시되는 것이다. 주검토대상공정 이외에 부검토대상공정을 구하여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역시 이 제도에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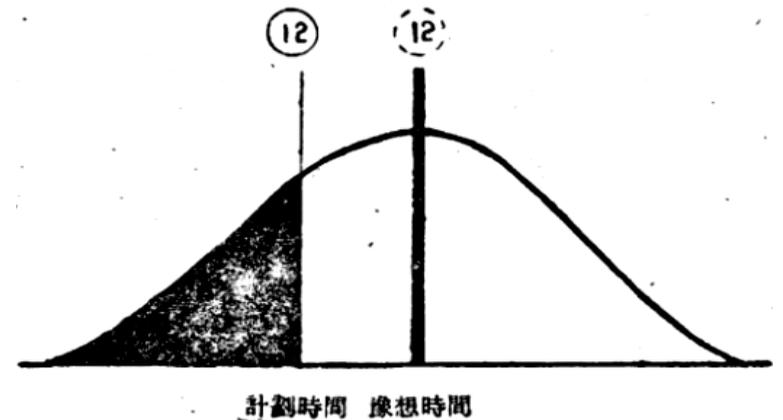
다음에는 각단계의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확률계산방법의 설명은 복잡하여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에 일예를 들면 한 단계의 이완도가 영일 때에는 50%의 확률이 산출될 것이다. 이러한 단계에 대한 차질들이 기일 내에 목표달성을 위태롭게 할 때 엄밀히 감독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 (4) 실제계획의 수립

이미 언급한 이완도의 분석은 목표일자와 다른 어떤 계획일자를 계산에 넣지 않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여러 중간단계의 계획일자가 제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획일자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여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각 단계의 성취를 위한 계획일자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주관적 기초 위에 놓이기 쉽다. 그러한 평가를 하기 위한 기준발전방법으로는 실제 계획일자에 합치되는 확률을 추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장래의 불확실성은 한 단계가 수행될 정확한 시간의 예상을 방해한다. 그러나 예상시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역시 그 예상에서 주어진 편차의 확률을 산출할 수 있는 절차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 도표는 여기 제시된 공정표의 마지막 단계 12의 경우이다. 단계 12가 새로운 계획시간에 계획되었다고 하자 그러나 예상시간의 누계와 변량은 단계 12에 대하여 50%의 확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계획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새로운 계획시간에 발생하리라는 확률은 도표의 곡선 밑의 검은 부분으로 표시된다.

새로이 계획된 일자에 합당하는 확률계산방식도 여기서는 생략한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면 거꾸로 요구되는 확률을 부여한 다음 새로운 계획일자를 계산할 수 있다. 계획일자의 확률이 낮은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실행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높은 수치는 이와 반대로 실행



<제 7 표>

가능성이 많다. 관리자는 산출된 확률에 비추어 보아 주어진 계획을 재평가할 수 있다. 계획일자가 실행불가능하다는 것이 판정되면 그때는 자운과 작업을 변경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재계획을 하여야만 하난. 계획이 재계획 되려면 그 계획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 방버이 발견되어야만 한다.

### (5) 확률이용문제

확률에 관한 정보를 관리자가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계획가가 확률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계획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험(冒険)도 또는 욕구(慾求)되는 신뢰도를 설정하고자 할 때 그것에 합당한 일자를 제공하는 계획을 계산해 낼 수 있게 한다. 합당한 각일자는 주어진 신뢰도로서 추정된 시간까지는 완성이 되리라고 예측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과거의 인습적 주관적 계획방법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결판력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계획방법인 것이다. 또 당초의 계획이자는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으로 (즉 전략적 요구 등) 따로 수립되어 있는 시간적 요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그때 주 검토대상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당초에 계획된 이외의 자원을 충용(充用)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 확률치는 주어진 신뢰도로서 계획에 합치하는데 필요한 단축의 양적 설명을 제공하여 주는 동시에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양을 산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정보를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주기도 한다. 다음 설명은 계획을 세우는데 확률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충분한 이론을 관리자에게 제공해 준다. 이미 이 제도에서 세 가지 시간 추정을 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러한 추정 속에서 하나의 예상시간이 계산된다. 따라서 한 활동이 완성될 실제적 시간은 낙관 혹은 비관적 추정 사이의 어떤 시점에서 생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적 완성이 예상시간의 낙관측(樂觀側)이나 비관측에 기울어질 기회가 거의 반반이라는 식으로 예상시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한 활동의 계획일자가 예상수치의 낙관측(즉 빠르다면)에 있다면 그 활동의 실제완성이 그 계획과 합치될 가능성은 전술한 예상시간(반반)보다 적을 것이며 계획일자가 비관측(즉 늦어진다면)에 있다면 이와 반대로 가능성은 많아질 것이다.

### (6) 활동의 등급분류

계획완료일에 대한 각활동의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활동의 등급을 정하는 것이 이 제도에서 필요하다. 관리자로 하여금 계획완성에 지연을 초래하기 쉬운 각 활동에 주의를 집중시키게 하여도 계획 완료에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활동도 알게 된다. 이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좀 더 중요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자원(인력, 비용, 자본)의 가능한 출처를 제시하는 활동이 되므로 역시 관리자에게 중요한 것이다. 등급을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 제도에서는 확률을 근거로 활동을 분류배열하며 이 방법은 과히 어렵지 않다. 즉 확률은 각 활동계획 완료시간과의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각활동을 배열할 수 있는 기분을 제공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4 혹은 5부류를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우선등급 및 부류(部類)

1. .... 0.50 또는 그 이상
2. .... 0.40 ~ 0.49
3. .... 0.30 ~ 0.39
4. .... 0.20 ~ 0.29
5. .... 0.0 ~ 0.19

### 4. 결론

이 계획수립 및 평가제도의 주요한 장점을 간결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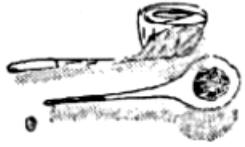
- ① 목적별 관리와 예외적 관리를 제공한다.
- ② 자동적으로 자세한 계획수립을 요구한다.
- ③ 중요한 계획단계의 순서와 상호관계를 확립한다.
- ④ 빈번한 보고와 고속도 Data processing에 관한 현황정보를 제공한다.
- ⑤ 빠른 정확한 계획분석을 가능케 한다.
- ⑥ 잠재적 차질을 발견케 하고 차질의 의의와 다른 단계에 대한 차질의 영향을 제시한다.
- ⑦ 잠재적 장애분석을 가능케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⑧ 현존계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⑨ 군대의 계획 및 평가에 도움을 준다.
- ⑩ 다른 관리보조수단과 저촉되지 않는다.

PERT 현 예상(豫想)을 계획일자와 비교해서 계획완성일에 합치될 현재의 확률을 제공하고 계통적으로 전체의 진해오가 그 개황에 대한 종합적 요약을 관리자에게 제공한다. PERT 관리제도는 상당한 부정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비반복계획을 평가하고 통제하기 위한 최근 10년간에 발전된 관리방법 중에서 가장 뜻깊은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 장군과 노인

미국의 로버트리 장군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였다. 기차는 대만원으로 그 가운데는 많은 병사들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곳에 한 늙은 부인이 올라갔는데 아무도 자리를 야보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것을 본 장군은 조용히 일어나서 은근하게 그 노인을 자기 자리에 모셔다 앉혔다. 이렇게 되니 병사들도 그냥 그것을 보고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자동인형처럼 벌떡 일어나서 일제히 “각하 아무쪼록 이곳에 앉아 주십시오”하였다. 그러자 장군은 “허 다리가 약한 늙은 부인에게조차 양보할 자리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한테 양보할 자리가 있을리 없지 않는가”이 말을 듣자 얼굴이 붉어진 병사들은 한사람 두 사람씩 다른 쪽으로 사라져 버렸다.

## 퍼스널리티의 형성이론



우리의 행동은 점점 사회적 규범 (Social Norm)으로 접근하여 가고 있다.

손용기(孫龍基)  
<공군소령>



### 1. 서론

인간이 현대 문화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동물적 인간으로부터 인간적 인간으로 변화하는 고정을 퍼서널리티 형성의 과정 혹은 사회화(Socialization)의 과정이라고 한다. 하이틀리는 사회화를 개인이 어느 일정한 사회의 구성원이되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다. ① 모든 사람은 이 과정에 있어서 독특한 욕구를 만족시키며 혹은 욕구불만이나 갈등(Conflict)을 처리하려고 한다. 만족, 불만 그리고 갈등은 각 개인에 따라 특유한 형태로 경험된다. 이와 같이 욕구와 그의 처리 그리고 결과를 받아 들이는 방법에 따른 개인적 특징의 총체를 퍼서널리티라고 한다. 원래 퍼서널리티의 용어는 Personality에서 오는 것이며 독일어로 Persoenlichkeit, 프랑스어로 Personnalite에서 연유한 것이며 우리들은 이 퍼서널리티를 인성, 성격, 능력 혹은 기질로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인격이라고 할 때도 인간의 도덕적인 면을 중요시한 것이며, 성격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욕구만족을 위한 처리방법에 관한 개인적 특징을 말한다. 능력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개인의 욕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과 지능의 동원(動員)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기능과 지능을 배합하고 일정한 상황하에 어떻게 이를 발휘하느냐 하는 능력전체의 형태나 경향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기질이라고 할 때에는 일상생활 가운데 개인의 욕구만족, 불만족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쾌락과 불쾌, 긴장과 완화(緩和), 흥분과 안정 등의

감정을 가지며 다시 만족, 불만족의 상태가 갑자기 격화됨으로써 즐거움, 슬픔, 노여움, 무서움의 감정을 갖는다. 기질이란 모든 사람이 각각 가지는 감정이나 정동(情動)의 세기와 그의 나타나는 특징이다. 기질은 신경계통, 특히 장류신경계와 내분비기능의 생리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전적, 선천적 특질에 토대를 갖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적 인간행동의 총체라는 견지에서 퍼서널리티를 볼 때 이는 성격, 능력 그리고 기질이라는 부분적인 개념만을 드러내고 있다.

퍼서널리티 구조론을 상세히 전개하고 있는 카텔이나 아이젠크의 견해도 퍼서널리티의 구조를 이 성격, 능력 그리고 기질로부터 전개하고 있는 상설이다.② 그러므로 총체적인 인간행동은 자연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개성간의 상호교류작용으로써 결정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인간행동의 상호교류작용으로써 작용하는 퍼서널리티 과정을 통합이론, 조건반응이론 그리고 행동방식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서 구하여 문화와의 관계를 맺으려 한다.

- ① E.L Hartley & R.E. Hartley "Fundamentals of Social Psychology" 1952 P202
- ② Raymond. B. Cattell "Description and measurement of personality"(1949) "Personality. A Systematic, Theoretical and Factual Study" (1950)
- Eysenck "The Scientific Study of personality"(1953)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1954)

### 2. 통합이론과 퍼서널리티 형성

#### 1. 통합(Integration)의 정의

개인의 부분적인 행동의 반응은 전체적 행동의 반응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부분적 행동의 반응은 그 개인의 중추적 자아의 방향으로 귀결되어 그 개인의 생활계획, 생활목적에 맞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는 이 통합이론을 퍼서널리티 통합이론으로 보고 있다. 도오프에 의하면 통합된 퍼서널리티를 행동의 통일체(Unity of action)라고 하고 있다.①

생리학적 통합은 어떠한 하등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동물 고유의 것이며 자연적 질서에 따르고 있다. 심리학적 통합은 인간세계에서 얻는 것인데 인간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과의 상이점이 특징이다. 통합이란 큰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행동(Subaction)이 그 큰 과업에 종속시켜(Suordiante)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책을 읽으려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관내에서의 모동 행동 - 일고 자 하는 책을 찾는 것, 책을 찾아 자리에 돌아오는 것, 책을 읽는 것 - 은 책을 읽으려는 주행동에 통합되는 것이다.

#### 2. 통합과정

사람의 행동이 어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 반은계통의 집합에 지나지 않으나 정상적인 성인이 되면 궁극적으로 복잡한 사항에

적응하도록 통합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통합은 상대적으로 누구나 아직 완전한 통합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거나 사회환경의 요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완전한 통합에 접근할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어린애의 처음 통합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불충분하게 되는 것이 문제화되는 것이며, 또한 고도의 통합이 어떻게 해서 달성되는가가 문제화되는 것이다. 어린애로서는 우리들의 법률, 규제, 이상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요구되며 점차 사회적 시인에 조화하도록 자기의 행동을 질서있게 하려고 한다. 어린애는 이와 같은 사회적 시인에 조화하도록 자기의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면 통합의 뜻도 변화하게 된다. 즉 이전에는 통합의 행동이나 관습화된 사태에 적응하도록 한데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시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어린애는 지금까지는 엄격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청에 그 성질을 적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점차 학습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① L. P.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Personality" 1938, PP434-430

### 3. 조건반응이론과 퍼서널리티 형성

#### 1. 조건반응(Conditioned Response)의 정의

어떠한 자극(Stimuli)으로부터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것은 러시아의 파블로프(I. Pavlov)가 개를 실험하여 조건반사(Conditioned Reflex)의 이론을 반응에 확대한 것이다. 1907년 크라스노고르스키(N. D. Krasnogorski)는 파블로프의 반응조건실험을 이용하여 어린애에게 조건반응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여 인간 연구에 적용하였다. 즉 어린애의 눈을 가리고 종을 울림과(조건자극) 동시에 과자(먹는 행동에 대한 본래의 자극)를 주면 몇 번에 걸친 시행으로 조건자극 '종'에 의해서 과자를 먹는 것과 연결되어 종만 울리면 입을 벌리고 음식을 삼키는 운동의 반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지능이 우수한 어린애는 지능이 낮은 어린애보다 쉽게 조건자극에 반응이 있는 것을 얻었다. 행동주의자인 와트슨(J. B. Watson)은 어린애의 반응, 특히 정서반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① 우리들은 어린애들이 암흑을 무서워한다든가 많은 여자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등 여러 가지 정서에 대한 일반적 사태에 부수(Attack)되는 것을 알고 있다. 왜 이와 같은 부수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와 같은 정서가 생기는가? 우리들의 정서생활이 풍부하여 집에 따라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위험한 감각도 증대하여 갈 것인가? 와트슨에 의하면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는 정서는 애정, 공포, 노(怒)의 세 가지이며 그 밖의 정서는 벌써 파블로프가 실험한 것으로부터 명확한 조건이론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2. 조건형성과정

행동주의자들이 말하는 서서널리티는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형성된다는 것이다. 적절한 환경을 부여하면 인간공학자(Human Engineer)는 마음대로 퍼서널리티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와트슨은 퍼서널리티를 조건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진 습관조직이며 그 구조에 통제(Control)를 가함으로써 얻어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애의 생활 가운데 자극은 우연적이고 유의적인 존재에 따라 조건이론이 성립한다고 하는 와트슨의 주장에 대해서 게셀(A. G. Gesell)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점점강한 정서반응을 표시하고 있다. (1) 전혀 불안이 없다.(No disquietude), (2) 약간의 불안이 있다.(Mild disquietude), (3) 강한 불안이 있다.(Robust disquietude)

어린애의 단계적 경과를 외적 조건의 순서에 기초를 둔다고 하기보다 오히려 성숙에 의한 순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발렌타인(C. W. Valentine)은 어렸을 때 공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후에 그 공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점점 성숙함에 따라서 공포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와트슨은 단순한 조건이론과정으로써 모든 학습과 퍼서널리티 형성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는데 반해서 도오프는 인간의 행동은 복잡한 것이어서 단순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퍼서널리티 형성에 있어서 와트슨이 주장하는 바 행동주의적인 조건이론과정으로의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① J. B. Watson "Behaviorism", 1930 PP155-69.

② A. G. Gesell "The Guidance of mental of growthin Infant & Child", 1930 P290.

③ L. P. Thorpe op. cit., PP270-272

### 4. 행동방식이론과 퍼서널리티 형성

#### 1. 행동방식의 의미

인간의 욕구는 개개인의 특정한 요령으로 충족하여 감에 따라서 점점 특정 형태를 이루는 것이다. 배가 고플 때 이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구구각색이다. 방, 물…… 등을 먹게 된다. 이것은 욕구충족의 방법이 특정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반적 동기가 경험을 반복하는 동안 어느 특정한 행동에 따라 만족될 때 가지는 과정이다. 여기서 특정행동이란 말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장애(Obstacle)를 넘어 새로운 행동의 에너지를 받아 그 방향을 특정한 행동양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 2. 행동방식의 과정

개개인의 특정행동방식을 결정하여 주는 힘을 머어피(G. Murphy)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①

첫째 생활체의 최초의 선택(The initial Selectivity, the preference of Organism)에 의해서 정해진다. 둘째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기회의 빈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예를 들면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먼저 무엇이든지 먹고 싶어 하고 다음에는 음식에 대해서 선택적 가치관을 갖게 된다. 머어피는 이 특정한 행동방식이론과 조건반응이론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②

첫째 셰링톤(C.S. Sherrington)은 준비반응과(Preparatory response)과 소비반응(Consummatory response)을 구별하고 있다.

개에게 소리와 음식을 동시에 주면 개는 소리를 듣고 타액(唾液)을 분비하게 된다(Preparatory response). 그러나 소리를 먹거나 소화할 수 없다(Consummatory response). 즉 소리는 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상태를 만족시킬 수 없다. 조건 반응의 실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소비반응에 미치지 못한 일시적 우연적 결합이다. 특정행동방식은 먹는다고 하는 준비인 신호를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비행동 그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다. 둘째, 조건반응에 있어서 2개의 자극의 결합이 연속되지 않으면 대응자극(예 소리)과 준비반응(타액 분비)과의 결합이 분열되어 사라지는 때가 있다.

최후로 머어피 특정행동방식과 퍼서널리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퍼서널리티를 명확하게 피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째 특정화된 행동형이 사회에 의해서 어린이가 육성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 둘째 어느 기회에 일어나는가 하는 지정행동방식의 내용과 형태로 개인차를 연구하는 것.

① G. Murphit "Personality", 1947 PP166-190

② C. S. Sherington :the Integrative of the Nervous System", 1906, P329

## 5. 사회학습이론과 퍼서널리티 형성

### 1. 사회학습의 정의

인간의 퍼서널리티 형성을 사아젠트(S. S. Sargent)는 사회학습에서 구하고 있다.① 사회학습이란 널리 사회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학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각의 용어에 따라서 여러 면을 부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회화(Socialization)의 용어로서 사용되는 경우, 이는 개인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여 도덕 그 밖의 집단규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을 의미하며 문화적 동화(Acculturation)의 용어 사용은 어느 문화 내에서 육성된 개인이 그 후 다른 집단으로 옮겨 갔을 경우, 그 개인이 제2의 사회작동형에 적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동화(Assimilation)의 용어는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과 집단의 기억, 정조(情操), 태도에 들어가 그 경험과 역사를 공유함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 혹은 집단과 일체로 되는 문화생활을 갖게 되어 상호침투(相互浸透)와 융합(Fusion)의 과정을 형성하는 뜻을 말한다.

### 2. 사회학습의 과정

사아젠트는 사회학습의 과정 분석을 밀러와 돌라드(N. E. Miller & J. Dollard)가 주장하는 사회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② 밀러와 돌라드는 사회학습을 다음 4개의 기초요소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욕구 - 욕구란 행동에 옮기는 강한 자극이다. 이 욕구에는 제1차적인 생리적 욕구와 제2차적인 관습적 욕구가 있다. 제1차적인 욕구는 고통, 기(飢), 갈등을 의미하며 제2차적 욕구는 야심, 시인, 금전에 대한 욕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제1차적

욕구이건 제2차적 욕구이건 간에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행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도 없다.

둘째 가치 - 욕구는 사람의 반응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데 대해서 언데, 어디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결정하는 자극이다. 이를 사회적 자극이라고도 하며 이는 양적, 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적 자극이 강할 때는 행동의 암시로서의 가치(Cue value)가 아니고 욕구로서의 가치(Drive value)를 가진다. 그리하여 욕구로서의 가치는 그의 강도에 관계되고 행동의 암시로서의 가치는 그의 종류에 관계된다. 학습은 욕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행동의 암시가 없거나 있거나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을 때도 일어나지 않는다.

셋째 반응 -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느 반응이 이루어져야 하난. 이 반응의 방법에는 눈의 반응, 언어에 의한 지도로서의 반응, 타인의 반응에 대한 모방이다.

넷째 포상(褒賞) - 반응이 강조(Reinforce)되지 않으면 그의 반응은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응은 포상을 부여함으로써 강조된다. 포상이란 개인에 있어서 즐거운 결과를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을 만족시켜 욕구에 따른 긴장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포상을 갖지 않는 반응은 습관이 되는 경향이 있다. 포상이 없이 별로 그치는 것과 같이 되면 그 행동은 소멸할 경향이 있다. 벌은 사람에게 반응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학습하는 경우가 있다.

사아젠트는 밀러와 돌라드의 분석을 변경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③

동기(Motive) - 사아젠트는 행동에 대한 동기로서 우드워드와 마아퀴스(R. S. Woodworth & D. G. Marquis)의 반응을 일으키는 네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④

(1) 개인의 영속적 특징, (2) 그 사람의 내면적 상태, (3) 목표 혹은 진행중의 행동, (4) 그때 그 사람에 미치는 자극이다. 예를 들면, 이쪽에서 젊은 남자가 걸어가고 저쪽에서 젊은 여자가 걸오 온다면 그 여자는 걸어오는 남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젊은 여자의 기질과 성격, 학습과 과거의 경험, 그 여자의 생리학적, 정서적 상태 그때 그 여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젊은 남자의 매력(Appeal).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인 중 어느 것이 제일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힘들다. 사아젠트에 의하면 네 개의 요인은 밀러가 보는 욕구와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아젠트의 동기와 다음에 언급할 사태의 지각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요인은 어느 관점에서 보면 행동은 생활체(개인의 성질)와 자극(사태의 성질)에 의하여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일) 사태의 지각(자극사태)

사회자극은 생활사태에 있어서 복잡하지만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개개의 생활사태로부터 인간은 전체의 통합적인 사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이 다름에 따라 동일한 자극내지 자극사태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극이나

자극사태는 객관적 존재로서 해석하고 지각한다고 하는 견해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사이젯트에 의하면 우리의 반응이란 지각된 자극사태라 하였다. 그러나 이 주관적 견해는 자극사태의 객관적 성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객관적 동작(Objective actions)은 항상 과거와 현재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경향의 문맥(A context of personal experiences and tendencies)에 의해서 지각된다. 즉 사회적 학습에 필요한 반응의 행동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전혀 행동경향과 사태의 지각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 어느 일정한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이 강조되지 않으면 그 반응은 학습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어느 사태에 대해서 일정한 기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사태를 여하히 지각하여 정의를 지었는가에 따라 행동한다. 그 반응은 육체적인 것, 언어적인 것, 정서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 대중이나 사회적 기능을 위한 사회반응은 운동, 언어, 정서, 관념의 요소로부터 이룩된다.

밀러오 돌라드에 의해서 지적된 바에 의하면 학습을 이룬 경우 주요한 곤란은 최초에 정확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반응은 여러 가지 발동의 가능성을 다르게 하고 있다. 여기서 그 가능성의 대소에 따라 반응을 정리하면 하나의 체계가 얻어진다. 이것을 반응의 발동체계(Initial hierarchy of response)라 부른다. 이 체계가 높은 반응은 유세(有勢)로(Dominant) 체계가 낮은 반응은 열세(Weaker)로서 일어나기 쉽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반응에는 상을 주고 다른 반응에는 상을 주지 않는다. 혹은 벌을 줌으로써 반응의 체계를 갱신하는 것이다. 학습 다음에는 일정한 사태에는 일정한 반응이 유세하여 그 사태에 있어서 그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최초의 정확한 반응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 첫째 시행착오에 의한 방법,
- 둘째 모방에 의한 방법,
- 셋째 조건 형성과 동찰(洞察)에 의한 방법이다.
- (삼) 반응의 강화(습관의 형성)

최초의 정확한 사회반응이 이루어져도 이것이 상으로써 개인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실제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을 부여함으로써 그 반응은 강화된다. 몇 번이고 강화할 때 잘 통합된 습관을 얻게 된다. 상 대신에 벌을 주면 반응은 소실되든지 혹은 잠재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어느 행동이 강화되어 혹은 어느 행동이 소실 혹은 잠재화하여 개인에 특정한 형태로서 행동의 관습조직이 형성된다.

- ① S. S. Sargent "Social psychology" 1950 P128
- ② N. E. Miller & J. Dollard, "Social learning and Imitation" 1941.
- ③ S. S. Sargent Op. Cit, PP131-189.
- ④ R. S. Woodworth D. G. Marquis "Psychology" 5th ed. 1947, P210

## 6. 문화와 퍼서널리티

오늘날 퍼서널리티 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인간의 총체적 행동을 문화와 연관시키고 있다.

의식주에 관한 기술, 예술, 종교, 도덕, 관습, 경제적 생활양식, 사회정치적 조직, 법률제도를 주로 미개지역의 원시문화에서부터 인류의 근대화적 행동의 본질로 종합적인 행동을 연구 분석하게 되었다.① 미국에서는 문화와 퍼서널리티의 연구를 사회발전과 더불어 병리현상이 증대하여 비정상적인 행동을 가져오며, 특히 사회적 성격분석에 있어서 프롬(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The Fear of Freedom - Escape from Freedom)」 저서에서 사회적 성격변화는 사회적 제도의 변화보다 완만하며 사회적 성격은 사회적 제도에 적응하려는 다이어마이트가 된다는 요지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크게 대두되고 있는 흑인과 미국본토인종에 대한 인종차별 등에 관한 문제라든가 미국의 영구적인 자본주의적 사회구제에서 문화와의 관련을 맺어 연구에 새로운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근래에 와서 늘 일정한 문화에 속하는 성원의 대부분은 일정한 문화의 유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사회의 계층과 집단의 공통적인 퍼서널리티를 형성하여 가정적 퍼서널리티, 직업적 퍼서널리티를 형성하게 되고 더욱 더 나아가서는 큰 집단속에서 국민성, 민족성에 따라 특수한 형태로서 퍼서널리티는 형성되는 것이다.

- ① R. Linton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1945

## 7. 결론

인간의 퍼서널리티 형성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동물적 인간으로부터 인간적 인간의 완성으로의 총체적인 행동의 구현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퍼서널리티 형성고정을 일 국면에서 고찰하였다. 즉 통합이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동을 초기부터 사회적 시인을 중심으로 퍼서널리티가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조건반응이론에 있어서는 사회가 요청하는 방향에 습관조직이 퍼서널리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행동방식이론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행동양식이 곧 퍼서널리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학습과정이론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회에 시인되어 있는 규범을 습득하여 가는 과정 속에 퍼서널리티는 형성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이 공유하는 퍼서널리티로서 오늘날 인류문화화적인 연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퍼서널리티를 인간행동의 총체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조건이나 행동 그리고 학습과정은 독자적인 입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나 행동 그리고 학습과정은 인간의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개성간에 상호작용으로써 인간의 퍼서널리티를 형성하는 인간행동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 합동참모회의소개

홍종운(洪鐘雲)  
<공군중령>

### 목차

1. 서언
2. 합동참모부의 조직 및 직능
  - 가. 조직 및 직능
  - 나. 합동사령부와의 관계
  - 다. 외국의 합동참모기구
  - 라. 미국의 합동참모기구와의 차이점
3. 과거기구와의 차이점 및 정부타기관과의 관계
  - 가. 전 합동참모부와의 차이점
  - 나. 전 합동참모국과의 차이점
  - 다. 국방부 및 국가안전보장기구와의 관계
  - 라. 기타기관과의 관계
4. 결론

### 1. 서언

국방부장관의 군사참모로서 민가인인 장관의 군사기능을 보좌하고 민주정 치제도하에 군을 정치로부터 중립시키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새로 개정된 국 군조직법의 군령 군정 1원화정신하에 지난 63년 6월에 발족된 합동참모기구는 또한 과학무기의 경이적 발달로 인하여 전쟁양상이 고도의 합동작전을 요구하는 장차전에 적응할 수 있는 군작전기구 발전의 표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진영의 대공방위전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군은 오래 전에 대통령 의 군사자문기구로서 합동참모회의를 설치한 일이 있었으나 한동안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의 장악 하에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단지 정책적인 기구 간소화를 위하여 상기 연참이 해체되고, 군령기관이 아닌 연합국(聯參局)으로서 국방부 내부 조직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요엔군사령부에 있다고 해서 전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는 점, 다시 말하면 현재는 그렇지만은 국제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작전지휘권을 우리 한국측이 환원 받을 경우를 고려해서 거기에 대한 모체를 사전에 형성해야 된다는 점을 비롯하여 이미 언급한 바 용병작전과 전략지침 및 전략계획면에서 국방장관을 보좌할 목적으로 1963년 5월 20일 공포된 바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법을 제9조 및 제12조에 입각해서 합동참모회의가 창설(설치)되었고 그의 지원기구로서 동년 6월 1일부로 국방부 일반명령 제 13호에 의거

## 연혁

구분	시 일	명 칭	명령 번호	소 속	기 타
회의	52.8.23	임시합동참모회의 합동참모회의 연합참모회의 합동참모회의	국일명 제193호 대통령명 제 873호 법률 제367호 법률 제1343호	국 방 부 대통령직속 대통령직속 국 방 부	의장겸임제 의장겸임제
	54.2.17				
	55.8.9				
	63.5.20				
본부	53.3.8	합동참모본부 연합참모본부 연합참모국 합동참모본부	국명일 제203호 대통령명 제 895호 각령 제179호 국일명 제13호	국 방 부 대통령직속 국 방 부 국 방 부	
	54.5.4				
	61.10.15				
	63.6.1				

합동참모부가 발족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양상이 고도 발달된 현금(絃琴) 대병력을 보유하는 모든 국가가 군사체제상 편제의 원칙으로 이와 같은 합동참모회의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 2. 합동참모본부의 조직과 직능

#### 가. 조직과 직능

우선 국방부 전체기구를 살펴 봄으로써 합동기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미너져 살펴보면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관의 군령자문기관으로 합동참모회의와 의장이 있고, 합동참모회의의 군무관장을 위하여 합동참모본부가 있으며 본부장은 또한 차관보격으로서 의장 이외에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관의 다른 자문기관인 군무회의는 군사정책면에서 장관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합동참모기구의 조직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실과 4개국 13개과가 있다.

인사기획국에는 인력소요과와 인력동원과가 있으며 그의 기능으로서는

- (1) 합동 인사기획, 인사조정 및 인사제도의 연구발전
- (2) 각군의 인력소요 및 각군의 병력동원능력을 검토하고
- (3) 합동전략목표기획 및 능력기획에 입각한 인력소요와 활동 능력을 평가한다.

전략정보국에는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과, 북한과, 연합과 및 보안과의 4개과가 있으며 그 직능은

- (1) 군정보활동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지침부여

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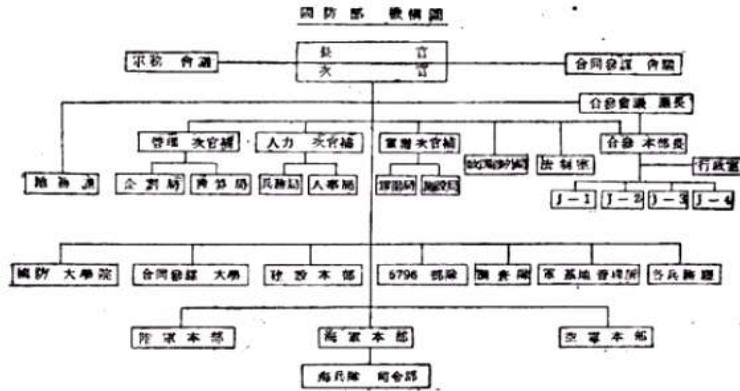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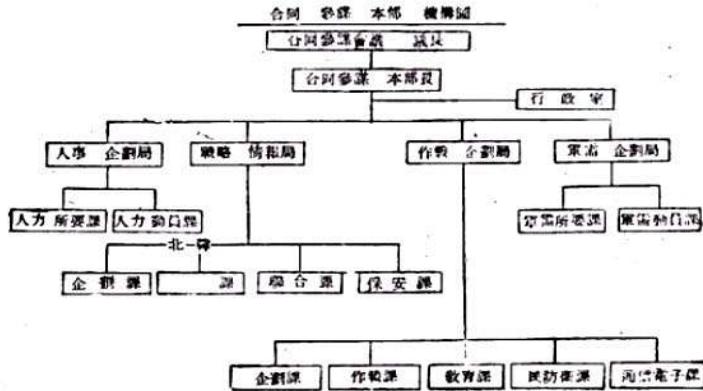


도표 2



- (2) 정보비의 편성지침 부여
- (3) 재외공관주재 무관의 파견과 운영
- (4) 군정보 기구의 편성, 교육 및 연구발전
- (5) 전략정보수집 및 지침 부여
- (6) 전략정보의 평가 해석 및 종합조정과 합동정보 판단서의 작성
- (7) 군보안정책 및 연합정보계획의 수집과 지침 부여
- (8) 합동참모회의 및 기다부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이다.

작전기획국에는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획과, 작전과, 교육과, 통신전차과 및 민방위과 등 5개과가 있으며 그의 직능으로서는

- (1) 합동전략목표계획 및 능력계획의 수립
- (2) 합동동원계획의 작성
- (3) 각군 계획의 검토, 평가 및 합동상황실 운영
- (4) 합동군사훈련의 방침 수립
- (5) 심리전 및 비정규전의 정책, 계획수립 및 운영감독
- (6) 국가 비상사태 대책위원회의 업무관장
- (7) 합동부대의 편성개념의 연구발전
- (8) 통신전자 운영의 연구발전 건설 등이다.

다음 군수기획국을 보면 군수소요과와 군수동원과가 있으며, 그 직능으로서는

- (1) 합동전략목표계획 및 능력계획을 지원하는 군수계획의 수립
- (2) 합동계획을 지원하는 군수소요의 책정 건설
- (3) 군수동원계획의 수립 및 군수산업 동원능력의 평가
- (4) 군수원조계획의 조정 건설 등이다.

이상 4개국외 합참의 군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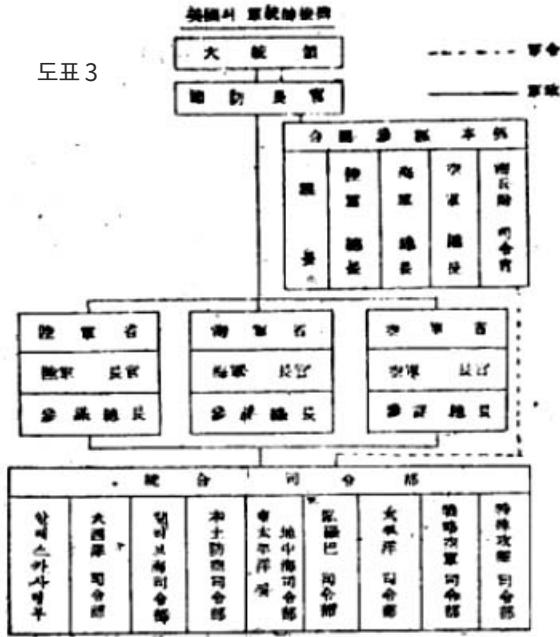
#### 나. 합동사령부와의 관계

우리 한국에는 아직 국방부에서 직접 지휘할만한 합동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단지 국방부 일반명령 제7호에 의해서 1962년 10월 15일에 편성된 제주도 합동사령부가 하나 있으나 그의 작전지휘는 현재 주한 미해군사령관 지휘하에 있는 한국함대사령관이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실로서는 작전지휘권이 한국 측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합동사령부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지휘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이것이 미국의 기구와 크게 상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군조직법 제2조를 보면 '군사상 필요하면 각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통합부대와 연합기관을 둘 수 있다'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작전지휘권이 한국 측에 환원된다면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이 그의 지휘권한을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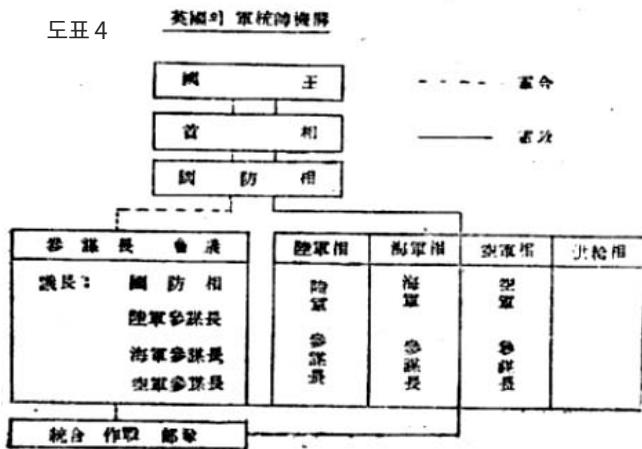
도표 3



다. 외국의 합동참모 기구

다음은 외국의 합동참모 기구를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서 그 국가의 정책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우선 미국을 보면 도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동참모본부

도표 4



가 군령계통상으로 국방장관과 각 작전사령부와의 사이에서 완전히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 기구의 특징은 무기체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 적응하기 위하여 3군 단일작전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전부대가 합동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 내각책임제인 영국의 국방기구를 보면 도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군의 최고 통수자는 역시 국가의 상징인 국왕에게 있고 국왕은 수상을 거쳐 군정, 군령권을 행사하는 점이 상이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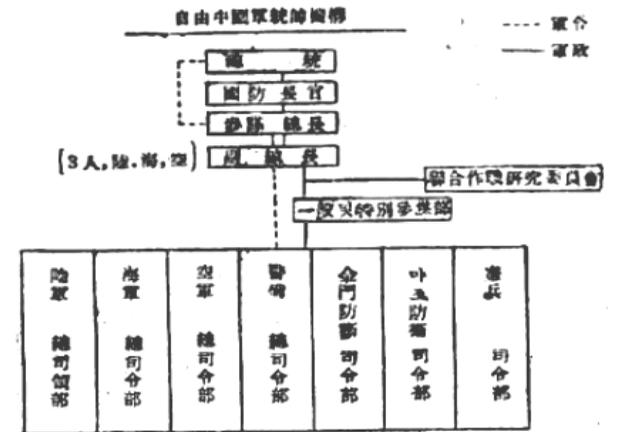
다음 자유중국은 도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방장관은 군령권이 없고 총통이 참모총장에게 직접 군령권을 행사한다는게 특징이다.

자유제국과 그 국가체제자체가 상이한 소련에 있어서도 국가기구는 자유진영의 국방기구와 대동소이하며 그 기구는 평시에 있어서는 국방성에 총군사회의와 합동참모회의기관에 해당하는 육해공 참본부를 통하여 군령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전시에 있어서는 국방정책위원회와 소련군 최고사령부에서 국방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육해공 참모총본부에 군령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다. 미국 합동참모 기구와의 차이점

한국의 합동참모부와 미국의 그것을 비교하고 큰 차이점 몇 가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5



- (1) 작전지휘권의 행사
- (2) 규모가 방대  
편성된 인원의 수에 있어 미국이 보다 방대하며 예하군이 방대
- (3) 각군 비율이 동일  
한국……육해공의 비가 7:2:  
미국……각군 동일
- (4) 3군 일체의 작전기구
- (5) 각군성은 군령계통에서 이탈
- (6) 소장급 이상의 진급에 관하여 건의
- (7) 우리의 4개국에 비하여 6개국(통신전자국 및 기획정책국이 더 있음)으로 편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연구발전 업무의 관장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3. 과거 기구와의 차이점 및 정부 기타기관과의 관계

#### 가. 전 합동참모기구와의 차이점

1954년 2월 17일부 대통령령 제873호 및 동895호에 의해서 창설되었던 연합참모본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어 대통령에게 군사적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현재의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장관의 자문기관이라는 점이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기구에 있어서는 과거의 연참(聯參)이 군수행정 지원능력을 자체가 보유하였던데 반하여 현재의 합참은 국방부 총무과의 군수행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의 연참은 1부(작전), 2부(정보) 및 3부(군수)로 되어 있었는데 반하여 현재의 합참은 인사기획국이 부가되어 4개국으로 되어 있다.

#### 나. 전 연합참모국과의 차이점

전 열바참모국을 보면은 전 연합참모본부를 해체하고 1961년 7월 6일부 법률 제746호에 의거 축소해서 연참국으로 하여 국방부 내국에 편입해서 약 2년동안 운영해 왔는데 연참국은 군령면을 제외한 단순한 군정분야를 관장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합참과 근본적으로 성격, 규모 및 조직이 상이했던 것이다.

#### 다. 국방부 및 국가안전보장 기구와의 관계

이미 언급한바 합참은 국방부의 한 예하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의장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령면의 자문역할을 하며 합동참모부는 합동참모회의 및 의장에 대한 사무관장을 함과 동시에 국방부에 대한 군사참모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87조에 의거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었으며 합동참모회의의 의장은 이 회의의 군사자문을 위해서 배석케 될 것이며 합동참모본부는 이 회의에 대한 군사자문기관이 될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합동참모회의 및 본부의 조직, 직능, 설치목적, 설치근거, 미국의 기구 및 한국의 그것과의 차이점, 점부의 타 기관과의 관계를 기술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합동참모회의 및 본부는 국방부장관의 군사자문 및 군사참모부로서 장관을 용병작전, 전략지침 및 전략계획의 행정면에서 보좌하고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이관되어 있는 작전지휘권이 우리 한국 측에 환원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의 모체를 마련하고 아울러 UN군사령관이 작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국군의 종합된 군사적 의견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발족한 합동참모기구는 앞으로 특히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현대전의 양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합동작전능력 및 조직을 발전시키고 특히 국가비상시에 대처해서 병원 및 전장물자의 동원태세를 완비하는 등은 물론, 앞으로 설치하게 될 국가안전보장기구의 군사자문기관으로서 관장해야 될 업무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바이다.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소개하지 못하는 유감된 일이나 기밀유지상 부득이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 임무를 다하다

영국은 각자가 그 임무를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트라팔가 해전의 날 넬슨의 기함(旗艦) 빅토리아호에 계양된 신호였다.

이날 넬슨은 그날을 최후의 날로 생각하였던지 대체독의 예복을 입고 지휘하고 있었다. 적탄은 그를 목표로 비오듯 쏟아졌다. 때마침 한 발이 날아와 제독은 쿵하고 갑판위에 쓰러졌다. 넬슨의 상처는 중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전황으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전황은 어떤가?”

“점점 유리합니다”

함장이 갑판에서 사라지자 넬슨은 간신히 안심되었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하였다.

“죽기보다도 고통스러우나 아직 잠시동안 더 살아있지 않으면 단된다. 전투의 결과를 보기까지는……”

이윽고 다시 함장이 돌아왔다.

“전황은?”

“전승은 확실합니다”

이때 넬슨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올랐다.

“하아디여 나는 만족한다. 신이여 저는 임무를 다하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눈은 영원히 닫혀졌던 것이다.



## 구대장의 변(辯)

김성규(金成珪)  
<공군중위>

### 1. 구대장이라는 것

군대를 국토방위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커다란 한 기계무기라고 볼 수 있을진대 각 개인 및 장비는 그 기계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구대장은 곧 그 부속품 중 가장 중요한 군인을 만들어 내는 장인이다.

기계는 그 부속품의 질이 나쁘면 작동의 차질과 정지를 면하지 못한다. 구대장직의 중대함은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 기계부속품의 장인인 구대장은 어린 유아를 거느린 어머니에 견줄 수 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산모의 극심한 진통이 앞서야 되는 것처럼 군인이 이룩되기 위해서도 구대장이라고 하는 산모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때로 구대장이라고 하는 군대적 신분을 오해하는 장병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그 직책에 있으면서도 그 책임과 권한의 물지각으로 적합하지 못한 일을 하는 구대장도 전연 없지 않을 것이라는 기우에서 서로 반성하고 또 앞으로 구대장직에 있게될 장병 그리고 구대장을 부하로 하는 지휘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글을 쓴다.

앞서 어머니를 구대장에 비유했거니와 구대장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이 느낄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구대장이 되려면 훌륭한 어머니가 되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훌륭한 어머니는 애기 앞에서 모든 언행을 조심하고 애기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애기를 위한 희생은 목숨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애기는 엄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닮는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애기는 훌륭하게 되기 마련이다.

하나의 군인이 되는건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 산모가 구대장에 비유할 수 있을진대 구대장의 직책이란 얼마나 중대한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 2. 구대장의 요건

군인이면 누구나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혹은 갖추었끔 노력을 해야겠지만 구대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대장이란 직책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필요한 여건이 많다. 훌륭한 군인이면 훌륭한 구대장이 될 수 있겠으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곧 훌륭한 군인일 수 없는 것처럼

구대장에게는 보다 더 많은 여건이 있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경례동작 하다가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훌륭하지 못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대장은 경례동작이 정확하지 못하면 훌륭한 구대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대장은 공사를 누구 보다도 깨끗이 구별해야 되고 후보생에게 모범적인 후견이어야 하며, 철두철미(徹頭徹尾)한 책임감을 이치 말 것이고, 건강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 1. 공사의 철저한 구별

이건 구대장 뿐만 아니라 모든 군인 공무원에게 있어 기본적인 요건이다. 그러나 특히 육체적으로 극심한 힘의 소모가 요구되며 부자유한 후보생 생활 중에는 누구나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싶어 하므로 이들을 직접 다스리는 구대장은 인정에 지배되기 쉬우나 그 영향이 교육면이나 사기 면에 미치는 바를 고려할 때 특히 공사의 구별 있는 행동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철저해야 될 것이다. 심리학자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편애는 다른 자식으로 하여금 사악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고 말한다. 후보생 가운데는 구대장의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친지, 형제 혹은 부탁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구대장도 인간이므로 이들에게 아무래도 감정이 다르겠지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표시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무자나 외출, 특박자의 상신, 부정행위의 징계 등의 경우에는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 2. 모범적인 후견인

민간인으로 처음 가입교한 후보생을 하나 상상해 보자. 아무렇게나 걸쳐 입은 복장이며 덩수룩한 머리하고, 그 형편없는 걸음거리, 제 멋대로 지껄이는 말씨, 소위 새까맣다는 말로 밖에 표현 못할 이들에게 군인의 태도일반, 군인 정신, 용모, 언어, 걸음걸이 심지어 밥 먹고 옷입는 법에서 변소 쓰는 법까지 가르치게 되니 구대장이 어찌 어머니에 비유할 수 없을 것인가. 훌륭한 구대장은 이들로 하여금 이같은 것을 아주 빨리 그리고 정확히 습득시킨다.

후보생은 처음 군대조직과 생활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의 공통된 심리가 있는데 구대장이야말로 완전한 이상적인 군인이라고 믿는 점이다. 이들은 이 군인의 기분인 구대장을 본받고 하나하나 닮아 간다. 구대장의 걸음거리며 군대식의 언어, 동작 심지어 구령까지도 거의 완전하게 후보생의 것이 된다. 이러니 구대장이 후보생에게 규범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란 좋은 점 보다 나쁜 점을 더 무섭게 빨리 본 딴다고 한다.

이걸 이해하는 구대장은 후보생 앞에 나갈 때 자기의 복작이며 태도에 신경을 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후보생이야

말로 상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다. 후보생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을 하며 흡연하는 구대장이 있다면 이는 '나는 바람평 해도 너는 바람풍 하라'는 글방 샌님만도 못한 게 아닐까.

구대장은 후보생의 완전한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떠나 보낸 그들의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 수시로 개인면담을 통해서 후보생의 신상을 파악해야 되고 그들의 건강상태를 항시 체크할 것이며 정신상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 3.철두철미한책임감

구대장의 업무는 후보생의 훈육, 군사훈련의 담당 및 일체생활의 감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후보생에게는 누구보다도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내가 군인으로 만든다', '내가 만든 군인은 나가서 무얼 하는 사람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없는 자기 책임감이 우러나온다.

훌륭한 구대장은 후보생의 세밀한 곳 까지 파고 들어가 보살핀다. 구대장은 지휘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간혹 자기가 할 일을 내무반장이나 근무자에게 맡기고 지휘관 연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구대장이 자기책임을 다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최소한 하루 한번은 그들의 내무반과 학과장을 순찰하고 수업태도며 휴식군기, 후보생간의 인간관계를 파악할 뿐 아니라 청소와 정돈상태를 조사한다. 식당은 순찰하고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나 알아 보다. 수시로 다른 교관들과 후보생에 관해서 상담하고 기간사병들의 의견을 들어 들만하다. 외출을 보내고 도시를 순찰하고 외출군기가 어떤 지 알아보고 일요일에 외출하지 않은 후보생에게는 어떤 고민이라도 있는지 알아본다. 이렇게 하면 후보생은 자기 옆에 하양 구대장이 서 있다는 감을 느낀다. 구대장이란 직책은 그 말은 사람에 따라서 편하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자기책임을 다 하는 구대장은 자기 몸이 하나 뿐인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 4.건강하고민주적인 교육방식

구대장은 상급자이면서도 모든 행동은 후보생과 같이 또는 그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난. 구대장이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무리 의욕이 충만해 있고 요령이 있어도 구대장을 치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후보생과 동열에 들 만큼은 건강해야 한다. 원거리 구보를 하고도 후보생보다 덜 지친 척 하려면 단련된 신체가 아니고서는 않된다. 잠을 2-3시간만 자고도 끄떡없으려면 강인한 인내력이 필요하다. 구보를 하다

가 지휘하던 구대장이 낙오했다고 상상해 보라. 우리 공군에서는 현재 거의 완전한 민주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것은 후보생 위주다. 옛날과 판판인 군대교육이나 때때로 그렇지 많도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듣는다. 소위 특별훈련이란 것에는 개선할 점이 많다. 우리가 생각하기 따라서 건전하고 유익하며 교육적인 특별훈련방식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후보생의 인격 면에 유의하다면 필요외의 사역이나 그들을 사용하는 폐단은 없을 것이며 있다면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네 가지 외에도 구대장이 갖추어야 될 바 요건은 얼마든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우선 이 네 가지 요건만 이행하는 사람이라면 유능한 구대장임에 틀림없다. 군복을 입혀놓고 그저 2, 3, 4 개월만 위협과 위엄의 과시로써 들볶아대면 자연히 군대는 되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장병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앞길을 위해서 위협스럽고 슬픈 일이다. 기본군사훈련을 끝마친 후보생이 예하부대에 가자마자 보행태도며 경례동작으로 지적된다면 이는 구대장의 책임에 틀림없다. 큰 나무를 만들려면 떡잎을 잘 가꾸어야 될 것이다.

### 3. 지휘관예의 제언

구대장이 이상과 같은 임무와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는 구대장 자신의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특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지휘관의 뒷받침이다. 어느 구대장이고 후보생을 잘 길러 뒷사람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구대장의 능력과 성의에는 한도가 있다. 여기에 구대장으로서의 지휘관에게 바라는 바가 있는 것이다.

첫째 구대장에 대한 철저한 신상파악과 수시의 면담이다. 막중한 자기임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장애에 부딪친다. 정신적인 신체적인 유형, 무형의 장애에 부딪칠 때 지휘관의 협력과 위로의 한 마디는 많은 용기와 자신의 바탕이 된다. 간부후보생 같은 과정의 구대장은 특히 힘 드는 직책으로 한 개기(個期)만 끝낸다면 이젠 못하겠다고 물러서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파악했으면 좋겠다.

둘째가 구대장 대우문제다. 우선 구대장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후보생 앞에서 구대장이 지휘관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이 숙식문제인데 후보생이 입교하면 일주 내지 이주는 구대장이 영내에서 주거하게 된다. 부대에서 숙식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특별수당도 없는 구대장은 대단히 난처하게 된다. 부대에서 숙식을 제공한다 해도 불규칙적인 식생활로 인해서 구대장에 오래 <91P에 계속>

<한국참전 미비행사의 포로(捕虜)생활수기> ①

고난의 935일

이 훈 구 초역



1. 포로가 되기까지

“브라운, 저 불을 봐”

기장(機長)인 유진 바아데이 대위가 말하였다.

전방 왼쪽의 맑게 개인 밤하늘을 길고 가느다란 빛줄기가 전후좌우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들의 B29 편대를 탐색하는 적의 탐조등인 것이다.

1953년 1월 11일, 북한의 밤하늘. 그것은 나에게 최초의 전투 임무였다.

2-30기의 탐조등이 동시에 밤하늘을 꿰뚫어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미그-15기 한 대가 나타나 우리기의 제2엔진에 관통상을 입히고는 재빨리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바아데이가 기수를 바로잡고 후부의 기관총이 맹렬히 불을 토할 무렵, 다른 미그기 한 대가 제4엔진을 관통시켜 마침내 엔진이 화염으로 타올랐으며 또 다른 로켓탄이 동체를 관통하였다.

바아데이 대위가 탈출신호를 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지상 레이더 기지와 무선연락을 취하기에 바빴다.

애기(愛機)는 점점 자유를 잃고 바아데이 대위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무진히 애를 쓰고 있었다. 그를 도와주려고 한 손으로 나의 조종간을 꼭 잡고 있었으나 보조익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것을 알았다. 그 이상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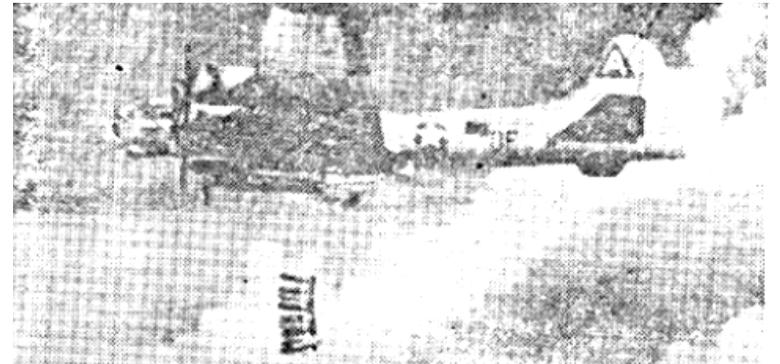
나는 마이크를 들어 전투기의 습격으로 불이 일어나 탈출한다고 지상 기지에 보고하였다. 수초 후 우리는 영하 40도의 암흑 속으로 뛰어 들었다. 나는 한 때 정신을 잃었으나 가혹한 추위로 겨우 감각을 유지하여

고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다. 우리 B29기가 죽음의 급추락을 하였는지 굉장한 굉음이 들려 나는 낙하산의 립·코드를 당겼다. 이것이 펼쳐지는 충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얼마 후, 두 언덕 사이로 눈에 쌓인 조그만 밭도랑 위에 착륙하였다.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소리가 들려 왔다. 낙하산의 캐노피가 밭 근처의 조그마한 나무 위에 걸려 잡아당겨 보았으나 떨어지지 않았다. 등 혁대를 벗어 낙하산을 그대로 둔 채 구명상자를 들고 우거진 나무속으로 들어갔다.

불과 수 미터도 못가서 힘이 빠지고 말았다. 왼쪽 눈언저리가 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얼굴과 다리에 타박상의 굵은 상처가 있음을 알았다.

그때, 밭 저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B-29의 용자(勇姿)>

들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걸고 쉬고 하면서 얼마 후에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오르고 보니 나무 하나 없이 빈번한 곳이어서 숨을 장소도 없었다.

낙하산은 나무에 걸친 채로 내버려 두었고, 눈 위의 밭자국을 곧 알게 될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적의 수색대에 발견되기 쉬웠다.

나는 잠시 땅바닥에 앉아서, 1킬로 반 가량 전방 낮은 언덕의 중턱에서 타고 있는 B29의 잔해의 불꽃을 보고 있었다.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렸으나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B29의 잔해와는 반대편에 매우 높은 산이 보였다. 나는 숨기에는 그곳이 좋을 것 같아서 그리 가기로 했다.

아무리 주의해도 눈 위에 밭자국이 나므로 경사를 미끄럼질하며 내리기로 했다. 오르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나

내려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눈을 털고 소지품을 조사한 다음, 언덕 밑을 돌아 맞은편 산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

눈이 적어 발자국도 별로 나지 않았다. 이 바위, 저 바위를 타고 오르는 동안에 커다란 둥근 바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위에 좁은 굴이 하나 보였다. 나는 굴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피로가 일시에 들이 닳았으나 굉장히 춥고, 설상가상으로 몸이 쭈시고, 왼쪽 눈은 눈꺼풀이 거의 다 덮일 정도로 부어 있었다.

담배를 피울까 했으나 성냥불이 두려워 그만 두었다. 마을 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바위를 타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멀리 동남쪽에 낮은 산맥이 보이고 23분마다 그 너머에서 폭탄과 포탄이 터지는 불빛으로 능선이 뚜렷이 나타났다.

겨우 꼭대기에 다다랐을 무렵, 날이 새기 시작하였다. 나는 몇 개의 큰 바위가 텅굴고 있는 숲을 숲을 장소로 정하고, 그 뒤에 가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담배를 피우려고 파이프를 찾았으나 포켓 속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아마 비행기에서 뛰어 내릴 때, 떨어뜨린 모양이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았다. 나는 '개인용 구급구명상자'라고 내가 이름을 붙인 물건을 포켓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세 개의 알루미늄제 담배케이스로 된 것인데, 57개의 물건을 넣고 밀봉한 것이다. 인적 없는 데서 길을 잃었을 나 자신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철사를 감은 조그마한 바퀴라든가 낚시바늘이라든가 나침반, 소형수첩, 연필, 약품, 사탕, 소금, 후춧가루, 성냥 등이었다. 그 성냥이 지금 쓰이게 된 것이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지도를 끄집어내어 산봉우리에 올라가 내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였다. 골짜기 밑에 인가가 넷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작게 보였다.

나의 잠자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으며, 밑의 밭에서부터 적어도 600미터는 되는 것 같았다. 지도상으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주위를 돌아보고 있을 때, 하늘 높이 제트기의 폭음이 들렸는데, 기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도를 기어 들어가 라디오 발신기를 손에 들었다. 전에 일본에 있을 때 내 방에서 요코다 기지의 관제탑을 불러내어 이야기한 일이 있어서 사용법은 알고 있었다. 소리나 암호로나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친데, 여러 번 시험해 보았으나 응답이 없다. 나는 출발 전에 첩보장교로부터 적지에 강하한 조종사가 헬리콥터에 의해서 구출된 일이 매우 높다는 것과 또 구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를 들었다.

나는 그 지시를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고 또 구출되기에는 안성맞춤인 장소에 있었다. 다른 비행기가 우리들을 찾고 있을지 모르고, 탈출 전에 라디오로 위치를 알려 주었으므로, 내가 있는 장소를 발견할 것으로 믿었다. 단 한 가지 걱정은 구출되기 전에 눈 위에 남겨 두고 온 발자국으로 적의 수색대에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골짜기 밑에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내 저쪽으로는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

오전 10시경에 제트기 소리가 또 들려 라디오에 달려들었다. 만일의 찬스를 기대하여 반사경도 쏘 보았다. 이번에는 비행기가 수 분간 선회하였다. 나는 충분히 발신을 하고 응답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가 들렸고, 영어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폭음은 멀리 사라져 다시 실망했다.

그런데 밑을 내려다보니 더욱 기막힐 일이 생겼다. 다섯 명의 사나이가 각기 총을 가지고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내가 바위틈에 버려 두었던 '메이 웨이트스'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 뿔나무를 모아 나르고 있었다. 이력저력 30분 동안이나 그들의 작업 광경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바로 그 때, 한 나무꾼이 흥분한 어조로 무어라고 외쳤다. 나의 발자국이 발견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나의 발자국을 따라 산길을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는 오던 길을 되돌아 도망가기를 정하고 소지품을 챙겼다. 밑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 내리는 데는 무척 힘이 들었다. 이내 자그마한 관목 숲에 이르렀다. 그때 머리를 조금 들어 보니 다섯 명의 사나이가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수분이 지난 다음 나는 다시 추적자들의 눈을 피하며 산길을 올랐다

그 때 위에서 총성이 들렸다. 탄환이 날아오지 않았으므로 나를 쏜 것은 아니라고 단정했다. 2-30분이나 바위 밑에 엎드리고 있으니 위에서 사람소리가 들리고, 그 흥분한 어조로 미루어 내가 산길을 벗어난 지점이 발견된 것을 알았다. 금방 숲을 헤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그 중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도 바위 밑에서 기어 나와 바위틈으로 바라보았다. 네 명의 사나이가 뒷길에서 밑을 내려다보며 서 있고, 하나는 6미터 가량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어차피 발견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한 동안 눈여겨 본 다음, 나는 일어나서 그들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 2. 어디로?

그들은 나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나의 메이 웨이스트를 들고 있던 자가 그것과 나를 번갈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냐고 묻는 것으로 알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니 상대방은 그것으로 만족한 눈치였다. 그리고 2명이 달려들어 내 몸을 수색했다.

산길을 내려갈 때 두 사람은 나를 잡아주려고 했으나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겨우 납득시켰다.

우리들은 산길을 내려 농가 쪽으로 갔다. 도중에서 다른 동무들이 따라와 나에게 제법 많은 추종자가 생겼다. 나는 헛간과 집 안채를 둘러싼 튼튼한 흙담 문을 지나 안뜰까지 진행되었다. 당나귀 한 마리가 매어져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본 사탕수수의 분쇄기와 비슷한 연자방아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안에는 벽돌집이 세 채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큰 집으로 진행되었다. 그 안에는 한 노파와 어린애가 있었다. 나를 잡은 사나이가 노파에게 무어라고 말했다. 노파의 거동으로 보아 체포된 미군 비행사가 이 집에 끌려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 같았다. 나에게 밥그릇과 빵 덩어리를 주면서 노파의 얼굴은 전혀 무표정이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모처럼 베푸는 호의를 무시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것을 받았다. 내가 젓가락을 잘 못 쓰자 노파는 숟가락을 갖다 주었다.

한 20분이 지났을 때, 떠들썩한 소리가 나면서 몸집이 큰 한 병정과 장교인 듯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병정은 숨을 넣은 카키색 제복을 입었는데, 모자와 제복은 같은 재료로 만들었고 상의는 귀털개가 한테 붙어 있었다. 자그마한 차양 위에는 빨간 별이 달려 있었다. 중공의 의용병이었다. 그의 동료도 숨 제복을 입고 있었으나 색은 까맣고 만든 품이 상품이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차려 나는 그가 장교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보고 포켓 속의 물건을 모두 내놓도록 이르고는 자기도 손수 거들었다. 수사는 철저했으나 내가 속에 아직도 비행복을 입고 있는 것

을 알지 못했다. 그 포켓 속에는 나침판과 다른 물건이 들어 있는데 발각되지는 않았다.

다시 3킬로 가량 떨어진 흙벽 집으로 끌려갔다. 이 농가에는 주위에 울타리가 없고 안에는 수명의 병정이 있었다. 나는 방으로 안내되고 곧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다시 끌려서 이번에는 도로점용의 도랑을 따라 내려갔다. 도랑 한 쪽에 우리 비행기의 항공사인 하워드·브라운 기술상사가 뚝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우리들이 서로 인사를 하고 말을 하려 하자 강압적으로 떠밀며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의를 받았다. 나는 장교에게 말을 거는 것같이 가장하고 다른 탑승원을 만났느냐고 상사에게 물었으나 상사는 머리를 흔들고 만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얼마 후에 수소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왔다. 나와 브라운 상사가 등을 맞대고 있고 주위에는 수명의 병정이 탔다. 교차로라고 짐작되는 지점에 다다르자 미군의 탄약운반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그 차로 옮겨 타고 얼마 뒤에 조그마한 부락에 이르렀다.

먼저 브라운 상사가 집안으로 끌려갔고 이어서 나도 안방으로 진행되었다. 그 때 문이 열리며 두 병정이 우리들의 라디오통신사의 스티브·키버를 데리고 나타나 뜰로 나갔다. 수분 후 또 돌아왔다. 우리는 재빨리 말을 건넸다. 다만 인사말을.

조금 뒤에 다시 밖으로 끌려 나가 탄약운반차에 타게 되었다. 하워드·브라운과 키버도 같이 탔다. 또 한 사나이가 뒷좌석에 끌려 들어왔다. 나지막한 두어마디 소리로 그것이 경찰원 벤자민임을 알았다. 병정들은 찢어진 낙하산 조각을 우리들의 머리 위에 덮고 머리를 밑으로 눌렀다.

수분동안 앉아 있노라니 또 누군가가 끌려 왔다. 목소리로 그것이 바아테이 대위임을 알았다. 부락을 출발했을 때는 거의 해가 진 무렵이었다. 머리에 낙하산이 덮여 있어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분동안 달리고 다리를 건넜다. 초소의 말뚝이 빠져대는 소리가 들려 판교(板橋)라고 짐작되었다. 다리를 다 지난 다음에 몇 번이고 방향을 바꿔 두세 번 정거했다. 시내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 추측이 맞았다. 트럭이 멎고 우리들은 한 사람씩 따로따로 내렸다.

불빛은 없었으나 건물의 윤곽이 몇 채 보였다. 나는 아직 머리를 숙인 채로 그 중 매우 큰 건물로 진행되었다. 시내는 무척 조용한 것 같았다.

우리는 홀을 지나 불이 켜진 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큰 테이블에 앉게 되고, 경비병이 주위를 둘러쌌다. 창에는 모두 통화 관계의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숨을 넣은 제복을 입은 동그란 여자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 더운 물도 한 그릇 받았다.

빨간 소기(小旗)를 단 장교가 다색(茶色)의 솜 제복과 모자를 갖다 주었다. 트럭 속에서 매우 추위를 느꼈으므로 고마웠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랐으나 수개월이 지난 후에, 거기가 안동경찰서라는 말을 들었다.

### 3. 여기는 만주(滿洲)인가?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 다시 밖으로 끌려 나와 지프차에 실려 어둠 속을 달렸다. 약 30분 후에 차는 목적지인 2층 건물 앞에 섰다. 나는 병정에 이끌려 이층으로 안내되었다.

방안에는 천정으로부터 전등이 늘어져 있고 먼지가 쌓인 방바닥에는 짚으로 된 이불이 깔려 있었다. 병정 한 사람이 담요를 가져왔다. 나는 놀자 이 내 잠이 들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경비병이 입구에 서 있었다. 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넓이는 사방 5미터 가량이고, 벽에는 큰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그리고 벽장이 두 개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잠자리 선반이었다. 높이는 1미터 정도이고 미국인의 표준 신장에 비해 길이가 조금 짧았다. 바닥에는 종이 조각과 먼지가 쌓여 있고 창문이 두 개 있었으나 신문지로 봉해 있었다.

병정 한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왔다. 잘게 썬 거친 앞사귀에 고기를 약간 넣어 삶은 것과 해면과 같은 조그마한 네모난 것이었는데, 맛은 없었으나 그래도 다 먹고 더운 물을 마셨다.

더운 물을 조금 남겨 눈과 발의 상처를 씻었다. 경비병이 조그마한 거울을 꺼내서 빌려 주었다. 눈은 훨씬 편하게 되었으나 아직 꺼멓게 피가 맺혀 있었다. 발도 피가 나서 양말이 상처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경비병에게 상처에 바를 것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머리를 흔들므로 씻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냅마조각을 모아 비를 만들어서 방을 쓸었다. 먼지가 나자 경비병이 잠시 밖으로 나간 기회를 타서 창을 막은 신문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 밖을 내다보았다. 몇 명의 병정들과 내가 있는 건물 맞은편에 2층 목조물이 네 채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침 그때 하워드·브라운이 경비병에 호위되어 바라크 사이의 통로를 따라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무척 반가웠다.

나는 하워드가 변소에 갔을 것이라 추측하고 그가 있는 동안에 나도 변소에 가려고 경비병을 불렀다. 수분이 지나 누군가가 아래층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것이 하워드라고 생각했다. 그때서야 경비병은 벽치를 뜯어 가지고 따라 오라고 알렸다.

아래층을 내려가니 경비병은 나를 건물 안에 두고 입구에서 머리를 내밀어 통로의 좌우로 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아마 우리들 포로가 서로 얼굴을 맞보고 말을 건네는 것이 싫은 모양이었다. 나는 용변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캠프 전체의 배치를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경비병의 수를 세어보고 우리들 비행기의 탑승원 중 나를 포함해서 적어도 9명 내지 10명이 포로가 되어 여기에 수용되어 있다고 단정하였다.

점심에는 쌀밥을 받았으나 아무 맛도 없었다. 오후는 길고 혼자 있어 지루했다.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데도 끌려 가지 않았다. 경비병은 두 시간마다 교대 밤에 영어할 줄 아는 군복입은 중국인이 들어왔다. 나의 건강과 식용을 물었다. 내가 다른 탑승원들의 안부를 묻자 둘은 병원에 있고,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대답이다.

그는 타이프로 찍은 질문서와 만년필을 내서 전쟁포로 전부에게 기입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성명, 계급, 소집번호만을 기입하고 부대명, 부과된 임무, 가족란을 그대로 두었다. 그는 화를 벌컥 냈다. 내가 끝내 응하지 않자 그는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며 나가버렸다.

나는 자려고 불을 켜다. 그러니까 경비병이 뛰어 들어와, 소리소리 지르며 불을 꺼더니 불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몸짓 손짓으로 수선을 떨었다.

체포된 지 나흘째 된 날 오후 늦게 또 심문계(審問係)가 왔다.

“질문서에 기입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아직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시다.”

“그럼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나?”

“다른 탑승원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모양이었다. 내가

“우리들은 포로수용소로 가게 됩니까?”

하고 묻자

“너는 총살될 것으로 생각한다.”

고 그는 대답하면서 미소를 띠었다.

“너는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협력해야 한다.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큰 도움이 된다. 알겠지?”



소위 소중공 이념분쟁을 계기로 철석같이 굳었다던 김일성의 일인독재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 이제 그 진원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 북괴의 정치계보와 파쟁

해방과 더불어 소련군 소좌였던 김일성이 북한에 나와 괴뢰정권을 수립하고 그 세력기반을 구축한 것은 김일성의 독창력이나 혼자 힘만으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첫째의 배경은 소련군이었으며 둘째는 소련파, 연안파, 독립동맹파 등 해외에서 몰려온 공산주의자들과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파와 현준혁, 오기섭을 중심으로 한 세칭 북노당 등 국내에서 지하 활동을 해온 공산주의자들의 힘이었다. 이렇듯 잡다한 파벌(派閥)의 이질적 동지들이 규합(糾合)하여 소련의 사주(使族)에 북한에는 김일성정권의 터전이 닦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단 그 정치적 기반이 잡히자 자과세력 이외의 세력에 대해서는 점차 퇴치전술을 사용하여 자기의 독재권 확립을 도모하였다.

처음 단계에서 김일성은 연안파와 합작하여 북노파(北勞派)와 남노파 등 국내파의 거세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성공하자 다음 단계로 착수한 것이 김두봉(金斗奉), 한빈(韓斌), 최창익 등이 영도하는 연안파이다. 김일성은 국내파의 거세에 적극적인 힘을 빌린 연안파에 대하여 아무런 보답을 주려하지 않았다. 그리던 차에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르시츠포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지도하여 이 운동이 표면화 하게 되자 연안파의 최창익과 소련파의 박창옥 등 반 김일성 그룹에서 집단지도제를 부르짖으며 들고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는 방문을 나가 버렸다. 나는 그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였다.

포로생활의 5일째는 4일째와 거의 마찬가지로 시작되었으나 오전이 반쯤 지났을 때, 중공군 장교의 제복을 입고 영어를 말하는 사나이가 들어왔다.

“이름은?”

“브라운 소위입니다.”

“너는 너의 죄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와 너의 동료들은 B29로 중공영토를 날았다. 중국 인민 공화국에 침입한 것이다. 평화를 애호하는 중공인민에 대해서 가장 중대한 침략행위를 범했다. 너는 그 대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그는 외쳤다.

나는 완전히 어이가 없었다. 이 비난은 확실히 중요한 것이다. — 허위인 동시에 중대하다.

<미 제국주의의 전쟁도발자들>이라든가 <과괴공작자>라는 문구가 연속 튀어나오는 동안 나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갔다. 신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책략, 아니면 반미선전의 술책일까? 우리들의 마지막 표적은 압록강 부근이었다.

공산군의 전투기를 피하다가 우연히 중공국경을 넘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추구를 보류해 왔을까. 우리들을 중공에 데려다 놓고 그 후에 압록강을 넘었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압록강을 넘지는 않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 표적이었던 철산(鐵山)은 국경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우리들이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까지의 1-2분간에 강을 넘을 리가 만무했다.

나는 중공 상공을 비행한 사실이 없으며 내가 아는 한 내가 아직도 북한에 있다고 말하였다. 상대방은 두 번째로 욕을 하며 공격을 가해왔다.

그는 얼마 안 가 결국 내가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분 나쁜 경고를 남기고 사라졌다.

어두워진 후에, 밖에 자동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려다보니 옆 바라크에서 누가 끌려나와 커튼을 내린 지프차에 밀려들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40분가량 지나서 지프차는 또 돌아왔다. 지프차는 그날 밤, 네 번이나 왕복했다.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하고 기대하였으나 그날 밤 연행은 네 번으로 끝났다. 어디로 연행되는지, 그리고 거기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생각이었다.

<차호(次號)에 계속>

물론 이 연설이 북한괴뢰집단에만 불집을 터뜨린 것은 아니었다. 소련의 정치노선을 개변시켰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 폴란드, 동독에서는 폭동을 낳게 했으며 중국에서도 백가쟁명, 백화제방(百花齊放)이라는 일시적이거나 언론의 자유까지 용인케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변혁에 편승하여 연래의 불만을 폭발시키려는 최창익 등 연안파는 드디어 1956년 8월에 집단지도제를 부르짖으며 일어났던 것이다. 여기에 소련과 내에서도 박창옥 박의완 등 거물급들이 연안파에 합류하였던 사실은 주목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 김일성운동은 비밀이 사전에 누설되어 실패되고야 말았다. 그렇지만 당내에 김일성의 독재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널리 인식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은 반김일성집단이 소비재 생산의 필요성을 들고 나와 전후의 극심한 궁핍에서 허덕이고 있던 북한주민에게 사람은 살고 볼 것이라는 복음과 같은 영향력을 끼쳐 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창익, 박창옥 등 반 김일성운동은 비록 실패하고 숙청되기는 하였으나 두 개의 커다란 초석을 남겨 놓았다. 이상에서 김일성이 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원적 배경을 살펴 보았으므로 다음에 그 근인적(近因的)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 근인적(近因的) 배경

연안파 사건이 있은 후 김일성은 가일층 그의 독재권을 강화하였다. 김일성은 지금 완전히 신격화되고 있다. 그 한 예로 부고기의 가진수산사업소에 소속돼 있는 한 어선은 폭풍으로 3일이나 표류하는 동안 선원들은 김일성의 초상화 앞에 앉아 구원될 것을 빌었는데 마침내 바다의 불사조로 귀환했다고 북한괴뢰집단은 선전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편집함에 있어서 문장 속에 김일성의 언동을 인용할 때에는 ‘김일성수상’이라는 다섯 자는 몇 배 큰 활자로 해야 하며 그 인용구는 ‘고딕’으로 하거나 좀 더 큰 활자로 인쇄한다.

이와 같이 그의 우상화 정책은 오히려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의 독재성은 신성불가침의 경지로 독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층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중견강부와 일반주민들 속에서 비위가 거슬러 김일성의 독재에 크나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못지않게 흐르시쵸프 노선을 거역하는 김일성정권에 대한

소련의 압력은 대단한 것이다.

지난 어느 때를 막론하고 북한괴뢰집단은 종주국인 소련이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적이 없다.

그러던 것이 작년 10월 28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하여 소련은 지난날부터 가혹하게 북괴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당의 지도부까지를 전복하려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擁護)하지는 표제하에 발표된 이 삼만자에 달하는 문장의 사설 속에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사실들을 털어 놓았다. 즉 소련은 그들의 일방적 의사를 다른 당에 강요하는 대국주의적 오만을 부리고 있다고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는 ‘형제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소련의 당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고 소련어를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데 대해서까지 감독하려 하며 심지어는 소련 영호를 잘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 것까지도 따지며 간섭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련은 형제국가들 간의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쇄하고 경제적, 기술적 협조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원조에 대해서는 자랑하기만 좋아하며 그것을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극구 비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설명없이 소련의 정치, 경제적 압력이 김일성의 일인 독재적 정권에 얼마나 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반‘김’운동 꾸준히 전개

북한의 많은 공산당원들은 지난날 소련의 위대성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교육을 받아 온 관계로 소련의 위대성에 머리가 젖어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련을 이단자라는 비난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부질없이 중공편에 기울어진 관계로 소련의 원조는 중단 또는 격감되어 그토록 희망을 걸었던 경제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일으켜 실패의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 결과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밑에 보다 심한 주민들의 내핍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불평불만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의 수 많은 간부들은 동구라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산당에서 이미 스탈린주의적 일인독재가 붕괴되었는데 독재 북한공산당에서만 김일성의 일인독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커다란 모순을 직감하고 있다. 이 모순은 바로 자신들의 이해와

너무나 직결되고 있으므로 그들의 관심은 더 큰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공산당의 내부에는 반 김일성 사조가 밑으로부터 광범하게 배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적어도 이와 같은 반 김일성운동이 당의 중견간부층에 의하여 조심스럽게 태동하고 있음은 전기(前記) 로동신문 사설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내 지도 작품을 가지고 집단지도 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이 퍼지고 있음은 북괴 일부기자들도 조심성 있게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 김일성운동이 어느 시기에 가서 결정적으로 김일성을 실각시킬 수 있으리라고 현재 단정해 말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 반 김일성운동이 하나 내지는 두 개의 계열에서 현재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 실각(失脚)의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일성 일파에 의하여서 숙청되었거나 심한 괘시를 받아 온 계열에서는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재기 내지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가장 유력시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안파와 소련파내에서 분립한 반 김일성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들 계열이 현재에도 가장 당내에서 많은 동지를 수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 두 계열 중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연안파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로 내세운다면 최용건(崔庸健)이나 김창만(金昌滿)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는 순수한 연안파는 아니라 할지라도 192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한 중공출신이며 1927년 광둥에서의공산주의 폭동에도 참가한 경력을 가진 위인인 것이다. 다음으로 김창만의 이름을 들 수 있는 것은 이자가 원래 권모술수에



<집단농장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농민들>

능할 뿐만 아니라 야심만만한 모사(謨士)이기 때문이다. 김창만은 본래 연안 출신이었으나 연안파를 숙청할 당시 김일성의 프락치로 활약하여 오늘날 김일성정권에서 중용되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후계자 서열로 볼 때 김창만의 순서는 너무나 뒤져 있다. 그러므로 친성이 야심가인 김으로서는 그 자신이 반 김일성 계열에 연합하여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반 김일성계는 소련과 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특히 활동하기에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련의 정치적 후견과 그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가장 많은 현직간부들을 수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리더로 접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현 북괴의 내각부수상 남일을 손꼽을 수 있다.

남일은 소련과 내에서도 가장 지성인으로 알려진 자로서 학식으로나 이론면으로나 또는 정치적 경론으로나 김일성을 능가한다는 것이 정평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일은 그 누구보다도 소련이 막후에서 조정 하려는 반 김일성 운동에 첫째로 손꼽힐 인물인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가능성과 사실들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적어도 현재 북한에서 태동되고 있는 반 김일성 운동은 시간의 장단은 있을지언정 어느 시기에 가서 반드시 폭발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은 추단이라는 경지를 훨씬 벗어나는 문제이다.

독재정권이란 강력하면서도 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반대의견이 중화될 수 있는 길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공산주의체제 속에서 스탈린주의가 퇴색하고 있음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조류가 북한에서만 막히리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그러므로 현재 이미 북한에서 태동되어 확대되어 가는 반 김일성운동은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김일성을 실각시키고 말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몸과마음 한데모아  
방공태세 강화하자**

## 북한의 가정생활은 이렇다



나 운 상(羅雲尙)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먹고만 살 수 없는 것이다. 먹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값진 포근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자유! 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정신의 보금자리인가?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저 무자비한 공산괴뢰도당들은 이 인간의 기본 권리마저 완전히 빼앗아 버렸으니 북한 인민들의 비참상이란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제 여기서 북한의 가정생활을 들여보기로 한다.

### 주생활(住生活)

사유재산제도와 자본주의의 파괴를 부르짖고 있는 북한공산주의의 인간 개조정책은 산업의 공유 및 농업의 집단화 때문에 사회주의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파괴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정 파괴의 원인은 사회주의 산업으로의 동원(動員) 때문에 집들이 낮에는 사람 없는 공가(空家)로 되고 집은 잘 때만 필요한 숙소로 변했기 때문이다. 농촌(農村)에서는 낮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일터로 나가고, 학생은 학교로, 유아는 탁아소(托兒所)에 맡김으로써 집은 비게 된다. 도시와 광산(鑛山)에서도 형편은 마찬가지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에서 대낮에 사람이 있는 집이란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이나 불구자 그 외에 환자뿐이다. 종일 시달려 피로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북한의 농민들은 이른 새벽부터 집단농장에 강제로 끌려가고 있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내일의 사업 준비를 하다가 그만 쓰러져 잠들고 만다. 이런 생활이 누구에게나 강요되는 것이며, 북한 인민들이면 모두 다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다. 북한 인민들은 이러한 생활이 연중 반복되고 예외 없이 몇 해 경과하는 동안에 사람들은 옛날 살아본 왜정시대(委政時代)를 동경하게까지 되었다.

북한에서는 이미 우리들의 다채로웠던 생활풍속은 사회주의 풍파(風波) 때문에 찾아 볼 수 없고 이국적이고 살벌한 생활체취가 구역질나도록 역겹게만 풍기고 있다. 그럼에도 김일성(金日成)역도들은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 낙원으로 가는 대로이며, 공산주의적 새로운 생활양식의 창조이며, 혁신이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김일성 도당들이 크게 떠들어대는 생활의 그 창조나 혁신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 식생활(食生活)

인간에게 있어서 먹는다는 것은 삶의 근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역도들은 사회주의적 균일화, 보편화를 강행키 위하여 인민들에게서 먼저 식도락(食道樂)을 빼앗아 갔다.

북한 인민들은 떡이나 엿은 만들어 먹지 못하고 가정에서 생필품인 간장, 된장 그리고 고추장도 못 담근다. 쇠고기는 1년에 두 번 맛보기 힘들며 구수한 된장두부찌개 맛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옛날엔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간장, 고추장은 담았고 구수한 두부찌개는 많이 먹을 수가 있었다.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국가기관에서 파는 배급식량 외엔 한 알의 곡물도 사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정인 것이다.

괴뢰도당들이 실시하고 있는 식량배급을 보면 인민들의 식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 괴뢰정부의 국장급 이상은 1일분 식량배급량이 700그램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1일 500그램인데 반해 일반 공무원들은 1일 600그램이다. 학생은 1일 400그램이며 이것은 잡곡과 백미가 포함된 것이다. 이 외는 단 한 알의 콩이라도 곡물은 사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식생활은 전적으로 배급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떡, 엿, 간장, 고추장은 고사하고 밥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저녁밥은 죽을 먹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쌀 배급은 물론이거니와 필수 부식물을 사는데도(간장, 된장 기타) 배급을 타듯이 열 지어 서서 기다리다가 자기 앞사람까지 배당되고 품절이 되어 못 사게 되면 통곡할 정도로 안타까워 탄식을 한다.

북한의 농촌에서는 더욱 식생활이 곤란하여 1년을 통해 절반은 죽을 먹는 것이 보통이다.

북한의 가정은 먼저 식생활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인민의 주부들이 밥을 맛있게 또는 반찬을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치병으로 넘겨버리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방문객은 없기를 원하는 심리도 북한 여성들의 공통된 현상이다. 지방에서 흔히 고향친지들이 출장을 오면 옛날의 정(情誼)만 믿고 친구의 집을 찾아온다.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 나는 동무 집을 찾아왔소, 고향이란 참 그리운 곳이지요”하면서 이제까지 억누르고 살던 향수를 터뜨린다. 이 집 주인 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옛날 친구를 만나면 뒷일은 제쳐두고 우선 반갑기 때문에 “나도 자네를 만나면 고향 간 기분으로 얼어붙었던 정서가 풀리네, 우리 오늘 밤엔 오래간만에 옛이야기나 하고 한 잔 해보세”하고 기뻐한다. 이 두 친구의 기분은 좋으나 꿀탕먹는 것은 이 집 주부이다. 이 집 부인도 이런 남편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술은 어떻게 사오며 식량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술을 한 병 사온다면 한 달 생계에 그만큼 구멍이 뚫리는 것이며 그 영향이 생활상의 큰 타격으로 되는 것이다.

고향친구인 손님은 주부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재빨리 눈치 차려서 그는 자기 주머니에서 식량권을 주부에게 내민다. 이 집 주부는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북한 인민들의 생활도덕은 이미 굳어져서 우정도 혈연도 무자비하게 사무상의 문제로 처리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손님이 친구이건, 부모건, 형제건 간에 먼저 식량권을 주인에게 내주어야 되며 주인은 무표정하게 이것을 받아야 한다.

이런 차가운 분위기 가운데서도 우정을 되새겨 보려는 낭만파들이 아직도 북한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나 하나의 저류(底流)로서 계속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바 없애 버릴 수 없는 무언의 저항이다.

이것은 김일성 도당들이 바라는 급속한 인간개조와 혁신 그리고 잔재 청산의 발광이 얼마나 무모하며 불가능한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식생활에서의 비극은 자녀들이 발육기에 밥 먹는 량이 점점 늘는 것을 부모들은 하나의 낙으로 삼고 기뻐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식량배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많이 먹는 자식을 은근히 달갑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옛날엔 생산력이 없는 노부모를 생매장하는 고려장(高麗葬)이란 풍속이 있었는데 오늘날 밥 많이 먹는 자식이 미울 정도이니 생산력 없는 노부모를 생매장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증하겠는가?

김일성 도당은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인간 청소도 서슴치 않고 해치우는 숙청 선수들이니 앞으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노폐인(老廢人) 숙청법(肅清法)도 나오지 않을까?

북한 인민들의 가정생활에서도 또 한 가지 손님이 온다는 문제에 대한 공포가 있다. 즉 어떤 손님이든 하룻밤만 자고 가도 이웃 사람들은 그가 누구며, 어디 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왜 왔는가를 자세히 물어볼 권리를 가졌으며, 또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손님이 온다는 것은 이렇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반가워하지 않는다.

휴전 후 1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 북한인민들의 식생활은 잡곡밥과 죽의 천편일률적(千篇一律的)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날그날 생명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다행이라 생각되도록 만성이 되어 버렸다.

이무 때나 무슨 종류의 음식이든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우리들의 식생활들을 북한 인민들이 알게 된다면 공산주의 낙원이 내일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남한으로 탈출하려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쌀밥을 먹어 본 기억들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 버렸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가족들은 약리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먼저 생각나는 것이 쌀밥이다. 어느 노인이 긴 병으로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날 순간에 쌀밥 한 그릇만 먹고 죽었으면 하였다

빼아픈 이야기는 웃어넘길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 의생활

북한 괴뢰들은 1962년도 생산 계획량 중 직물생산 목표량을 2억 5,000만 미터로 책정했다. 이런 막대한 숫자가 실제 계획대로 생산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이것이 계획대로 되어 생산물이 실제로 인민들 생활에 분배되고 있다면 북한 사람들의 의복이 그렇게까지 초라하고 남루할 수 없을 것이다.

괴뢰들은 북한 인구 1인당 직물이 25미터 배급될 것이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위이고 실제로는 말할 수 없이 헐벗고 있다.

공급대상이 되는 간부들에게는 1년에 3벌씩 반모직물 옷감이 배급되고 학생들에게는 1년에 두 벌씩 기성복이 배급되나 이 옷감과 학생복을 배급할 때는 돈 염출 때문에 크게 곤란을 받게 된다.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공급대상의 옷감을 국영 수매소(收買所)에 도로 팔게 된다.

이렇게 배급된 배급 옷감도 사 입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국가 간부들이니 그 아래층의 일반 사무원과 노동자, 농민들의 옷차림은 말할 수 없이 남루한 것이다. 더구나 이 형편에 일하는 사무원들은 수시로 있는 애국 노동 때문에 그들의 의복은 더럽기 짝이 없다.

그 반면에 외국인을 접촉하는 직책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나 또는 관문점에 출입하는 기자 및 관계요원들에게는 국가에서 특별히 싸게 옷을 팔아 비교적 깨끗하게 차리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가끔 직장에서는 고위 간부들이 나서서 부하들에게 옷을 깨끗이 입으라고 주의를 준다. 그러나 부하직원들로서는 옷감을 제대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옷을 빨아 입을 세탁비누마저 제대로 배급이 되지 않아 깨끗이 입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지친 몸에 빨래하고 바느질 할 정신적 여유가 있을 리 만무하다.

현재 북한에는 참다운 가정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들이 말하는 가정이란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자는 인간 합숙소에 불과할 뿐이다.

### 유아의 특성과 주부의 노동

북한에서는 전후 모든 것이 파괴 폐허화된 조건하에서는 막대한 복구건설과 중공업의 강행, 농업의 급격한 집단화를 서둘렀기 때문에 막심한 노동력의 결핍을 당하게 되어 여성 노력을

강제적으로 동원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여성들의 대량적인 사회노동에의 진출은 가정생활의 완전 파탄과 동시에 유아의 방기에서 오는 유아 사망률의 증가 및 병적인 허약아(虛弱兒)의 기현상을 빚어내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 문제가 아니라 일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라 그들은 괴뢰도당의 선전에 속아 귀여운 어린 아이들을 탁아소에 맡기게 되었는데 탁아소에 맡긴 어린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와 시설미비로 병사하거나 허약아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층들은 부인들이 어린이 때문에 직장에 못 나간다는 구실을 막기 위하여 탁아소 제도의 국가적인 유익성을 호소하고 시설 대우 등을 크게 과장하는 한편 남편들에게 먼저 당적 행정적 압력을 가하여 ‘자기 아내 먼저 직장진출’이라는 술선수법을 보이고 이에 대한 적극성을 표시 않는 자는 낡은 봉건적 잔재에 젖은 보수주의자라는 낙인을 찍고 그들을 감시하고 압력을 가하였다.

직장에 나가게 되니 집이 비어서 절도범죄가 격증하여 가재(家財)를 도적맞은 주부들의 아우성 때문에 한해 지배 도당들은 이 도적 소탕사업에 한참 골머리를 앓았다.

북한 노동력의 대부분이 여성 노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 보낸다고 하면 북한 산업은 일시에 마비되고 만다. 북한에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여성들의 가정복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나야 되며, 반면 하늘이 주신 여성의 천직(天職), 모성에마저 김일성 도당들은 빼앗아 버렸다.

### 대통령 어머니의 봉사심

조지 워싱턴은 그가 대통령이 된 후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는 직접 일하지 말고 하인을 많이 두어서 그저 어머니는 감독만 하시지요.”

“아냐. 대통령이 나온 마을에서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해 해를 폐를 입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면목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한 수입 중에서 돈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작정이다. 만약 끝끝내 내가 나에게 일하기를 그만두라고 하면 나는 대통령의 어머니 따위는 언제라도 사직하겠다.”

이 말을 들은 워싱턴은 그 기품 높은 정신에 다시금 감동하여 백성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양케이트>

**공군장병의 용돈 해부**  
-장병들의 주머니 속을 공개한다-



<설문>  
귀관의 한달 용돈 총액과 그 내역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편집계>



1. 서언

지난 1월 공군본부를 비롯하여 각 예하단대(團隊)에 이 양케이트 500매를 배포하였는데 회수된 것이 424매로서 84.8%가 응하였다.

이 양케이트는 공군장병들이 매월 소비하는 용돈 액수를 들추어 계급 및 결혼(미혼, 기혼)별 잠비성향을 추출(抽出)함으로써 장병들의 생활경향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내핍절제의 길을 모색 제시하자는데 의도가 있다.

원래는 영외자를 중심으로 즉 영외자 4대 영내자 1의 비율로 응답을 요구했는데 막상 회수된 것은 영내사병의 3분의 1을 넘어 조금 어긋났다. 그리고 424명의 응답자 중에는 문관이 5명 있었는데 이를 무효로 돌려 막상 분석의대상이 된 것은 419매로 전배포부수의 83.8%가 되는 셈이다.

2. 분석

1. 계급별 응답율

전응답자 424명 가운데 사병이 220명(52.9%)

계급별응답율 (도표 1)

계급	人 數	百分率	계급	人 數	百分率
	(名)	(%)		(名)	(%)
이 병	8	1.9	중 위	1	0.3
일 병	20	4.7	소 위	34	8
상 병	27	6.4	중 위	46	10.8
병 장	47	11.1	대 위	59	13.9
하 사	41	9.6	소 령	40	9.4
중 사	42	9.9	중 령	17	4
상 사	35	8.3	대 령	2	0.6
합	220	51.9	합	119	47

장교가 199명(47%) 무효가 5명(1.1%)인데 이를 계급별로 분류하면 도표 1과 같다.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병, 일병, 상병, 준위, 중령, 대령은 응답자가 매우 적어서 후술할 계급별 잠지평균치에 있어 신빙성(信憑性)이 있

는 수치를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영내사병은 병장, 하사가 대부분이고, 영관급은 소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를 영내외사병별과 위영관급장교별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2)

영내사병 143명(33.7%)

영외사병 77명(18.2%)

위관급 140명(33%)

영관급 59명(14%)

**없다고 불평받고  
있을 때 아껴쓰자**

2. 잠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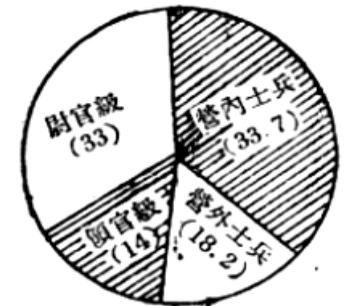
(ㄱ) 계급별 잠비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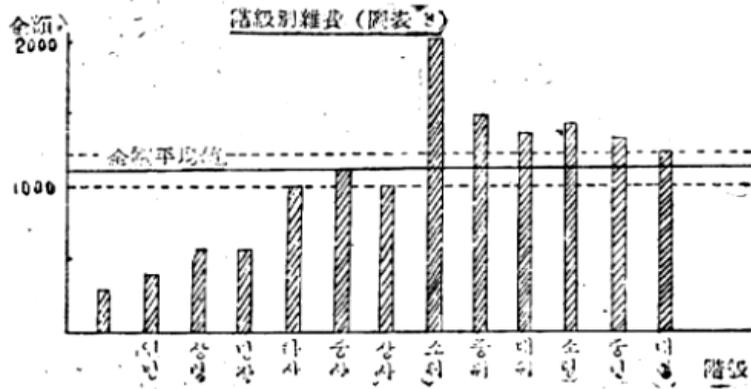
- 전체 평균잠비는 약 1,100원 -

아무리 조직적이고 기계와 같은 사람이라도 잡지세목 하나하나에 어김없는 생활을 영위하는 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글므로 자연 잠비전액도 신축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으리라 믿고 500원 내지 1,000원, 1,000원 내지 1,500원 등과 같이 대략의 수치를 정했다. 그런데 좀 무리는 있을망정 계급별로 잡지의 평균식을 구하면 도표 3과 같다.

그리고 여기서 준위나 소위급에 넣었다. 한편 평균잠비에 있어서 이병, 일병은 수가 적긴 해도 잡지가 거의 일정하나, 상병, 중령은 수도 적고 잡지도 일정치 않아 정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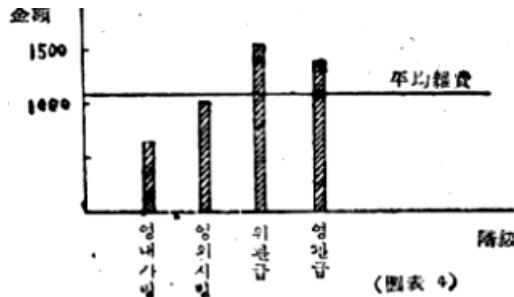
응답율비교 (도표 2)





계급별잡비 (도표 3)

액수가 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그밖에는 최소 20여명 이상이 응답한 것임으로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수치라고 생각한다. 이 계급별 잡비평균치에서 전체 평균잡비 1,100원 (1,000-1,200)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4)



(도표 4)

영내사병 600원  
 영외사병 1,000원  
 위관급 1,500원  
 영관급 1,400원  
 이 도표에서 영외사병 및 위관급장교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진 못한다. 영내사병(응답자중0은 수는 병장이 제일 많고 잡지는 하사급이 가장 많으므로 이병, 일병은 거의 무시되고 있다. 또 영관급도 소령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잡지도 영관급 전체를 나타낼 수는 없다.

(나) 결혼별 잡비 비교

용돈을 결혼(미혼, 기혼)별로 그 평균치를 구하니까

미혼자 잡비 평균치 1,200원(1,000-1,500원)

기혼자 잡비 평균치 1,200원(1,000-1,500)으로서 미혼자나 기혼자가 다 같이 1,200원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까닭은 미혼 영외자가 훨씬 많은 용돈을 쓰는 반면에 영내사병이 그 반대현상이기 때문에 결국 미혼자 잡비가 기혼자의 그것과 같이 된 것이다.

種別 金額(元)	未 婚 (名)			既 婚 (名)			計
	營內者	營外者	計	營內者	營外者	計	
300 以下	22		22	1	20	21	43
300 ~ 500	41	6	47		26	26	73
500 ~ 1000	35	11	46	1	54	55	101
1000 ~ 1500	23	19	42	3	45	48	90
1500 ~ 2000	10	13	23	1	16	17	40
2000 ~ 2500		14	14	1	18	19	33
2500 ~ 3000	3	5	8		4	4	12
3000 ~ 3500		4	4		5	5	9
3500 ~ 4000	1	5	6	1	2	3	9
4000 以上		4	4		5	5	9
計	135	81	216	8	195	203	419

잡비 분포도 (도표 5)

(ㄷ) 주거별 잡비 비교

영내자 600-700원

영외자 1,300(1,000-1,500원)

(ㄹ) 영외자중 결혼별

영외거주 미혼자 1,800원(1,500-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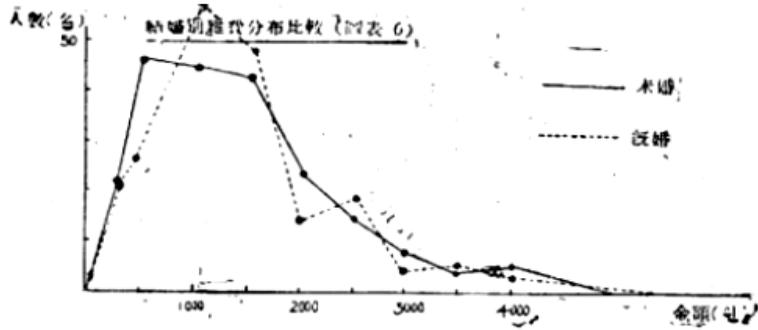
영외거주 기혼자 1,200원(1,000-1,500원)

### 3. 잡비분포도

미혼, 기혼별로 나누고 다시 영내외로 나누어 잡비액수에 따라 구분하면 도표 5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300원 이하는 수는 34명이나 되지만 대체로 300원 보다 훨씬 적게 쓴다는 전혀 잡비라고는 쓰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월평균 300원 전후라고 봄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4,000원 이상을 잡비로 써 버리는 사람은 9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의 잡비를 쓰는 사람은 대부분 난 옆에 부기한 것을 미루어 보아 난이 더 있으면 더 높은 단위까지 기입할 사람됨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미혼자는 물론 기혼자라도 경제력이 있거나 또는 자기의 특이한 취미나 전공분야에 따라 책값이나 오락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표 5로서 자세히 잡비금액에 대한 분포를 알 수 있을 것이며, 대부분의 장병들이 500-1,000원 (1,000-1,500)원의 잡비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누어 금액별로 인수분포를 만들어 비교하면 도표 6과 같다.



結婚別消費分布比較 (도표 6)

4. 잡비성향분석

십인십색이란 말과 같이 각자의 취미도 얼굴과도 같이 가지가지다. 대략 일정한 잡비를 써 버리는데도 자기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을 만큼 다양적이다. 더 자세한 세목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으나 대상자가 불과 몇 명되지 않고 도 수집후 처리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10목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에 있어 상당히 애매하게 혹은 지나치게 생각했는지 기대한 것과는 차이가 적지 않다.

첫째로 취미와 오락은 나누기 어려운 듯한 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실제로 소모하는 잡비의 구분으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능히 구분할 수 있고 또 되어야 할 줄 안다. 그리고 다음 몸치장은 남자가 무슨 사치한 몸치장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여기에는 미용실, 목욕비 등 신체외부전체를 다스리는데 요하는 일체의 잡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우선 잡비 전체의 잡비성향을 분석하여 백분율로 내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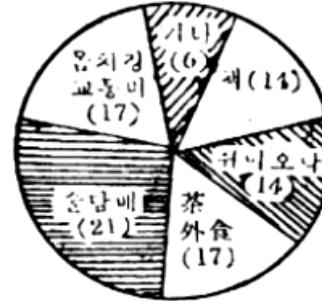
種別	책	취미	오락	의식	차	술	담배	몸치장	교통비	기타	計
%	14	6	8	9	8	13	18	7	10	6	100

잡비성향분석 (도표 7)

도표 ⑦

도표 ⑦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각처에서는 금연운동이 일어나고 있건만 담배란 기호품이 장병들에겐 없어서는 안될 만큼 애연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남자로서 호연지기를 누릴 매개체라 할 수 있는 술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것은 바쁜 군문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모두가 거의 다 책을 사 보는 아름다운 습성을 지니고

잡비성향비교 (도표 8)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기타가 비록 6%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대부분 (사병 2, 하사관 4, 위관급 1, 영관급 1)이 막연히 기타 난에 70내지 80%란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 범입과는 무엇인가 달리 더욱 아름다운 계획 아래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들이 허다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비라고 정한 이상 이 밖의 다른 용도가 무엇

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를 다시 묶어 대별해 보면 도표 8과 같다.

5. 잡비성향비교

매사가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상례인데 하물며 각개인의 특이한 취미나 불가피하게 소모되는 잡비를 어느 기준을 두어 통계적으로 그 경향을 파악하여 절제의 길과 생활 지침을 세운다는 것은 일면 우스운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막상 분석하고 보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잡비성향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나누면 도표 9와 같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잡비 중 책값을 두고 보면 기혼자보다는 미

種別	結婚別(%)		階級別(%)			
	未	既	營內士兵	營外士兵	尉官級	領官級
책	13	12	13	8	15	11
취미	8	5	8	5	6	5
오락	10	7	12	7	9	5
外食	11	8	13	8	8	11
茶	7	8	6	6	10	12
술	13	12	14	11	12	13
담배	17	20	13	21	16	19
몸치장	6	9	5	13	7	6
교통비	10	12	11	12	11	12
기타	5	7	5	9	6	6

잡비성향분석 (도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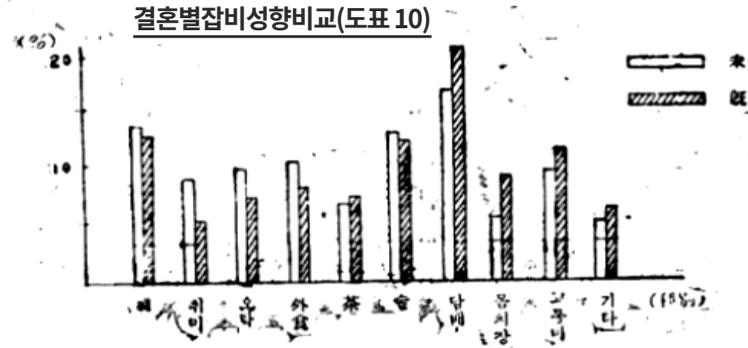
혼자가 많이 차지하고 계급별로 보면 위관급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미혼자가 책을 많이 사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음은 영내사병일 것이고, 그 다음은 대부분 경제력 즉 생활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영관급장교이며, 영외사병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 으로 별로 여유

가 없는 모양이다.

다음 취미나 오락을 두고 보아도 결혼이나 계급별로 어떻게 여가를 이용하는가의 생활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담배는 영내자보다 영외자, 미혼자 보다는 기혼자가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자세히 결혼별과 계급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기로 하자

(ㄱ) 결혼별잡비성향비교

미혼자와 기혼자의 잡비성향을 비교해 보면 도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책, 취미, 오락, 외식, 술은 미혼자가 잡비를 더 많이 차지하지만 차, 담배, 몸치장, 교통비 등은 기혼자가 더 높게 되어 있으므로 미혼자들은 생활에 좀 더 자유로운 여유 즉 한가한 시간이 많고 어디까지나 각개인의 취미에 맞추어 행동이 정해지는 듯 생활에 있어 어느 정도 가변적이고 금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별다른 책임의식(사생활에 있어서의)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기혼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가족, 가정을 먼저 돌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최대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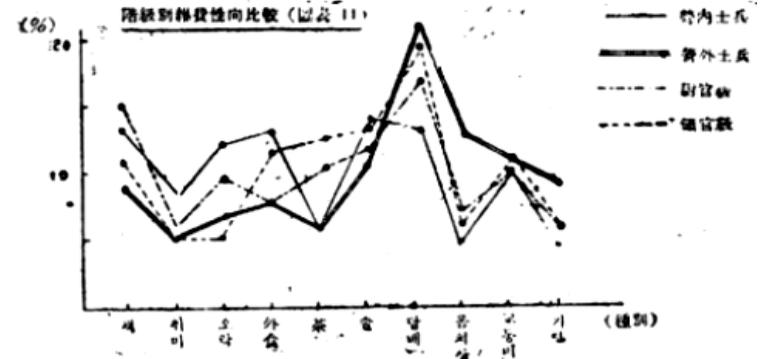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자는 자연 실리적인 면에 잡비를 소모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미혼자보다는 접촉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외식보다는 직접 자기 집을 이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계급별 잡비성향 비교

계급별 잡비성향은 우선 영내, 영외 주거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또 계급, 즉 봉급에 따라 자연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계급별로 하나하나 그 잡비 용도 경향을 파악하면 좋겠으나 응답율이 일정치 못하고 응답자수도 적어 각 계급별로는 신빙성이 결여된 허상이 나타날 듯해서 상당한 무리를 지닌 채, 즉 다시 말하면 영내사병은 병장 및 하사가 대표하고 있고 영관급은 소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내사병, 영외사병, 위관급, 영관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였다.

도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내사병과 영외사병과의 잡비 용도의 비중은 너무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영외사병



계급별잡비성향비교(도표 11)

들은 술, 담배가 차지하는 잡비나 몸치장비는 많으나 책이나 취미오락은 비중이 약하다. 그리고 담배는 차이가 크나 술 및 교통비는 장병 전체가 일정하게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도표에서 대체로 이상적인 잡비의 평균치를 구한다면 위관급과 영내사병의 잡비를 합쳐서 나온 평균치를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대부분 미혼자이므로 실 생활면에서는 어떠한지 각자가 연구할 문제이다.

3. 맺는말

이상의 앙케이트 분석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장병들의 용돈은 위관급이 가장 많이 쓰고 그중에도 소위들이 제일 높으며 다음이 영관급 영외사병, 영내자이다. 그리고 이를 단순히 영내외 거주별로 나누어 보면 영외자가 영내사병보다 6백원내지 7백원 더 많은 1,300-1,400원을 잡비로 쓴다. 영외자중에도 미혼자가 1,800원 정도로 가장 많은 잡비를 쓰고 있다.

또한 장병 각자가 다 애주, 애연가는 아닐텐데도 술, 담배로 소모되는 잡비가 가장 많다는 것은 과연 좋은 현상일까? 가급적이며 책을 읽거나 고상한 취미나 오락으로 여가를 선용했으면 한다. 곧 이것이 절제하는 길이며, 올바른 생활지침이 될 줄 믿는다.

잡비의 소모성향에 있어서까지 각자의 인격, 개성 내지는 주둔지의 지방색을 무시하고 언급할 필요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 잡비로서 쓰는 금액은 자기 봉급의 삼분의 1에서 8분의 1인데, 이상적인 것은 5분의 1이 적당하다(기혼자중심).

그리고 미혼자는 3분의 1도 용도에 따라 좋을 듯하다. 결국 분모가 크면 클수록 건전한 생활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무작정 쓰지 않기만 해서선 결코 멋진 생활을 살 수 없을 것이다.



## 화술(話術)

전영우(全英雨)

<동아방송아나실장(室長)>

화술이 능란해야 할 직업이 많다. 아나운서가 그렇고 성우(聲優)가 그렇고 연극영화배우가 그러며 교사직이 그렇다. 또 군지휘관도 부하 통솔능력 가운데 이 화술을 뺄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비단 이런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능란한 화술을 가져야 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인 테두리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에게 의사소통의 능력은 그것이 효율적(效率的)이면 효율적일수록 그 이외 사회적 진출이 빠를 것이라는 것은 물론이다.

더구나 민주주의의 사회에서는 주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고 국민개 개인은 여론형성의 인자가 되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할 때 침묵이 금이고 웅변(雄辯)이 은이지만 말해야 할 것을 말할 때도 이 격언이 충실하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활동적인 인간이면 누구라도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수단이 언어표현능력이라고 단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심정을 억제할 길이 없다.

사적인 사석에서는 말을 잘 해도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는 의사표현에 주저 주저하는 경향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화술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일까?

그러면 말을 잘 하는 이언(俚諺)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까?

하기는 우리나라에 말을 말하는 이언(俚諺)은 기실 많다.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에서부터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또 ‘말이 많으면 실언이 많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문 바른 집은 써도 입 바른 집은 못 쓴다,’ ‘입 찬 소리는 무덤 앞에 가 하라,’ ‘입이 광주리만 하여도 말을 못하리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병어리 냉가슴 앓는다,’ ‘열 놈이 백 말을 해도 들을이 짐작이니,’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탄하지 말라,’ ‘늪은이도 세 살 먹은 아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

우리가 늘 하고 또 들어오는 얘기들이지만 모두 말에 관한 이언들이다.

말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언, 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언, 노이로제 감이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게 해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경우와 경우에 따라서 이언의 적용이 모두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사람이 살아가는 자체가 어렵고 힘들지만 말하라는 입을 가지고도 어떤 때는 말을 못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해야 되고 말할 때에는 요모조모 잘 따져서 잘 해야 되고 말하는 것 하나만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일 테고 참 딱한 노릇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난처한 일이다.

이에 비하면 화술은 이 이후의 얘기가 된다.

이왕 말하면 말은 잘 해야 할 노릇이다. 그렇지만 말 잘 하는 이들을 걸핏하면 약장수정도로 낮추면서 자위(自慰)하는 사람도 본다.

그러나 화제가 모자라는 이들 보다는 화술이 어느 정도 트인 사람이 호감이 가고 시원하다고까지 한다.

얘기하려면 속 시원히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속 시원하다.

화술이란 말은 연극평에서도 곧잘 나온다.

어는 배우는 화술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투로 말이다.

연극이나 영화화를 설치(設置)한 대학에서는 의례껏 이 ‘화술’이라는 것이 한 강좌 들어간다.

그렇지만 어떤지 대학 강좌명 치고 탐탁치 않는 게 바로 이 화술이다.

술(術)하면 어딘지 모르게 주술(呪術), 마술(魔術)의 술(術) 같고 희(希)□의 퀘번가 소피스트 생각이 연상된다.

그렇게 탐탁치 않으면서도 이 화술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언제부터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지만 좌우간 화술이란 말이 요즘에 와서는 더 많이 프레시하게 쓰이고 있다.

이웃나라에서는 화술이라는 말은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이 덕천만성(德川蔓馨) 라고 하고 있다.

먼저 말한 것처럼 주술 마술적인 느낌에다가 일본 사람이 또 화술이라고 처음 붙였더니 도시 우리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좀 망설이게 된다.

그건 그렇고 화술하면 퍼뜩 그 뜻이 떠오르기에 화술이란 말을 쓰나 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만일 내게 대해서 말한다면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이것은 패트릭 헨리가 그의 연설 중에서 한 말로 지금도 많이 인용되는 명구이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경제공황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직무를 계속하면서 ‘공포를 두려워 하는 것 이외에 두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미국인에게 말했던 것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스피치사(史)에 남은 명구로 화술에 큰 에폭을 그은 말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화(逸話)도 역(亦) 화술을 향상함에 큰 도움이 있겠다.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한 번 미국해군의 규모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豫定)으로 있던 한 사람의 방문객을 만난 일이 있었다. 서로 인사를 교환한 뒤에 그 방문객이 말했다.

“저는 해군의 일로 말하러 왔습니다.”

거기서 루즈벨트는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0분간 말을 계속했다.

다만 방문객은 이따금씩 말할 뿐이었다.

인터뷰가 끝난 다음 그 방문객은 곧 돌아갔다.

루즈벨트는 그의 사서(私書)를 향해 말하기를 “내 저 사람처럼 훌륭한 능변(能辯)은 처음 만났네 그러”라고 했다 한다.

다만 대통령의 얘기를 주의 깊게 경청(傾聽)한 것뿐인데 능변으로 인정을 받았다.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꼭 제 입으로 제 생각과 느낌을 직접 얘기한다는 것이 제 1차적 의의를 갖지만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또 말을 잘 한다는 제2차적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이에서 우리는 터득(擡得)할 수 있다.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의상달(下意上達)은 커뮤니케이션이고 이의 효과적 수행은 능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 어느 날 무제(無題)의 시(詩)

수 필

김 송 희(金松姬) <여류(女流)시인>

어둠이 깔린 거리를 지나다가 문득 길가 라디오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흑인 가수의 애가(哀歌)를 듣게 되면 늘 외면하려 했던 고독은 짜릿한 전율로 울게 합니다.

이럴 땐 다정한 손길이라도 그리워진다면 소녀의 취미가 뭘까요? 아무래도 당신의 무관심은 우울합니다. 어른들은(?) 다 그러는 것인지—저는 점점 몰라만 갑니다. 몰라만 가는 것이 자연스런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저에겐 차라리 유치하지만 소녀의 취미가 좋습니다.

그렇다든가, 쓸쓸하다든가, 온 하루를 그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든가…… 그런 소녀적 취미를 할머니란 명칭으로 불리어져도 버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비웃음도 아랑곳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세계에서 늘 살아 갈 것입니다.

저의 가장 깊은 뜨거운 진실(眞實),—그 안에서 가장 귀엽고 착한 아름다운 소녀로 언제까지나 있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의 고집에 비해 너무 빨리 쓰러져 버린 것—그건 당신으로 하여금 이미 <배리(背理)의 꽃>을 피어 오게 한 무서운 <검은 오산(誤算)>이었습니다. 당신을 비꼬아 주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귀중하다는 게 <시시한 것> <유치한 것>으로 목살되어 버리니 이런데서 저는 쓸쓸함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쓸쓸함은 불행(不幸)의 주변까지 왔다가 갑니다.

아직 제가 꿈을 꾸고 있나요?

현실과는 너무 먼 꿈을 꾸고 있나요?

지금 말입니다.

양상한 가로수 사이사이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빛, 빛줄기에서 저는 냉랭한 누군가를 닮은 눈빛을 느끼며 우울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현(鉉)이의 팔을 잡으며 르네상스에 가서 음악이나 듣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그 고집스런 가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정이 때론 그 무엇보다도 귀중할 수 있다는 건 지금입니다.

무거운 홀안

줄곧 <죽고 싶다는 기분>을 현(鉉)이 이해해 달라고 했을 때 전 차라리 웃어 버리고 싶음을 참았습니다. 저도 꼭 그런 기분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토라진 웃음,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가슴 안으로 적시게 하는가를 이미 알아 버렸다면 저는 현(鉉)이의 말에 웃음을 참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헌데 이렇게 미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약간 자학(自虐)에 취해 버리는 게 차라리 저와 현(鉉)이와의 우정인 것입니다.

<할머니도, 엄마도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가버린 세계가 자꾸 그림다.>

엄마를 일찍 여윈 현(鉉)이의 짜증이었습니다만, 그를 위안해 줄 수 없는 게 여간 슬펐습니다.

첼로의 음률은 마냥 설움만을 타는 여인(?)의 가슴에 서서히 울음으로 번져 갔습니다.

<엄마 있는 고아>의 설움을 아십니까?

현(鉉)이의 <없는 고아>에 비해 <있는 고아>의 저의 외로움을 아시겠습니까? 겨울날 별빛은 유난스레 차게 보입니다. 이 밤 당신만을 위한 시를 쓸까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한 구절 한 구절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 때문에 피로운 눈을 들면,

맨드라미와 분꽃이 물에 젖듯

상심코여.

석류(石榴)알같이 반지럽고 윤이나는

이야기를 찾고파 하루를 서성거리면

그것은 그만치 뜨겁고 사랑스런

물보래.

정성이 지극함 사랑같은 눈이든가,

멀리서 헐벗고 돌아와 웃는다.

혼자 서면, 싸워가는 사람의

돌아 서면 울 것 같은 뜻 모를

미소 앞에

나도 괴로워하는 이목(裡木)이다.

다시 너를 위해서

생각을 모두어 싸우고 또 싸우면,

오—

이제사 가장 왕성해 버린

파도, 인어.

인형(人形)이 웃는다.

그 누구를 닮은 눈이, 입이

결코, 난 절망하지 않는다.

쓰러져도.

아직은 믿어도 좋은 나의 창가의

소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것인가.

눈물 가득 고인 다순 눈으로>

가장 쓸쓸하여 버렸을 때

가다가 패주(敗走)하여 인생의 노변(路邊)에  
 쓰러져 버렸을 때  
 그때도 너는 나의 영원한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아니면  
 몸과 마음이 낙엽과 같이  
 떨어지는 길목에 서 있을 때  
 지내치지 않고 <오늘의 영원>을  
 속삭여 주겠느냐.  
 밖으로 나를 장식하고  
 안으로 훈훈한 나의 선량한 그리움이 되어 주겠느냐, 너는—  
 나, 시(詩)를 쓰는 시간과  
 나, 시(詩)를 쓰는 정력의  
 태반을 바치어  
 내 곁에서 다수운 눈짓을 보내는  
 너를 위하여—  
 고독 안에서 몸을 뒤셀 땐 밤의 시간은 무한히 깁니다.  
 이 긴 긴 시간을 뭘 생각하며 보내야 합니까.  
 당신을 위한 「무제(無題)의 시(詩)」를 써야 된다는 내 마음은 차라리 위안이  
 되겠습니다. 내내 안녕하—

### 인정의 양로원(養老院)

스웨덴의 이프게니 공주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거리를 달리고 있을 때 문득 길가를 힘없이 걷고 있는 늙은 거지가 눈에 띄었다. 자세히 보니까 불쌍하게도 양쪽 눈이 다 보이지 않았던지 뻘뻘 마른 강아지의 목에 맨 꼬나풀을 소중하게 붙잡고 이끌리듯이 걷고 있었다. 그것을 본 공주는 동정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은전을 마차 창문으로 던져 주었다. 그리고 곧 궁전으로 돌아가자 급히 시녀를 불러 비장(秘藏)의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값비싼 보석들을 모조리 팔아 버리게 하였다. 이것을 본 시녀는 크게 놀라 “어머니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보석을 판 돈으로 양로원을 세우려구요.” “그렇지만 국왕폐하에게 말씀드리면 당장이라도 지으실 터인데 훌륭한 보석을 ……” 그러나 공주는 이에 대해서 그저 미소만 띠울 뿐이었다. 이윽고 공주의 온정에 의하여 훌륭한 양로원이 스톡홀름의 한 구석에 세워졌다. 그 이듬해 어느 봄날 이 새로운 양로원을 공주가 방문했을 때 늙은 병인들이 침대에 누워서 감격한 나머지 흐느껴 우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봐, 내 보석이 이런 데 있잖아?” 하고 공주는 시녀를 돌아다보면서 미소 짓는 것이었다.



## 취미산담(趣味散談)

수 필

김 영 실(金永實)  
 <한국일보 기자>

갓가지 예쁜 꽃들이 다발로 묶여 여학교 근처로 팔려 나올 때면 언제나, 버릇처럼 한 다발 사들고 와 꽃잎을 푹 푹 따서 책갈피에 물려 두고 하던 친구가 있었다.

사내애들 같이 털털하고 시원스런 이 친구의 이런 줌스런(?) 취미를 우리들은 곧잘 ‘너답지 않다’고 놀려 주던 일이 생각난다.

그런데 이력저력 바뀌는 환경에 변해가며 살다 보니 ‘너답지 않다’는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 데에도 일종의 상대성(相對性)의 룰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재하여 온 학생조사서(學生調查書), 사원조사서(社員調查書) 등의 취미 란을 엿보아서도 알 수 있다.

내가 글자를 처음 읽을 줄 알게 되면서부터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책을 읽는다는 것에 온통 재미를 붙였었다. 만화에서 동화, 나중엔 엄마가 읽던 소설까지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읽는 데에만 정신을 팔았다. 나중엔 무슨 만화책을 몇 장 넘기면 무슨 말이 나오는 것까지, 심지어는 거꾸로도 줄 줄 읽 지경으로 읽은 걸 또 읽고 읽곤 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고 보니까 그 광적인 취미에 배반을 하기 시작했다. 책이란 교과서만 으로서도 신물이 날 정도로 되었고 이젠 그저 새로 사온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에 정신이 없다. 오늘은 누구네, 내일은 누구네 집…이렇게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둑해야 집엘 들어왔고, 이렇게 이때엔 취미 없이 보내는 것을 취미삼아(?) 날을 보냈다. 그래 그 당시 학생조사서의 취미란 엔 한참을 망설이다 제일 소녀답고 의젓하고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써 넣었다. (음악 감상, 산책, 사색……뭐 이런 것들 중의 하나였겠지.)

이력저력 고등학교엘 올라오고 여학생 티가 잡혀가고 있을 즈음엔 집에 쌓여 있던 레코드에 손질도 바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애들로부터 정말 ‘너답지 않다’는 말들을 들어가며 여름엔 수영을, 겨울엔 스케이트를 얼굴이 뻘질뻘질 까맣게 타도록 다녔다. 우리반에서도 양전(?)하기로, 새침때기로 손꼽히던 내가 남학생들이 판을 치는 수영, 스케이트를 별 친구도 없이 혼자 즐겼으니 그 ‘너답지 않다’는 말도 들어 마땅하다.

이렇게 다취미(多趣味)로 분주하게 돌던 그 즈음에 나에게 정말로 취미갈게도 생각되지 않던 것들은 수(繡)놓기, 뭐 모으는 것, 그림 그리기 등 지극히 여성 취미에 속하는 항목들이었다. 도시 그 꼬무락대고 뭐 예쁘게 오려 붙이고 이런 것이 딱 질색이었다. 그저 쨍쨍 울리는 음악을 듣는다는지(볼륨을 낮춰 조그맣게 들리는 것은 바늘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답답하다),

탕탕 싸대는 서부영화에서 리차드 워드마크의 팬이 되어 보는 것, 아니면 산엘 기어오르려고 한다는 등등 주로 동적(動的)인 것이 좋았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맴을 돌 정도밖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이라고 나다니면서 내 한가한 시간이 없어지고 부터는 그 요란스럽던 취미가 180도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다.

예쁘게 도안을 해서 어플리케 수(繡)도 조용히 앉아 놓고 싶고, 이것저것 스크랩해 두고 싶은 것도 많다.

그리고 보니 정말 ‘나다운 짓(취미)’이란 어떤 것인지 아리송하다.

어쨌든 이것저것 취미삼아 해 본 것도 많고 앞으로 해 보고 싶은 것도 많다.

앞으로는 ‘나 다운’ 것이든 또는 그 반대이든 간에 이 다양한 취미군들을 총동원시켜서 좀 더 바쁘게, 좀 더 변화 있게 ‘나 다운’생활을 창조해 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취미생활의 즐거움도 함께, 그 보람도 함께 누리야겠다는 욕심이다.

우선 내일부터는 동전, 지폐, 수표 등 가치기준이 확실한 ‘화폐 모으기’부터…

## 승패(勝敗)의 조건(條件)



수 필

김 병 로(金秉老)  
〈공군소령(空軍少領)〉

언제부터인가 점심때마다 K상사와 장기를 두는 버릇이 생겼다.

첫 대국(對局)이 있기 전에는 K상사의 실력이 나와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 한번 대결을 해 보니 상상과는 달리, 나와 비등한 실력임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둘이 자주 대결하게 된 이유의 대부분이었다.

어떤 승부사(勝負事)이건, 서로 비슷치 못한 자들의 대결은 흥미가 안 붙는다. 결과가 보나 마나이었기 때문이다. 힘의 밸런스가 잡힐 적에 관중이나 당사자 모두가 흥밋거리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 대결에 임하게 되는 법이다.

K상사와 나의 경우는 힘의 균형이 잡혀있다. 서로가 이 상대라면 꼭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 이 불퇴전(不退轉)의 자신이 둘에게 자꾸만 전의를 돌리었다.

그래서 봄철에 싸우는 닭들처럼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항복을 모르는 대전(對戰)을 계속하고 있다.

둘의 대전(對戰)은 자못 심각하면서 진지(眞摯)하다. 비등한 실력이 빚어 주는 팽팽하니 틈 없는 전국(戰局)을 사이에 놓고, 대좌해서, 실수할세라 무거운 표정들이다. 어쩌다가 한 쪽 용마(用馬)할 적엔 손끝마저 파르르 떠다. 아차!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번개처럼 들이닥칠 상대방의 속공(速攻)을 두려워하는 나머지다.

이런 대국에도 끝내 틈은 생기고야 만다. 실수도 있지만, 지켜움에서 적당히 용마할 경우에 생기는 수가 더 많다. 틈이 생기면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고든다. 아차, 실수로구나 생각했을 적엔

미 때가 늦다. 수세에서 쪼찔매는 한 쪽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대는 기회를 놓칠세라, 있는 재주 다 부리며, 공격을 계속한다. 허둥지둥 막다 보니 말은 거의 다 떨어지고 간신히 궁 언저리의 몇 쪽만 남아난다. 대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음이 분명하다. 속에서 은근히 부아가 치밀고 이마엔 비지땀이 비어져 나 오지만 죽기보다 싫은 항복 선언을 않을 수가 없다.

“졌다! 졌어, 에이 그것 참, 다 이긴 장기를 공연히 차 하날 공짜로 쥐 놓고 서…….”

차 하나를 선심 쓰느라 공짜로 쫓을 턱은 없는데도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늘어놓으며 말을 다시 고를 때의 핑계를 늘어놓으며 말을 다시 고를 때의 표정을 자기 스스로가 본다면 자기라는 인간에게 큰 혐오마저 느끼리라.

승패는 비등한 실력의 대결에서, 약간의 소홀함, 단 한 번의 적당한 행동에서 가름된다. 우리는 군인이다. 매일같이 싸움에 종사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루하루 승패를 가름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가 곧 장기에서의 용마(用馬)에 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소홀하거나 적당히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고된 하루의 근무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누웠을 적에 고요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다 질문해 보라. 오늘 하루를 이겼는가, 어떤가를……. 양심은 가차 없이 대답하리라. 다음은 승패의 원인을 물으라. 또렷이 대답하리라. 이겼다면 어느 대목에서 이슬한 危機를 넘고 잘 참았다는 이유를, 그리고 졌다면 어느 순간 목적도 없이 소홀(疎忽), 그리고 적당히 일을 처리했다는 이유를 말이다.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이 일을 적당히 처리하려는 마음의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려고 아득바득 애를 쓴다. 끝내 잘 참다가도 마지막에 한 가지—이 한 가지를 적당히 해 치운다. 별안간 독에 구멍이 뚫렸다. 간헐던 물이 무섭게 밀려다치며 쏟아져 나가는 튼바구니에, 구멍은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끝장은 아찔하게 현기증을 느낄 정도의 참상을 빚어내게 된다.

우리는 지금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명을 업고 밤낮으로 공산당과 대결하고 있다. 양보는 곧 죽음이요, 승리만이 나와 내 동족을 구하는 외줄기의 길, 바퀴 말해서 퇴각(退却)이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공산당과 대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당히는 있을 수가 없다. 귀찮다고, 지겹다고 적당히 용마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오늘도 장기를 뒀다. 한번 이기고 한번은 졌다. 이긴 원인은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니,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용마했기 때문이고, 진 것은 한번 이긴 승리감에서 되는데로 용마했기 때문이라 양심이 잘라 말한다.

날마다 되풀이하는 대국(對局)에서, 뻔히 패인을 알면서도 다시금 그 전철을 밟는 아둔한 인간임을 개탄하면서, 대공전(對共戰)에선, 붓 하나 놀리는데도, 이래선 안 된다고 다짐해 본다.



## 산(山)

수 필

이 상 우(李相禹)  
〈공군중위(空軍中尉)〉

나는 산과 연애(戀愛)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산이 날 좋아하든, 안하든, 나는 산이 좋다. 산과의 대화라면, 비오는 곳엔 날에도 좋고, 눈 오는 포근한 날에도 좋다. 그리고 태양의 광폭(狂暴)한 시선 앞에서나 푸른 하늘의 투명한 분위기(霧圍氣)속에서도 나는 산과 떼땃히 포옹을 할 수가 있다. 마치 구원(久遠)의 여성과의 대화와도 같이, 나는 산에 대해선 무조건 나를 털어놓고 싶으니 나는 산과 연애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인간문화는 인간의 대자연에의 도전이라고 한다. 대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지닌 산에 도전하여 그를 정복함으로써 인간문화 창조에 공헌하고자 나는 산을 찾는 것이 아니다.

산은 험준(險峻)한 것, 위대한 것, 그 위력 앞엔 인간의 능력의 한계는 쉽게 발견되며, 압도(壓倒)되는 수가 많다. 과감하게 이에 항거하여 젊은 용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맹랑한 투쟁의식을 갖고 산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산과는 결코 싸우고 싶지 않다.

산은 바다와 같이 인간의 족적(足跡)이 가장 덜 미친 미지의 세계. 그칠 줄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야릇한 동경(憧憬)이라는 인간의 본능, Ulysses같은 정열과 호기심으로 미지의 세계를 차례로 헤쳐 가며, 자기 경험의 영역에 새로운 수집품목을 늘이기 위해 산으로 발을 들여놓는다는 생각도 없다.

또한 산은 인간문명의 세계와 등진 외진 곳, 인간문명의 테두리 속에서 자기에게 덮여 썩워지는 인간사회가 주는 압박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뇌에서 잠시 자기를 해방코자 도피지(逃避地)로 산을 택한다는 그런 처량한 생각을 품고 산을 찾는 것은 이젠 안 한다. 실연과 실의의 쓰라린 가슴을 산속의 정적(靜寂)에서 씻어보려던 생각은 벌써 어릴 적 옛일.

사바세계(沙婆世界)는 번거롭고 먼지 많은 곳. 산속의 정(淨)한 분위기 속에서 흩어진 머리를 가다듬어 사색의 실마리를 찾고, 정돈하려는 환경선택(環境選擇)의 뜻으로 산의 고요를 찾는 것도 결코 아니다.

산.  
산에는 하늘도 있고, 물이 있고,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다. 바람이 있고 구름의 파도가 있고, GAS, 비가 있고, 그리고 눈이 쌓인다. 그리고 산엔 맑이 있고 별이 있고……또, 이름모를 꽃이 있고 산새가 있다. 초생달 빛김 검푸른 하늘을 등진 능선을 쳐다볼 수 있고, 아스랑게 펼쳐진 야지(野地)의 폭넓은 경계(景概)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운해(雲海)의 절경을 굽어볼 수 있고 폭포가 쏟아 내는 시원한 무지개, 깊이를 모르는 맑은 담(潭), 소(沼)를 접할 수 있다. 지척

모를 구름, GAS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신비스러운 행군이 있고, 퍼붓는 비속에서 담배 한 대 피워 무는 말 못할 운치가 있다. 모닥불 가에서 무한한 암흑의 공간 속에 묻혀보는 고요한 즐거움이 있고, 눈물 나게 투명한 푸른 공기와 순백의 백령(白嶺)과의 조화(調和)가 있다. 가물거리는 LANTERN 불빛 아래 경사진 천막 천장을 쳐다보며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의 쌓임을 느껴보는 역사이전의 태고의 정적이 있다. 체중 전부를 모은 손가락 끝에 닿는 바위의 감촉이 있고, 직립암벽(直立岩壁)에 직각으로 서서 뒤로 내려다보는 그 벽찬 기쁨이 있다. 온 힘과 정력(精力)을 손과 발끝에 모두 쏟고 한발 한발 옮겨 디더 몇 시간 만에 올라왔은 바위정상에서 냉수 한 모금 마시고 먼 지평선을 바라보는 흡족한 만족감, 그리고 발가락 끝까지 맺힌 피로 끝에 두 발을 짚 뻗으면서 느끼는 아픈 듯한 쾌감을 음미하면서 아스랑게 보이는 수평선과 주고받는 묵언(默言)의 대화…….

산(山).

그래서 나는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나는 산을 찾는다.

산에는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별이 있고, 시가 있다. 그리고 구름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직접 주고받을 무한의 밀어(密語)가 있다.

그래서 나는 산에 간다.(63·10)

### 대통령의 진실성(眞實性)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메리 볼은 이 세계적 영웅을 낳은 어울리는 현모였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후 처음으로 고향인 마운트 버넌으로 갔을 때였다. 그 때에 보통사람 같으면 주택도 깨끗이 하고 대향연을 베풀어 환영할 것이지만 어머니인 메리는 평소와 같은 검소한 옷차림으로 문앞 울타리까지 마중을 나와 반가워하며

“조지 정말 잘 왔다. 나는 너에게 주려고 지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고 있던 참이란다.” 라고 말하고 빵가루 투성이의 손을 닦으며 분주하게 다시 부엌 쪽으로 가 버렸다. 워싱턴을 따라온 사람들은 이것이 대통령 각하의 모친인가 하고 더없이 기쁜 듯이 일동을 돌아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자 만드는 솜씨가 좋았지요. 자, 사양 말고 안에 들어가 같이 잡수어 주시오.”

## 익명(匿名)

The Secret Name



임 어 당(林語堂) 저(著)  
하 정 옥(河正玉) 역(譯)  
<제 7 회>

### 제4장 연속(連續)되는 숙청(肅清)

만약 어떤 사람을 꼭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가 무슨 죄악인들 꺼리겠는가?

— 중국의 옛 속담(B·C 6세기)

자기의 희생물이 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타도할 준비를 갖추어 보기 좋게 꾸러뜨리고서 잠자리에 든다는 것,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달콤한 일은 없을 것이다.

— 스탈린

(1923년 여름, 카메네프와 드레르진스키에게 한 간담(懇談)중에 나오는 말)

내가 지금까지 읽은 정치풍자(政治諷刺)중에 가장 불만했던 것은 스탈린이, ‘소련공산당사(축약본)’중에서 한 자기풍자였다. 후르시초프의 말에 의하면 이 원고(原稿)는 스탈린이 손수 수정(修正) 편집(編輯)하였다고 한다. 이 역사에서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유명한 재판사건들에 관해 많은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는 트로츠키파의 음모자들에 의한 키로프의 살해 및 중앙위원회 회원들의 모살계획등이 다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말한 살인의 실질적인 주모자가 스탈린이라면 실상 살인자 자신이 자기를 비난하는 셈이 된다고 하겠다. 후르시초프는 <새 지도자>라는 연설 중에서 키로프를 정말 죽인 사람은 카메네프나 지노비에프 같은 트로츠키파가 아니라 바로 스탈린이었으며, 또한 이 사건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살해되었는데 이들은 키로프 모살의 이면에

‘스탈린이 있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살된 것이었다고만 했다. 체포된 소위 죄인들이 자백한 그들의 죄상(罪相)은 순전히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혹형(酷刑)에 못 이겨 시키는 대로 대준 날조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련공산당사」는 이루어 졌으며, 이 책 속에서 스탈린은 자기의 살인자로서의 자화상을 그린 것이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이 수정해 만든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순점을 지적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백만부까지 찍어서 퍼뜨려 놓은 이 「소련공산당사」 축약본을 후르시초프로써도 어떻게 다 없애버릴 길이 없으며, 더욱 대소 백과사전에 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때문에 책을 태워 버린다는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먼저 스탈린이라는 이 중심인물에 관해서 자세한 관찰을 해 보겠다. 원래 러시아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깊이와 크기가 있다. 이처럼 그들의 민족적 우수성은 기왕에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무용가, 작곡가 그리고 소설가 등을 낸 바 있다. 레닌도 그리고 스탈린도 역시 이 위대한 거물이 라는 면에서는 손을 꼽을 정도의 인물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그들의 위대함은 잔인하다는 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골리나 도스토옌스키에게서는 레닌이나 스탈린에게서와 같은 성질의 것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다. 스탈린은 도살부(屠殺夫)의 외모와 폭군의 심지를 가지고 있으며, 소련에 일대 제국(帝國)을 이룩하고 후진국들을 공업사회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그도 역시 다른 모든 폭군들과 마찬가지로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감독자(監督者)였다. 가족장화를 신고 손에는 채찍을 들고서 노예 노동자들 사이를 설새없이 오가며 오직 생산의 촉진만을 위해 노동자들을 못 살게 달달 볶는 것이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생산의 촉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는 이념이나 사상을 떨치하는 현실주의자였다. 그는 마르크스의 뒤를 따른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이용한 사람이다. 그만큼 그는 비범하고 냉혹하며 끝 없이 많은 현실적인 피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냉혹하고 간사스러우며 의심이 많고 전제(專裁)적 독존적(獨尊的)인 성격은 말하자면 그를 하나의 직업혁명가로서 또 고전적인 관료로서 국가와 당의 모든 기구(機構)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제 멋대로 농락(弄絡)하고 조종(操縱)하게 했다.

스탈린은 마르크스도 좋아하고 또 레닌도 좋아했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좋아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그는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의 이론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알지 못하고 단지 그들의 주의 주장이 음성적(陰性的)으로 풍겨주는 그 공기가 그의 비위에 맞았을 따름이었다.

그는 <파시스트와 합작>했다는 죄목으로 그의 반대파들을 처형한 이듬해에 바로 그 자신이 위의 파시스트와 합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가 행한 이 모순된 행위를 잘못된 일이라고는 추호도 생각지 않는 강심장의 인간이기도 하다. 2차대전 초기에 그는 전쟁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식량과 석유를 히틀러에게 공급해 주었고, 또한 나치 군대를 원조하여 그들 나치군대가 프랑스를 위시하여 벨기에,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을 쉽사리 점령하도록 해주었다. 하기가 그 당시 히틀러는 스탈린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하여튼 스탈린은 한동안 좀 미심쩍게

생각하면서도 1941년 3월에는 히틀러 군에게 전보다 두 배나 되는 군수물자(軍需物資)를 공급해 주었다. 그러자 히틀러는 이제 러시아를 공격, 앞으로, 앞으로 진격해 왔다. 그제서야 스탈린은 비로소 자기가 속은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허둥졌다. 그는 대독전쟁 중 처음 너달 동안에 2백만 명 이상의 군대를 잃었고, 다음 8개월 동안에는 3백만 명 이상의 군대를 상실했던 것이다. 스탈린은 하는 수 없이 영, 미 양국에 구원을 간청했다. 무자비한 히틀러의 군대 앞에서 요행히 그는 러시아 국민의 애국심의 힘을 입어 파멸만은 모면했다.

또한 동부에서 그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이틀 후 대일본전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이 무렵 그는 여러 회담 중에서 제조약(諸條約)에 터무니없이 서명함으로써 자유진영의 여러 나라를 속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알타회담에서 그는 폴란드의 자유선거를 약속했고, 포츠담 회담에서는 소련의 점령 하에 있는 동구 제국 내에서의 자유선거와 공민권 및 집회언론의 자유를 승낙하기로 약속했었다. 처칠은 이를 믿었다.

루즈벨트와 트루먼도 역시 이를 믿었다. 하지만 짧은 권연(卷煙)을 피우던 루즈벨트와 시가를 피우던 처칠은 파이프를 빨던 스탈린의 마음속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스탈린에게 완전히 속고 말았다.

그럼 여기서 스탈린주의의 노선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이 노선은 너무도 다변적이었으며, 또 너무도 편파적이었다. 다음의 여러 사실을 보아서도 역시 알 수 있다.

#### 1920—1923

스탈린은 우익(右翼) 반대파인 카메네프, 지노비예프를 몰아내고 도리어 트로츠키파가 주장해 왔던 강제집단수용노동방안을 1929년부터 실시했다.

#### 1928—1930

리코프를 몰아내고, 농민과 노동자를 위해 항의한 톱츠키와 뿌카린을 제거했다.

#### 1935—1938

정치국(局) 위원들을 전반적으로 학살했다. 그 죄명인즉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하려는 트로츠키파와 같이 음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인민전선> 또는 <연합전선>이 구성되었다.

#### 1939—

스탈린은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 히틀러와 조약을 체결하려 한다고 해서 트로츠키를 비난하고 축출하고 한 그 자신이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리하여 발틱해 연안의 제국을 병합하고, 한편 베를린—로마—도교의 추축설(樞軸說)을 들고 영미를 적국시(敵國視)했다. 동시에 <연합전선>은 해체되었다.

#### 1941—

루즈벨트와 처칠에게 원병(援兵)을 간청하여 히틀러군대를 몰아냈다.

#### 1945—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2일 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본 전쟁에 가담했다. 그리고 알타 및 포츠담 회담석상에서 동구(東歐)제국에 공민권, 자유선거를 허락하겠다고 기만(欺瞞)했다.

#### 1946—1948

소련의 군대와 공산당원들은 동구제국의 소위 자유선거에 앞서 반대파 지도자들을 모조리 체포 처형하여 이른바 <선거는 선거 전에 이미 승리를 거둔> 결과를 낳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또한 공산정보국을 만들었다.

이상의 사실은 현대사상에서 다른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해괴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모살자(謀殺者)이며 음모와 허위의 능수인 그가 전 세계 각지의 공산당원으로부터 숭배를 받고, 더욱이 큰 2억의 인구에 달하는 국가를 30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두고 통치해 왔으며,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이면에 숨겨진 모든 사실을 아무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흔히 그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를 보고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한 나무는 어떠한 것인가는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스탈린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 없이 잘 이용하여 그 폭력수단과 조직을 가지고 오로지 자기 일개인의 대권(大權)을 장악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유럽인들은 스탈린을 동양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동양인들은 그를 유럽인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뿌카린은 언젠가 한 친구에게 말하기를 스탈린은 징기스칸의 후예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다. 또한 스탈린 자신도 1941년 어느 일본 의원에게 자기는 아시아인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스탈린의 출생지가 대강 아시아 가까이의 변경지역이라 생각되지만, 이상의 그러한 주장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상당히 큰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튼 스탈린이 죽은 뒤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의 추악한 이면을 들추어냄으로써 여태까지 스탈린을 구세주처럼 받들고 숭배해 오던 공산주의자들을 당황케 했다. 그 중의 한 좋은 예로서 중공괴뢰정권의 부수상(副首相)을 지낸 바 있는 시인들 간에 성행하는 유행에 따라 스탈린을 <사랑하는 태양>이니 <위대한 강철>이니 하고 구역질나는 소리를 지껄이다가 나중에는 어리벉벉하게 되었다. 이토록 오랫동안 공산주의자들에게 우러러 받들리던 스탈린이 땅에 떨어지고 그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역사가들까지도 그의 어마어마한 살인죄에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후르시초프의 연설은 자기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반응을 일으켰다. 아주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한 번 이야기해 보자. 가령 뉴욕의 시보광장(時報廣場)(Time Square)에 높이가 백여 척이나 되는 알 카포네(Al Capone)의 기념상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나 소련인은 매일같이 이와 비슷한 종류의 기념상을

보아야 한다. 심지어는 허다한 도시와 공장, 그리고 학교와 농장의 명칭까지도 또 하나의 알 카포네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것이다. 모스크바 베어링 공장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스탈린 애인의 형제 이름, 즉 카카노비치를 따서 부르고 있다. 물론 그 외에도 또 불가장변에는 스탈린그라드가 있고, 파이르코원에는 스탈린 아바드가 있고, 예전에는 쿠즈네츠크라고 불렀던 시베리아에 있는 신강철(鋼鐵)도시는 아직까지도 석탄 중심지는 스탈린스크라 불리고 있으며, 모스크바 동남방의 석탄 중심지는 스탈린 고르스크라 불리고 있다. 이상의 명칭보다 적어도 나에게는 카포네고르스크, 카포네스크, 카포네아바드 또는 카포네베어링 공장이라는 명칭이 훨씬 더 재미있고 매력적일 것 같다. 만약 텍사스가 온통 카포네 농장들로 꽉 차있고, 전미국 부처에 카포네 공업고등학교들이 짝 깔려 있다면 얼마나 우습겠는가!

또 만약 책 제목을 나는 알 카포네와 같은 인물이 되고 싶다고 한 교과서를 학교마다 가르치고, 마치 1947년 모스크바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교육이란 출판물을 냈듯 워싱턴 정부간행물로서 마르크스 카포네주의자의 교육이란 출판물을 내어 전미국 청년들에게 너희는 모두 카포네의 겸손과 소박함을 알아야 하고, 인민을 위한 그의 끝없는 관심과 인민의 적에 대한 그의 무자비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읽힌다면 얼마나 배꼽을 뺄 일이겠는가!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소비에트 정권의 새로운 그리고 상상도 못할 내 부모순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스탈린 동상은 성난 헝가리 노동자들 손에 파괴되었다. 스탈린상이 파괴된 그 자리에 이제는, 소련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루시초프의 성을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비엔나의 전 소련 점령지구에는 성카를로스교회당 부근에 아직까지도 100척이나 되는 스탈린상이 세워져 있어, 소련과 오스트리아 양국의 합의하에 이를 보호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아이들이 그 높다란 스탈린상을 볼 때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이 공산당의 한 신이 땅에 떨어진 이후 자자분한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생긴 이러한 모순된 사건들은 세계 각처의 사람들 마음 속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사학도들에 있어서 스탈린에 의해 행해진 모살(謀殺)의 갖가지 죄행은 그들을 미혹속에 빠뜨렸다. 이 살벌한 사실속칭극은 길버트(영국의 희가극 작가—역주)파의 유머와 풍자가 들어있다. 연극의 마지막 무렵, 즉 러시아 혁명의 두 번째 10년이 다 되어갈 때쯤에 지상에는 해골이 가득 찼다. 그 해골들 중에는 레닌의 정치국에서 일한 전위국에서 일한 전위원들과 구 볼셰비키회의 전회원들, 그리고 1934년 군사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들과 제17차 당대표 대회 대표 3분의 2, 그 중앙위원회의 위원 3분의 2가 되는 많은 사람들의 해골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자까지도 함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 카린의 열세 살밖에 안 된 그 딸의 이야기를 보아서도 당시의 처참한 꼴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돌연히 부모모들이 체포되어 재판도 없이 총살되자 그녀는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아무도 그녀를 감히 돌보아 주려 하지 않았다. 아무도 감히 그녀를 받아들여

그녀에게 살 안식처를 주려 하지 못했다(영어판 알렉산더 오를로프 pp.227-228). 레닌은 그가 죽기까지 최후의 1년 동안 헤어날 수 없는 걱정 속에서 살았다. 그는 자신이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발명하고 모든 심혈을 모아 그 차의 힘이 견잡을 수 없는 폭발성의 힘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레닌은 사진이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 없는 이 차를 몰았다. 그러나 그는 중풍에 걸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1922년 12월 25일 그는 볼셰비키당에게 주는 정치유언을 썼다. 이 유언 중에서 그는 당내에 분열의 기미가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가 특별히 걱정한 것은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분열이었다. 그 유언의 말을 인용해 보면, 내 생각에는 어딘지 모르게 분열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스탈린과 트로츠키같은 이러한 중앙의원들 사이에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탈린 동무는 이미 총서기가 되었고 거대한 권력을 자기의 손아귀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그 거대한 권력을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일에 이용할지 감히 단정 지을 길이 없습니다 라 했다. 레닌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이 유서를 쓰기 3일 전에 레닌은 그의 부인에게 시켜 스탈린에게 보내는 짧은 편지를 씌운 적이 있다. 한편 스탈린은 그의 영유인 레닌의 중풍이 다시 한번 재발해 봤으면 하고 원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레닌의 부인 나테즈다 콘스탄티노브나 크루프스카야에게 전화로 그녀를 희롱하고 또 험박 공갈했다. 12월 23일 유서를 쓰기 이틀 전에 크루프스카야는 카메네프에게 그들을 도와 달라는 편지를 썼다.

### 김유신장군의 용단

김유신장군이 아직 청년시대의 일이었다. 그는 모든 일에 있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곧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한때 그는 천관이라는 기생에게 빠져서 밤이면 천관을 찾아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훈계로 잘못을 깨닫고는 두 번 다시 천관을 찾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달 밤이었다. 김유신은 화랑들과 늦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 위에서 즐겼다. 말은 천관의 집으로 가는 길로 들어갔다. 그 길은 밤마다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다. 천관의 집에 거의 다 갔을 무렵에 김유신은 말이 천관의 집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리 짐승이기로서니 내가 금하고 있는 길을 모른다니 이래서야 장차 어떻게 내가 3국을 통일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허리에 찼던 칼을 뽑아 사랑했던 말의 목을 벤 뒤에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 제3제국의 멸망(滅亡)

—W·L 사이러 저(著)—

#### 도이칠란트 정복(征服)

7월 2일에 있었던 폭탄사건의 충격으로부터 겨우 정신을 수습했을 무렵, 히틀러는 프랑스, 벨기에 및 동방 광대한 정복지역의 상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연합군은 사면팔방에서 도이칠란트 본토를 향해 조수같이 밀려 들러 하고 있었다.

1944년 8월경 소련군은 동프로이센의 국경까지 다가왔고, 발틱 지역의 도이칠란트군 50개 사단을 통조림처럼 가두어 버린 채 핀란드에 침입하여 중앙군단을 분쇄함으로써 이 방면의 사백 마일에 이르는 전선을 6주간에 비스츨라강 바르샤바 건너편까지 진출시켰다. 한편 남방에서는 8월말에 루마니아가 점령되고 동시에

도이칠란트의 유일한 주요 천연석유근원인 플로에슈티 유전을 잃었다. 8월 26일 불가리아는 정식으로 전쟁에서 손을 떼고, 도이칠란트군은 황급히 불가리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9월에는 핀란드가 손을 들었고 영토 안에서 철퇴를 거부하는 도이칠란트군에 총을 돌려대기 시작했다. 서부에서는 프랑스가 순식간에 해방되었다.

8월말 경 서부의 도이칠란트군은 50만을 잃고, 그 중 절반은 포로가 되었으며 모든 전차, 중포, 트럭을 빼앗겼다. 도이칠란트 본토를 방위할 만한 자는 얼마 되지 않았다. 9월 4일 서부군 총사령관으로 다시 취임했던 룬트슈레트 장군은 전후 연합군 조사관에게 “나에게 관한 한 전쟁은 사실상 9월에 끝났습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로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대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계획이 떠올랐던 것이다. 1940년 대돌파작전이 시작된 장소인 아르렌스에서 급습으로 대공세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도이칠란트 첩보부는 아르렌스를 수비하는 미군이 4개사단에 불과한 약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대 영단을 내린 대담한 작전이었다. 연합군에게는 불의의 습격일 것이 분명하고 퇴세를 만회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이것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히틀러는 상상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도이칠란트군, 특히 공군은 1940년 보다는 약체일 뿐 아니라, 이에 대항하는 연합군은 한층 더 기략(機略)이 풍부하고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 도이칠란트 장군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여 히틀러의 주의를 촉구했다. 11월 중순경, 이 계획을 받은 룬트슈레트 장군은 질려 버렸다. “히틀러는 나와 의논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토록 야심적인 계획을 실시함에는 소유하고 있는 병력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나로서는 너무나 뻔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와의 논쟁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무익한 것이었다.

12월 12일, 히틀러의 본부에 집합한 도이칠란트군 장군들의 눈에 비친 히틀러는, 혈기없이 부서부서한 얼굴에 허리는 구부러지고 의자에 걸쳐 놓은 손은 떨렸으며, 왼팔은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다. 확실히 병자였다. 걸을 때는 한 쪽 발이 뒤에서 끌리고 있었다.

그러나 히틀러의 정신만은 옛날과 다름없이 타는 듯한 정열에 가득 차 있었다. 히틀러는 말했다.

“적으로부터 승리에 대한 신념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쟁은 결국 어느 한 편이 이길 수 없음이 확실할 때 비로소 승부는 결정된다. 우리들은 적이 어떠한 일을 하건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에게 명심시켜야 한다. 결단코 우리들은 항복하지 않는다.”

이 격려 연설이 귀에 쩡쩡 울려오는 듯한 기분에서 해산했으나 장군들은 그때 누구도 아르렌스의 공격이 성공하리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능력을 다해서 명령을 실시할 각오였다. 그리고 그들은 실상 그렇게 했다.

12월 15일 밤은 어둡고 서리가 많이 내렸으며, 도이칠란트군이 75마일 전선의 공격지점에 이동했을 때는 아르렌스의 눈 덮인

산림의 황량한 구릉 지대에는 안개가 끼어 있었다. 도이칠란트의 기상관측관은 그러한 천후(天候)가 며칠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그 동안 연합군의 공군은 출격할 수 없으므로 도이칠란트 측 보급부대는 노르망디에서와 같은 쓰라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악천후는 5일간 히틀러의 행운을 지속시켰다. 도이칠란트군은, 연합군에게 완전히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16일 아침 벽두의 침투가 있을 후 수개 처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히틀러의 아르덴느 공격 도박의 전기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결정적으로 오고야 말았다. 도이칠란트 기갑사단의 한 정찰대대는 뮤즈의 동방 3마일의 디난의 고지에 도달하고 전차를 위한 가솔린의 보급과 얼마간의 중원부대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솔린도 중원부대도 도착하지 않았다. 미군의 기갑사단이 돌연 북방에서 엄습해 왔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일기는 맑게 개이고 연합군의 공군은 도이칠란트의 보급선이나 꾸불꾸불한 산길을 이동하는 부대와 전차에게 대규모의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도이칠란트군으로서도 섬멸당하기 전에 좁다란 회랑으로부터 부대를 구출해 내는 것이 선결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어떠한 후퇴도 용납하지 않았다. 히틀러는 공세를 재개하여 바스뜨느에 맹공을 기하고 뮤즈에서 진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새로운 공격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히틀러는 장군들에게 말했다.

“제군의 모든 정열을 다 기울여라. 그리고 우리는 아메리카군을 완전히 분쇄한다. 우리들은 아직은 여전히 운명의 지배자이다.”

그것은 뒤늦은 말이었다. 도이칠란트는 히틀러의 말을 현실화할 만한 군사력을 이미 가지고 있지 못했다.

히틀러가 아껴 두었던 병력, 중포(重砲), 탄약 등 최후의 예비군을 투입했던 공세를 개시한 후 꼭 한 달째 되던 1월 16일에는 도이칠란트군은 공세의 출발점이었던 전선의 제자리에 돌아왔다. 이것이 제2차 대전에서의 도이칠란트군의 최후의 대공세였다. 공세의 실패는 서부에서의 패배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동부에서도 최후의 보충 병력을 아르덴느 공세에 투입한 영향이 나타나 도이칠란트군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이르렀다.

### 도이칠란트군의 붕괴(崩壞)

제3제국의 종말은 1945년 이른 봄부터 시작되었다.

2월 8일 아이젠하워 장군 예하의 미군은 85개 사단의 당당한 대병력으로서 라인강에 육박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만 도이칠란트군이 지연작전으로 그 병력을 유지하며 넓고 깊은 강물의 거대한 장벽의 배후에 후퇴하려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히틀러는 언제나처럼 퇴각을 응낙하지 않았다.

이야말로 히틀러 추종자에게는 그가 적군뿐 아니라 자기 국민들까지도 피바다를 이룬 지옥 속에 같이 떨어지려는 히틀러의 결의의 최초의 표현의 하나였다. 히틀러는 급속히 육체적으로 약화되었으며, 그것은 그의 판단을 혼탁케 했다. 1945년 전선으로부터의 뉴스가 점점 더 악화되자 한층 더 히스테리적으로 발작했으며 손발이 떨리고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구데리안 장군은 후에 당시의 히틀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먹을 쳐들고 얼굴은 분노에 별장게 상기하여 전신을 부들부들 떨며 나의 앞에 다가서서 광란(狂亂)으로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있었다. 그의 말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고 눈알이 얼굴에서 튀어 나올 듯 했으며 관자놀이에는 푸른 핏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도이칠란트 육군의 종말은 가까워 오고 있었다.

4월 16일에는 미군이 뉘른베르크에 도달했으며, 소련군은 4월 21일 하오에 베를린 교외에 도달했다. 비엔나는 4월 13일 이미 함락되었다. 4월 25일 하오 4시 40분 미소(美蘇)양군은 엘베강에서 접촉했다. 도이칠란트의 남부와 북부는 양단되어 두 토막이 된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는 베를린에서 고립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제3제국 최후의 날이 오고야 말았던 것이다.

### 제3제국 최후의 날

에바 브라운은 4월 15일 히틀러와 같이 있기 위해 베를린에 도착했다. 도이칠란트인으로서 에바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더욱이 히틀러와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12년 이상이나 히틀러의 정부(側室)였던 에바는 이제 결혼과 죽음의 의식을 한꺼번에 이루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히틀러는 모든 일에 조심성이 있고 까불지 않는 그녀와 같이 있는데서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 그녀를 무척 좋아했으나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꺼려하여 베를린에 오는 것 까지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산상의 별장(別莊) 베르호프에 틀어박힌 채 사랑하는 남성의 공방을 지키기 위해 뜬 세월을 보낼 따름이었다. 에바는 일생의 거의 전부를 히틀러를 기다리느라고 살아왔다.

히틀러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이별의 시간을 참을 수가 없어 처음에는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점차로 스스로의 만족치 못한 입장을 받아들이는 심정이 되어 위대한 남성의 단 하나뿐인 여성 친구로 만족하며 히틀러와 같이 있는 시간에는 그를 만족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무척 애를 썼다.

4월 20일, 히틀러의 탄생일은 평온하게 지냈으나 그로부터 며칠 사이에 소련군은 제3제국의 수도 베를린을 공략하려 하고 있었다. 히틀러는 베를린 남부의 소련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반격을 시도할 것을 명령했다. 공군 지상부대를 포함해서 베를린 지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한 명까지 동원하도록 지시했으며 부하를 동원하지 않고 보유하는 사령관은 다섯 시간 내에 처형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도이칠란트군의 반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극도의 절망 속에 있던 열면 독재자의 심중에만 있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히틀러는 당시에 외부세계와의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 있었으며, 유일한 연락은 선정성 무선반파의 통신 및 전선을 뚫고 간신히 전달되는 전령뿐이었던 것이다. 소련군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며, 대피호에 갇혀 있는 그들은 외부세계의 뉴스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선전성의 무선반파 포위당한 베를린 시의 외부세계 뉴스를 알려 왔다. 그것은 하인리히 힘러의 항복교섭과 서방의 도이칠란트군의 항복을 아이젠하워에게 신청했다는 BBC방송보도였다. 힘러의 절대적인 충성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히틀러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큰 타격이었다. 히틀러의 피부는 분노로

타는 듯이 붉게 변했고 얼굴을 일그러졌다. 이 타격은 소련군이 1블럭 밖에 까지 육박했고 그들이 있는 곳까지 30시간 내에 도달할 것이라는 뉴스와 함께 히틀러의 최후가 닥쳐왔음을 알렸다.

최후의 순간인 4월 29일 하오에, 히틀러는 최후까지 충실한 정부(情婦) 에바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여 정식으로 결혼했다. 히틀러는 입버릇처럼 결혼은 당과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말해 왔다.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도 없어졌고, 그 생애의 종말이 가까워서 앞으로 겨우 몇 시간 밖에 지속되지 못할 결혼생활에 들어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것이다.

대피호 안에서 간단한 식이 거행된 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결혼피로연이 배풀어졌다. 잠시 동안 이야기는 즐거웠던 옛 날이나 전성시대의 당동지들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 최후의 순간에 와서도 신앙은 예나 다름 없이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나마도 마지막이었다. 국가사회의 주역도 역시 마지막이며 그를 지지한 동지들로부터 배반당한 이 마당에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일종의 해방일 것이다. 결혼피로연은 이윽고 눈물과 슬픔으로 변했다. 히틀러도 마침내 자리에서 빠져 나와 옆방에 있던 비서에게 유언서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히틀러는 막다른 최후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격에 충실했다. 위대한 승리의 모든 것은 모두 자기의 덕택이며 패배와 최후의 실패는 다른 자들의 불충실한 배신 때문이라고 했다.

4월 29일 하오, 외부로부터의 최후의 뉴스 중의 하나가 대피호에 전달되었다. 히틀러의 침략의 길동무였던 무솔리니가 코모에서 스위스로 도망하려다가 26일 이태리 게릴라 부대에 정부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붙들려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유해는 트럭으로 밀라노에 운반되어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광장에 던져졌다. 이러한 뉴스는 히틀러에게 자기와 신부가 살아서건 죽어서건 히스테리적 균중을 즐겁게 하는 구경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결심을 굳게 하도록 했을 것이다. 무솔리니의 죽음의 뉴스를 들은 다음 얼마 아니 되어 히틀러는 자신의 최후를 맞이할 준비에 착수했다.

4월 30일의 정오의 정보검토회의에서 소련군이 한 마장 밖에 다다랐음이 보고되었다. 히틀러가 그의 결의를 실행할 시기가 닥쳐온 것이다.

히틀러와 에바는 최후의 이별을 고하자 각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 밖의 통로에서 게벨스 박사 및 그 이외의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피스톨 소리가 들렸다. 두 번째 총소리를 기다렸으나 끝내 정적이 흐를 뿐이다. 그들은 조용히 히틀러 방에 들어갔다. 히틀러의 시체가 소파 위에 길게 뻗은 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입을 통해서 총을 쏜 것이었다. 그 옆에 에바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독약을 먹었던 것이다.

시체를 뜰에 운반해 내어 포격이 멈췄을 때를 기다려 웅덩이에 넣고 가솔린에 불을 붙였다. 불을 붙이고 난 일동은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대피호를 들어갔으며, 히틀러와 그의 정부가 이 세상에 남긴 유해는 가솔린의 불길에 맡겨 두었다.

그것은 1945년 4월 30일, 하오 3시 30분, 히틀러가 제3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날 수까지 세어서 12년 3개월 되던 날이었다.

제3제국은 히틀러가 죽은 후 일주일간 더 연장되었다. 5월 1일 밤 10시 조금 지나서 함부르크 라디오는 브루크너의 제7번 교향곡의 방송을 갑자기 중단하고 히틀러의 죽음을 알렸으며, 테니츠 제독이 그 후계자로 임명되었음을 방송했다. 테니츠 제독은 도이칠란트군의 저항이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도이칠란트군은 4월 29일 이미 무조건 항복했다. 5월 4일 도이칠란트군 최고사령부는 북서 도이칠란트, 덴마크, 네덜란드에 있던 전 도이칠란트군을 통틀어 항복했다. 다음날 알스프 북방에 있던 도이칠란트의 군단이 투항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본영(本營)으로 하고 있던 프랑스의 조그만 국민학교 교사에서 도이칠란트는 1945년 5월 7일 새벽 2시 41분 무조건으로 항복했다. 1945년 5월 8일과 9일에 걸친 한밤중에 유럽 천지에서 총성은 멎었으며 1939년 9월 1일 이래 처음으로 대륙에서 정적이 깃들었고, 제3제국은 역사의 사실로 화해 버리고 말았다.

(끝)

<141 P에서 계속>

있는 사람은 거개가 소화불량(消化不良)에 있다는 걸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산모가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면 영아의 건강은 보나 마나다. 이 대우문제(待遇問題)는 구대장(區隊長)의 토기와 또 그것이 후보생 교육면에 미치는 영향과 직결되어 있다.

끝으로 특히 구대장 선발문제(選拔問題)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매년 많은 장병(특히 장교)이 배출된다. 가장 중요한 이 구대장 자리를 맡아 볼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발해야 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이것은 지휘관이 특히 고려(考慮)해야 할 문제일 것 같다.

#### 4. 맺는 말

짧은 경험이나 구대장에 있으면서 그때 그때 느낀 바를 간단히 적어 보았다. 현대전의 공군위치로 보나, 공군자체의 특성으로 보아 그 어느 직책인들 중 대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모든 공군력의 근원인요, 군기(軍紀)의 요람인 기본교육 담당(부처擔當部處) 일선에서 일하는 구대장 직분은 더욱 중대하면서도 애로가 많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 장병 일반의 새로운 인식과 지휘관의 보다 적극적인 후방 지원(支援)과 함께 구대장에 있는 장병 공히 직책의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는 용기와 자신 있는 임무수행이 병진(併進)한다면 공군은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 편집후기



☆...읽을 만한 책, 제 때에, 제대로 낸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통감한다. 편집계획서부터 원고청탁, 수집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요즘엔 용지(用紙)난까지 곁들여서 안팎으로 수난(受難)의 연속이다.

왜 요새는 「공군」지가 뜸하냐는 물음에는 그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공군」지의 편집경향에 관해서 여러 장병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대체로 교양, 문예, 오락물의 비중이 적은 것에 아쉬움을 말했다. 앞으로 좀더 연구하고 다듬어서 장병들이 원하는 책을 내기에 힘쓰겠다. 다만 「공군」지가 일반 대중지(大衆誌)와는 달리 군의 정신무장을 다루는 정훈지(政訓誌)라는 점만은

알아주기 바란다.

☆...꾸준히 투고해 주시는 장병들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나 수필등의 문예물이다. 물론 좋다. 그러나 그보다도 각 분야별로 일상근무를 통한 체험담이나 생활수기, 건설적인 제언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내 주면 좋겠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찾는 터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특히 조종사나, 정비, 관제, 통신 등 일선에서 수고하는 장병들의 투고를 환영한다. (현)

☆...이번호에는 특집 세 가지를 엮어 보았다. 첫째, '상관론' '□□'은 상관과 부하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상경하애(上敬下愛)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필히 일독을 권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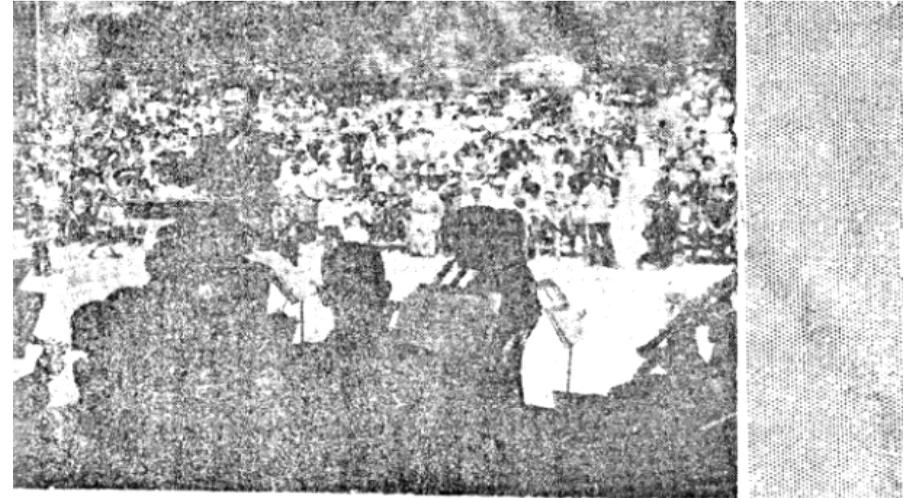
둘째, '마음의 혁신 생활의 혁신'은 현재의 자세에서 보다 슬기로운 생활태도를 모색하는 데 좋은 '방향타(方向舵)'가 되리라 믿는다. 또한 이 주논문(主論文)을 뒷받침하는 뜻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주변'은 우리보다 앞선 독일, 영국,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관(生活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셋째, '2세를 위한 장'은 기혼장병들의 자녀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엮어 본 특집인데 자라나는 2세들에게 다소나마 영양소가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그리고 이번엔 군사 번역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과 '소련의 핵전략을 해부(解剖)한다. 두 가지를 연재하기로 하였다.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의 전략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과거의 전략론도 깊이 연구하여야 될 줄 안다.

☆...제3제국의 '홍망'은 이번호의 7회로서 끝을 맺었다. 어쩐지 시원섭섭하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나은 연재물을 실려 보도록 노력하여 보겠다. (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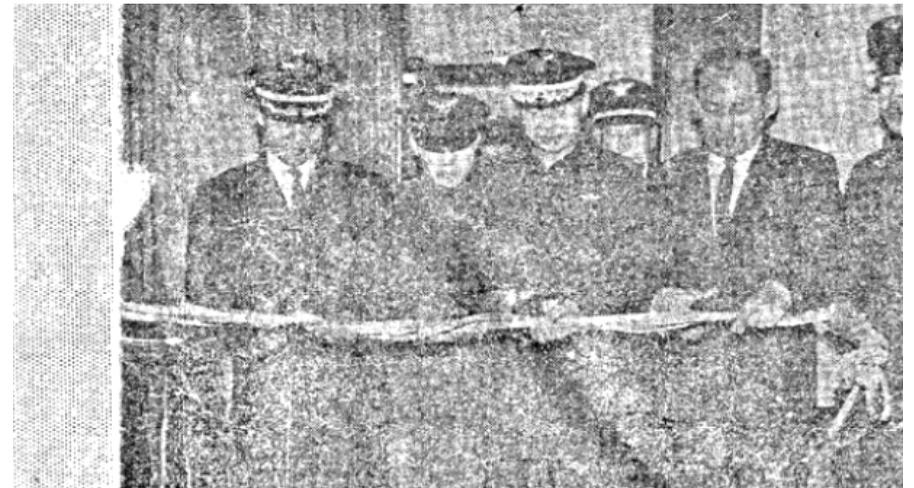


### 공군교향악단 시민위안(市民慰安) 연주(演奏)

공군교향악단은 4월 27일 벚꽃이 만발한 창경원(昌慶苑)에서 다채로운 프로로 시민위안 연주를 베풀었다.

### 공군4인시화전

공군 사병 4인 시화전이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열렸다.



꿈은 하늘에  
정열은 일터에

우리의 힘

기술향상

국민정국해방

국민의대

군기확립



공군

공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